

建築士

대한건축사협회誌 AUGUST 1988 NO. 236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1988년 8월 10일 발행 (제236호) 1988년 8월 10일

천정판

과 때문입니까?
기후가 해결했습니다.
이들은 건축자재중 흡음율이
로 실내소음에 대한 흡음율이
실내공간을 만들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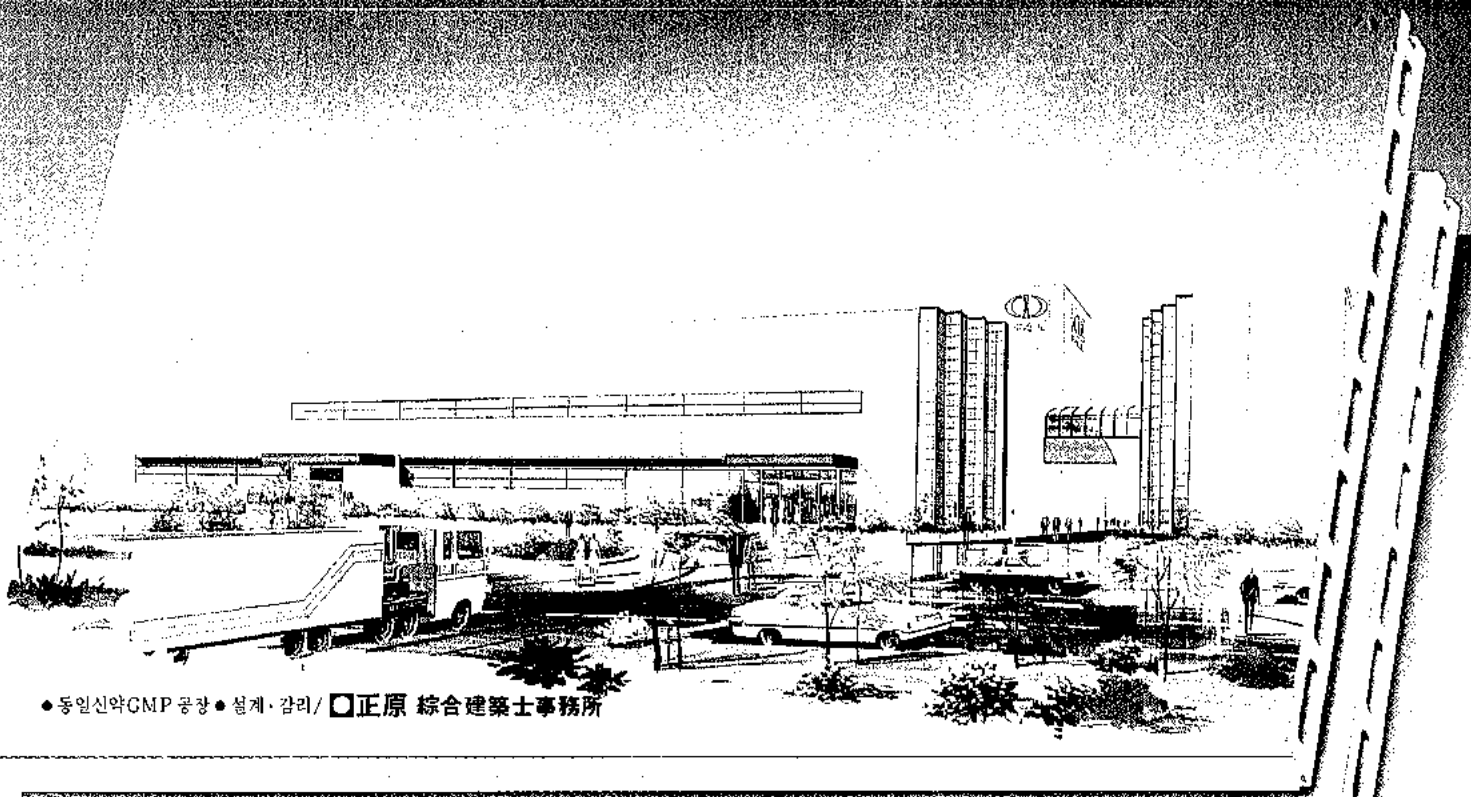
한 때문입니까?
공간미이론이 해결했습니다.
이들은 산뜻하고 아름다운 다
있어 실내분위기를 깨끗하고
합니다.

단열 때문입니까?
공간미이론이 해결했습니다.
이들은 불연재 임면이 주원
있어 열전도율이 매우 낮아
됩니다.

시공문제 때문입니까?
이론이라면 문제없습니다.
미이론은 종래의 천정판에 비
기 때문에 건물의 하중을 줄여주
작용을 갖추고 있어 사용·보
수·점검을 천정에 경제적
한 공장의 공간 미이론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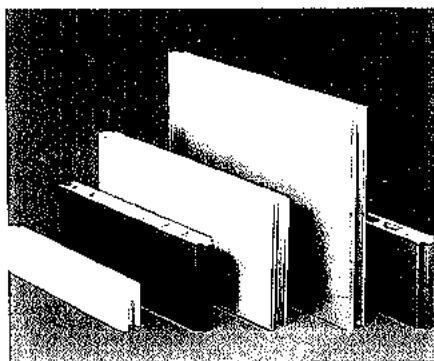
흡음 불연 단열천정판
MITO
MITO

1988. 8



● 동일신약CMP 공장 ● 설계·감리 / **正原** 綜合建築士事務所

미려한 건축물을 계획하신다면 베이스판넬을 선택하십시오.



베이스란 시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량의 조립식 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차음,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재입니다.

경량성 / M²당 무게가 50kg으로 건물의 구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 / 내동결 용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안정성 / 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시공후 수축, 팽창, 뒤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의장성 / 건물의 외관에 따라 판넬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감성 / 타일, 본타일, 페인트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내진성 / 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용도 / 건축물의 외벽·칸막이·계단·도로변의 차음벽

치밀한 고강도의 압출제품

벽산 베이스

● 제품·시공문의상담 / 273-9211~9 (구내281) 베이스사업부

제14회

建築士設計作品 巡廻展 作品公募

The 14th Architects' Design Show

本協會에서 年例行事로 開催하는 建築士設計作品 巡廻展을 다음과 같이 開催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88서울올림픽이 開催되고 또한 本協會에서 아시아지역 건축사대회를 개최하면서 本展示會를 병행 개최하게 됨에따라 아시아지역 13개국 建築士와 기타 세계각국의 參觀國 建築士들에게 作品이 公開됨을 감안, 작품 접수 마감일을 엄수해 주시고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수준높은 作品을 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종합작품집 제작에 필요한 자료제출 마감일 8월 30일을 엄수하여 「작품집」이 전시회 개최와 동시에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품요령

1985년부터 1988년 7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준공된 작품중 본협회가 주최한 전시회에 출품하지 아니한 작품.

■ 패널제작 방법

- 패널크기: 90cm×90cm (가로×세로)
- 패널에 게첨된 내용이 순회 운송중 파손되지 않도록 부착할 것 (유리, 스티로폴 등 충격에 약한 재료사용 금함).
- 벽면에 간편하게 걸 수 있도록 패널후면에 고리를 부착할 것.
- 가벼운 목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제작할 것.
- 패널수량: 1작품당 3개 이내
- 우측 상단에 출품자 사진(명함판)을 부착하고 건축사 사무소명을 기재할 것 (단, 작품명, 사무소명, 출품자명은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

■ 출품마감

- 종합작품집 제작에 필요한 자료:
패널에 게첨된 내용과 동일한 별도의 흑백사진·설계개요·인물사진을 8월30일까지 제출 (작품명, 사무소명, 출품자명은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
- 패널접수: 9월15일까지 제출

■ 시상내용

- 대 상(1): 건설부장관상
- 최우수상(2): 협회장상
- 우 수 상(2): 협회장상
- 장 려 상(6): 협회장상

■ 기타 유의사항

-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만이 시상대상이 됨.
- 제출처 및 문의처: 본협회 출판사업부 (581-5711~4)

■ 후원

- 건설부

 大韓建築士協會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표지 : 공중에서 본 올림픽 주경기장 (잠실)
일대전경

發行人 : 安箕泰

編纂弘報委員會

委員長 : 朴榮翼

副委員長 : 尹錫祐

委員 : 金琪碩, 卞鎔, 金品東, 趙聖烈

編輯 : 出版事業部

發行處 : 大韓建築士協會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 137-071

電話 : 代表 (02) 581-5711, 581-5712~4

팩시밀리 : (02) 586-8823

텔렉스 : KIRAA 33550

登錄番號 : 第라-1251(月刊)

登錄 : 1967年 3月 23日

U. D. C. : 69/72(054-2) : 0612(519)

印刷人 : 全允圭 (洗文精版社 712-2329)

Publisher: An, Kie-Tao

Editorial Information Committee

Chairman: Park, Young-Ik

Vice Chairman: Yun, Suk-Woo

Member: Kim, Ki-Seok

Byun, Yong

Kim, Chung-Dong

Cho, Sung-Yul

Editor: Editorial Committee

Assistant Editor Publishing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5-070

TEL: (02) 581-5711, 581-5712~4

FAX: (02) 586-8823

TLX: KIRAA 33550

Registered Number: Ra-1251

Registered Date: March 1967

U. D. C.: 69172(054-2) : 0612(519)

Printer: Jeon, Yun-Kyu

(Kwangmoon Printing Co.)

建築士

차례

1988년 8월호 (통권 233호)

論 壇

6 無 題..... 安將元

會員作品 (올림픽 관련시설)

8 주경기장..... 故 金壽根

10 부산 요트경기장..... (주) 서울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12 선수촌·기자촌..... 黃一仁+禹圭昇

14 '88서울올림픽기념 상징조형물..... 故 金重業

16 체조경기장..... 柳春秀+공간건축

18 역도경기장..... (주) 서울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20 자전거경기장..... 故 金壽根

21 펜싱경기장..... 金基哲

22 실내수영경기장..... 故 金壽根

24 ARCASIA회원국 출판작품(India편)

29 제3차 아시아建築士大會 학술토론회 (2)

批 評

32 스위스 그랜드호텔을 보며..... 許範八

34 建築批評 2題..... 安秉義

研 究

40 한국의 전통건축圖 / 三國時代의 建築文化..... 張慶浩

44 傳統劇 公演場의 建築要素 (2)..... 金基哲

50 올림픽 현장을 통해서 본 中繼放送設備..... 姜泰權

54 造景圖 / 어린이놀이터..... 吳尚坪

설계경기

59 광주 건축사회관 건립 현상설계

66 부산 건축사회관 건립 현상설계

80 이 시대 建築士들의 獨白 / 政治와 行政의 差異는 (2)..... 崔昌奎

82 건설부고시

84 協會消息

87 新入會員

88 6월분 도서신고 현황

분류번호	建築士誌
도서번호	통권 제 233 호
구입년월일	1988. 8. 31.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지부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전국시도지부 및 본소 건축상담실 안내

서울특별시지부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1603-55 /

581-5715-8

서대문본소 / 서대문구의회 169-16 / 333-1873

관악본소 / 관악구의회 1422-17 / 888-6744

도봉본소 / 도봉구의회 191-13 / 903-3425

영등포본소 / 영등포구의회 3가81 / 634-2143

강동본소 / 강동구의회 317-4 / 484-6840

강서본소 / 강서구의회 1105-5 / 695-0787

성동본소 / 성동구의회 252-16 / 446-5244

봉천본소 / 봉천구의회 101-7 / 923-6213

종로본소 / 종로구의회 201-1 / 735-0905

마포본소 / 마포구의회 250-4 / 712-8844

송파본소 / 송파구의회 50-12 / 423-9158

송구본소 / 송구구의회 11-2 / 252-6507

용산본소 / 용산구의회 1가 129-22 / 712-7647

서초본소 / 서초구의회 1동 1623-1 / 586-7707

은평본소 / 은평구의회 103-12 / 356-7172

동작본소 / 동작구의회 147-79 / 599-6754

강남본소 / 강남구의회 241-6 / 545-0757

노원본소 / 노원구의회 617-6 / 976-1836

양천본소 / 양천구의회 1027-9 / 646-7172

중랑본소 / 중랑구의회 516-41 / 491-0925

성북본소 / 성북구의회 5가 410 / 923-4401

구로본소 / 구로구의회 130-32 / 864-3988

부산직할시지부 / 부산직할시중구의회 1가 1 (부산대파트내)

(051) 23-6284-5

대구직할시지부 /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3가 1-8 /

(053) 72-5141-2

광주직할시지부 / 광주직할시동구의회 323-11 / (223) 521-7598

인천직할시지부 / 인천직할시남구의회 1동 558-1 /

(032) 424-0146, 5100

(한국종합빌딩 204호)

경기도지부 / 경기도수원시의회 3가 124-5 /

(0331) 42-6490, 7072

안양본소 / 안양시의회 719-9 / (0343) 2-2698, 2-0012

부천본소 / 부천시의회 74-6 / (032) 63-3144

성남본소 / 성남시의회 5512 / (0342) 2-5445

외곽본소 / 외곽부서의정부 182 / (0351) 2-1083

송탄본소 / 송탄시의회 21 / (0333) 4-6153

고양본소 / 고양시의회 38로 16로트 / (0344) 63-8902

구미본소 / 구미시의회 409-2 / (0346) 63-8112

이천본소 / 이천시의회 216-3 / (0336) 2-3396

평택본소 / 평택시의회 464-7 / 682-2375

강원도지부 / 강원도춘천시의회 99-5 / (0361) 2-2442

원주본소 / 원주시의회 206 / (0371) 42-3257

강릉본소 / 강릉시의회 8 / (0391) 2-2262

속초본소 / 속초시의회 468-66 / (0392) 2-5061

삼척본소 / 삼척시의회 55-43 / (0397) 2-3106

영월본소 / 영월군의회 1리 959-35 / (03732) 2659

충청북도지부 / 충청북도청주시의회 2가 116-168 /

(0431) 2-2752

충주본소 / 충주시의회 673-1 / (0441) 2-3082

제천본소 / 제천시의회 8-8 / (0443) 2-6253

옥천본소 / 옥천군의회 441번지 / (0433) 2461

충청남도지부 / 충청남도대전시의회 487-1 /

(042) 22-4088

천안본소 / 천안시의회 160-14 / (0417) 2-4551

홍성본소 / 홍성군의회 239-1 / (0451) 2-2853

부여본소 / 부여군의회 710-2 / (0463) 2-2217

전라북도지부 / 전라북도전주시의회 635-5 (대륙빌딩 508)

(0652) 3-3881

익산시본소 / 익산시의회 1가 77-22 / (0653) 52-3304

군산본소 / 군산시의회 1가 185 / (0654) 2-4060

남원본소 / 남원시의회 106 / (0671) 2-6002

전라남도지부 / 전라남도사곡군의회 783-23 (추신회관)

(062) 364-7567

목포본소 / 목포시의회 1번지 / (0631) 43-3348

순천본소 / 순천시의회 51-11 / (0691) 3-2457

여수본소 / 여수시의회 441번지 / (0662) 64-7023

경상북도지부 / 대구직할시중구의회 1285번지 /

(053) 425-4904

포항본소 / 포항시의회 96-70 / (0562) 74-9713

경주본소 / 경주시의회 100-11 / (0561) 3-7743

구미본소 / 구미시의회 256-2 / (0546) 52-7903

안동본소 / 안동시의회 29-5 / (0571) 2-6635-6

김천본소 / 김천시의회 280-1 / (0547) 2-2541

영주본소 / 영주시의회 4동 470-17 / (0572) 2-4566

점촌본소 / 점촌시의회 261-2 / (0581) 2-2706

황주본소 / 황주시의회 11-3 / (0582) 2-4306

경상남도지부 / 경상남도마산상동의회 3가 3 /

(0551) 2-4530-1

울산본소 / 울산시의회 585-6 / (0522) 74-8836

진주본소 / 진주시의회 7-20 / (0591) 2-6403, 42-3434-5

충무본소 / 충무시의회 177-101 / (0557) 2-2504, 2-7420

김해본소 / 김해시의회 25B-17L / (0594) 2-3155

밀양본소 / 밀양시의회 67-1 / (0527) 53-2110

거창본소 / 거창군의회 483-9 / (0598) 2-3777

양산본소 / 양산시의회 500-3 / (0523) 4-2669

거제본소 / 거제군의회 139-2 /

(0558) 32-1086, 2-3372

제주도지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도 1동 1289-6 / (064) 22-3248

52-3248

서귀포본소 / 서귀포시의회 425-1 / (0642) 62-3920, 3322

CONTENTS

August 1988 Vol. 233

FOCUS

No Title An, Chang-Won 6

WORKS(Olympic Facilities)

Main Stadium Kim, Swoo-Geun 8

Pusan Yachting Center SAC International, Ltd. 10

Olympic Town Whang, Il-In & Woo, Gyu-Seung 12

'88 Olympic Monument Summary Kim, Chung-Up 14

Gymnastic Stadium Ryu, Choon-Soo & Space Group of Korea 16

A Gymnasium for the Weight Lifting SAC International, Ltd 18

Velodrome Kim, Swoo-Geun 20

Fencing Gymnasium Kim, Kee-Chu 21

Indoor Swimming Pool Kim, Swoo-Geun 22

ARCHITECTURAL WORKS FROM THE ARCASIA MEMBER COUNTRIES (INDIA)

SPECIAL ISSUE / Introduction of the ACA-3 Conference

CRITICISM

Comment on Swiss Grand Hotel Heo, Beom-Pal 32

Review the Two Architectural Works An, Byung-Wue 34

REPORT

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Three Kingdom Chang, Kyung-Ho 40

Architectural Elements of the Proper Theater for the Traditional Korean Dramas Kim, Kee-Chul 44

Broadcast facilities of Olympic Kang, Tae-Keun 50

Fine Perspective 4 / Children Pleasure Resort Oh, Sang-Pyung 54

COMPETITION

Developed design of Kwangju Architects Hall 59

Developed design of Busan Architects Hall 66

COLUMN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Politics and Administration? Choi, Chang-Kyu 80

ANNOUNCEMENT OF MINISTRY OF CONSTRUCTION

KIRA NEWS

NEWLY ADMITTED MEMBER

STATUS OF ARCHITECTURAL RECORD-JUNE

無 題

安將元 / 건축사사무소 신아건축
by An, Chang-Won

戊辰年은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開催하는 뜻깊은 해다. 歴史的으로보나 文化的으로보나 처음있는 大行事요, 우리의 모든것이 온세계에 보여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대잔치요, 세계의 주인이되는 해다. 따라서 우리 建築界도 例外가 될수는 없다.

아카시아총회, 각종 국제세미나, 학생캠프, 각종 전시회, 이러한 行事들을 통하여 21세기를 向하는 새로운 우리 모습과 5천년 역사와 文化를 다함께 그들의 눈에 자연스럽게 비춰주고, 평가받아서 한국인의 存在가 새삼스럽게 確認되어지리라 생각한다. 특별한 행사들은 건축인의 사회조직인 협회들이 중심이되어 그 文化에 同參하게된다. 그 行事要員은 他分野에 되지않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서 함께 共存하는 社會像을 만들게된다. 發展과 調和를 이룰수 있는 社會는 各分野가 最善의 길은 건되 그들과 共存할 수 있는 努力과 問題를 푸는 尺度나 基準이 중요하며 必要하다.

어느 특정인, 어느 團體를 위한것이 아니라 建築行爲와 그것을 수행해 나가는 모든 건축인의 노력으로 성숙되어야한다. 조선일보 8월 2일자에 "문화예술축전"이란 칼럼더가 8/17~10/5까지 스케줄로 실어 놓았다. 각종전시회, 축제, 토론회가 있어도 건축이라는 문화예술은 없다. 그 축제기간만 건축분야는 문화예술창달이라는 숙명적 슬로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행사에 불참 이어서 아쉬운감을 금할 수 없다. 그 축제 기간에 무언가 있었어야 "한마당"이 되지 않았겠는가?

회원들이 자기일에 몰두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공통된 문제들을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협회를 믿기 때문이다. 마치 국민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것이 국가를 믿는 이치와 같다. 회원은 스스로 자기를 지킬줄 아는 지성인들이기도하다. 하지만 단순하고, 공통된 기초적인 자료정리가 없다면 모든 건축인이 각자 스스로 자기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初期的인 건축행위가 될 뿐 아니라 그 혼잡과 모방의 무질서는 결국 사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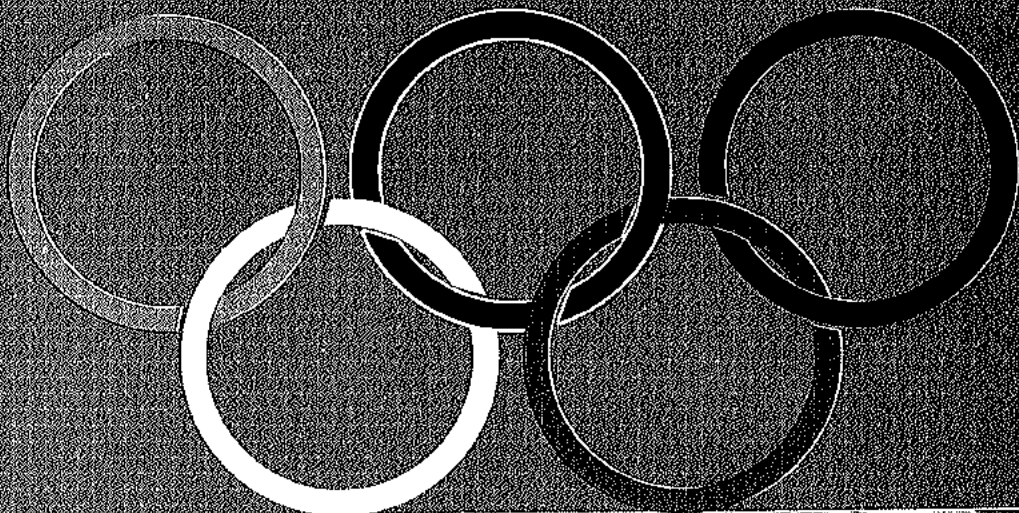
지탄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건설부나 과학기술처가 건축설계를 위한 자료정리를 해주는 부서는 없다. 자료집성을 보면 외국서적 번역판이 고작이라고나 할까. 실제로 건축설계에 대한 지역별, 분야별, 연구데프는 계산상 막대한 국익을 줄 수 있는데도 그것을 연구하여 종합적인 자료제시를 해주는 공인된 자료뱅크가 없다면 건축계의 어느 누군가 정립해야 한다.

실제로 정부나 감사기관들의 데이터와 설계사무소의 데이터가 틀리고 어느특정 지방의 건물들이 정부 각부처마다 설계사무소마다 어느 특정한 부위에 대한 자료입력이 틀려진다면 진풍경이 될 것이다. 예를들면 어느 도시의 평균최저온도가 A 회사설계에서는 -12℃, B 회사 설계에서는 -8℃, C 회사 설계에서는 -14℃ 이고 설계자나, 집행처의 생각나름이라고 한다면 (첨단기술이요, 선진국대열에 있는데) 그결과는 누구의 책임이며 그러한 진풍경이 일어난다면 실수요자들은 또한 얼마나 고심되겠는가? 어떤 특수성있는 건축물이 아니라 극히 일반적인 건축물에 대한 사소한 계획자료마저 틀린다면 문제는 있는 것이다. 水, 風, 雪, 雨, 地, 熱 등 自然에 대한 지방별, 계획자료 연구라든가, 건축계획상 분야별 적용 데이터는 만들어 놓고 그 기초위에 건축하는 사회가 바람직하다. 회원의 복지, 권리, 의무도 중요하지만 사회구성인으로서의 건축분야를 담당하는 건축과의 이러한 기본 베이스 또는 적절한 통일적인 자료연구가 개발되길 바라며 누가 해주길 바라고 전에 우리들 차원에서 연구하여, 이 나라 기술계 발전에 기여함은 당연한 우리시대 과제로본다. 늘어놓고 보니 우리가 해야하고 집고 넘어갈 일이 많은 것 같다. 21세기를 바라보는 선진도약의 이 마당에 차근차근 재원도 확보하고 人材양성하여 부끄럼없는 한국건축의 발전을 가져와야 할 시기에 요새처럼 어수선하여온은 어인 일인가? 우리가 꼭 하여야 할 일들의 우선순위에

너무 흥분하든가 감정이 앞서서는 안되겠다. 해야할 일들이 쌓이고 쌓이는데 不要不急한 일들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해서도 안된다. 모든 회원이 지혜를 모아 건축하는 사람들의 살길을 찾아 좋은 결과를 가져야 하는 시기가 바로 88년이기도 하다. 회원들이 선출한 협회의 모든 일꾼들은 회원들의 생각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모든 일들을 공정성있게 처리하는 회원의 대변자요, 그 처리과정역시 믿음과 성실성으로 대변해주게 된다. 그 믿음이 깨져서는 안된다. 쓴악이 더 좋은 약일수도 있다. 쓰면 쓸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그 근원을 캐고 처방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 근원을 봉쇄해서는 안된다. 그 근원을 봉쇄하는 일은 회원의 입을 막는 것이나 다름없다. 회원의 소리를 막아버리면 회원과 협회의 관계는 무엇이 남겠는가? 우리 정관도 중요하지만 회원의 생각도 중요하다. 협회의 주인은 바로 회원 자신들이기 때문이다. 88년은 이제 바로 세계의 한국으로서, 온세계가 한국을 본다. 그 수많은 건축인들의 맘의 결정이 그들을 포용한다. 우리 모두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고 심의를 받았던가. 종이 위에 그려진 우리들의 작품들이 이렇게 엄청난 건물들을 단 20여년 동안에 생산해 놓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추세란 것을 세계가 평가해 줄 것이다.

◆ 安將元
38년 서울생. 61년 한양대 건축공학파를 졸업하고, 74년~현재까지 신아건축연구소를 자영하고 있으며, 본 협회 이사와 편찬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올림픽 관련시설



▲ 잠실주경기장 입면 전경

주 경기장

Main Stadium

故 金壽根 /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Swoo-Geun



대지위치/서울시 강동구 잠실종합운동장내

건축면적/71,945m²

연면적/133,649.18m²

규모/지하 1층, 지상 5층

수용인원/100,000명 (좌석: 75,000, 입석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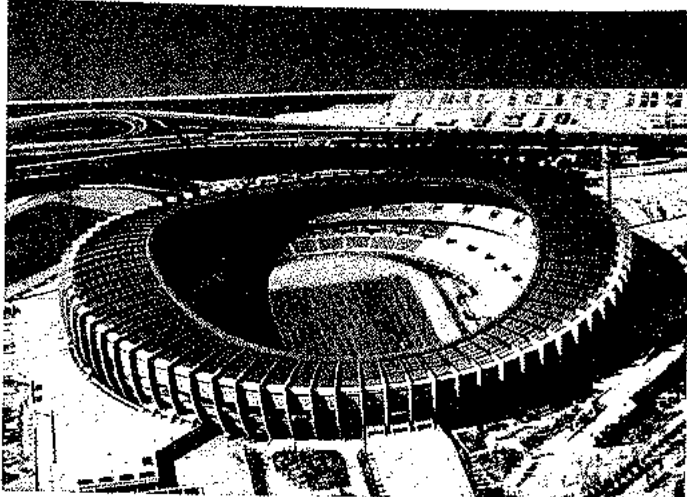
구조/하부: 철근콘크리트조

상부: 철골·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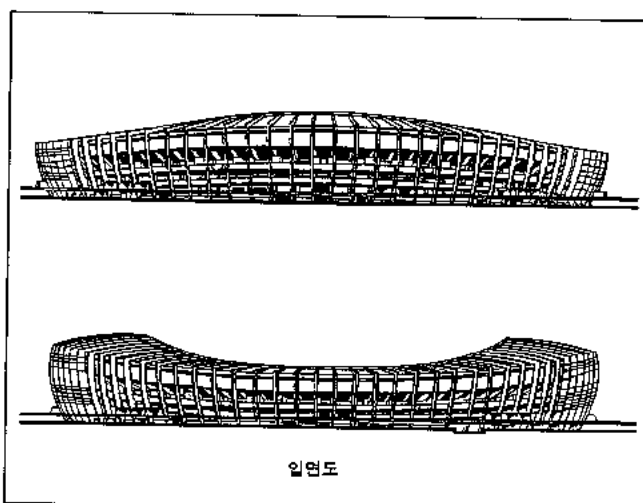
지붕: 철골조



진입로에서 본 전경



공중에서 본 주경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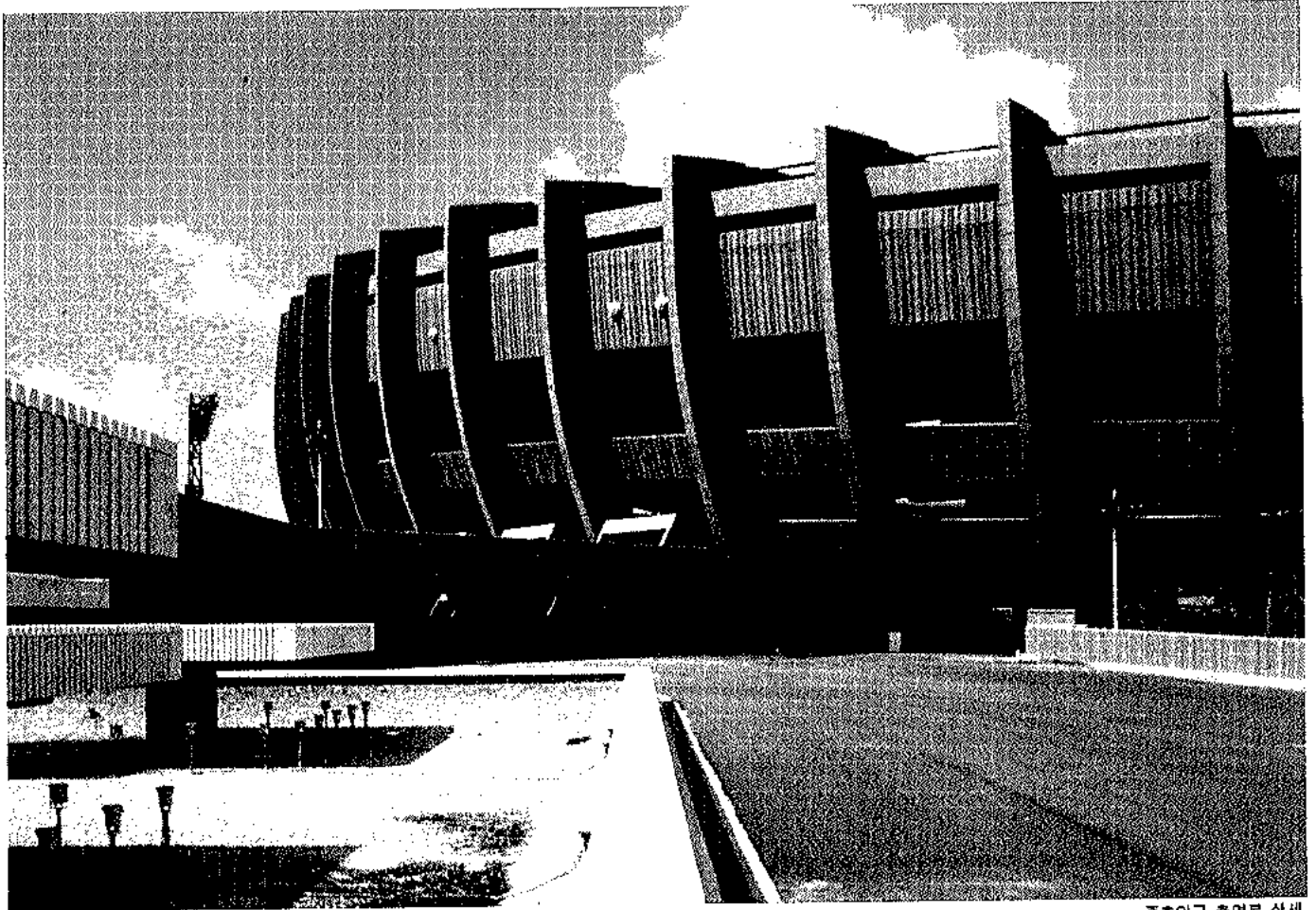
입면도

설계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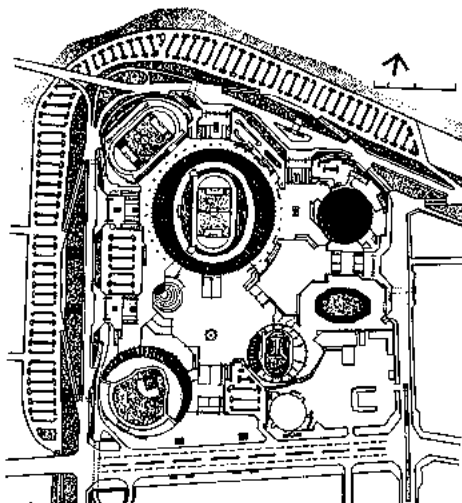
현상설계에서 실시설계 완료에 이르기까지 주경기장의 주용도는 국제경기를 행할 수 있는 국제규격의 경기장으로서 어떤 구체적인 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계획방향을 주로 아시아게임 및 국내에서의 가장 큰 행사인 전국체전을 대상으로 하고 진행되었다. 스탠드와 전체규모계획에 있어서는 10만에 달하는 관람객을 위한 설계로서 보다 관람에 편한시설, 그리고 보다 안전한 시설이라는 두가지 측면이 집중적으로 고려되었다. 따라서 스탠드 계획의 원칙으로서 많은 관람객이 선호하는 위치에 보다 많은 관람석을 두도록 배려하였다. 이 원칙은 결과적으로 본부석 및 본부석

반대편의 좌석증가로 나타나 전체형태가 만족된 모습이 되었다. 이에 더하여 관람석 상단에, 비와 심한 태양광을 피할 수 있는 지붕을 설치함으로써 만족된 형태는 두드리진 조정요소가 되었다. 또한 다수의 관람석을 평면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경기지역으로부터 가시거리가 멀어지게 되므로 스탠드를 2단으로 처리하여 보다 가깝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시설물의 외곽규모를 축소시켜 협소한 대지의 활용도를 높이게 되었다. 10만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동선계획은 이용자 상호의 안전과 보호를 목표로하여 크게는 관람객과 선수, 임원, 보도진, 구빈 동선을 분리토록하여 이를 입체적으로 해결하였다. 관람객은 주로 지표층과 테크층을 이용토록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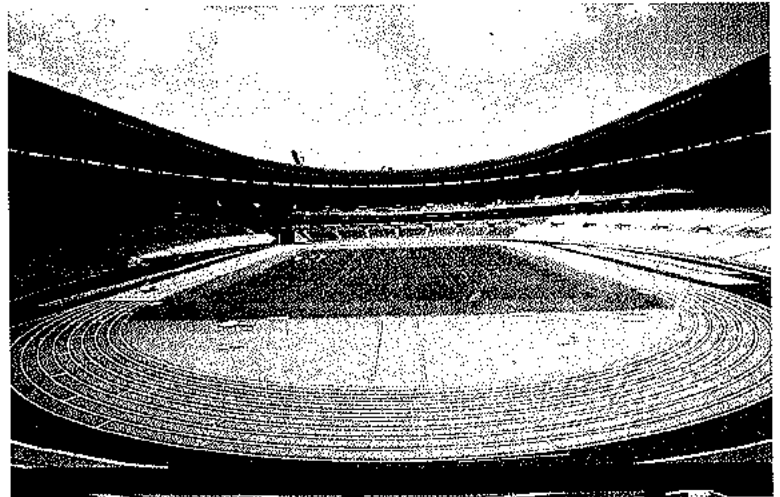
기타 선수 및 임원은 지하층 및 지표층을 이용토록 배려되었다. 구조계획은 스탠드층이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 지붕은 철골에 의한 캔티레버구조로 하여 그 접합부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되어 있다. 지붕의 철골부는 스탠드층의 평면형태를 따라 계획되었으므로 최대 약 40m에서 최소 약 30m의 서로 다른 길이를 가진 캔티레버로 구성되었다. 전체의 형태는 평면상의 요구에 순응하는 논리적 결과가 표현되도록 하였으며 특히 외부기둥의 표현은 지표상의 면적점유를 최소한으로 하고 전체를 원으로서의 테마에 따르도록 배려되었으며 경기장과 같은 거대 구조물이 이를 이용하는 관람객을 압도하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주출입구 측면부 상세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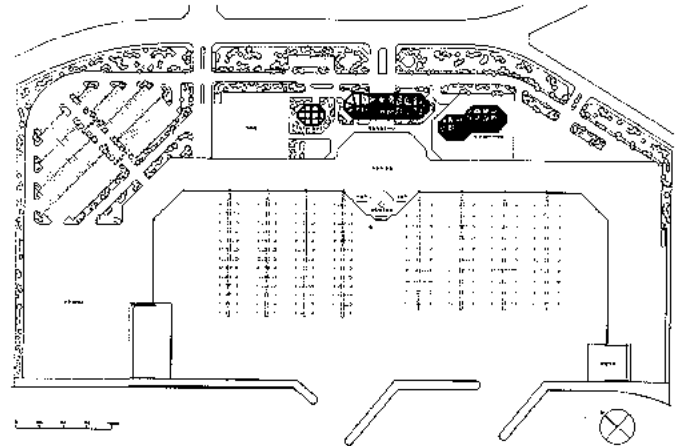


주경기장 그리운드 전경
건축사 8808 9

부산 요트경기장

Pusan Yachting Center

(주) 서울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SAC International, Ltd.



배치도

◆
대지위치/부산시 해운대구 수영반 배원지역
건축면적/2,300m²
연면적/6,412m²
구조/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부마감/화강석, 복층유리, 노출콘크리트, 등판
충별주요기능/
1층-경기운영관제실, 선수관제실
2층-조직위원회사무실, 심판관계실
3층-회의실, 보도관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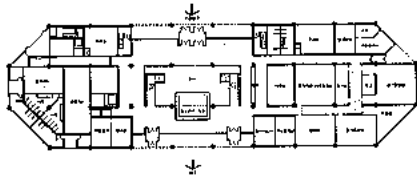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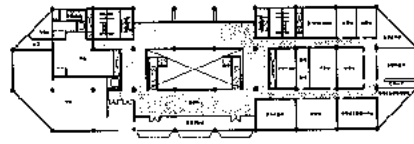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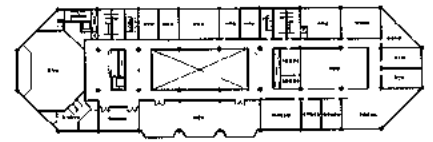
천창이 있는 중앙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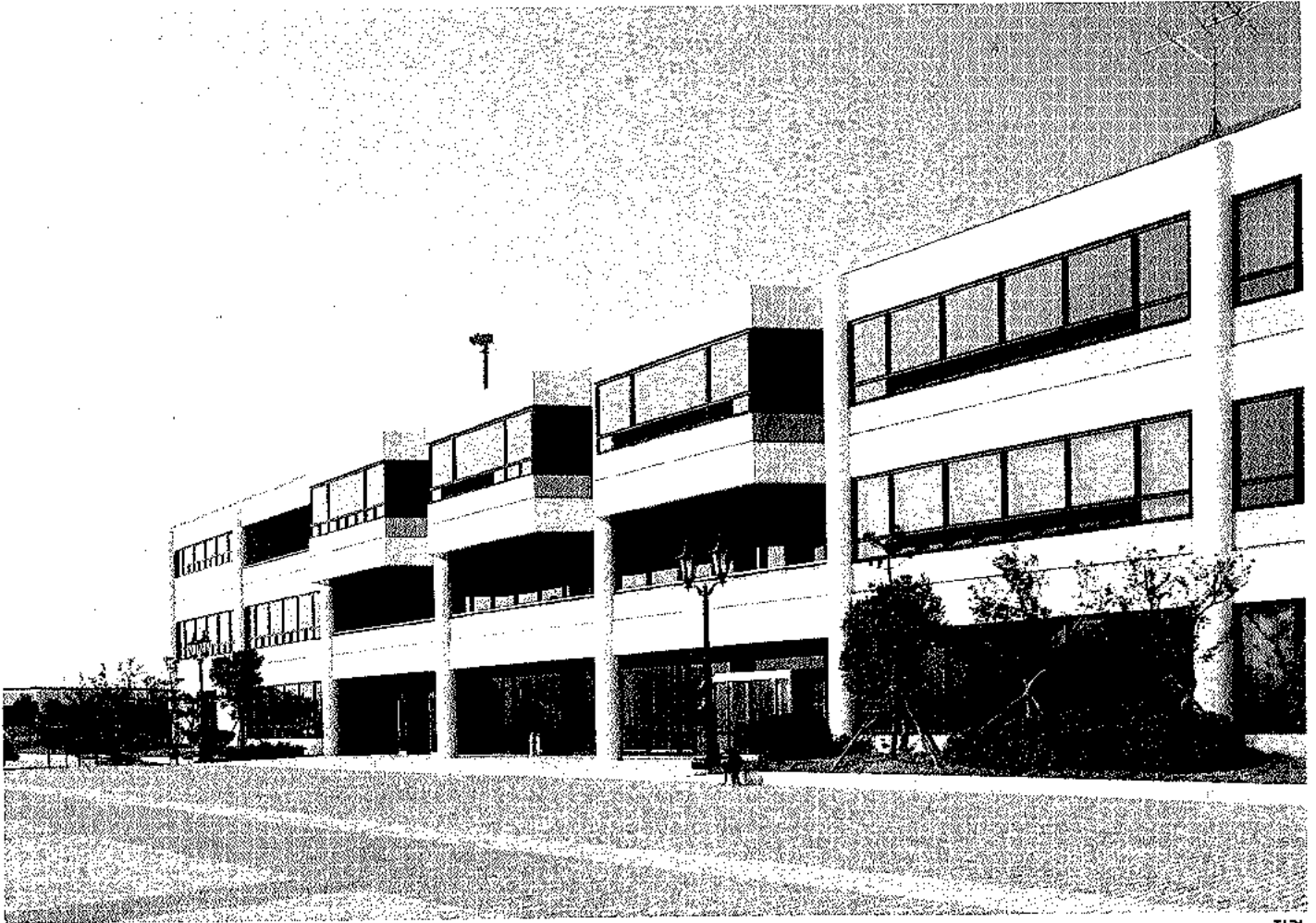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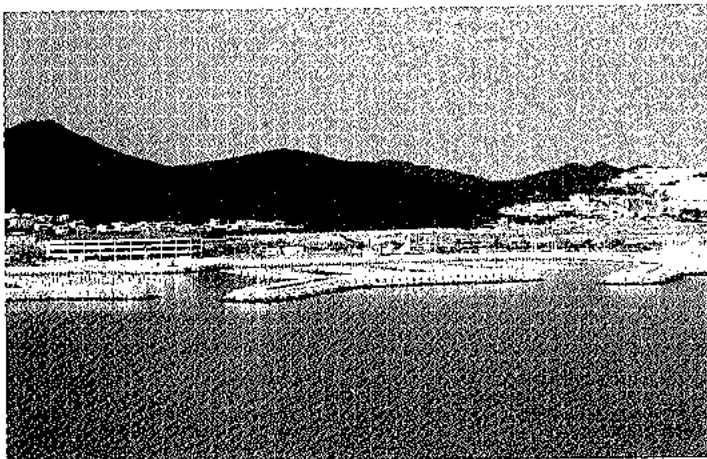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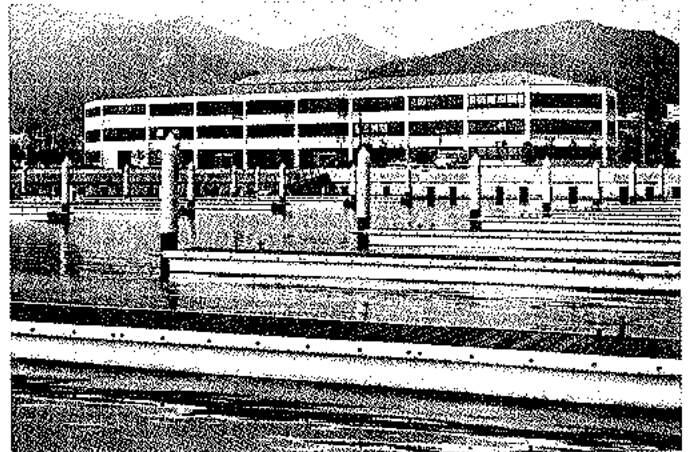
3층 평면도



전경



원경



경기시설에서 본 전경
건축사 8808 11

선수촌 · 기자촌

Olympic Town

黄一仁+禹圭昇 / 일진종합건축+W.N.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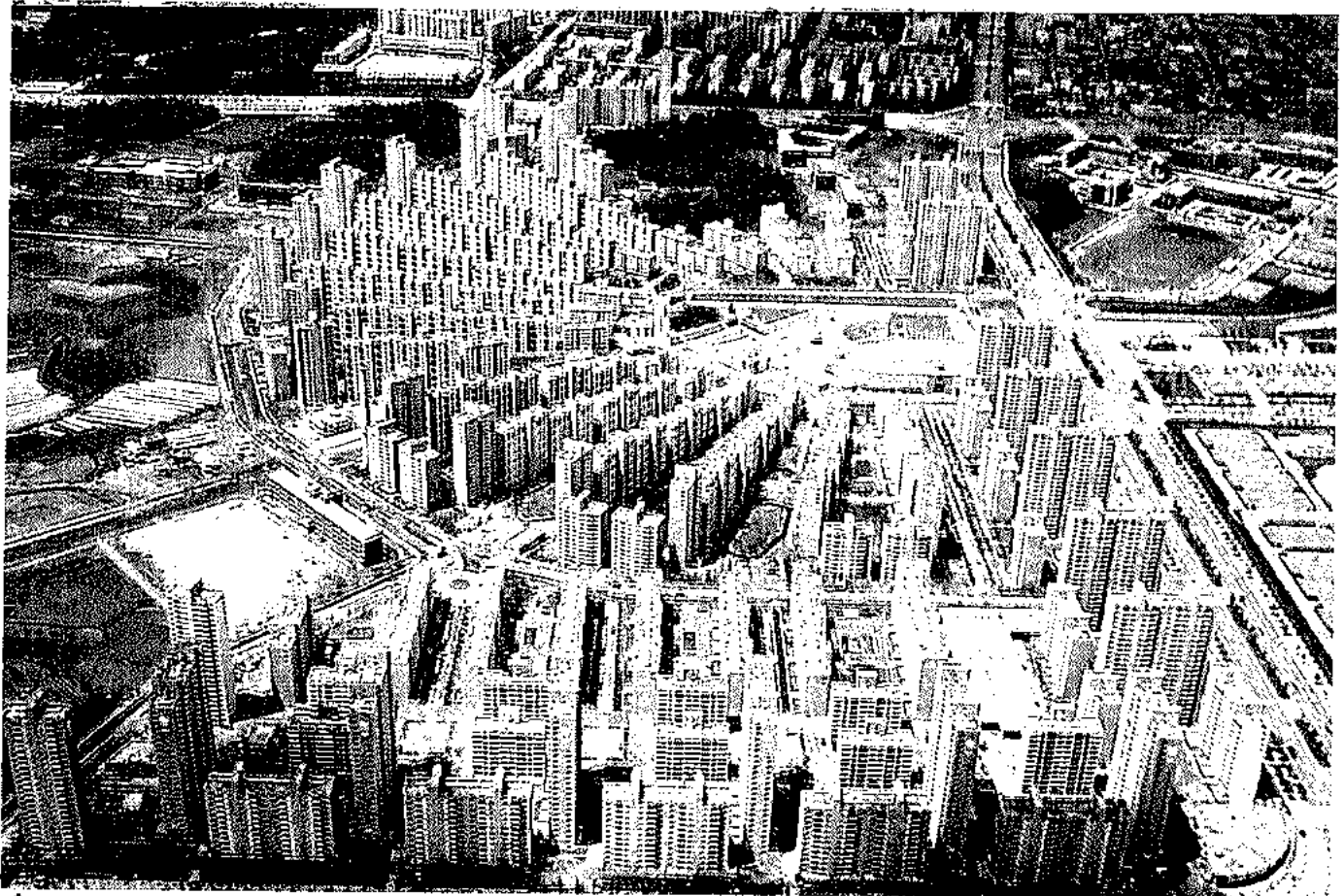
Designed by Whang, Il-In & Woo, Gyu-Seung

설계소요

부지는 4면이 광로 및 개발제한 구역으로
구획된 섬과 같은 대지로 자체내의 중심적
조직이 요구되며 대지외곽은 격자형 가로망,
내부는 성내, 오금천의 두 방향과 특색의
보존녹지, 국립경기장에서 남한산성으로
이어지는 시각축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방향등에
대한 종합적해결을 물리적인 설계조건으로 하고
있다.

배치계획은 첫째, 대지의 각 부분은 주위
광역질서와 연계하여 격자형으로, 대지내부는
올림픽공원의 축을 이어 받은 점을 중심점으로
하여 방사형으로 배치함으로써 동촌토성에서
남한산성으로 이어지는 자연축을 보존하고
올림픽공원과 선수촌의 두 부지를 연계한다.

외곽건물을 고층화하여 한국적 도시공간인
내향적 특성을 고밀도 주거에 실현하며 중심과의
관계의 점의적 변화에 따른 공간의 다양성과
각 지역의 독자적 인식성을 부여한다.
단위주거는 단층형 주거와 중층형을 적절히
혼합하여 다양한 주거형태와 단조롭고 획일적인
입면을 벗어나도록 하며 발코니의 적극적
활용으로 한국의 고유한 중정생활공간을
고층주거에 제시한다. 옥외공간은 연결된
녹지체계를 통하여 전 단지가 연계되도록 하고
자연녹지는 최대한으로 보존토록 하였다.



대지위치/서울시 강동구 오금동, 둔촌동

대지면적/626,641m²

연면적/841,746m²

세대주/5,540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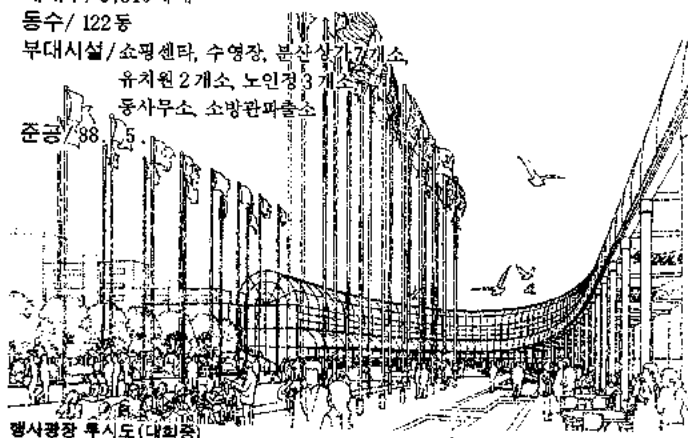
동수/122동

부대시설/쇼핑센터, 수영장, 본산상가7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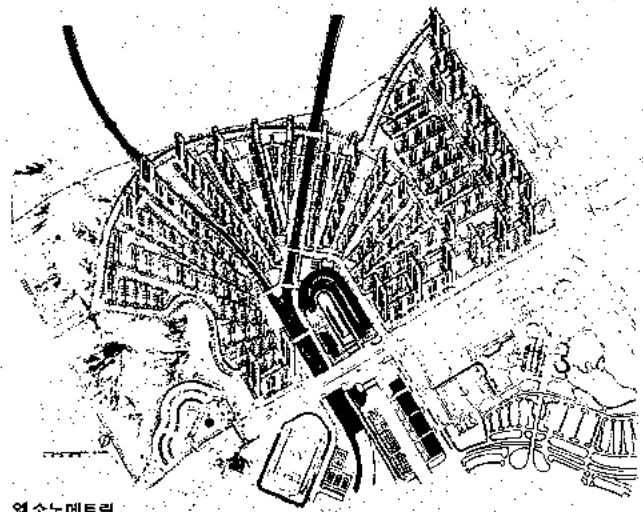
유치원2개소, 노인정3개소

동사무소, 소방관파출소

준공/8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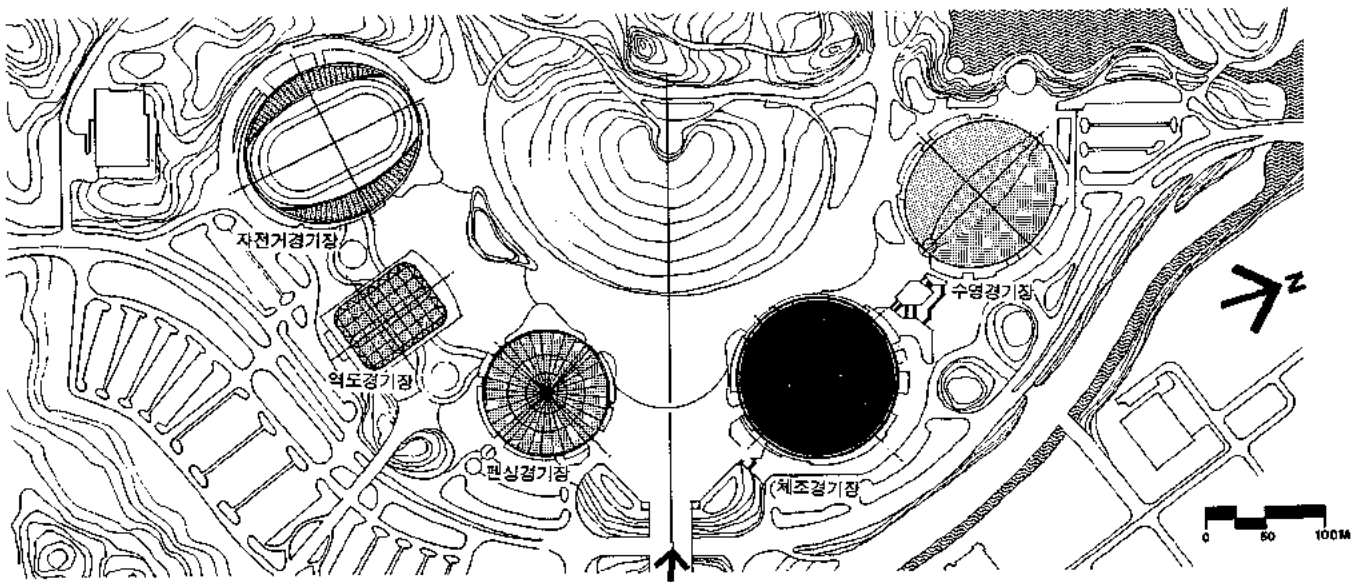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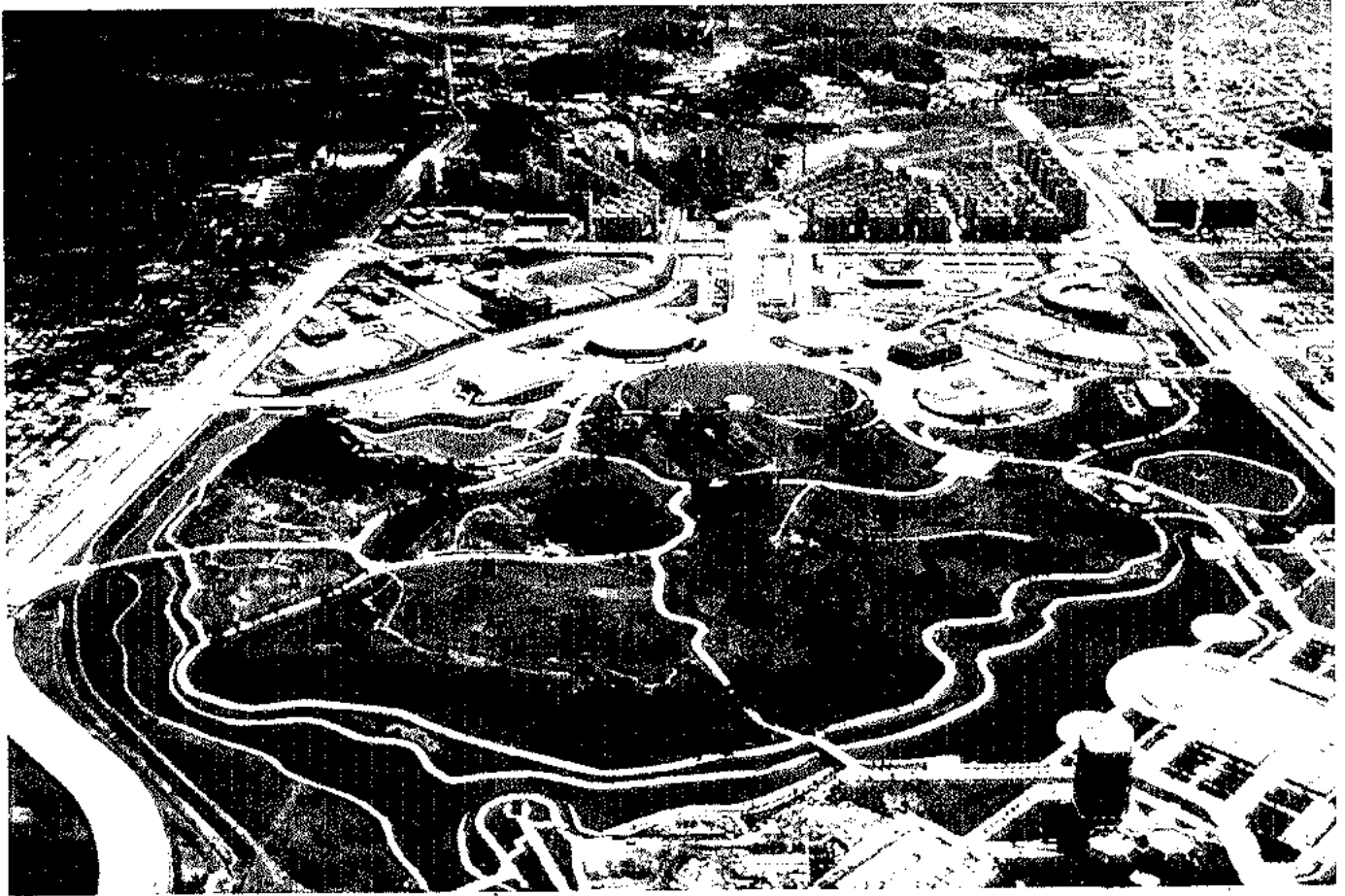


행사광장 투시도(대회중)



역소노메트릭

올림픽공원 내부시설물



'88서울올림픽기념상징조형물

88Olympic Monument Summary

故 金重業 / (주) 金重業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Chung-Up

◆ 대지위치/올림픽공원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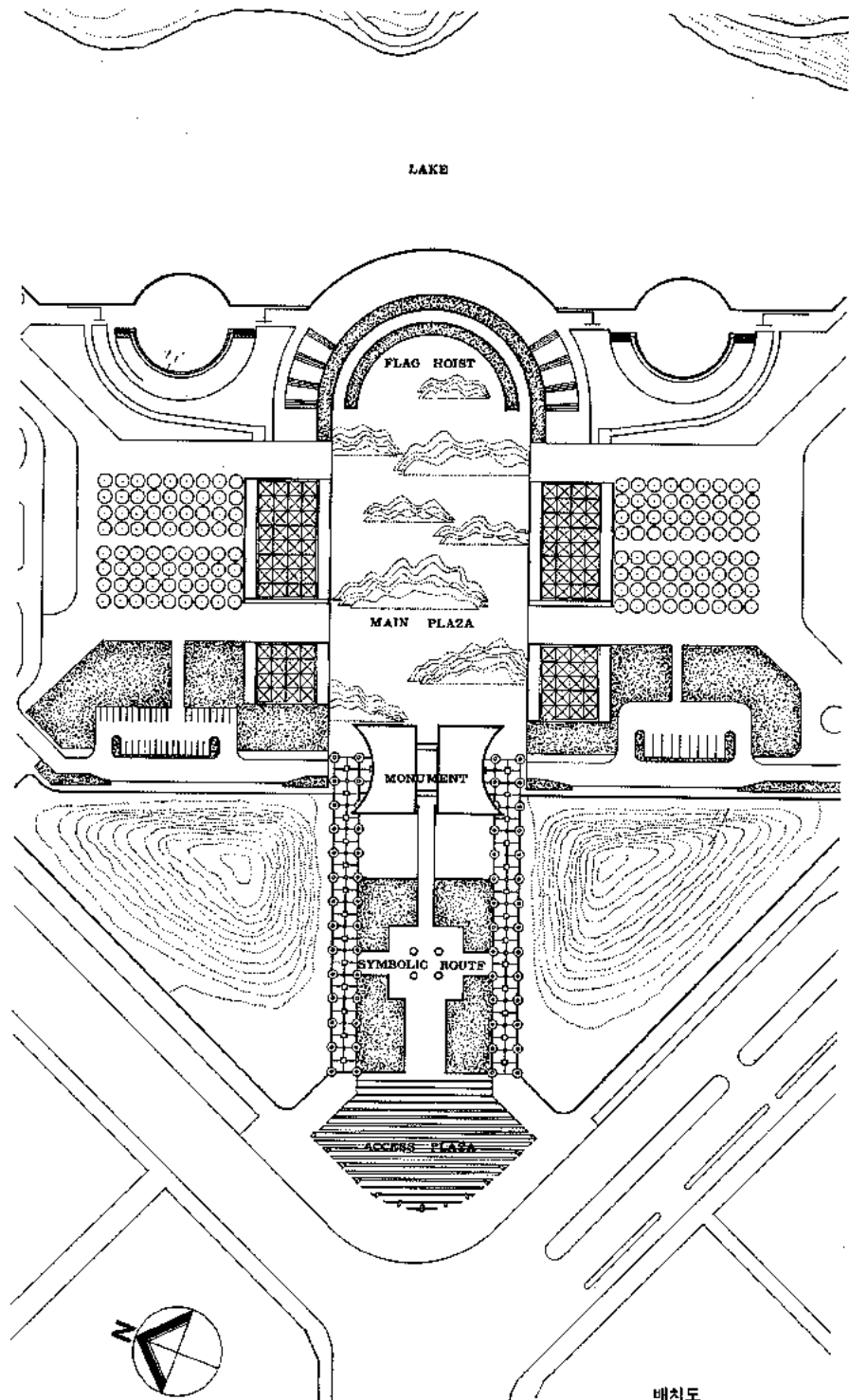
대지면적/33,600m²

조형물규격/높이/24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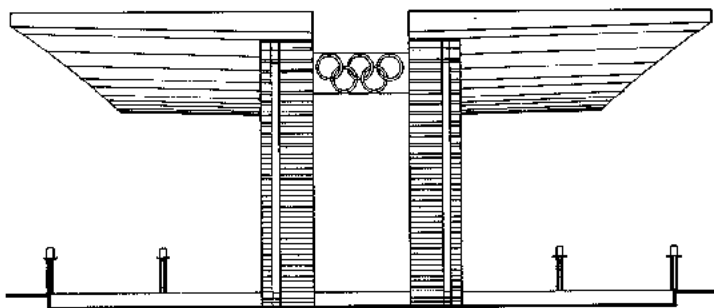
폭/62m

길이/37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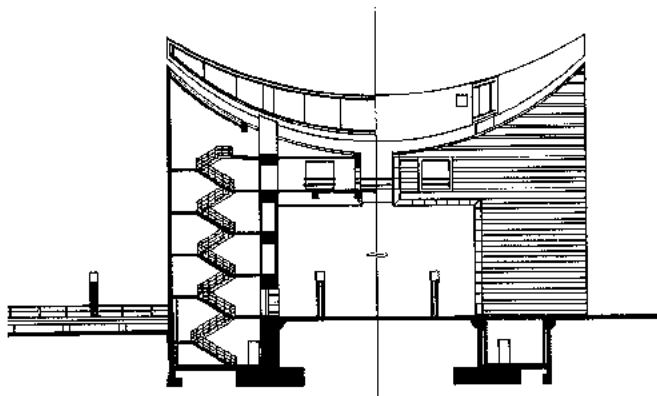
구조/Cantilever Truss, S. R. C. 라멘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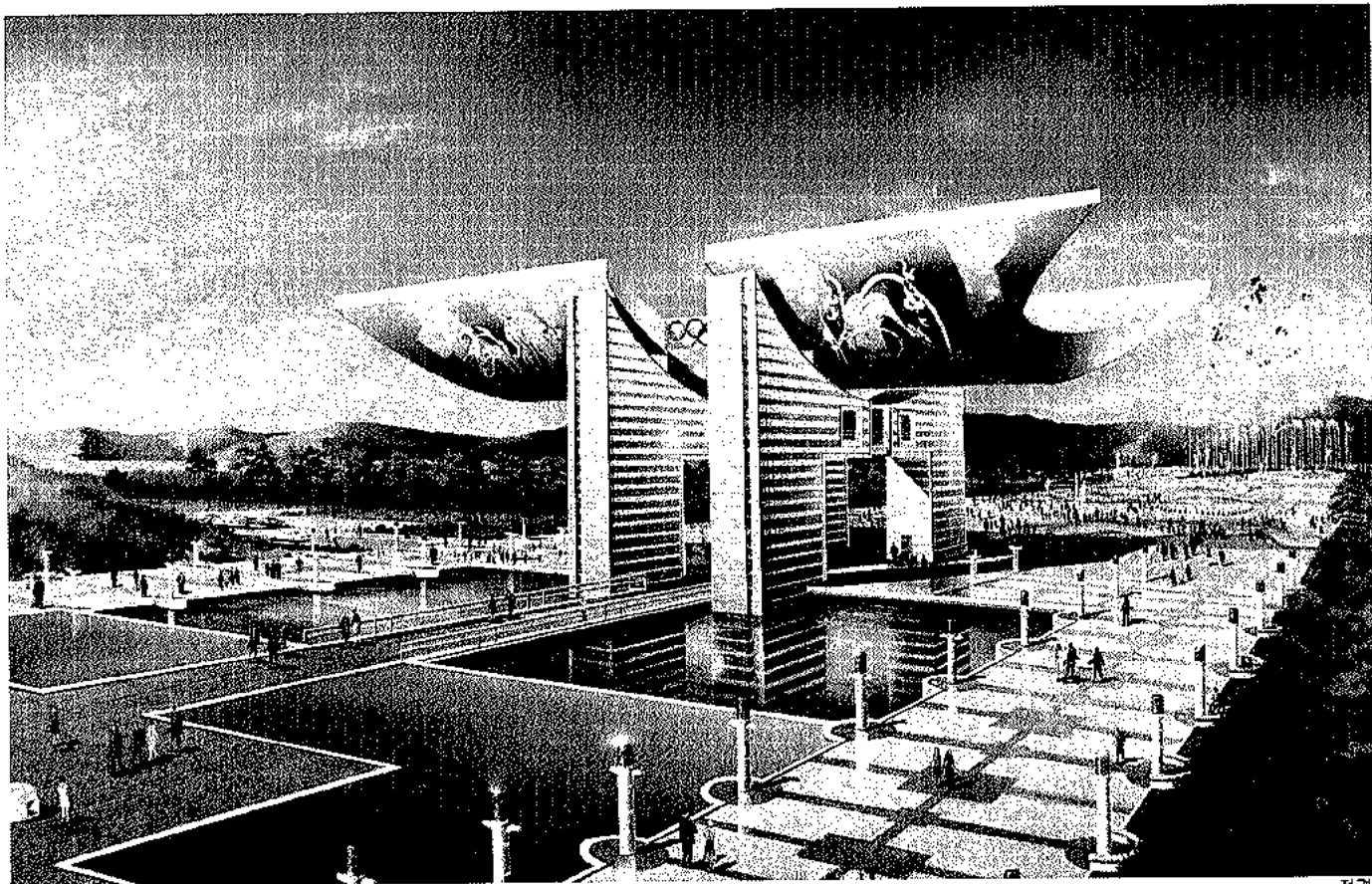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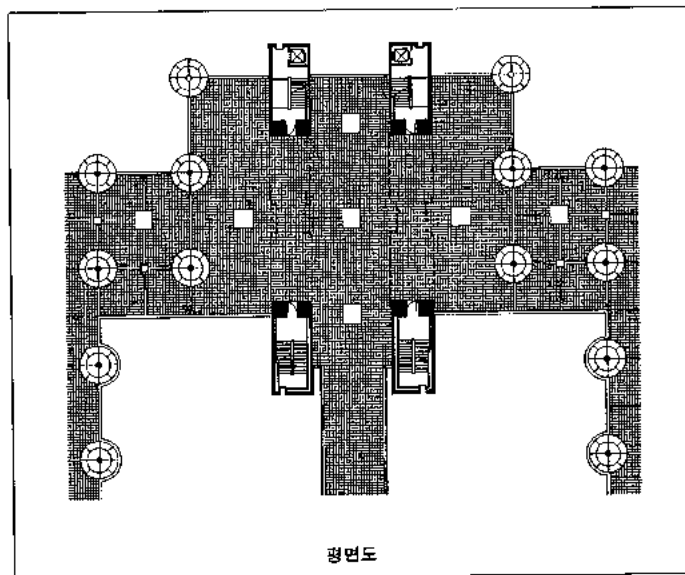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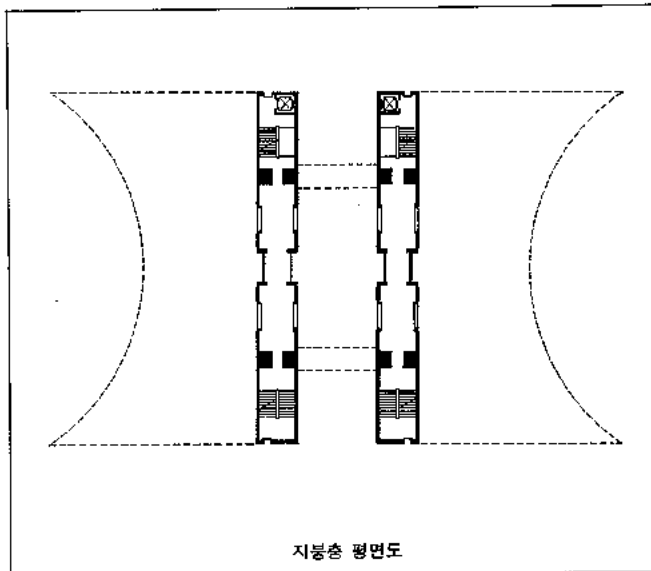
단면도



전경



평면도



지붕층 평면도

체조경기장

Gymnastic Stadium

柳春秀 / 이공건축 + 공간건축

Designed by Ryu, Choon-Soo & Space Group of Korea

◆ 대지위치/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 공원내

건축면적/14,016.8m².

연면적/30,548.6m²

규모/지하 1층, 지상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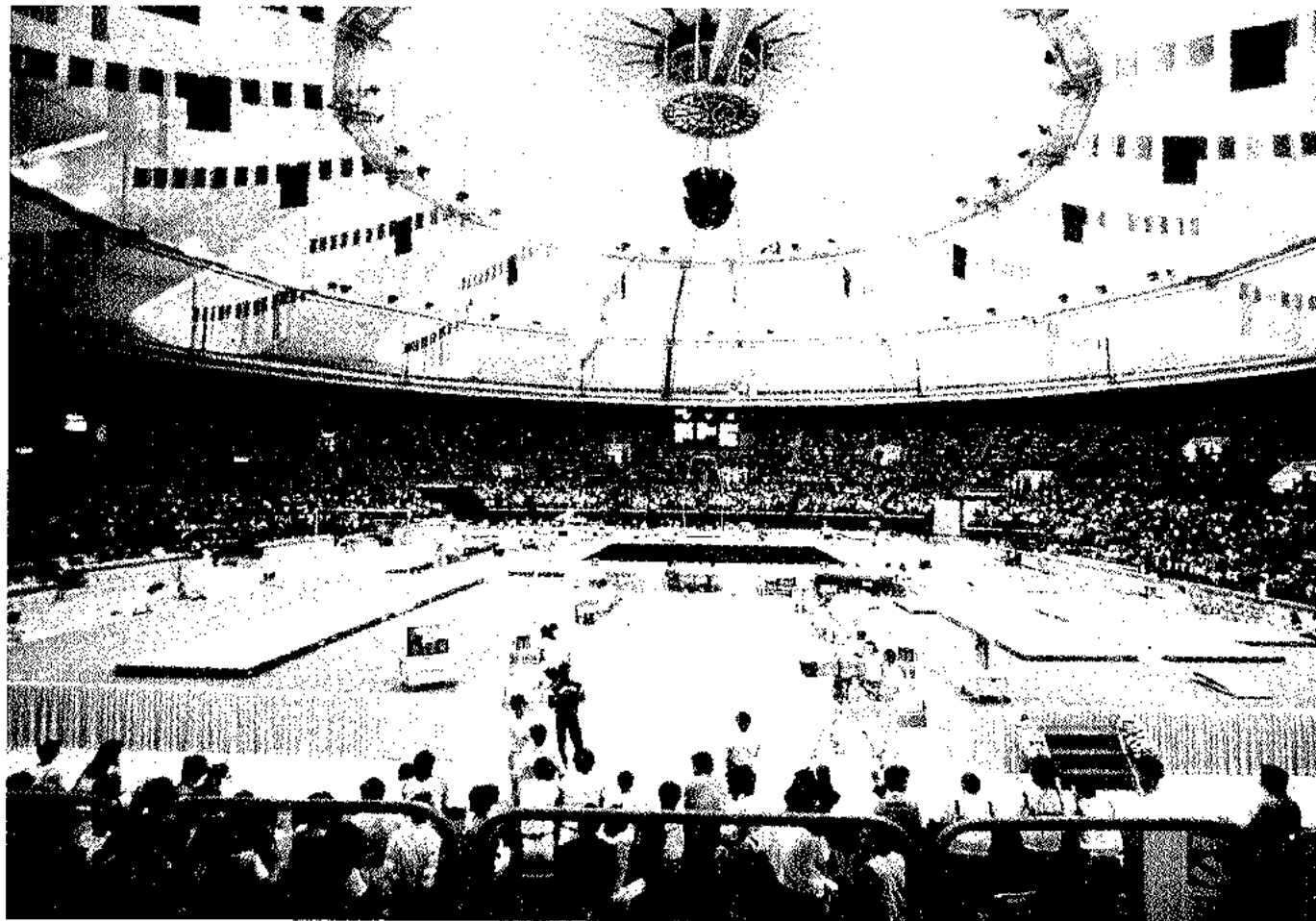
수용인원/약 15,000명 (고정 7,500명, 이동 7,500명)

구조/하부-철근콘크리트 라멘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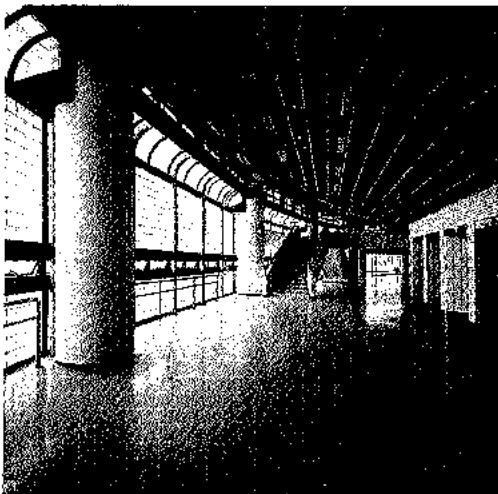
지붕-막구조

마감재/외부-암무늬돌, 유리블럭 및 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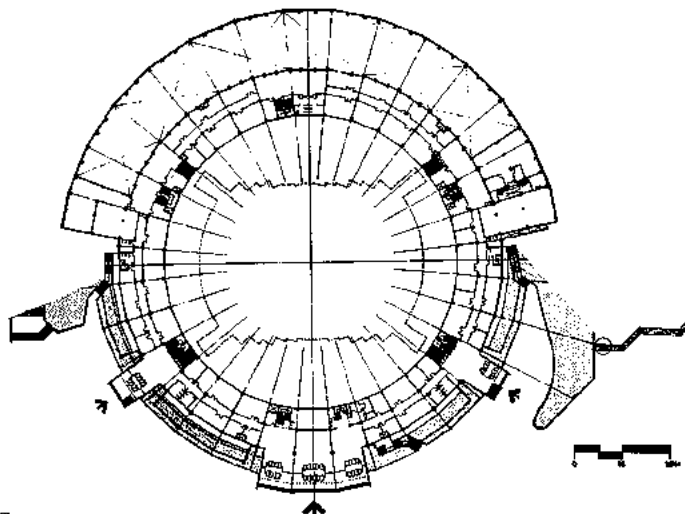
내부-알루미늄 및 흙음벽스, 석면타일 및 인코트



내부전경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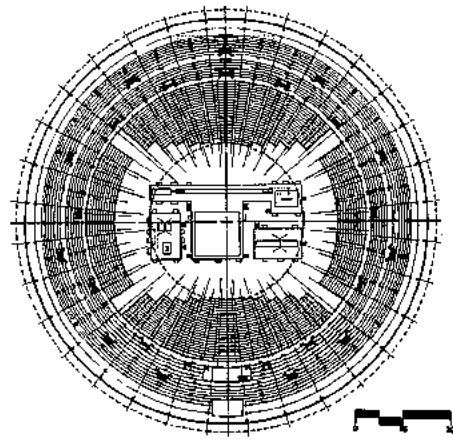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설계소요

체조경기장은 이웃의 펜싱경기장과 더불어 우선 세계최초로 설계, 시공된 케이블 돔 (Cable Dome) 에 의한 막구조 지붕의 건축물이다. 올림픽공원계획에서 고려되었던 기본개념은 콘크리트가 강렬하게 표출된 감실주경기장의 표현방식을 탈피하여 뭉촌토성과 남한산성을 잇는 녹지축과 주변의 낮은 구릉과 숲의 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낮고 부드러운, 수평적인 조형」을 계획하고 조경까지 곡선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었다.

체조경기장은 북측의 보행편람자 유입동선을 남측의 차량진입에 의한 선수인원의 동선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조형을 되도록 낮게 보이게 하기 위해 북측광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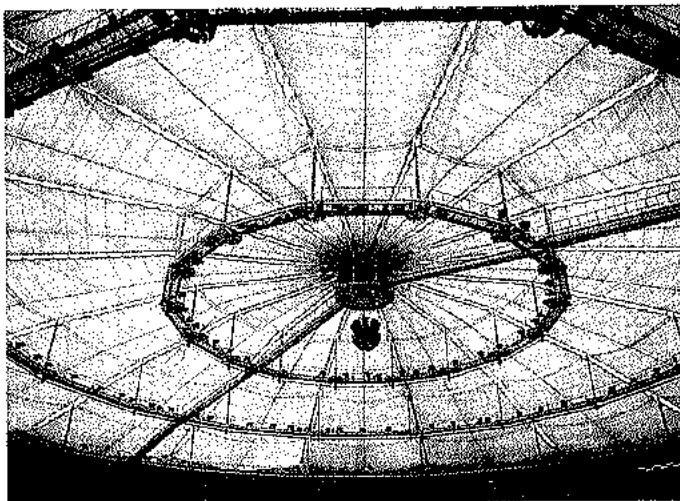
스텐드층 평면도

도로보다 4m정도 백킹시켰다. 이러한 작업이 경기장 사이의 소규모광장을 변화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했으며, 국내 최대의 직경120m가 넘는 대형 체육관에서 낮고 아담한 휴먼스케일의 느낌을 가능케 했다고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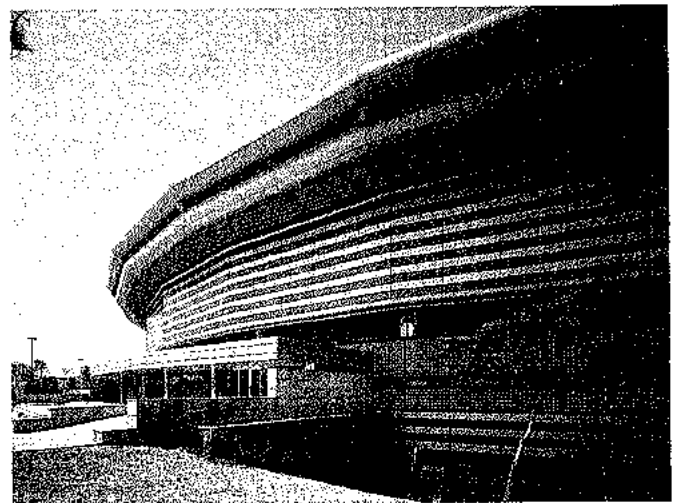
체조경기장의 구조방식은 앞으로 보편적인 구조형식이 될 것이며, 장차 이러한 구조와 채광을 수단으로 한 건축자재의 질로 평가 되어질 것이다. 또한 알루미늄과 유라블력을 주재료로한 외관과, 무채색을 바탕으로한 색상의 통일성과 수평선의 강조는 부드러운 흰색지붕 (Silicon Coated Fiber Glass) 과 함께 조화있는 외관을 연출할 것이다.



전경



지붕층 케이블 돔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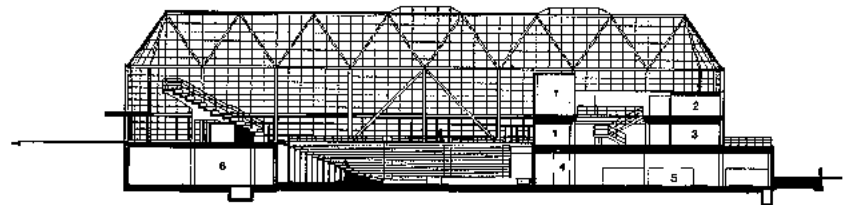
주출입구 상세

역도경기장

A Gymnasium for the Weight Lifting

(주) 서울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SAC International, Ltd.



단면도

- 1 LOUNGE
- 2 REST RM.
- 3 COMPETITION MANAGE
- 4 AHU
- 5 WARM UP AREA
- 6 MECH. RM.

대지위치/서울시 강동구 올림픽공원내

면적/10,752m²

구조/Takenaka - 입체철골트러스

마감재/외부 - 알루미늄커튼월, 단열유리,
화이버글라스, 화강석

내부 - 우레탄, 단풍나무, 화강석

구조/Geiger Associates, P.C. (뉴욕)

기계/삼신설비연구소

전기/새한설계본설단트

설계소요

'88 서울올림픽 역도경기장은 북쪽에 위치한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진입하는 U자형의 경기장 아레나와 건물 남쪽에 배치된 연습실, 선수휴게실, 사무실 등의 일반에게는 폐쇄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림픽행사가 끝난 후에는 경기주최측(국제역도연맹)이 사용하는 사무실기능과 역도경기 포디움을 월거하여 일반 실내체육관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장치 사용상 최대한의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이 경기장은 59.40m×79.20m의 장스팬 공간으로 계획되었다.

1층의 고정좌석은 관객층에서부터 올라가는 철근콘크리트 스탠드에 배치되고 2층의 임시좌석은 관객층에서 5.5m 밑에 있는 경기장 레벨을 잇는 이동식 볼리처로서 마련된다. 본 경기장의 장 스탠 구조는 "다케나카" 입체트러스 구조가 되어있다. 14m간격의 직각형으로 배열된 하현부재는 건물측에 45도 방향으로 놓이고 9.9m간격의 양방향 상현부재는 건물측과 직각으로 하현으로부터 7m높이 위에 배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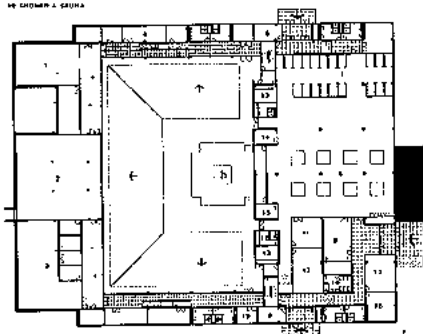
경기장 외벽은 청동색과 베이지색의 알루미늄 판넬과 브론즈색 유리의 커튼월로 구성되며, 관람석에서 보이는 내부벽면도 같은 재료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철골구조부재, 즉 트러스, 기둥, 내용가새 등은 모두 노출되고 암갈색 페인트로 도장되었다. 입체트러스로 구성되는 지붕의 경사벽면은 "KALWALL" 반투명 화이버글라스 단열판넬로 구성되어 주간에는 충분한 자연조명을 제공한다.

1층레벨의 기단을 이루는 부분과 2층바닥은 내부, 외부로 모두 상주산 화강석으로 감싸서 에리한 알루미늄으로 형성된 경기장건물의 발침역할을 하도록 의도하였다. 역도경기 포디움의 배경을 이루는 무대벽은 오크판넬로 구성하여, 금속재료 및 석재와 대조를 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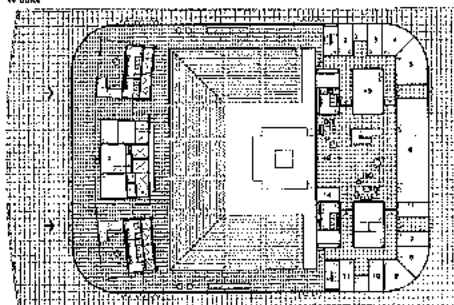
북도부분 상세

- 1. BUTTERFLY POOL
- 2. VIDEO RM
- 3. LECT. RM
- 4. CONSULTING PRAC
- 5. MEETING
- 6. INFORMATION
- 7. CAFE
- 8. MEETING AREA
- 9. MEETING RM
- 10. FIRST AID
- 11. FIRST AID
- 12. FIRST AID
- 13. FIRST AID
- 14. FIRST AID
- 15. FIRST AID
- 16. FIRST AID
- 17. FIRST AID
- 18. FIRST AID
- 19. FIRST AID
- 20. FIRST A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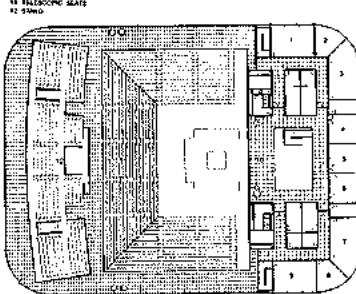
1층 평면도

- 1. OFF LOUNGE
- 2. OFF RECEPTION
- 3. OFF RECEPTION
- 4. TECH. WORKING
- 5. MEET RM
- 6. CONFERENCE LOUNGE
- 7. OFF
- 8. OFF
- 9. OFF
- 10. OFF
- 11. OFF
- 12. OFF
- 13. OFF
- 14. OFF
- 15. OFF
- 16. OFF
- 17. OFF
- 18. OFF
- 19. OFF
- 20. O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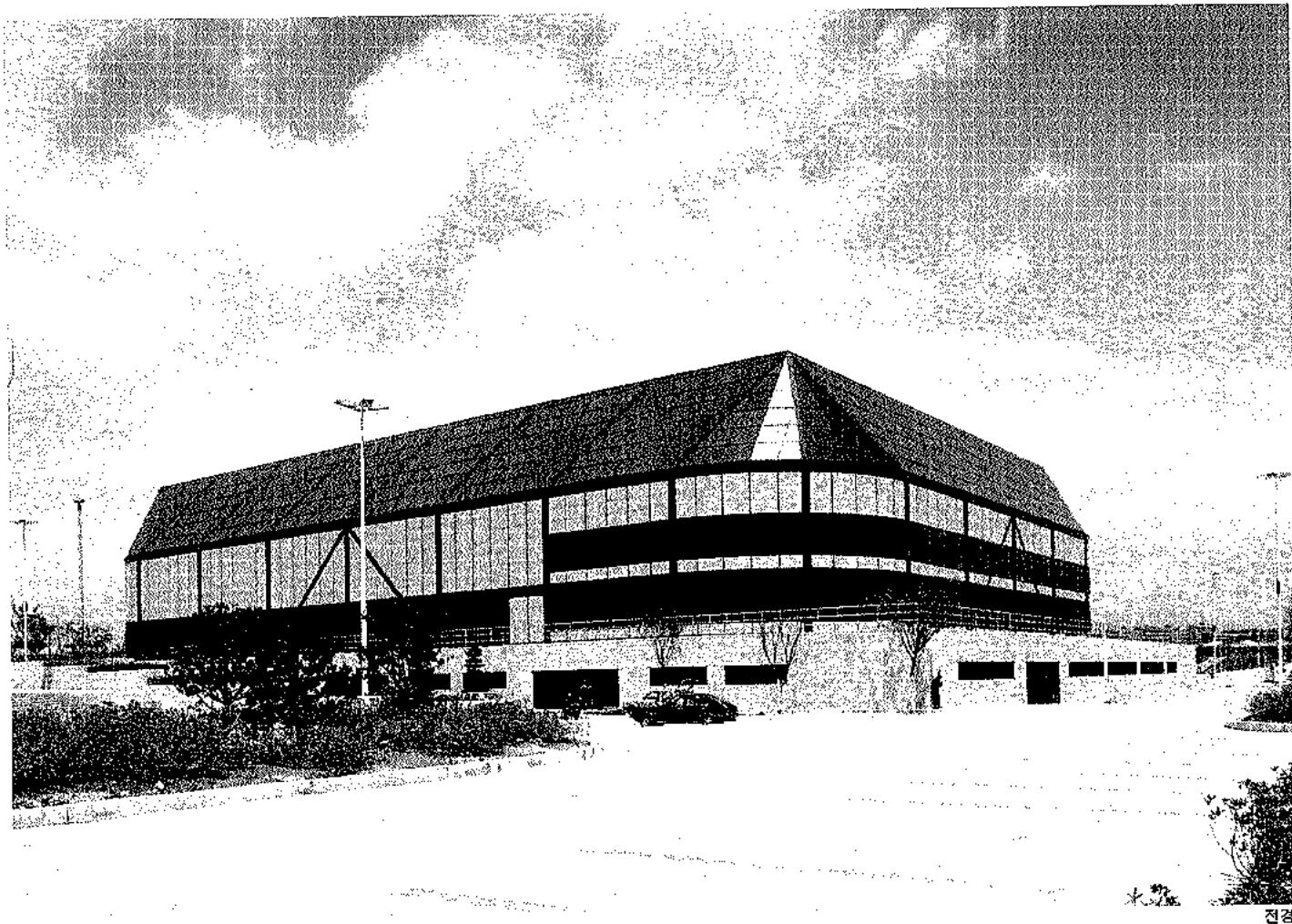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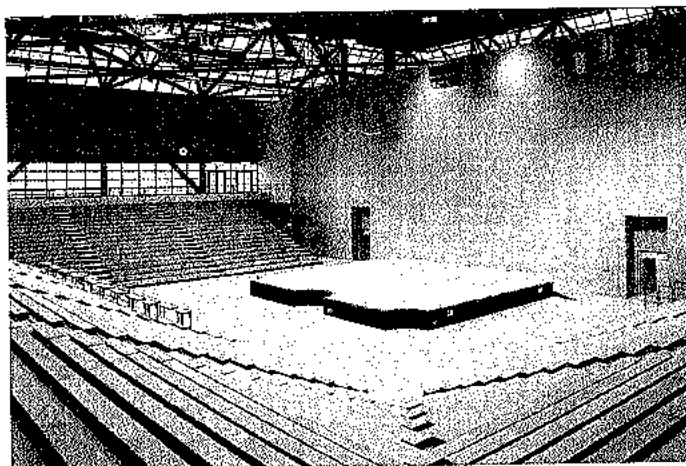
- 1. BUTTERFLY POOL
- 2. VIDEO RM
- 3. LECT. RM
- 4. CONSULTING PRAC
- 5. MEETING
- 6. INFORMATION
- 7. CAFE
- 8. MEETING AREA
- 9. MEETING RM
- 10. FIRST AID
- 11. FIRST AID
- 12. FIRST AID
- 13. FIRST AID
- 14. FIRST AID
- 15. FIRST AID
- 16. FIRST AID
- 17. FIRST AID
- 18. FIRST AID
- 19. FIRST AID
- 20. FIRST A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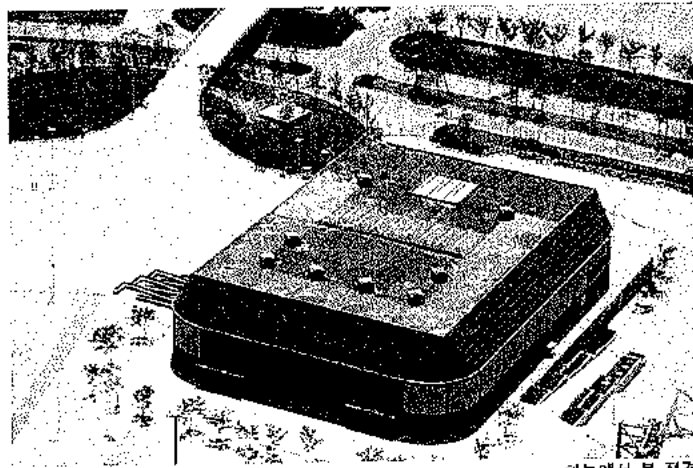
3층 평면도



전경



경기장 내부



하늘에서 본 전경

자전거경기장

Velodrome

故 金壽根 /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Swoo-Ge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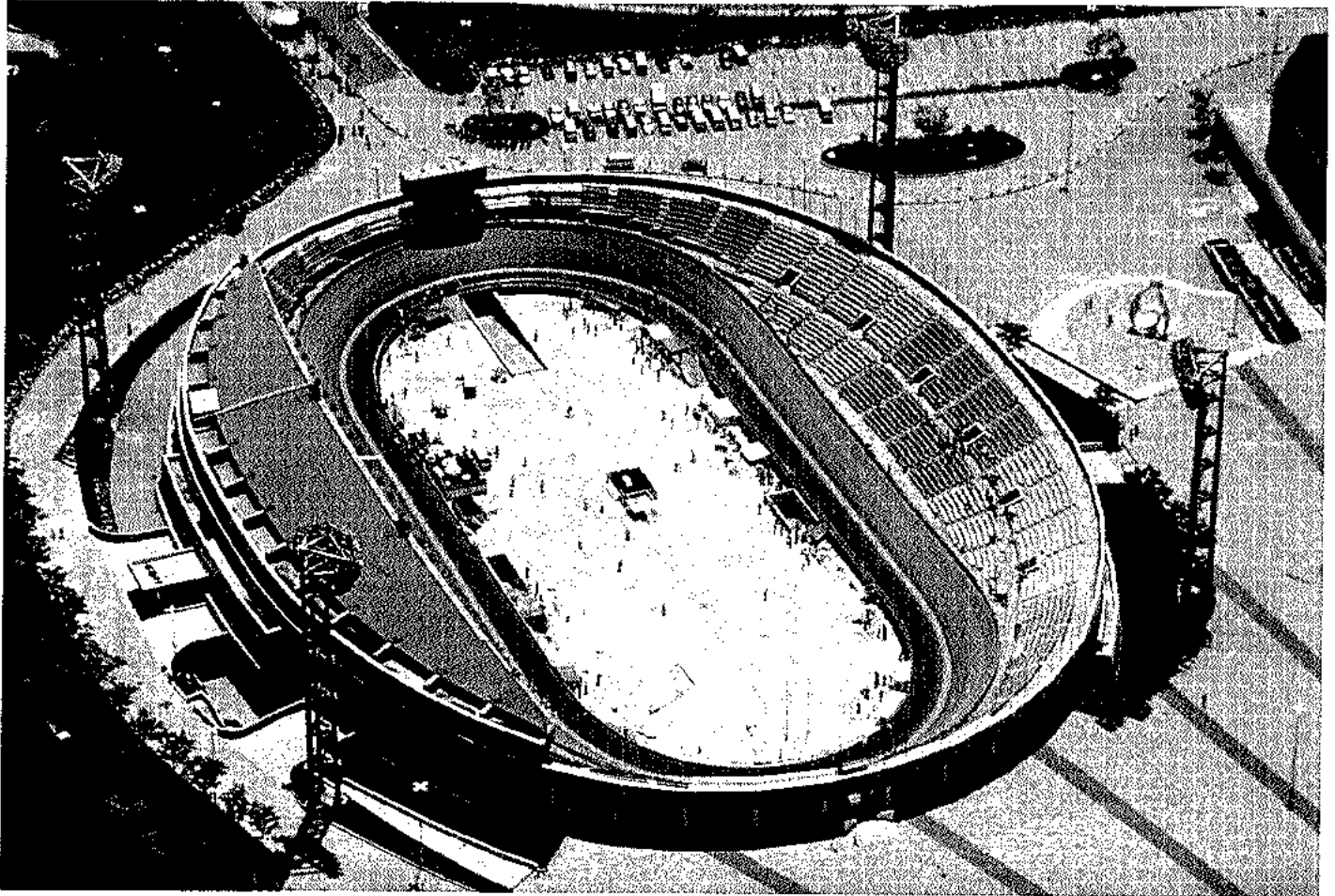
설계소요

자전거경기장은 올림픽공원내 주전일로의 서쪽에 위치하며 동쪽에는 역도경기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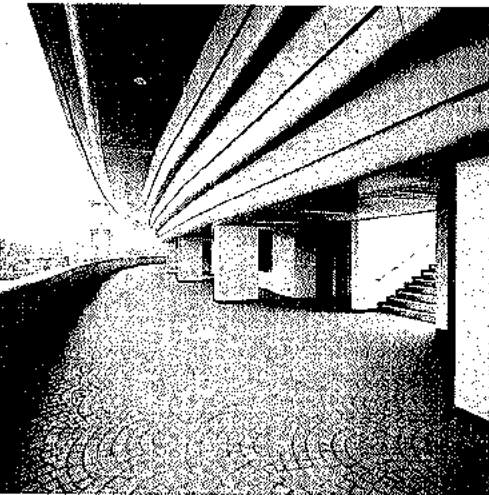
계획지반고는 EL 16~20m의 평탄한 저지대에 위치하고 형태는 자전거경기장의 기본인 피스타(Pista)가 이루는 곡선과, 관객을 위한 적절한 가시거리 확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타원형을 이루어 타경기장과 다른 생동감이 있는 볼륨을 지닌다. 다른 경기장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마스터플랜상의 전체조형 개념에 의한 수평선을 살리되 은회색볼스코팅·알미늄을 사용하여 은륜(銀輪)의 이미지를 강하게 부각시켰다.

관객, 선수, 임원, 운영, 방송보도 및 주변의 각 기능별 구역을 분리하여, 관객은 경기장 남쪽의 관객용 주계단과 2층의 관객연결 브리지를

통하여 관람석으로 진입되도록 하고 경기후 10분내에 분산 퇴장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선수실은 1층 및 지하동측에 위치하고 지하 연결통로를 통하여 피스타(Pista) 내측에 선수를 위한 안전지대(폭 5m)를 두었고, 경기장 남측에는 장비진입구를 두어 구급차가 내부필드로 진입되며, 또한 필드는 경기시 경기운용에 이용되고, 평시에는 조깅 또는 테니스코트를 설치하여 이용토록 하였다. 그리고 자전거경기장의 중요시설인 Pista는 독일의 전문가인 Herbert Schurmann의 설계 감리로 이루어졌다.



전경



2층 출입구



대지위치/서울시 강동구 문촌동 올림픽 공원내
건축면적/5,481m²
연면적/11,677m²

규모/지하 1층, 지상 2층 및 스탠드 층
수용인원/6,302명
구조/철근콘크리트라멘조
마감재/알미늄시트, 본타일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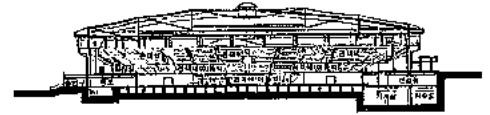
펜싱경기장

Fencing Gymnasium

金基哲 / 건축사사무소 동명건축
Designed by Kim, Kee-Chu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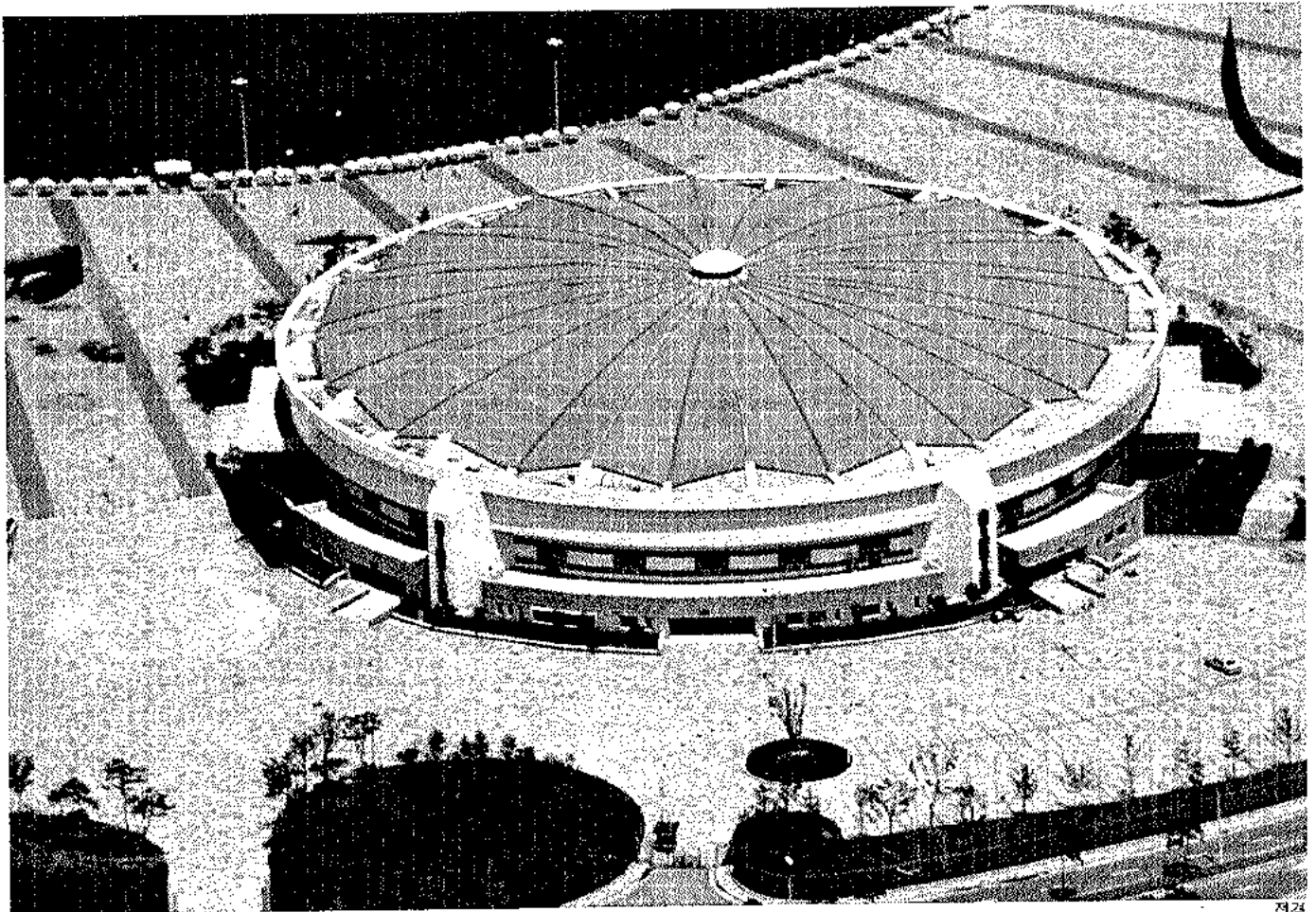
◆
대지위치 / 올림픽공원내
시공 / (주) 대한조선공사
구조 / 서울건축 구조연구소
설비 / 범설비콘설단트
전기 / 유일설계콘설단트
감리 / 올림픽공원 건설공사 감리단
연면적 / 16,358.4m²
경기장면적 / 3,010.5m²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철골조
지붕 - Cable Dome
외부마감 / 지붕 - Fabric(실리콘 코팅드
화이버 그라스)
벽체 - 범람, 유리블럭, 스프레이
타일 화강석

외부천정 - 알루미늄 스펀트런
내부마감 / 경기장 - 천정 - Fabric
벽 - 코탄하재리브
바닥 - 단풍나무 후로링
기능실 - 천정 - 유공석면 텍스
벽 - 스프레이타일, 철제경량자막이
바닥 - 비닐계시드
홀, 복도 - 천정 - 알루미늄스판드렐
벽 - 스프레이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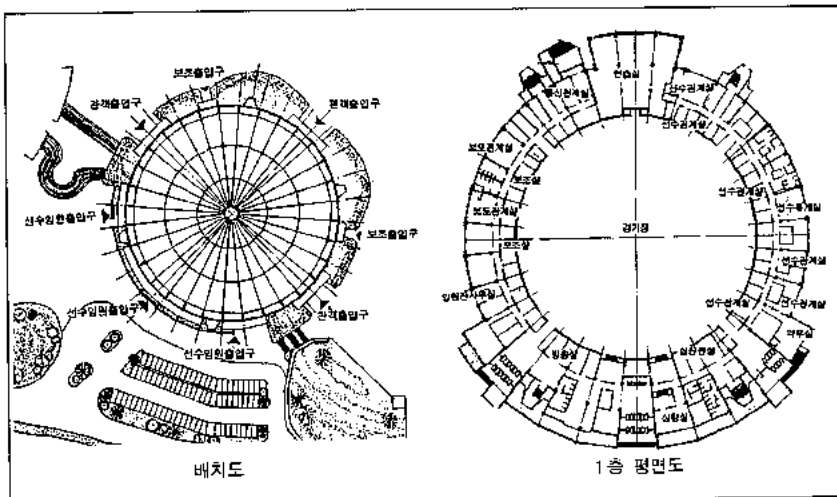


주단면도

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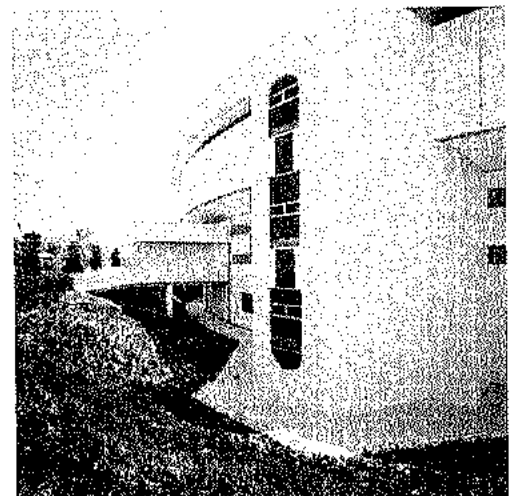


전경



배치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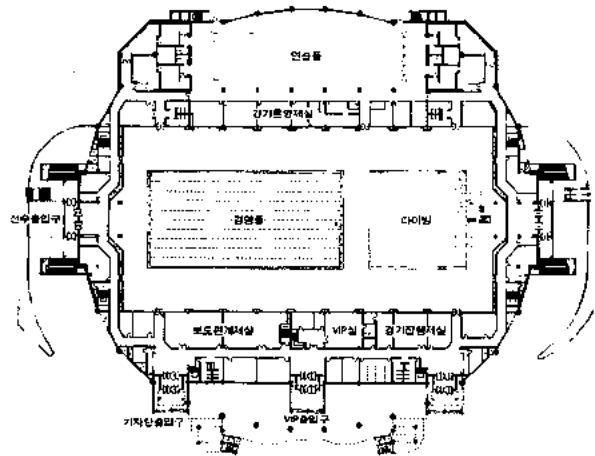
외부상세

실내 수영경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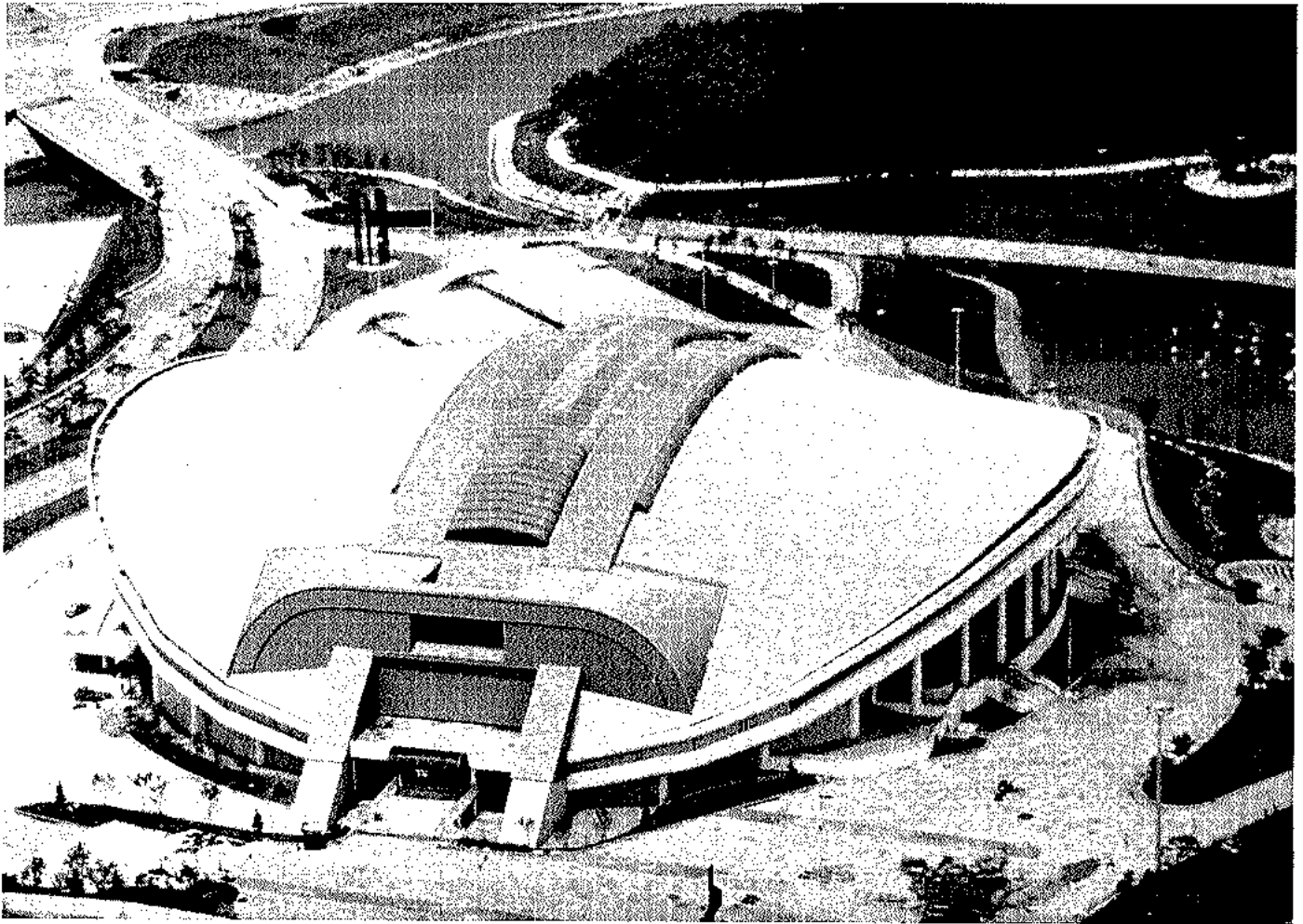
Indoor Swimming Pool

故 金壽根 /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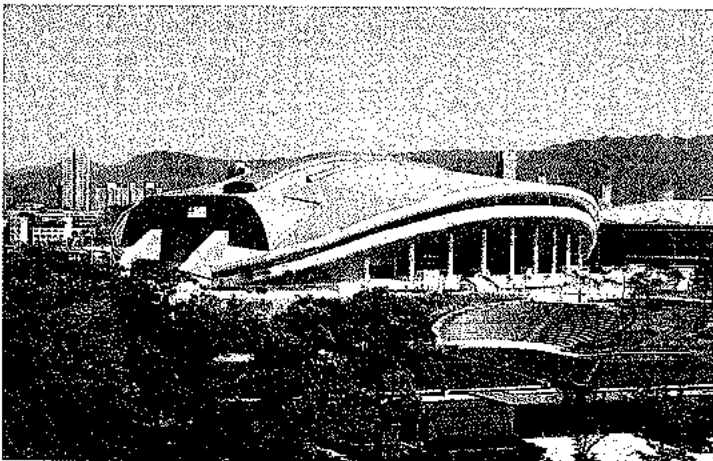
Designed by Kim, Swoo-Ge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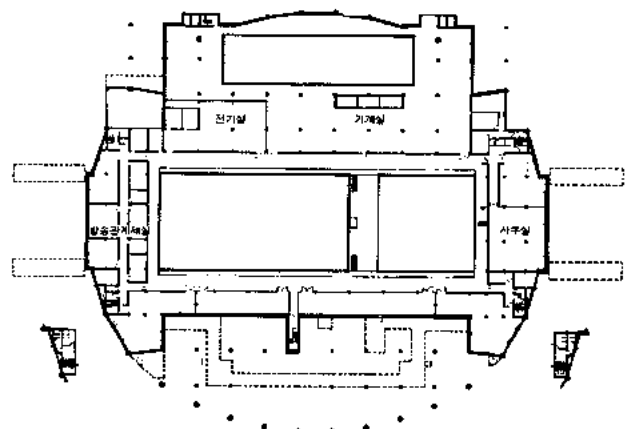
1층평면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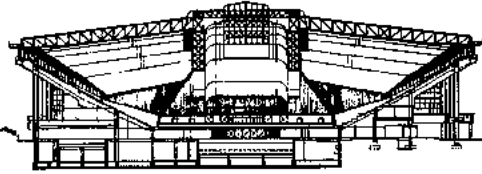


동측 전경



지하층 평면도

◆
대지위치/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 공원내
대지면적/12,742.36m²
연면적/25,074.76m²
규모/지하1층, 지상3층
구조/철근콘크리트라멘조+철골트러스조
마감재/외벽-본타일, 알미늄샌드위치판, 복층유리
지붕-복소수지피복강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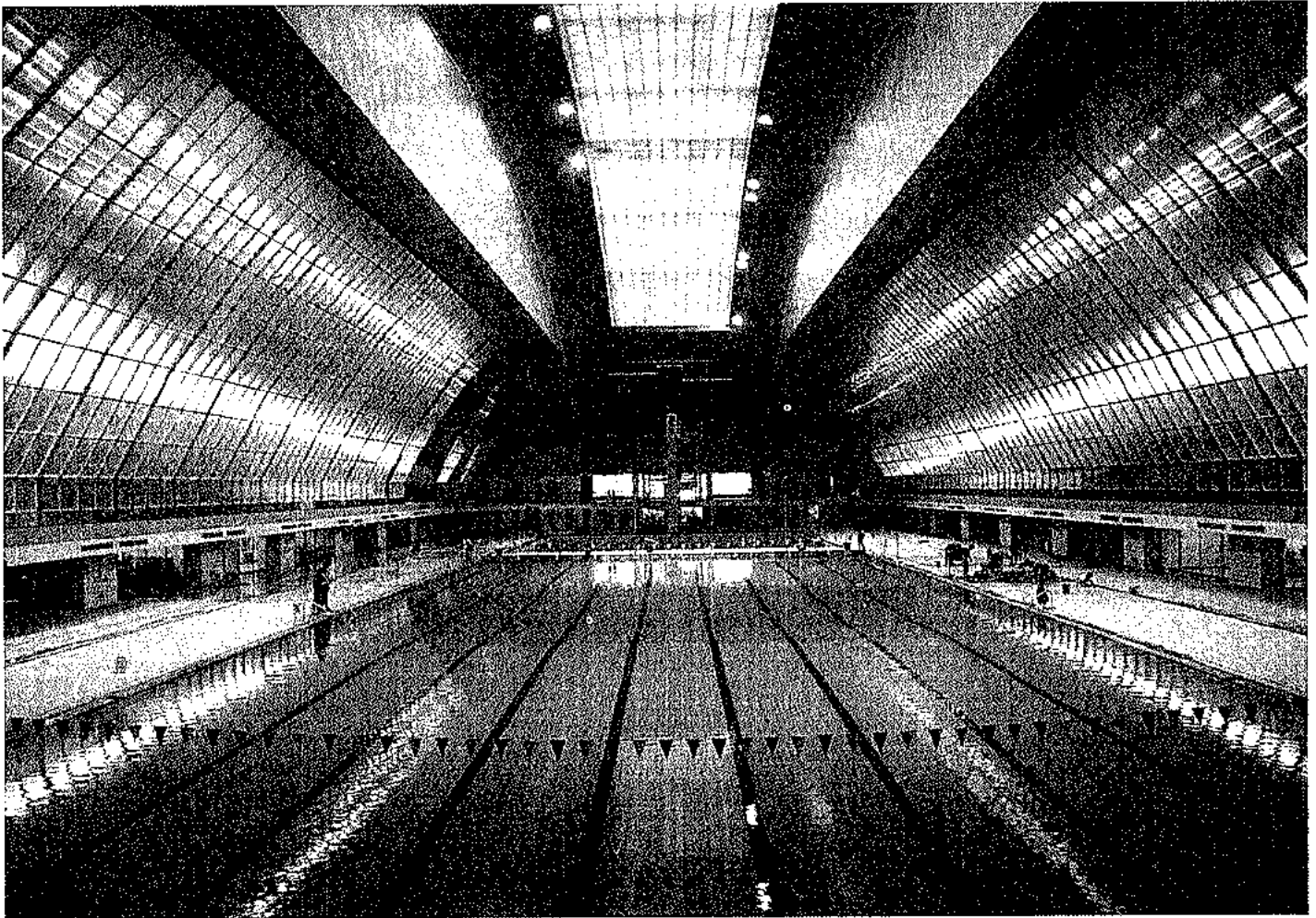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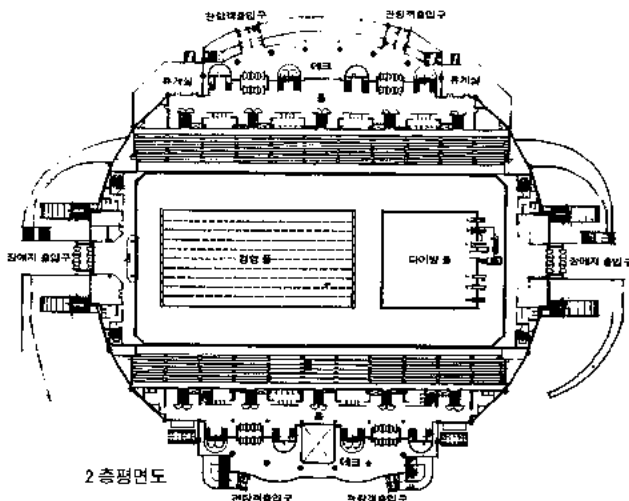
■ 설계소요

몽촌토성을 중심으로한 올림픽 공원내의 5개 경기장중의 맨 우측 끝에 위치한 본 실내 수영장은 주위에 88호수와 체조경기장을 주위에 이웃하며 경기장의 장축을 남북으로 길게 배치하였다.
단지내의 전체적인 조형 개념에 의하여 수평선을 강조하면서 둥근 형태를 취하는 평면계획과 더불어 기능에 부합된 단면계획으로 개성적이며 친밀감있는 조형을 꾸미려 하였다.
상부 스탠드 부분의 창 높이는 점점 변화하면서 양단부로의 수렴성을 암시함으로써 중앙부에서 양측으로 점진적으로 모이도록하는 가운데 선과 면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외벽에 구조적으로 세워지는 기둥의 길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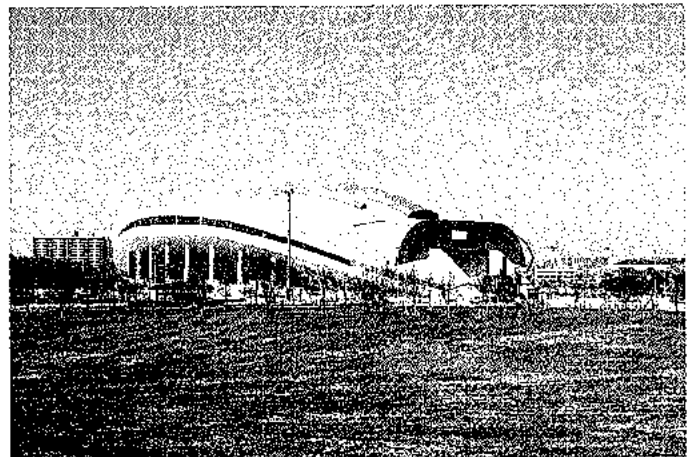
데크(Deck)를 설치함으로써 시각상의 길이에 대한 느낌을 감소시켜 구조물의 안정감과 전체 비례에 균형을 가져오게 했으며, 외부출입구 부분에 캐노피나 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출입구의 인식성을 높였다.
한편 주요시설 계획으로 「움직이는 바닥(Movable Floor)」을 둘 수 있는데 「투 플로어 시스템(Two-Floor System)」을 채택하여 수심을 0m에 에서 3m까지 조절 가능하게 함으로써 올림픽 후 유아용 및 장애인용으로 사용가능하게 하였으며, 에너지절약 계획의 일환으로 「폴 커버시스템(Pool Cover System)」을 도입하여 경기시와 연습시의 내부 체적을 조절함으로써 유지관리비를 절감하는 방법을 도모하고 있다.



실내경기장내부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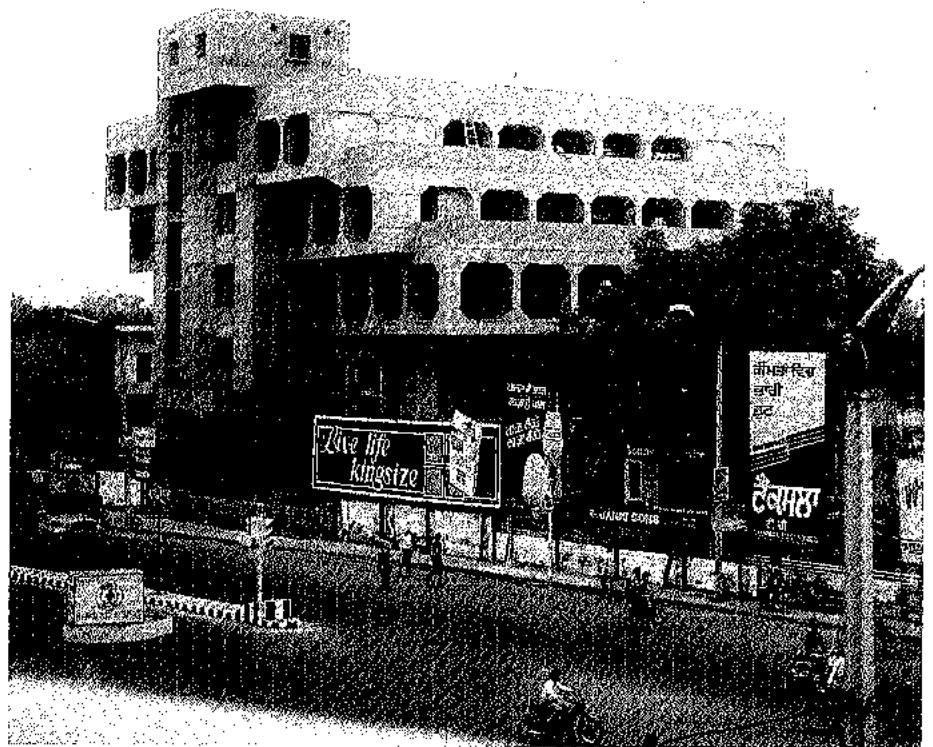


88마당쪽에서 본 전경

Central Co-Operative Bank Complex

Text by Punee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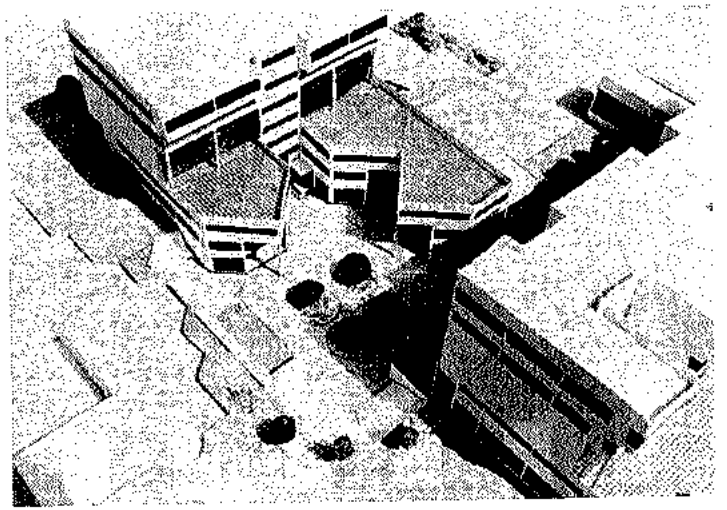
◆ 편집 지방의 주요 도시가 경제적, 인구 통계학적, 지정학적 제반 이유에 따라 과거 식민지 시대까지 유지되어 왔던 도시간의 미적 균형을 상실하고 무계획하며 비정상적인 팽창에 의해 도시 기능과 미관이 잠식당하는 현 시점에 있어서 JALANDHAR를 거점으로 시행되는 "Central Co-Operative Bank Complex"가 갖는 의미는 자못 상당하다. 본 계획이 갖는 중요성은 본 계획이 단순히 내포하고 있는 영역과 기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본 계획으로 인해 도시와 지방의 규모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있다. 어떤 도시건 간에 오랫동안 발전의 중심이 되어왔던 중심부를 유지하는 기능이 정제된다면 스스로 쇠퇴하거나 혹은 기능이 분리되며 자연히 지역이 갈라지거나 또는 새로운 계획에 의해 활력을 찾을 때까지는 퇴보를 거듭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도시 개발의 중핵(中核)도시를 여럿 지정함으로써 질서있고 정돈된 도시 건축물이 들어서게 하여 제반 요인에 의해 커져가는 도시 기능과 영역 확장의 가속력을 통제하는 것이다. 비록 계획 자체가 지닌 여러 제약물에도 불구하고 편집 지방의 발전에 있어서 종래의 무사 안일한 접근 방법에서 벗어난 참신한 계획이라는 점에서 본 계획을 수용한 정부 당국자의 용기와 의식이 돋보인다. 이번 Project에서 계획 입안자들은 상당히 광범위한 협조 분위기 속에서 일을 진행했는데 과거의 전통과 관습에 얽매인 사고 방식이 여러가지로 장애가 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고무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편집 지방의 발전과 관련있는 분야라면 은행, 관청, 농수산동 그 제약을 두지 않고 최고도의 수준으로 계획을 성안하려고 노력했다. 과거의 제약을 뿌리친다는 점에서 이번 계획이 각 분야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는 점 또한 중요하다. 이상의 내용은 CHANDIGARH에 있는 Designers International의 건축가 Anil S. Thakur 씨로부터 취재한 내용이며 관련 위원들의 이해와 이상이 위원회 공무원들과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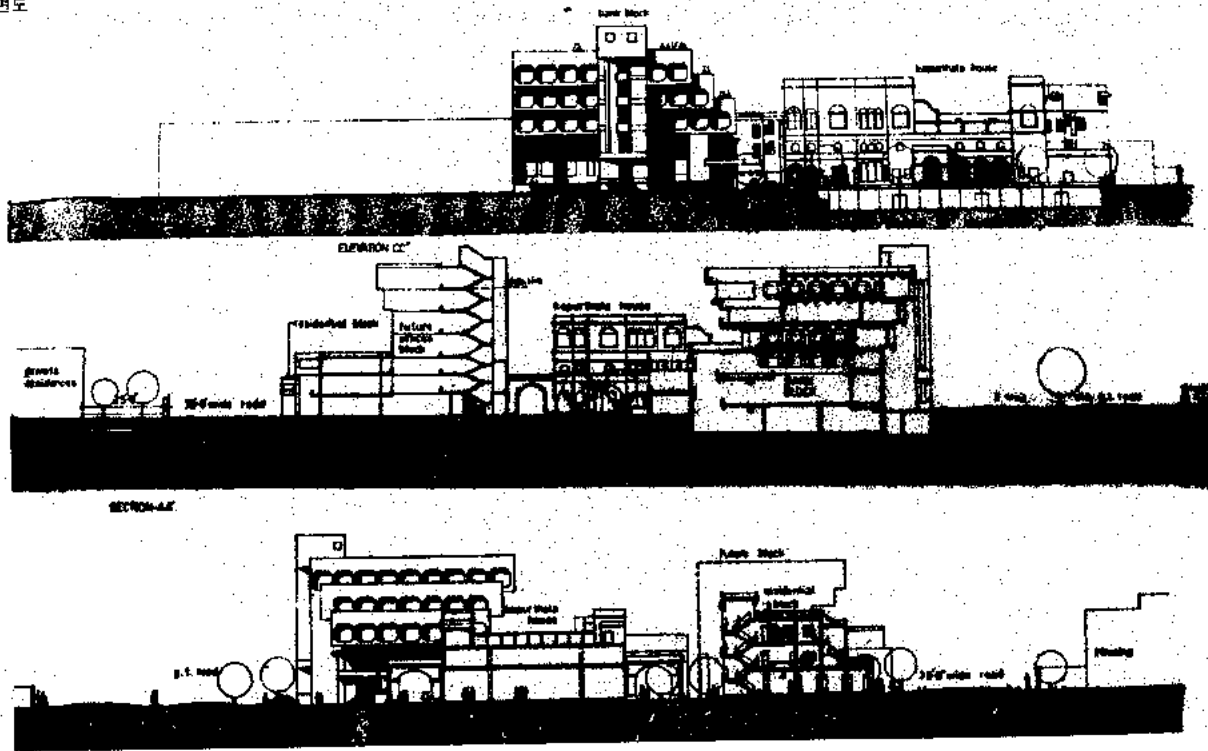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설명을 마쳐 신기로 한다. 이번 Central Co-Operative Bank Jalandhar 계획의 선정 위치가 가장 중요하고 역사적 의미를 갖는데 Jalandhar 시 중앙과 옛 G.T Road 연변을 긴 이곳이 역사적으로도 유서깊은 지역일 뿐 아니라 3층짜리 중앙 우체국 건물, 식당들이 있는 비교적 변화한 곳이라는 점이다. KAPURTHALA 성이 북서쪽에 있다는 점만 제외한다면 주변 전체가 주택가로 파밀한 상태이며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 지역의 성격과 기능이 지극히 토속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의 개발 계획안 응모가운데 하나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이 KAPURTHALA 성을 해체시킬 것을 주장하였는데 실제로 KAPURTHALA 성 주변 경관을 보존하면서 주위와 어울릴 수 있는 건축적 배려를 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림으로써 과거와 현재가 상호 보완적인

공존을 하도록 하였다. 실제 옛 건축물에 대한 흉내를 낸다거나 하는 식으로 과거와의 병존을 모색하는 방법은 철저히 배격함으로써 은행이 지닌 보수적 이미지를 상하지 않고도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예를 들어 KAPURTHALA 성과 사무지역으로 예정된 구역과의 상호관계 설정에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였는데 즉, G.T Road 쪽으로는 상업적인 분위기를 유도하고 뒷 편으로는 KAPURTHALA 성과 연결된 주변 경관과 함께 인증의 광장 역할을 하도록 사무지역을 설정했다. 성의 구조가 각이 지는 구성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점은 주변 구조물들이 이를 완충시킬 수 있도록 설계에 고려를 하였다. 이 중앙에 놓인 광장이 갖는 기능은 단순한 특 터진 공간이 주는 해방감도 있었고 또한 이 지역의 위치와 지역내 구성이 주는 긴장된 구조를 광장을 도입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해소시킨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모형

입면 및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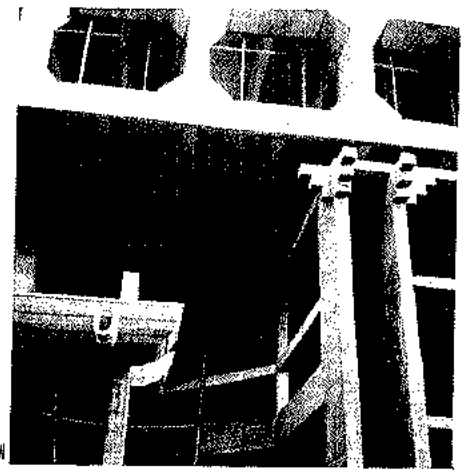
"In times when most of the important cities of Punjab are bursting themselves apart with the natural economic, demographic and geopolitical growth and when the once so beautiful formal core developments of these cities of the colonial eras and of earlier period is rotting in the face of compulsive unregulated and informal growth, the urban project of the nature of "Central Co-Operative Bank Complex" at Jalandhar, hold surmountable significance. Their significance is not limited to the extent of activities/functions that are housed and find an end in itself, but it begins to exert itself both on the city and on regional scales."

"Every city that is marked with

stagnance in the upkeep of its old nucleus and the formal core around which the development had begun and has been beehiving over a long stretch of time, continues to degrade till such time that it either falls under its own weight or isolated land marks/projects of the nature, under description (That form:-alternate cores of development) are planted to relieve the caused stress. Such poly nodes rejuvenate the regulated and self conscious urban architecture that plays a pivotal role in forming an integrated imageability and fabric of an Indian City, hand in hand with informal growth that continues to polarise around it. Such developments are imperative in overall climates of economic

growth supporting both formal and informal systems and the growth thereof."

"Limited to its functions that it forms an abode to, the project speaks of an exemplary saga of certain Govt. officials who showed uncommon courage, sense of purpose and an off the routine approach adopted to inception this project that shall find its due place in the sunshine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cities of Punjab. Through this project, the inceptors have very successfully pulled out the co-operative movement in Punjab out of the yoke of a poor imageability of a traditional, insignificant limping movement and represented it to its full content through this 'Pedes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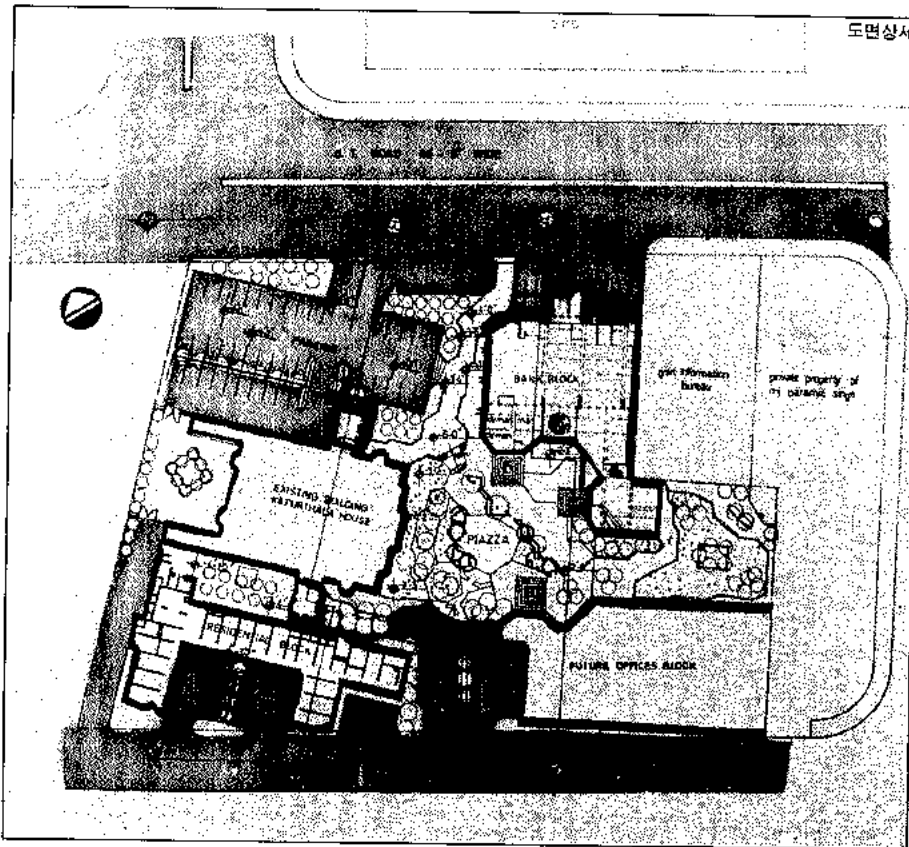


전면상세

관계를 고려하여 전체적인 건물 높이를 낮게 하였으며 큰 건물에나 필요한 승강기등의 기계장치 설비가 필요없도록 배려했다. 따라서 대개의 건물은 3층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 가로의 전체적인 구성은 앞쪽의 도로가 10m라는 점을 고려할 때 1) 건물 전면 조망이 띄어지고 2) 주차 면적이 넓어지며 3) 기능적으로 사람 소통이 많고 구조적으로 길게 건물군이 늘어선다는 점에서 부족한 해방감을 도로가 줄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건물들의 특징이라면 전 층이 전통적인 아래에서 위로,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고 벽에는 틈틈이 통하게 되어 있어 이웃과의 대화가 가능하며 차양을 설치하여 거주용으로 사용될 때의 건물의 Privacy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계획한 점이다. 편잡 지방의 거주용 건물들은 자발적이고 유기적인 구조로 발달되어 자연스러운 Skyline을 이루고 있는데 건축가들은 이러한 인도 지방 특유의 무질서함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려고 시도해 온 것이다. 즉 아주 자연스럽고 전원의 풍취가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건물의 내부 길이는 3m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앞뒤로 환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전원 사정이 좋지 않아 자주 정전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연 채광이 되는 범위내에서 규모를 제한한 것이다.

현재 1층에 주거용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겪는 불편을 따진다면 우선 열대 지방이라는 점 때문에 테라스가 필수적인바 적당한 위치에 이를 시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은 거주자들의 Privacy와 안전 문제가 강조되는 시점에서 검토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점이다. 그러나 주거용이란 점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면 상업용으로서의 제약이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해야만 한다. 3층 건물에는 건물 뒷 편에 주차장쪽으로 설치된 계단으로 오르 내리며 건물은 일반적으로 12" 두께의 벽들로 세워진다. 테라스를 설치하려면 서로 이용 가치를 높힐 수 있도록 서로 수직과 수평으로 맞물리도록 설계한다.



점 때문에 이 지역이 갖는 구조적 난점을 광장을 통해 유기적으로 극복했다고 볼 수 있다. 계획 초기 단계에서는 뒷 편 지역 건물들의 1층을 살리기 위해 광장 자체를 주변보다 1.8m (6feet) 정도 낮은 위치로 조성하려고 했으나 기술적 어려움때문에 이 안은 기각되고 말았다.

BANK BLOCK

R. C. C Vindrels 에 있는 지하층을 포함한 5층짜리 건물로서 한 층 간격으로 기둥이 없는 공간을 구성함으로써 사무실 전용 면적이 65'×110'까지 가능하게 하여 2개층이 기둥이 없고 다른 3층에만 기둥을 설치할 수 있게 하였다. 지하층, 1층, 2층은 은행 시설이 들어 서고 건물 입구에는 조각을 드러낸 독립 현관이 있도록 설계하였다. 은행 입구층은 중층으로 하여 내부를 넓게

하였고 3층 높이에 해당하는 내부는 계단으로 오르 내리게 되어있다. 이와 관련되는 층은 출입현관이 따로 있으며 외부와 수직으로 교통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 외부 장식은 콘크리트로 나무결 효과가 나게 처리하였고 벽에는 유리 벽돌로 마감하여 자연채광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 유리 벽돌을 통해 지하층까지 연결되는 청량감을 주도록 의도하였다.

RESIDENTIAL BLOCK

남서쪽으로 10m (38 feet) 폭의 도로에 접하는 부분은 상업용 및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들이 1,000 yd 의 길이로 뻗어 있고 종래까지의 거리 기능을 존중하는 선에서 가게들이 1층에 들어 서고 대략 2,3개의 침실로 된 거주공간이 2층이 되는 식의 가로가 되게 하였다. 주변 환경과의

Project': as a revolution with higher aspirations that meets the challenges of times in all spheres be it banking, managerial, housing, marketing, and producing agro products and in general anything that means welfare of the masses of Punjab. The Project certainly is a booster in as far as the idea goes that the Co-Operative sector can serve through 'Modernity' more than through mere shackles of age old self centred singular phased approaches."

This is how the project architect Anil S. Thakur of Designers International situated at Chandigarh describes the background of the project and goes on to describe how he devised a twinedged solution to meet the above mentioned facets of the problem i.e. interest and aspirations of the group on one hand and urban design commitments on the other hand. The site and its location for this complex of Central Co-Operative Bank Jalandhar (providing space for offices showrooms of the various apex bodies of the Co-Operatives, low rise flatted housing for the local staff and a main branch of the said bank), is of paramount and historical importance. In the center of the city Jalandhar and fed on one side by old G.T. Road (presently 120'-0" wide), this site faces an important junction having two structures of importance namely General Post Office building (3 storied) high on one side and clock tower Restaurant about 45'-high on the other hand. Kapurthala House magnificent old palace building sits towards the N-W. edge of the site. In fact whole of the site is amidst neighbourhood of a dense sprawl of residential development. This is absolutely vernacular in character & embraces the N-W & S-W. faces of the site. see the pictures.

In the closed ideas competition floated by the promoters, all the entries except the one under description proposed to dismantle 'Kapurthala House' and treat the site as a clean slate to achieve the proposed FAR of 1:1.25. This proposal provided the

optimum coverages after preserving the beautiful edifice Kapurthala House. In fact this scheme not only advocated its preservation but evolved the layout around it in a manner that highlights its existence and forms an architectural environment in which 'old' and 'new' built up spaces co-relate and co-exist in an equal brilliance. No attempt is made (as one can see in the illustrations) to achieve this by employing imitated architectural elements of the old building in its contextual absence, particularly in the design of the Bank Block that relies heavily for its self expression on the structural system seated deep in its breast. But for its interrelationship with other blocks namely Kapurthala House and the future offices block, it relies on its specially designed configuration. On the G.T. Road side it makes the offices enjoy a potent 'Commercial Frontage' and on the rear side it forms a low edged enclosure that forms an integral part of a Piazza which is also enclosed by the angular edges of Kapurthala House. This angularity has been taken down to the newly constructed forms to effect an architectonic assimilation. This Piazza in the Centre of composition not only provides a spatial relief but also an internal frontage to the Complex and absorbs in itself the generated tension because of the axial differentiations of the blocks in the layout that correspond to their frontages, edges of the site and mutual alignments. Due to this very reason the Piazza has been laid out in free and organic order which helps it absorb invincible geometric tensions and hardships resulting from the configuration of the site. In the initial scheme this Piazza was envisaged to be sunk by 6'-0" below ground to provide basement the advantages of a Ground floor on this rear side. This idea had to be ultimately dropped for various engineering considerations.

BANK BLO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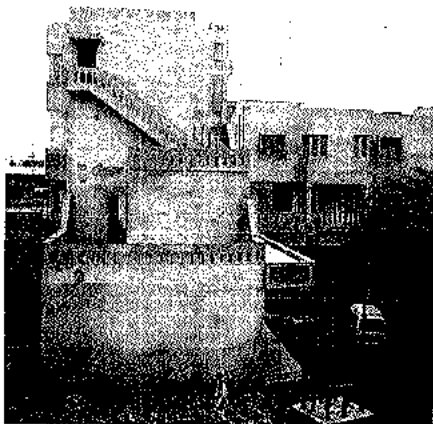
This is five storeyed structure (including basement) in R.C.C. viaducts and frame construction which permit office spaces as large as 65' x 110' columns free on alternate floors. However this arrangement of five storeys permit two column free halls and three columned work spaces. 'Basement, Ground floor Mezz. and First floor' is the volume to be used by the bank itself therefore its independent entry at the prominent corner of the building flanked by a sculptrous overhang. The bank hall is a double volume enclosure in which the mezzanine peeps in. This three tiered volume is served by its internal staircases. Subsequent floors with separate entries are fed through external vertical core containing vertical circulation and services. The block has an exposed ribbed and crisscrossed wooden pattern in poured concrete. In external treatment the volume with the bank is treated separately whereby high external walls will be built in glass blocks to permit natural light. This is also to provide a sense of scale through a 'Miniature square' texture and to extend a buoyancy and transparency to the building towards its base.

RESIDENTIAL BLOCK

The S-W. face of the site abuts a 38'-0" neighbourhood road that supports Commercial Cum residential mixed use functions on both its edges along an approximate 1000yds. of length. This road also forms an important frontage to the site and therefore the decision to plant advantageously the traditional mixed use functions whereby shops are located on ground floor of this block and flatted residences for staff (11 no: of different categories ranging from 2 beds to 3 beds and few with additional study and configuration of toilets and stores) on subsequent floors. To fit into its immediate surrounding and the existing morphology of the forms around, this block had to stay low and also thus eliminate

이번 Project에서 건축가들이 주의를 기울인 점은 건물의 형태와 내용이 도식적이고 정적으로 구성되지 않고 자유롭게 즐거운 기본으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건물의 색깔 또한 Thakur 씨가 거듭 강조하여 도로와 건물, 전체 가로가 특색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Barcelona의 Paseo Della Gracia에 있는 Casa Battllo나 멕시코시의 파란 벽돌 궁전(Blue Tiled Palace), 로스엔젤레스의 Watts Tower, 덴마크의 Blue Town, 또는 베니스의 Burano 처럼 집집마다 모두 특색있게 채색된 경우와 같이 편잡 또한 특색을 가질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거리가 전반적으로 회색의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건축가들이 color를 고려하는데 주저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즉 주거용 지대의 건물을 무지개처럼 알록 달록하게 하려는 시도에 대해 반대가 많고 예산 또한 충분치 않기 때문에 난관이 따르는 점 또한 사실이다. “본 Project의 85%는 내 생각대로이고 나머지 15%는 위원회의 의견에 의한 것이다.” 이 말로 Project 집행위원회의 실제 영향력을 가늠해 볼 수 있지만 대국적으로 본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밝다고 말할 수 있다.



the necessity of the elevators and other mechanical risers. Therefore the decision to stick to max. three storeys was struck. here. The configuration of this block has been so designed that it scoops the 38-0" road in and provides the advantages of (i) Extended Frontages (ii) Additional areas for parking, (iii) Gives a much wanted relief in the middle of this rather busy & long road a design, consideration that has surely done a service to the street as a whole. The block steps up from the lowest at the road to the highest points i.e. the staircases, in playful cresendos employing the traditional slopes and slit punctures in the wall, that

initiate immediate dialogues with the ornamental treatments in the adjacent vicinities. These also serve the purpose of privacy screens to the dwellers in this mixed use development. Inspired by the informal skyline around the site and the general diversity of the built masses in the spontaneous and organic residential development in the cities of Punjab, here the architect has tried to re-create the order-'distilled from the disorderly developments' that are typical of Indian cities and have distinct rural flavour. This is a significant step towards seesthetics of informal order!

The max.depth of the block is broadly limited to 27-0", throughout to facilitate cross ventilation and natural light in frequent power failure a practical problem in distant future too. To mitigate the harsh effects of off the ground flatted accomidations to which most of the future occupants '1 may not be used to, (particularly in this semi Urban and tropical area), the provision of suitable terraces in appropriate locations with each flat has been made. This feature in this part of the tropics is as improtant as giving the family a space to "swing the cat"! While all this happens where is the privacy of dewellers and their security (a key issue in planning of a project in Punjab) '2. This problem is accentuated further in mixed use development. Therefore the residential approaches have been located at two distinct locations where commercials/customers have nothing to do. Staircases laid in a pattern to serve three dwellings on a floor, are located at two distinct points approached from the rear of the block. Adjacent to these are located Cars and Scooters garages as per the projected demand. All this happens in a mixed construction of predominantly load bearing brick walls over a grid of 12-0" C/C and RCC, reliveing members. In order to release the terraces, and to make a terrace of one, useful to the other, the unit devetails in to each other both horrizontally and vertically.

A note worthy feature in this design of the complex is that the consistant relationship between the form and contents of the buildings conceived by this arhitect are no longer statis and impelling but always interpretable and playful. 'Colour' is a word which Architect Thakur lays utmost stress on and enthusiastically cites examples of streets, neighbourhoods and towns that are completely coloured-Gaudi's Casa Battllo on Paseo della Gracia, in Barcelona, the blue tiled palace in Mexico city, the watts Tower in Los Angeles, blus town in Denmark, and Burano near Venice where literally every house has a different colour.

"We witness ubiquitous masses of grey concrete and smoke which turn the predominant image of our cities. I know exactly why the architects are hesitants to make use of colour..." He is finding tremendous pressures and resistance form the promoters of the projects for painting the residences in the 'rainbow'! However in the garb of paucity of funds the colour scheme stands at present titled 'pending'.

"The Engineering Cell of Co-operative bank with the team of PWD (B&R) engineers who regulated the contstruction have often divergent views and it takes a lot to move with people of all the tastes and back grounds."

"This project is realised up to 85% of my likes and 15% contribute to the weight thrown decisions of the cell."

This is how the describes his feelings towards the execution of this project. However with this score too, the architect feels contended and hopes for a better score next time.

Text by Puneeta

*

1. Presently the staff members are liveng at distant places scatteread all around the city. All of them are used to extending thier household activities in the open areas.

2. The project was planned during the troubled periods of Punjab when 'Security' was the key issue of neighbourhood.

제3차 아시아건축사대회

학술토론회 (Conference) 소개 - 2

Introduction of ACA-3 Conference

ACA3 집행본부 기획위원회

토론회2, 첫번째 발표

주제발표 연사 : 찰스 코레아(Charle Correa)

발표제목 : 공(公)과 사(私) 그리고 성(聖)



Charles Correa

발표연사 소개 :

봄베이에서 활약하는 건축가/계획가이며 그의 작품은 세바르마티의 야쉬람에 있는 마하트마 간디 기념관, 봄베이와 벵갈로라시의 청사, 미디어 프라대쉬의 주의회건물 등 광범위하다. 그는 기존 시가지로부터 항구를 가로질러 개발되고 있는 인구 이백만의 새봄베이의 계획을 위한 주 건축가였다.

그는 인도와 외국의 하바드, 엠아יתי, 런던대학 등에서 가르쳤다. 그는 1984년 케임브리지 대학의 네루기념 교수로 임명되었다.

코레아는 제3세계의 도시문제들을 다룬 '새로운 환경' (The New Landscape)의 저자이다. 1974년 타임잡지는 그를 세계의 새로운 지도자 150이라는 표제의 한 사람으로 지목했다. 1980년 미쉬간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84년 영국 왕립 건축가협회 금메달을 받은바 있다. 1987년 인도건축가 협회의 금메달을 수상했다.

발표문 초록 :

우리는 현상계 안에 살고있다. 시간이 시작된 이래 인간은 하나의 다른 세계 즉 그가 매일 경험하고 지속시키고 있는 세계의 저변에 있는 발현되지 않는 세계의 존재를 직감적으로 감지했다. 우리가 이 발현되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의미들을 캐내고 이들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주된 통로는 종교와 철학 및 예술이다. 이처럼 건축 또한 발현된 세계보다 더 풍부한 실재의 존재를 표현하는 신화적 믿음에 기초를 두고있다.

인도에서 이들 신화들은 온 천지에 퍼져 있어서 이들은 우리가 살고있는 생활공간의 매우 중차대한 통합적인 부분이다. 비록 사회이론가들, 정치가, 도시계획가들과 그의 많은 사람들간에 우리의 생활공간을 구성하는 공공 및 사적인 영역에 대한 논의들과 자각이 있어왔지만 생활공간의 성의 영역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가로지르고 온 지구의 표피에 존속하는 인간사회를 들여다볼 때 이것은 모든것중 가장 중요한 영역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을 움직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욕구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주제는 이 성의 영역이 아시아의 건축뿐만 아니고 그외의 모든 건축환경에 대한 어떠한 방법의 이해보다도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중요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발현의 세계에 속한 신화적 차원에 개입하여 공공 및 사적인 공간 모두에 측정할 수 없는 차원의 특질을 부여하지만 그렇다고 이 성의 영역이 이 둘 중 어느것에도 속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인류는 언제나 비가시적이고 알려지지 않고 또 알 수 없는

세계에 매료되어 왔지만 아마도 쉬마커가 지적한대로 우리가 돌에서 부터 식물로 그리고 동물로 다시 인간으로 진전하는 자연의 과정에 따라 움직여가는 것처럼 성의 영역은 생명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위계를 반영한다. 돌은 이를 구성하는 재료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만약 돌이 비밀스런 생명을 가진다해도 우리는 알길이 없다). 식물은 새로운 실체인 생명이 첨가된 물리적 재료로 구성되며 이리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로의 여행이 시작된다. 동물은 재료 더하기 생명더하기 외지로 구성된다. 인간에 이르러서는 하나의 실체가 더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각이며 우리는 비가시의 세계안에 있게된다. 당신의 동료 인간속에 있는 필수적인 모튼것 - 그의 생각, 감정, 열망, 환희 등 - 은 당신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 '비가시 세계'는 '가시세계'에 대해 무한정으로 큰 힘과 중요성을 가진다. 인간은 개벽이라 그를 사로 잡고 있는 비가시세계와 신화를 전하기 위해 돌과 흙, 석와 콘크리트 등 가장 물질적인 요소를 사용해왔다. 이 글은 베다철학의 바츠 푸루쉬 만다라로부터 시작하여 이슬람의 낙원(CHAR-BACH)을 거쳐 오늘날 우리를 감싸고 있는 과학, 이성, 발전 등 급세기 이성시대의 신화에서 끝을 맺는다.

토론회2, 두번째 발표

주제발표 연사 : 존 하브라켄 (N. John Habraken)

발표제목 : 사회적 동의로서의 유형



N. John Habraken

발표연사 소개 :

1928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태어났으며 네덜란드 국적을 가졌고 델프트 공과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했다. 현재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살고 있다. 1965년부터 1975년까지 네덜란드의 비영리 건축연구단체인 SAR의 책임자로서 주택과 도시설계에 전문가가 개입하는 새로운 방법을 탐구했다. 그의 연구는 전문 설계자가 건축환경의 변화와 적응과정을 다루기 위한 도구로서의 특수한 설계방법론을 창출했다.

1967년에 아인트호벤공과 대학의 요청으로

그곳에 새 건축 및 도시설계학과를 창설하고 초대 학과장으로 부임했다. 1975년에서 1981년 사이 미국 엠·아이·티(MIT) 공대 건축학과장을 역임하였고 이후 그곳에서 연구와 교육을 계속해왔다. 그는 엠·아이·티에서 전조환경에 대한 조절과 변형의 개념에 기초한 건축설계를 위한 일반이론과 방법에 대해 연구해왔다. 그의 최근의 저서로는 "입지변형론"(1983)과 "형태의 모습"(1985)이 있다.

그는 최근에 건축설계, 도시설계 및 제품개발에 체계적인 접근을 유도하는 자문회사인 '건축체계 자문'을 설립했다.



진행중인 과업중 주요한 것은 주택의 인필체계(Infill System)와 건축산업을 위한 더고도화된 지능의 씨·에이·디(CAD) 체계의 개발이다.

발표문 초록 :

각 문화는 그 문화권안의 사람들에 친숙한 전통적 주거유형들을 가지고 있다. 이 주거유형들은 어느 건축가에 의해 창안된 것이 아니며 그 사회속에서 점차 형성된 것이다. 대량의 주택건설과 현대기술의 충격속에 우리는 오랫동안 전통적 주거유형의 기능과 질이 더 이상 가치없는 것으로 무시해왔었다. 그러나 이 유형들은 어떤 개별적인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과 조직의 일반적 원리의 산물인 것이다.

최근의 연구는 전통적 주거유형에 대한 우리의 흥미를 부활시켰다. 이 논문은 MIT 건축과에서 여러나라의 젊은 건축가들이 주거유형의 재평가에 심혈을 기울인 연구결과와 보고이다. 이 논문은 말레이시아, 중국, 한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그리스, 폴란드, 영국, 네덜란드 등 여러나라의 주거유형에 대한 연구에서 이끌어낸 것이다. 일반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적 주거유형은 체계적이다. 한 유형안에서 우리는 기술체계, 공간조직 체계, 양식의 추구와 장식의 체계등 몇개의 체계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들 체계들은 설명이 가능하다.
2. 한 유형의 체계들은 유연성을 가지며 여러 가능한 해석을 허용한다. 그러므로 각 주거는 거주자의 취향과 대지조건에 따라 적응되고 이 유연성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변화를 허용한다.
3. 유형의 체계들은 매우 다양한 크기의 주거들을 포용한다. 즉 이들은 빈민층 뿐 아니라 부유층의 주거까지도 포용한다. 작은 집들은 통상 큰 집들에서 발견되는 일정한 요소들을 가지지 않지만 동일한 조합의 법칙들을 따른다.

4. 유형의 공간조직은 단지 부분적으로 기능에 좌우된다. 공간조직은 대체로 일반성을 가지므로 매우 다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유를 가진다. 이런 이유때문에 전통적인 주거들은 그들이 지어졌을 때와 매우 달라진 조건들 속에서도 주거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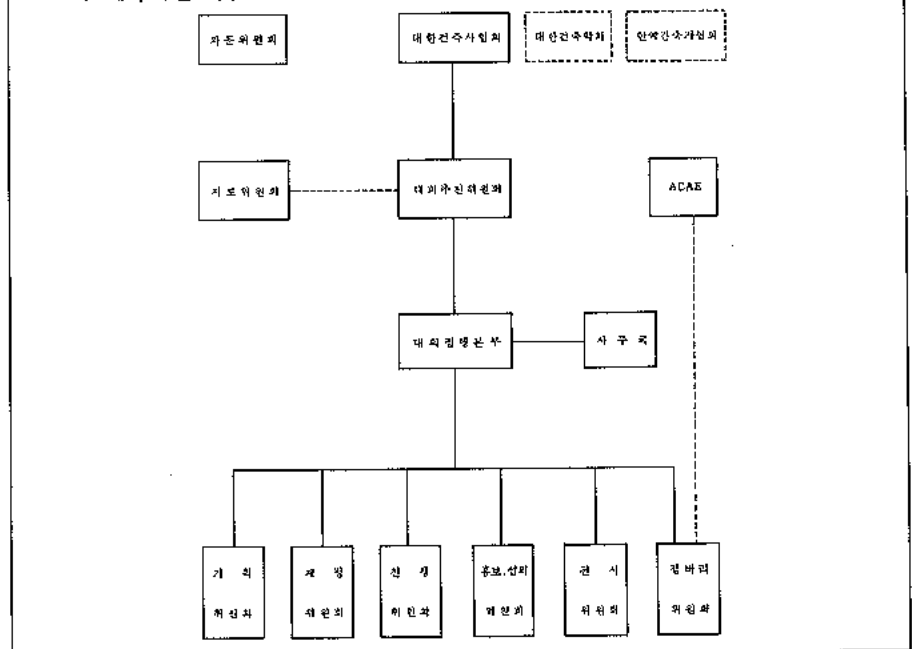
5. 주거유형의 체계적 법칙들은 형식적으로 기호화 되어 있지 않다. 그들은 그집을 짓거나 그속에 사는 사람들의 경험과 감지하는 세계안에 있다. 이것은 집을 지은 사람과 보통 사람들을 연결한다. 그들은 모두 이 유형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서로 통할 수 있다. 이 유형은 공통의 상식이며 따라서 진정으로 한 문화의 일부이다. 전통적인 유형은 참여를 위한 내용을 제공한다.

6. 유형적인 기술(Type Technology)이 형식적으로 기호화 되어있지 않고 단지 공장들의 전통적인 부분에 속하므로 이것은 경색된 체계가 아니다. 새로운 기술에의 적용이 가능하다. 새로운 종속체계는 그 유형의 전체성안에 들어 맞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형들은 최신 발전된 체계기술 즉 '열려진 체계'와 일치한다. 7. 주거유형은 도시외곽을 이루는 세포이다. 잘 연구된 주거유형은 도시공간과 도시순환을 위한 원칙들을 제시한다. 이 유형은 건축가들로 하여금 서로 공유하는 원칙들 속에서 활동하도록 하여 좀더 일관성 있는 도시환경을 제안하게 한다.

우리는 전통적 주거유형의 연구로부터 오늘날의 설계를 위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단지 상징성의 이유만으로 표피적인 양식적 특성만을 복제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자동차나 더 많이 요구되는 위생설비와 같은 현대의 필요성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변화하는 가족구조도 무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전통적 주거유형이 제시하는 안정되고 장기적인 의미의 공간구조를 사용하여 우리자신의 문화에 연결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진정으로 건축적인 방법속에서 체계적일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다.

ACA-3 대회 추진 기구표



스위스 그랜드호텔을 보며...

Coment on Swiss Grand Hotel

許範八 / 국민대 부교수

by Heo, Beom-Pal



사진 1

· 序

Hotel, 그 단어는 우리의 생활 (좁은 호텔의 역사중)에서 매우 생소하며 거북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더구나 우리처럼 농업을 주로하는 민족에 있어서 여행이란 매우 특수한 경험이며 그 수용시설도 매우 단조로웠다. 그러나 이러한 호텔도 그 역사가 짧지만 웨스틴조선호텔을 시발로 세라본워커힐, 프라자, 신라, 롯데, 하이얏트, 힐튼, 르네상스로 이어지면서 호텔의 양적확보나 부대시설의 고급적 분위기에서 압도되는 상태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더구나 중상층이상이 사회에 확대되고 더불어 주5일 근무와 그로인한 각종 레저시설의 발달로 인하여 호텔도 그 기능충족이 매우 급속도로 변화하며 호텔이 지니는 고유한 운영형태 및 부대시설의 운영실태에 따라 취향의 선택이 형성되고 있다.

물론 현재까지도 외국디자이너와 외국의 운영방식에 얽매는 것은 사실이나 울림픽 이후 새로워지는 현실에 적응하거나 미래의 생활환경에 익숙해지면 많은 우리의 노하우를 호텔에 부여하리라 본다. 최근 중량급 호텔이 오픈하는 상황속에서 숙박시설과 그에 부속되는 서비스 시설의 구성수법이 매우 다양함을 느낄 수 있다. 본고에서는 스위스그랜드호텔의 성격을 비즈니스 시티호텔로 규정하고 기능적 업무성격을 이해한 후 그 자체가 지니는 건축적 측면에 관하여 논하기로 한다.

· 환경과 디자인 전개

기존환경자체가 시각적효과와 물리적조건으로 디자인을 어느 방향으로 종용시키고 시행주체의 다양한 요구는 수시로 변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건축가는 특정한 지점에 자신의 지식과 체험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의 점과 그 한점의 해석으로 하나의 선을 그리게 될때 종종 복병을 만나게 된다. 기존의 많은 호텔이 그랬듯듯이 다양한 호텔의 기능과 운영측의 욕구 변화는 건축가의 상황판단을 종종 혼란시키고 곤혹스럽게 만들곤 했다. 그러나 건축물은

완성되는 순간 작가를 떠나버린다. 그 진행의 과정이 어떠했던 한 개인이 창조한 결과는 작가의 것만이 아닌 것으로 객관화되고 그후 건축가에게는 책임과 함께 비판이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건물의 지정한 분석은 그 진행과정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그와 더불어 결정된 상황의 판단이 올바른 것이다.

스위스그랜드호텔은 몇개의 시행변화를 겪기는 했지만 완공되었다. 경사가 심한 자연계곡과 대지북측에는 채석장의 소음과 혼잡함, 그리고 남측에는 인접주거지역의 프라이버시, 더불어 전면의 주거지역 등 대지밖으로 향한 조망의 악조건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L"자형의 건물배치는 콘타와 대지조건에 대한 해석상의 아이디어로 이해되며 외관형태에서의 개구부처리는 시각적교정의 기능적요구에 강하게 접했으리라 짐작된다. 또한 그 대지의 특성에 의하여 가로와 콘텍스트보다 자연산록속에 삽입되는 독립적 형태의 이미지 구축은 단순하지만 과감한 형태의 추구로 유도되었을 것이고 가로를 따라 진행되는 상태에서 도면의 ㉔ 지점에서는 정면으로 ㉕ 지점에서는 측면을 따라 진행되는 시각전달의 요구해석이라 이해되어진다.

건물의 형태해석은 단순하지만 과감한 이미지전달로 Lump 적 구성수법을 지니게 되고 이러한 덩어리에 절제된 창호, 그리고 그에 따른 음영적 효과의 벽면처리하는 매우 흡족한 접근의 시도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빗겨진 창은 음영을 채공하는 측면은 있으나 그 분할이 너무 미시적으로 되어 혼잡스럽게 지각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사진2 처럼 ㉔와 ㉕을 연결하는 2층 부대공간의 개구부형성과 그 연결수법이 문제시되며 ㉔부분의 태두리적 벽면이 미약하게 느껴져 안정감과 집중력이 약화되어 단순하지만 과감하고자 했던 초기의 작품의도가 많이 희석되었다. 즉 가로환경적 측면에서는 정면의 면적구성이 화강암의 강인함과 단순함의 이미지는 은유 인듯 하나 근접시각의가 측면에서는 다양한 창호의 얇은 음영이 Solid 와

許範九

49년 서울생. 홍익대와 同 대학원 박사과정수로 현재 국민대 부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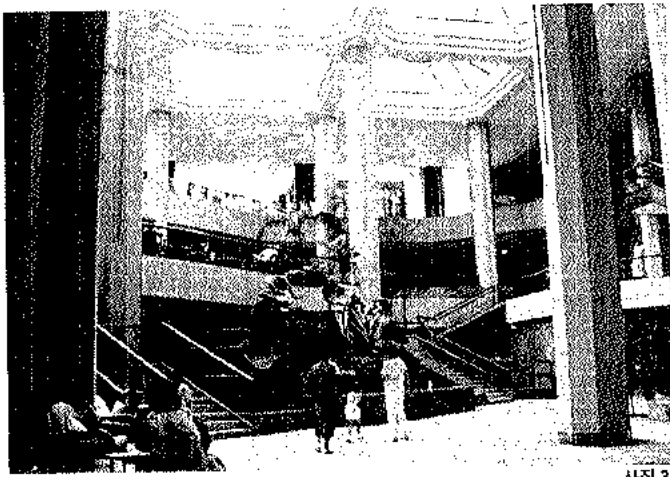


사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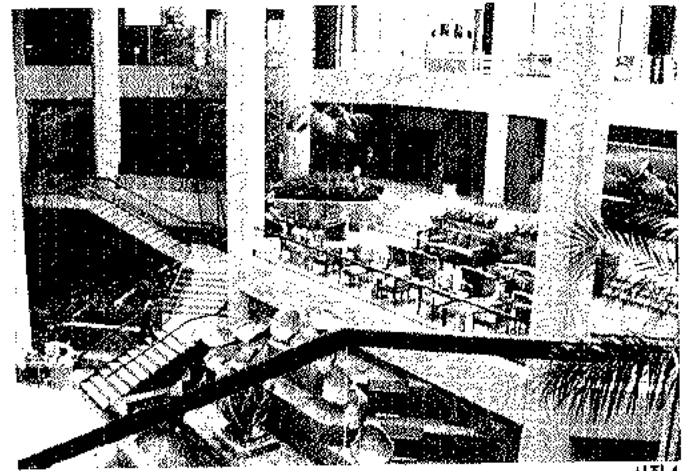


사진 4

Void의 적절한 비례보다 메스의 분절로만 이해되어 건물자체의 디자인 언어는 어느 호텔의 양식보다 단연 우수하고 압도적이나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확산되는 분위기로 지각되어 전면의 조형효과가 순수한 애정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물론 주변불량환경에 대한 시각적 교정의 효과와 단일효과의 기대에 의한 절제된 창호등의 합리적 형태해석 등은 작가의 엄청난 노작임은 인정하지만) 또한 전체조경은 진입로의 경사에 의하여 시각적 접근 효과는 지니고 있으나 측면진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서비스동의 입면처리가 그 스케일에 비하여 세밀성의 디테일이나 공간적 구성효과와 문제로 인하여 답답하게 지각된다. 이는 진입시 양귀적 덩어리에 의한 일차적 감흥효과와 부족함이 실내부영의 효과로 언어지는 것도 아니어서 자칫 권위적 표현과 단조로움을 시사할 수 있음이다.

· 기능적 성격과 공간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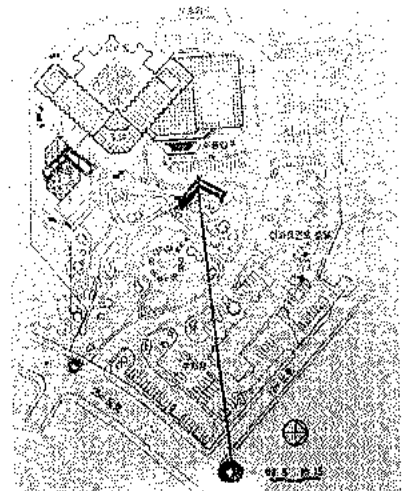
여타의 건축설계도 복잡하며 다양한 해석을 요하지만 호텔은 더욱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들 및 경영주체인 호텔운영자의 요구와 기능충족이 복합적이므로 공간계획은 다양하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위스 그랜드 호텔은 그 기본적 성격을 시티호텔로 구분하고 그 기능은 상층부는 객실과 저층부는 위락부대시설을 배치하여 그 구분은 거대한 아트리움으로 구획되고 있다. 즉 지하층, 1층, 2층의 공용부분은 호텔의 주공간인 아트리움으로 중심배치되었으며, 상부 2개층(4~11층)에는 객실만을 배치하여 에리메이티의 혼잡방지, 객실에서 보다 편한 분위기를 가지도록 하였다. 404개의 객실과 식음료 및 연회동의 부대시설 규모는 국제적 수준의 특급호텔로서의 적정규모는 유지하고 있는데 비하여 아트리움은 상대적으로 과장되어 있음을 느끼나 이러한 아트리움으로 前公用空間으로 활용되고 있음으로써 로비, 복도 등의 복합공간을 여유롭게 하고자 하는 의도는 매우 높이평가할 수 있다. (사진3,4)

구조시스템으로서 고층부는 Flat Plate Slab와 4"간격의 기둥으로 층고를 최소화(층고2.8"), 하부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 계획하여 공사비 절감 및 공기단축을 꾀하였으며 이에따라 대형 Transfer Girder가 지나는 3층을 서비스층으로 활용케하여 공조기계실, 전기실등을 배치하여 상부의 객실층과 하부의 공용층 설비를 담당하도록 한점은 공간이용의 활용도를 높인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結

스위스그랜드호텔에 표현된 조형성은 이미 우리의 감각속에 친근해졌고 그 조형성이 형성하는 공간감은 항시 새롭게 우리를 압도한다. 매우 섬세한 비례와 기능적 구성의 충족으로 이루어진 화사드, 전체적매스로 표현된 화합성 등은 이 건축의 어떤 기술적 하자도 상쇄하고 남는 가치이며 진입로 우측에 진행되고 있는 빌라와 더불어 전체단지의 분위기는 주변의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는 내용이라 보아진다. 이제 우리의 호텔건축 및 실내계획도

화려함과 사치스러움에서 벗어나 진정 진절하며 상냥한 이미지를 활성화하여 옛 낭만이 서린 아름다우며 담백하면서 소박한 우리의 분위기를 지니며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 대처하는 올바른 부대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할 때라 느껴진다.



도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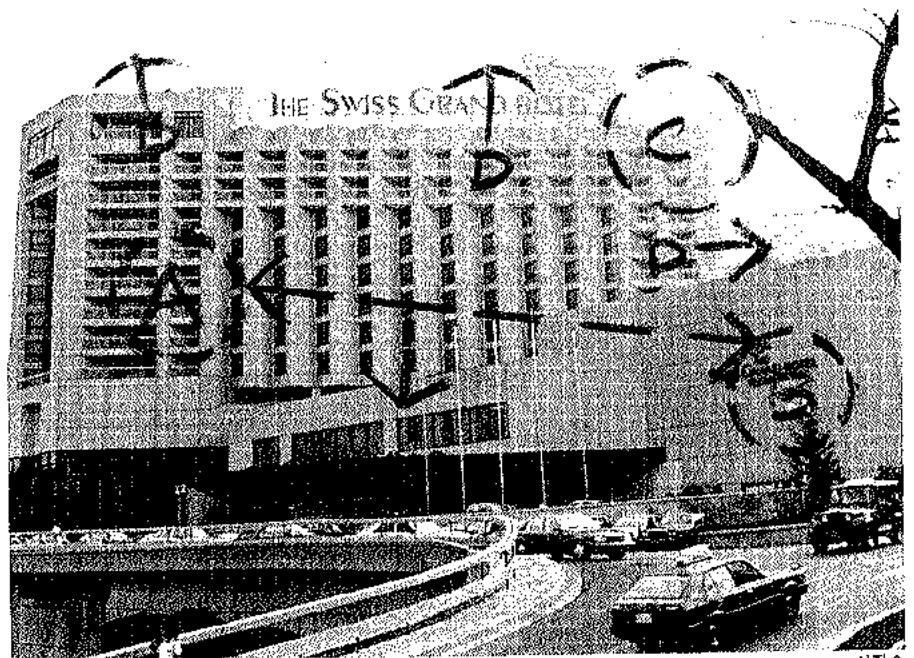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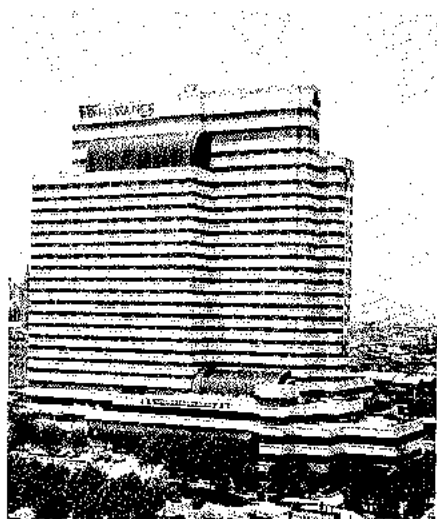


사진 2

호텔建築批評 2題

Review the Two Architectural Works

安秉義 / 鄕建築 대표
by An, Byung-Wue



라마다 르네상스호텔



리베라호텔 투시도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 대해

지금부터 약 3년전인 85년 초엽이었다고 기억되는데,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의 建築主人 삼부토건의 회의실에서 空間에서 설계한 이 호텔의 基本設計에 대한 심사라할까 그런 모임이 있었다. 건축주측의 간부들과 호텔의 지배인, 건축설비, 전기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있었다. 공간의 설계 담당자의 간단한 브리핑이 있고나서, 각 전문가들이 차례로 이 기본안의 장단점을 지적하고, 호텔건축의 유의해야할 점을 설명했다. 내가 지적한 것은 호텔의 주출입구와 회의장출입구를 완전분리하고,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큰거리를 두고 떼어놓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

이 모임에서 3년이 지난 지금, 이 글을 쓰기위해 나는 여러번 이 호텔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호텔의 안팎을 돌아다니면서 회회하게 머리속에 남아있는 기본설계의 이미지와 현실과의 차이점을 찾아내려고 내 머릿속의 컴퓨터는 눈부시게 작동했다.

첫째의 의문점은 쉽게 풀렸다. 대회의장은 내가 지적했던대로 호텔의 주출입구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대지의 도로변 고저측을 이용하여, 매우 효과있게 처리되어 있다. 사실인즉, 호텔에서 사람이 붐비는 것은 주출입구 보다는 회의장입구쪽이다. 회의장은 짧은시간내에 많은 손님을 처리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크리스마스나, 연말때는 파크를 이룬다.

이 호텔은 전면이며 주출입구인 테헤란로쪽과 호텔의 후면과 이보다 높은 도로에면한 대회의장쪽, 그리고 지하층주차장, 이렇게 4군데의 주차장을 갖고있다.

그런데 이 4개의 주차장이 有機的으로 활용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력저력 쓰이기는 하겠으나, 특히 잘못처리된 것은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이겠다. 두 출입구가 너무 가까이 붙어있어, 출구와 입구를 착각하기쉽고 혼동을 일으킬까 염려된다. 원칙적으로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는 서로 반대편에 멀리 떨어져있는 것이 원활하게 지동차가 인도된다.

아마도 이렇게 하지못한 까닭은 언주로쪽에 선근가든을 꾸미려는 의도때문이라고 생각되지만.

선근가든은 이 호텔의 기능이나, 미관상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언주로에서 지하상가나, 오락실, 나이트클럽등에 이르는 어프로우취하면서, 이 호텔의 입체적 아름다움을 더해준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이처럼 중요한 부분치고는 너무나 작다. 좀 더 넓게 잡으면서 좀더 드라마틱한 분위기로 꾸몄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 프로젝트는 당초에는 언주로쪽 코너에 쇼핑센터를 지을 예정이어서 아직 그 자리가 빈터로 남아있고, 증축예정지로 되어있다. 아마도 호텔뒷쪽에 매우 넓은 크기의 주차장이 있는 것은 이 증축건물에 대한 배려인 것 같은데, 이 증축건물의 확보로 말마암아 매우 큰 손실을 호텔건물에 안겨주고 있다. 첫째, 이 증축예정지 때문에 로딩독 등 서비스입구에 이르는 차량의 출입이 중간에 한번쪼여야 하므로 매우 불편하리라 생각된다.

둘째, 이 증축계획이 없었더라면 호텔전면의 주차장을 좀더 넓게하고, 테헤란로에서 호텔을 좀더 뒷쪽으로 Set Back 시켰으면 호텔주현관의 차량동선을 보다 여유있게 잡을수도 있었으리라. 그렇게되면 선근가든도 보다 나아졌을 것이고.

호텔의 설계란, 애초에 그 地 주변 의 시장성조사를 하여 이를 바탕으로 호텔의 규모, 성격을 결정하고 끝이여, 영업수지효과를 검토하는 순서로 시작된다. 이 과정을 거쳐 호텔의 계획설계에 들어가고 기본설계로 다듬어진다.

그러나 불행히도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호텔의 시장성조사를 할만한 전문가가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콕직한 호텔의 경우는 외국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호텔종사자들의 주먹구구식 판단과 건축주의 직감에 따라 호텔의 규모가 결정된다.

◆ 安秉義
27년 서울생. 52년 서울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와 서울대 강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향건축을 자영하고 있다.

이 증축예정지가 시장성조사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궁금하다. 처음계획대로 호텔에 부속되어 있는 쇼핑센터인가. 말하자면 롯데호텔과 그 쇼핑센터처럼 말이다. 지상에 소개된 것에 따르면 증축예정지까지 포함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 호텔의 대지면적은 약 18,000㎡이고, 연면적 72,000㎡로 용적률이 불과 275%로 되어있다.

이 대지의 법적용적률의 한계는 모르겠으나, 과연 이 급사라기땅에 이 정도의 용적률로 호텔로서의 타산이 맞을까하고 의심이간다. 호텔의 경영수지면으로 본다면 좀더, 큰 규모의 호텔이 되어야 할 것 같다. 건축가관 건축주의 요구에 따른 호텔을 지으면 그만이라고 한다면 나도 할말은 없지만 비슷한 이야기가 땅값을 포함해 많은 投資費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하고, 호텔의 내부기능을 생각하게 된다.

아케이드 각종음식점, 나이트클럽, 오락실, 수영장, 사우나 등 호텔로서 갖출것은 모두 갖추어 놓았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일반시민들의 경제문화면의 수준향상에 따라 점차 호텔의 낯설은 곳이 아니고 많이 이용하게 되었다. 이 호텔은 언제 가보아도 1층의 커피숍은 손님들로 들끓고있다. 선진국에서는 호텔숙박의 수입보다, 그밖의 영업장의 수입이 웃도는 경향인데, 우리나라도 그런 추세에 와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호텔도 대화의 장을 하나만 큼적하게 꾸밀 것이 아니라 층·소연회장도 더 마련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내 소견으로는 적어도 중연회장, 2,3개 소연회장 5,6개쯤은 갖추는 것이 이 호텔의 위치나 규모로 보아 적절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된다. 물론 최상층에 프라이빗, 다이닝룸이 몇개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용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의 첫인상은 주변관을 들어선 「로비」의 넓직한 분위기 이다. 2층 천장까지 확대된 분위기가 더욱 이 넓직한 분위기를 돋보이게 한다. 이 분위기는 커피숍을 낀 Void 를 통해 지하1층의 아케이드로 공간이 연속된다.



라마다 르네상스호텔 원경



라마다 르네상스호텔 선문가든



라마다 르네상스호텔 2층도비

다만 이 둘째번의 Void는 처음의 기본설계 때 것보다 다소 좁아진 느낌이 들며 드라마틱한 효과가 줄어들었다.

나는,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건축가의 지위가 한단계 낮다고 느껴지는데 그 까닭은 건축설계에 있어, 외국의 경우는 건축가의 말이 결정적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호텔의 기본설계에서 본 외관의 이미지는 녹색유리와 하얀색의 스탠드런의 수평선이 강조된 매우 환타스틱한 것이었는데 어느단계에서 누구의 뜻에 의해 지금의 라마다 르네상스처럼 우중충한 모습으로 눈감되었는지 모르겠다.

처음의 녹색과 흰색의 이미지가 매우 좋았는데 말이다. 이것은 좀 심한 말이지만 예술이란 예술가 각자의 편견의 소산이다. 따라서 이 호텔의 인테리어와 소감을 물어본다면 열명이면 열명, 모두 딴소리를 할 것이다. 하여 인테리어에 대한 나의 의견은 전적으로 나의 편견에 따른 것임을 미리 밝히면서 말한다면 영업장 각부분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약하다는 것이 된다. 즉 개성이 약하다는 이야기이다. 첫 데이트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곰곰히 생각할때 쉽게 머리에 떠오르는 여인의 이미지가 있는가하면, 머리에 쉽게 그려지지 않는 이미지가 있다.

영화한편 보고 난 느낌이 강하고 감동적인 경우가 있으면 그저 그렇다 하는 느낌도 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다시금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의 실내분위기가 어떠했나하고 더듬어보지만 머리에 떠오르는 영상은 호텔로비에 들어선 첫인상이 이렇게 스페이스를 낭비해도 타산이 맞을까 하는 넓직한 로비의 인상뿐, 뚜렷한 개성있는 색상이 떠오르지 않는다.

굳이 말한다면 스페이스의 넓이에서 오는 여유스러움, 여백이 많은 시원한 그림에서 느끼는 감동 비슷한 것 뿐이다.

대개의 큰 호텔이 그렇듯이 이 호텔도 空間에서 설계했지만 인테리어는 외국과 국내의 디자이너들이 담당했다. 애초의 기본설계부터 돌아가신 김수근씨의 체취가

그리 심하게 느껴지지 않아 그가 직접 이 작품에 그리 많이 손대지는 않았으리라는 짐작이었지만 불행히도 공사 도중에 그가 돌아가시어 건축가와 인테리어디자이너의 손발이 함께맞은 작품은 아니다. 그러나 살아계셨다면 적어도 과감히 자기가 갖는 이 호텔 실내에 대한 이미지를 살릴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그 결과 보다 나은 것이 태어나지 않았을까.

건축가는 호텔을 계획할때부터 외관은 물론 실내의 분위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통일된 하나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공간을 구성해 나간다. 비록 확실한 재료, 색상은 아니더라도 어떠한 분위기라는 것을 느끼면서 말이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건축가의 이미지를 자기 것으로 하여 재료와 색상으로 이를 현실화 시켜야한다. 따라서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첫 걸음은 건축가의 숨겨진 이미지를 느끼고 이해하는데서 작업이 시작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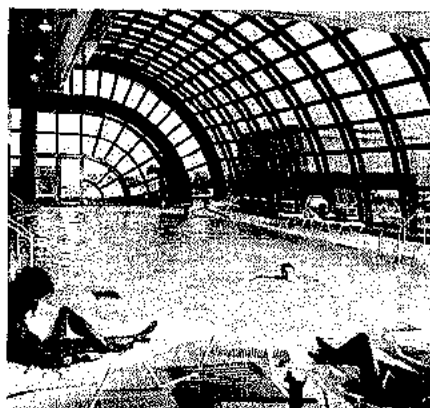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호텔의 인테리어는 과연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 최근 건축계의 월간지들이 약속이나 한듯이 호텔특집을 다루고있어 이 호텔을 논평한 글속에 조경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는데 말인즉, 형식에 그쳤다는 것이었다. 배치도에서 느끼듯이 대지에 건물을 배치하고 차도와 주차장을 마련하고 남은부분이 곧 조경면적으로 되었다. 차도와 건물사이의 완충지대 역할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이다.

이 잘못을 조경전문가에게 돌릴 수는 없었다. 실인즉 건축가가 기본설계단계부터 조경을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 또는 조경전문가를 초기부터 참가시켜 큰못지의 땅을 할당해 주어야한다. 이만한 크기의 땅에 이 정도 크기의 건물이라면 조경도, 한 덩어리크기쯤 되어야하며, 배치도에서 보는 것처럼 보도에 따라 붙은 線狀의 불품없는 장식품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인테리어 디자이너 조경전문가, 설비, 전기, 호텔운영담당자들과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結晶시키는 것이 건축가가 해야할 임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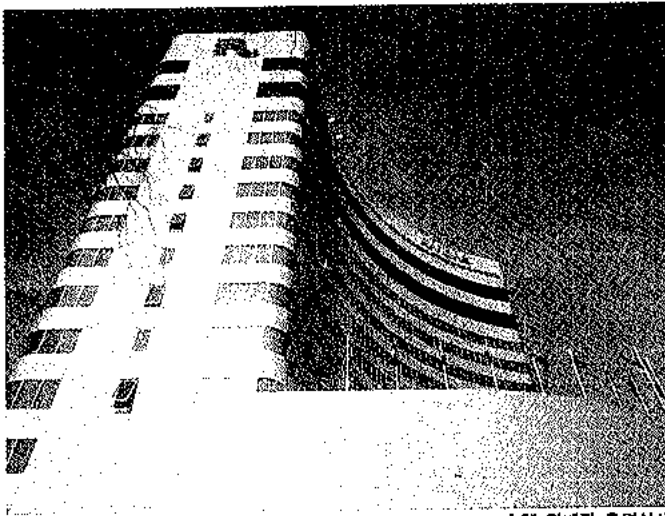
이 임무는 다 할 수 있도록 건축주는 건축가에게 책임과 권한을 주어야 한다. 그것이 결국은 건축주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 호텔의 경우는 어떻게 되었을까? 호텔건축은 프룻도타일이 있다. 여러가지 영업장의 기능을 저층부에 깔고 그위에 객실층이 고층화되는 형태의 건물이다. 이 호텔도 그 전형을 그대로 충실히 본받고 있다. 여러개의 출입구가 기능에 따라 무리없이 분산배치되어 나무랄데 없다. 외관도 모서리를 둥글게 죽인것이 고층이면서도 날카롭지 않고 온화한 기품이 느껴진다. 이러한 점에서 이 호텔은 말하자면 우등생의 모범답안이다. 한가지 아쉽다면 적어도 공간의 작품이라면, 좀더 반짝이는 천재성같은것, 호텔의 전형적 조형을 초월하는 건축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몇같은 것이 뭉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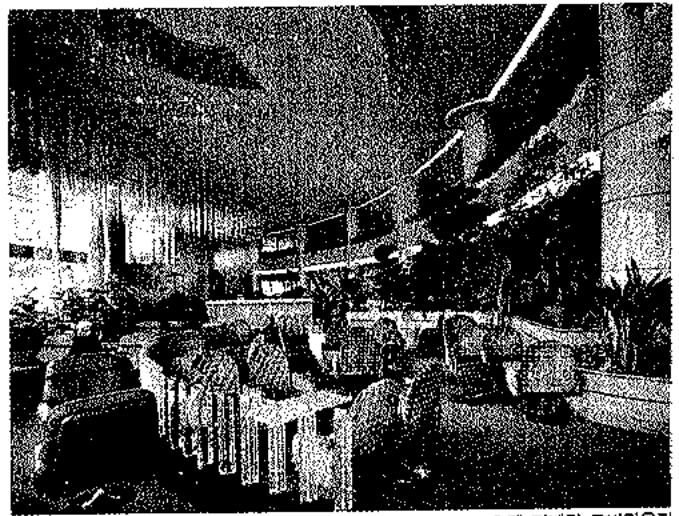
라마다 르네상스호텔 주출입구 포지



라마다 르네상스호텔 수영장



호텔 리베라 측면상세



호텔 리베라 로비라운지

리베라호텔에 대해

건축에 있어서 외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하여 다른 건물보다 돋보이게 하기위해 대부분의 건축가들은 외관의 연구에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그중에서도 호텔의 외관은 사무실건물이나 은행, 병원 등 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까닭은 호텔의 외관은 호텔발전의 선전역할을 담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 눈에 잘 띄는 것에 끌리게 마련이다. 호텔도 그렇다. 아름다운 호텔, 보통과 다른 이상한 호텔, 개성이 강한 외관의 호텔에 끌려 숙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호텔의 판촉, 선전비가 호텔 총매출액의 3%쯤 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호텔은 그 개성있는 외관으로하여 따로 돈들이지 않고, 판촉선전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이 호텔의 외관은 크게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아마도 서울도심에서 영동대교를 거쳐 청담동으로 들어오는 어프로치를 의식하고, 가장 잘보이도록 한다는 생각에서 이런 조형이 생겼다고 짐작이 간다. 또한 청담동 로타리, 무엇인가 둥근것, 그러한 聯想에서 이미지가 떠올랐을 것 같다(작가에게 직접 물어봐야 알겠지만). 이 호텔에서는 영동대교와 한강이 잘보이므로 호텔의 동쪽, 맨 끝에 전망 에레베이터 두대를 설치하여, 이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1,600여평의 대지는 이정도 규모의 호텔로는 결코 충분한 넓이가 아니며, 오히려 비좁다고 할정도로 밖에 안된다. 그래서 이 비좁은 대지에 호텔의 복잡하고 많은 종류의 기능을 충족시키려고 작가는 에를 많이 먹었으리라 짐작이 간다. 그중 잘처리된 것은 전면도로와 후면도로의 높이차를 이용하여 대연회장의 입구와 주차장을 9미터 높은 후면도로에 변하도록 한 점이었다.

그러나 한편 사각형대지에 구조, 평면계획등에 무리가 많은 円形의 호텔을

구상한 까닭에 외관은 멋들여지게 해결되었으나 호텔 각 부분에 무리한 평면구성이 될 수 밖에 없는 단점은 여러군데 나타난다. 좁은 대지와 호텔상부에서오는 기둥의 배열, 이 두 여건에 맞추어 지하 주차장을 구성하다보니, 무리가 있다. 주차장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잘 알아보기 쉽도록 램프웨이가 단순, 명쾌해야 하는데 적절한 싸인보드에도 불구하고 썩 잘 해결되어 있지는 않다.

여기서 간단히 美國의 도심지에 세워지는 건물의 설계전행 순서를 소개하고 싶어진다. 그들은 우선 법적인 주차대수를 계산하고 가장 경제적으로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둥간격을 결정한다. 램프웨이드 물론 가장 합리적인 위치에 설정한다. 지상층 부분은 이 주차장의 스파에 따라간다. 반드시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검토해 볼만한 가치는 있다.

미국의 건축은 자동차와 건축법규가 망쳐놓는다고 건축가는 투덜거리지만, 그렇게 썩 잘 해결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 종업원과 호텔의 물자 반출입의 동선이다. 종업원은 후면의 대연회장주차장에 있는 에레베이터를 타고, 지하에 있는 락카실을 거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응당, 수위실이 붙어있어야 하는데 완공하고나서 뒤늦게, 이 수위실을 증축했고 물자의 반입도 이곳을 거치는게 좋을듯 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에레베이터앞의 홀이 넓지가 않다.

쓰레기 등의 반출은 지하주차장으로하여 전면도로쪽으로 나오는것 같이 보이는데 글썽 좋은 방법인지 의심이 간다. 원형의 기본계획에 맞추다보니 대연회장이구로비가 합리적인 평면이 안되었다. 이 스페이스는 말하자면

프리함선스페이스(Pre-Function) 인데, 즉, 충분한 양의 소파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도면에서도 그렇지만 실제로 찾아가 보니 공간도 좁지않은데 입구와 통로로 빼앗겨버려 소파를 놓을만한 자리가 없다. 전망에레베이터는 무슨까닭인지 두개의 에레베이터사이의 간벽으로 말미암아, 시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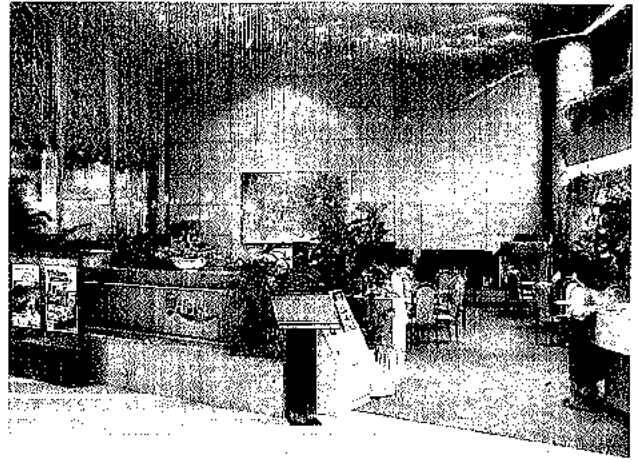
좁아져 답답한 느낌이다.

전망에레베이터는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것이 물론 첫째의 기능이지만 또한 길 가는 사람들이 전망에레베이터가 오르내리는 動的인 것을 본다는데 둘째의 중요한 기능이 있다. 말하자면 좋은 판촉선전이다.

전체적으로 원형인 단순한 조형을 지향한 이 호텔의 외관으로하여 이 둘째의 기능은 소홀히 처리되고 말았다. 즉 밖에서는 밤에는 몰라도 낮에는 전망에레베이터의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 부분은 동북쪽으로 낮에는 해가 들지않아 언제나 어두운 부분때문이기도 하다.

조경은 건축을 돋보이게한다 하여, 작가는 충분한 조경면적을 잡고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는 건축주는 드물어, 한평이라도 더 넓은 영업장면적을 확보하려고 한다. 어떤 작품이든 이러한 알력은 일어나기 마련인데, 이 호텔에서도 작가는 그런 난관에 부딪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되는 것이 1층 커피숍 뒷쪽에 폭포수가 있는 자그마한 정원이 있다. 커피숍의 넓이에 비해 이 선긋기들은 너무나 초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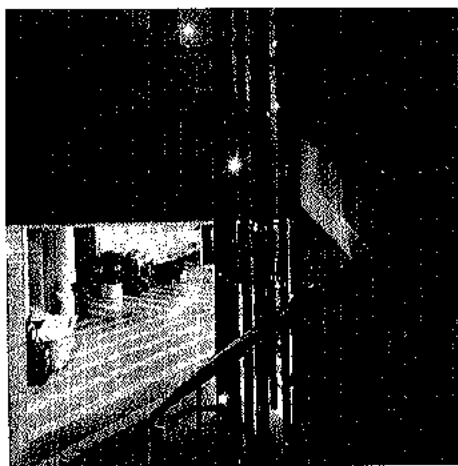
커피숍은 선긋기든쪽이 그리 넓지않은 그릴로 되어있어 조반동, 간단한 식사는 여기서 서브하는것 같은데 커피숍과 분위기를 좀더 명확하게 구성짓는 것이 좋을것 같다. 천장은 구분되어 있는데 바닥은 간단한 이동식프란트로 소홀한 느낌이다. 다만 두리뭉실하게 두 스페이스를 경우에 따라 한 공간으로 쓸 수 있는 영업상의 징점이 있기는 하지만, 다목적공간은 전용목적공간보다 싸구려로 느껴지고 품위가 떨어지게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객실층의 손님용 에레베이터는 으레히 건물의 거의 중앙쯤에 마련하여 손님의 동선이 편하도록하는데, 이 호텔은 전망에레베이터를 살리려는 목적에서, 복도끝에 승강기가 있어 반대쪽 객실의 손님으로서서는 매우 불편하겠다. 이 전망에레베이터의 위치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단점은 이에 그치지 않고 14층의 스카이라운지와 부페식당 15층의 Banquet Hall 에 미친다. 요컨대 손님으로서



호텔 리베라 1층 커피숍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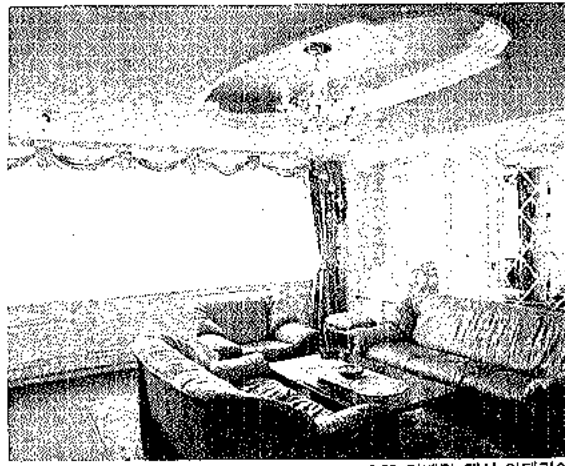
호텔리베라 전경



로비와 계단 연결부분



2층 엘리베이터 홀



호텔 리베라 객실 인테리어

건물중앙에 에레베이터가 있는 것이 편하다. 이 문제는 1층에서 흔하지 않는 스타일의 후르트의 위치로까지 영향을 미친다. 카페테일라운지는 일반적으로 고급스러운 곳 조용한 곳이어야 하는데, 바로 후르트로피스와 가까운 자리에 있어 아무리 프랜차이즈 스킴으로 시선을 가리더라도 말이다. 호텔의 주가되는 손님용 에레베이터가 전망용으로 되면서 건물 한쪽으로 밀려있어 하는수 없이 지하1층의 나이트클럽, 아케이드, 헬스클럽 등에서 3층의 대연회장까지에 이르는 외래객용 에레베이터를 또하나 놓아야하는 경제적 희생을 가져 왔다. 그러나 이 보조용 에레베이터는 각층 모두 적절한 위치가 아니다. 뭐랄까? 말하자면 너무 당돌한 위치에 있다. 이처럼 많은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전망용 에레베이터는 필요한 것인가. 어차피 건축은 선택이다. 크고 단 침외는 없다. 오직 선택이 있을 뿐이다. 작가는 매우 고민했으리라 생각된다. 내가 이 호텔을 계획했다라면? 나도 역시 이러한 희생을 무릅쓰고 전망에레베이터를 마련했겠다. 다만, 이 승강기를 외관상으로도 좀더 돋보이도록 꾸몄겠고 그밖의 단점들을 보완했을 것 같다.

호텔의 외관과 내부공간인 인테리어는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가 또는 그럴 필요가 없이 인테리어는 그 자체로서 독립되어도

관계없는 것일까. 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주택들, 예를 들어 낙수장(落水莊)을 보면, 거실의 화이어플레이스의 돌의 목적인 조형이 그대로 지붕을 뚫고 올라가 힘찬 느낌이 들고, 외벽의 재료가 그대로 집안까지 이끌어 들여, 그가 좋아하는 내외공간의 유기적인 상통, 流通되는 공간의 아름다움이 있다. '40쯤 되면 사람은 자기의 얼굴에 책임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인격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뜻이다. 하긴, 높은 인격을 지닌 사람의 그럴듯한 멋있는 얼굴의 노년층을 만나는 것은 잔잔한 감동을 일으킨다. 그러나 한편, 벽돌이나, 돌로 지어진 오랜세월의 이끼가 낀 건물을 들어서니 집안은 이와는 판판으로, 깨끗하고 산뜻하게 잘 정돈된 분위기에서 오는 정반대의 감동도 있다. 「리베라」호텔은 어느쪽인가 하면 외관은 산뜻하고 경쾌하며 매우 현대적인 분위기에 가까운 인테리어가 되겠다. 나쁘게 말한다면 좀 경박스럽다고 할까. 최근에 지은 다른 특급호텔과 비교해 볼때 좀 가볍고, 싸구려같은 냄새가 난다. 돈은 될수록 들이지않고, 그러나 싸구려처럼 보이지는 않도록, 그런 기본의 인테리어이다. 왜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일까 하고 생각해 보았더니 그 까닭은 디테일이 없는 인테리어에서 오는것 같다.

호텔의 외관이 참신한 스타일의 단순한 조형일뿐, 복잡한 디테일이 없다. 인테리어도 이러한 기분을 본딴 것 같다. 경영이라는 각도에서 생각하면 호텔은 크게는 두가지 경향으로 나누어 진다. 그 하나는, 고급스러운 재료로 고급스럽고 화려한 분위기를 꾸미는 경향과 이와 반대로 호텔은 필수불가결한 안락하고, 영업을 잘해서 투자된 돈을 될수록 빨리 거두어들이는 방향이다. 말하자면 돈놓고 돈 먹기다. 조선호텔이 이에 속한다. 롯데호텔이 전자에 속하는 셈이고, 리베라는 물론 후자의 경향에 속한다. 그것은 건축주의 영업방침이나 건축가가 어찌구저찌구 할 일이 아니다. 고급재료를 쓴다고해서, 모두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은 아니다. 또 불당을 쓴다고해서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이와 반대로 싼 재료를 쓴다고해서 반드시 싸구려로 보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싼 재료를 쓰면 고급스럽게 보이지는 않는다. 아름답다거나 멋있게 보일 수는 있을 수 있지만. 요컨대 결정적인 것은 디자인이다. 디자인이 좋으면 고급스럽게도, 아름답게도, 또는 멋있게도 보이지만, 디자인이 좋지않으면 값싸고, 볼품없게 보인다. 리베라호텔의 인테리어는 반짝 빛나는 이미지나, 영감이 없어 보인다. 다만 외관은 매우 성공한 예가 되겠다.

■ 圖書案内

金琪碩建築作品集1988

시인이자 종합건축사사무소 「아람·광장」의 대표인 김기석회원의 건축작품집이 「건축과환경」 1988년 6월호 별책부록으로 발간되었다. 1970년 이후 김기석회원의 건축활동과 시, 크로키, 사진작품등을 모은 이 작품집에는 도투락 목장 전망대 (1974)를 비롯, 서교동 명신사옥 (1988) 등의 최근작까지 그의 대표작들을 망라하였다.

저자 : 김기석
발행 : 「건축과환경」사
판형 : 국배판
220page
정가 :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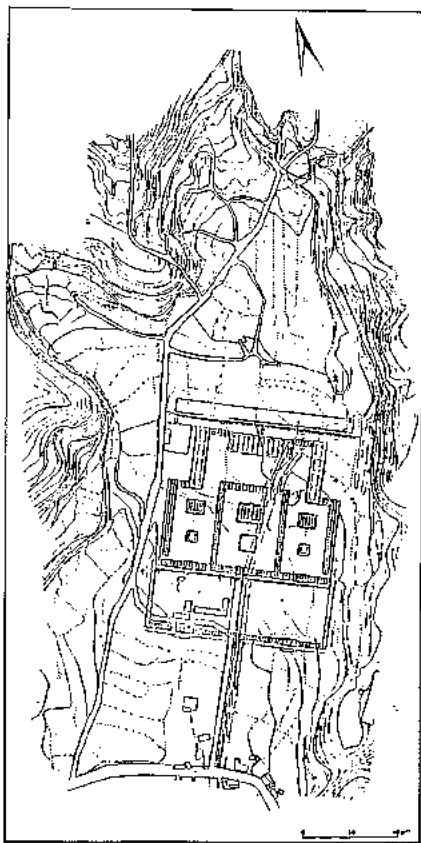
金琪碩 建築作品集
1988
Architect KI SEON, KIM

三國時代의 建築文化

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Three Kingdom Period

張慶浩 / 문화재연구소장

by Chang, Kyung-Ho



(도면 1) 彌勒寺址 地形圖

百濟의 建築

沿革

미륵사에 관한 기록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創建說話는 《三國遺事》에 비교적 자세히 나와있고 그후의 조선시대 文獻에도 몇곳에서 볼 수 있다.

먼저 《三國遺事》 武王條에 보면 다음과 같다.

『하루는 武王이 부인인 仙花公主와 같이 師子寺에 가는길에 龍華山 밑의 큰 연못가에 이르니 彌勒三尊이 못 가운데서 나타나므로 수레를 멈추고 敬賀하며 拜禮를 하였다. 부인은 왕에게 말하기를 이곳에 큰 절을 세우기를 원하는 바라 하여 왕이 그것을 허락하였다. 師子寺의 知命法師를 찾아가 못을 매울것을 물었더니 神通力으로 하룻밤 사이에 산을 무너뜨려 못을 매워 平地로 만들었다. 이에 彌勒三尊을 法像으로 佛殿과 塔·廊·無를 각각 3곳에 세우고 절의 이름을 彌勒寺(國史에는 王興寺라 함)라 했다. 이에 眞平王은 百工을 보내어 이를 도왔는데 지금도 그 절이 있다. (三國史에는 武王을 法王의 아들이라 했는데 이곳에서는 獨女의 아들이라 했으니 자세한 것을 알수없다)』 또 《三國遺事》 法王 禁殺條에는 王興寺에 대한 기록이 보이는데 「王興寺가 一名 彌勒寺」라는 구절을 볼 수 있다. 즉 「백제 29대 法王의 諱는 宣인데 혹은 孝順이라고도 한다. 開皇 10년 己未(599)에 즉위 했는데 이해 겨울에 명하여 살생을 금하였다. 민가에서 기르는 매나 새 등을 풀어주고 고기잡이나 사냥에 쓰이는 가구를 불살라 일채 금지 시켰다. 이듬해 庚申에 30인의 승려를 두어 王興寺를 泗沘城(부여)에 세웠다. 처음 체제를 세울때 왕이 승하하여 武王이 이를 이었다. 父가 기초하고 子가 이루었으니 수십년을 지나 이루어졌다. 이절도 역시 彌勒寺라 이름하였다. 산을 등지고 臨水하였고 꽃과 나무가 수려하여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갖추었다. 왕이 매번 배를 움직여 돌길을 좇아 절에 들어 갔다가 그

形勝이 장려함을 구경 하였다.」 또

《三國史記》 武王 35年條에는 「王興寺成其寺臨水……」라고 하여 35년 이내 되어 왕흥사를 완성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 나타나는 기록은 역시

《三國史記》 新羅本紀 聖德王

18年(719)條인데 즉 「秋九月 震金馬郡

彌勒寺」라고 하여 통일신라 때까지

미륵사가 경영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朝鮮佛教叢報에 실린 高麗初 僧

惠居國師碑文에 의하면 後百濟

甄萱(922)에 미륵사의 開塔을 계기로

혜거는 禪雲山의 選佛場(고창 禪雲寺로

추측)에 참석하여 단에 올라 설법할때

天花가 어지럽게 흩날렸다고하여 이때

미륵사 塔이 復元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상

미륵사지에서는 고려시대 유물과 유구가

많이 출토되어 이시기 까지도 절이

번창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때의

기록으로는 위의 비문 뿐이다.

그후 조선시대 中宗때 기록된

《東國輿地勝覽》과 英祖때 康侯晉의

《臥遊錄》에서 기록이 있는데 前者에서는

석탑이 극대해 그 높이가 수십尺으로 동방

석탑중 제일이다……」라고 하여 이때까지

석탑이 존속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後者の 기록은 비교적 자세히 되어있다.

이는 일종의 紀行文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미륵산 서쪽

거슥에 옛 미륵사의 유구가 있다. 발독

사이에 7층 석탑이 있는데 대단히 높고 크며

石屏을 첩첩이 쌓아 올려 각 別石으로

이루어 기둥은 네귀를 받쳤다. 세상에

이르기를 東方石塔에서 제일이란 말이

거짓이 아니다. 백년전 벼락으로 인하여 그

반이 허물어 졌고 밑에는 石門이 있어

출입할 수 있는데 三人 정도가 같이 들어가

거닐 수가 있다. 西壁을 따라 탑위에 올라

數三人의 농부들이 農器를 끼고 그 위에

누워있다. 발독사이에 초석과 石槽가 달려

있는데 그 반이 노출되고 혹은 전체가 노출

되었고 파괴되어 비스듬히 있고 혹은

조개져있으며 鐘閣의 초석으로 추정되는

◆
張慶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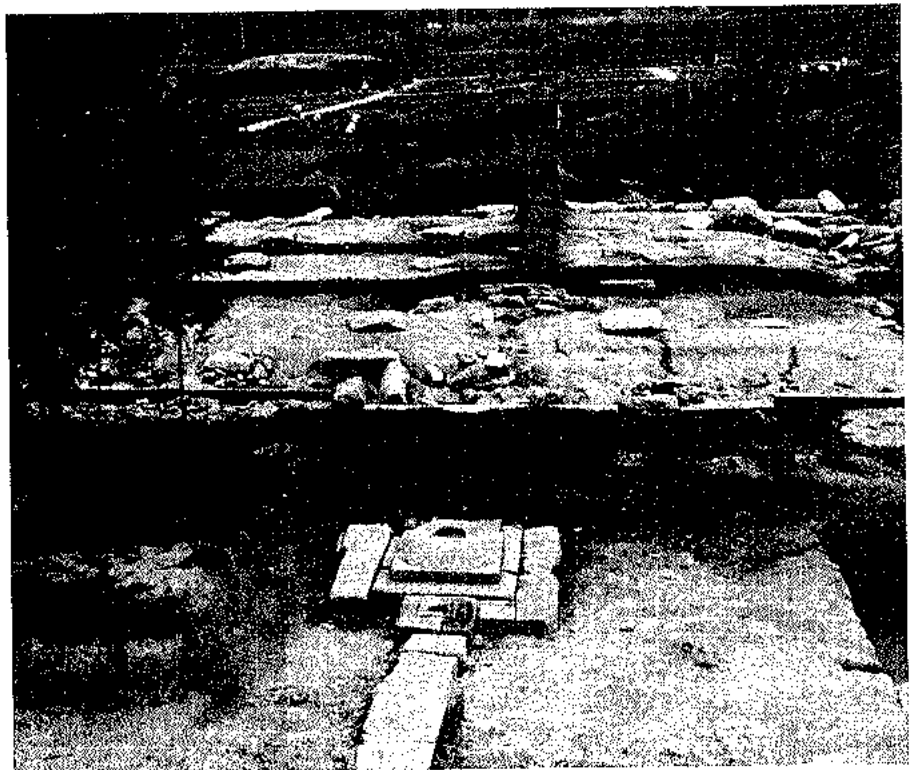
32년생으로 한양공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1975년 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장에서 76년
홍익대에서 석사학위 및 85년 2월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87년 3월 제2대 문화재 연구소장에 취임,
재직중이다.

것이 완전히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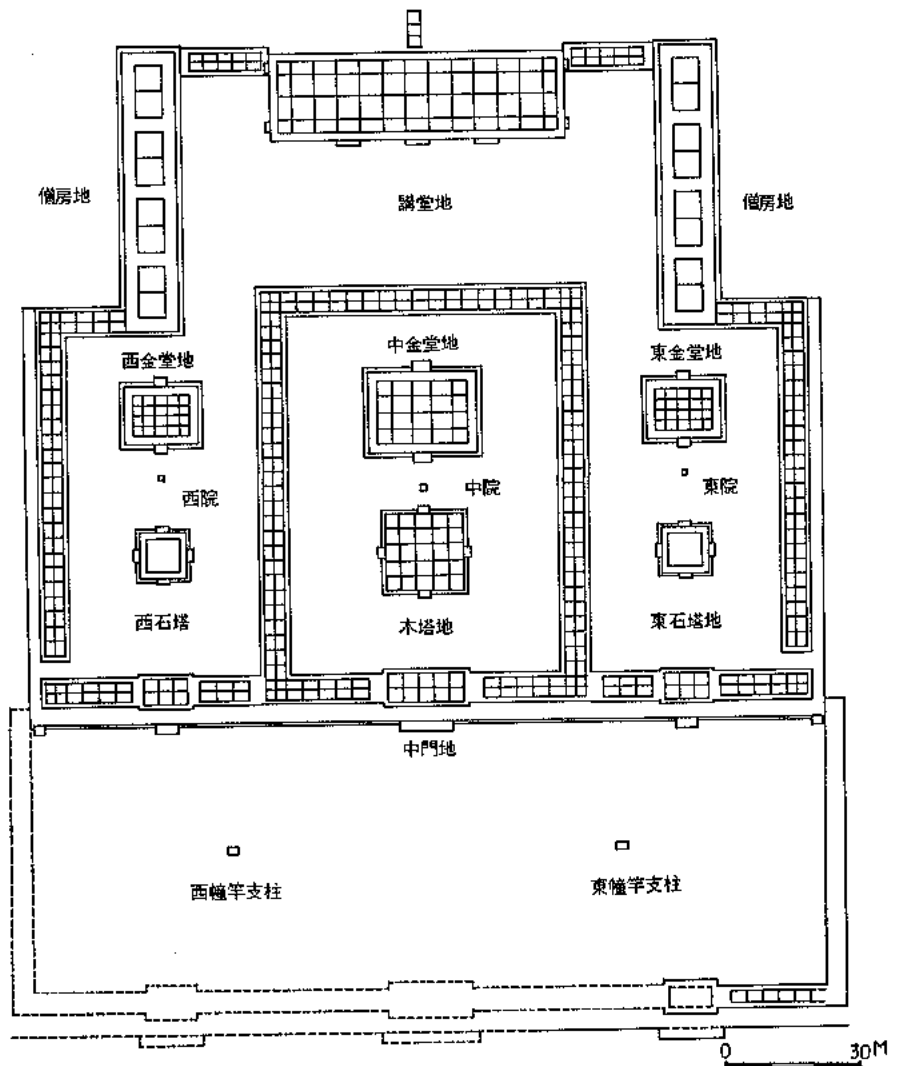
康侯晉은 17세기 말의 사람인데 이미 이 시기에 석탑은 半破된 상태로 7층이 남아 있을뿐 廢刹이었음을 설명하였다. 이후에는 18세기 말에 쓰여진 것으로 추측되는 금마군수 南泰普의 金馬誌를 볼 수 있는데 이 기록은 위의 《三國遺事》를 인용한 것 외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 이상의 문헌 고찰로 보아 미륵사는 백제시대에 창건되어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에는 폐사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1980년부터 체계적인 발굴조사가 시행되면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헌상 창건시기의 문제가提起되었던것은 《삼국유사》창건 緣起에 註書를 달아 옛 책에 「武康이라 함은 잘못이다. 백제에는 武康이 없다」라고하여 무왕을 잘못하여 무강으로 썼다고 했는데 이에 대하여는 이론을 제기한 학자도 있다.³⁾ 이는 무강왕을 武寧王으로 해석하고 있어 무왕대보다 훨씬 앞선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실제 유적의 발굴 결과로는 이렇게 앞서는 유물이 출토되고 있지 않고 백제말기의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미륵사 창건을 무왕대로 보는것이 타당할 것 같다. 또 미륵사지의 발굴조사 결과 그 중심곽에서는 백제에서 부터 고려말기까지의 유물과 기와편들이 출토 되었고 북쪽과 서쪽 외곽에서는 조선 초기의 유물들이 출토되어 가람의 조영시기를 고증해준다. 이상의 기록과 考古學의 사실로 보아 미륵사는 백제 武王代(600~640)에 創建되어 고려시대까지 조영되다가 조선시대에 와서는 伽藍外廊에 寺脈을 겨우 이었다. 그러다가 조선중기에는 완전히 폐사되었다.

彌勒寺 伽藍의 特徵

미륵사지는 진라북도 益山郡 金馬面 箕陽里에 위치하고 있다. 호남 고속도로 이리 인터체인지를 들어서서 약 3.5km 거리에 금마가 있는데 여기서 서북쪽으로 약 2km 가면 도로에서 북쪽으로



(사진 1) 彌勒寺址 中院 金堂地 遺構 露出狀態



(도면 2) 彌勒寺址 擴張伽藍配置圖

우뚝 솟아 보이는 龍華山이 있다.

이 산은 해발 약 430m의 主峰을 갖고 남향을 하여 좌우 능선을 뿔어 내렸다. 이 능선에 감싸인 평지에 미륵사지가 역시 남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사지에는 발굴전부터 서쪽에 6層만 남아 半破된 석탑이 있고 그 뒤로 층이 높은 建物址 초석이 정연히 남아있고 동쪽에는 석탑지와 그 북쪽에 건물지의 초석이 배열되어 당초에는 伽藍의 동·서가 對稱을 이루고 있었으리라는 추측을 쉽게 할 수 있다. 또 가람의 남쪽 동·서에는 幢竿支柱가 각 1개씩 놓여 對稱을 이루고 있었다. 이와 같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가람의 성격과 앞에서 설명한 沿革을 비교하면 이 동·서로 배치된 堂·塔區 외에 또 하나의 堂·塔이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으므로 과거 日人 학자의 소위 '品'자 伽藍說 '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발굴조사 결과로는 中央에 놓인 가람이 左右 가람의 북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東·西軸을 맞추어 가운데에 놓였음을 알 수 있었다. 즉 遺構를 통해 본 미륵사지 가람은 中央에 남북 자오선 상에서 서쪽으로 약 23°기운 축선을 기준으로 남쪽에서부터 中門·塔(木塔으로 밝혀짐)·金堂址를 배열한 中院과 이를 완전히 둘러싼 廻廊址가 있고 中院 양옆에 중원의 남북축선과 평행하고 중원의 각 건물지와 같은 橫軸列 線上에 놓인

中門·塔(石塔)·金堂址를 배치하여 東院과 西院을 對稱으로 두었다. 동·서원의 外廊 廻廊址는 중원의 동서 회랑지에 對應하는 위치에 남북길이로 전자의 것보다 약간 짧게 북쪽으로 뺀다가 內廊쪽으로 直折하여 金堂址 북쪽에서 폭넓게 뻗는 동·서 僧房址에 연결되고 이 승방지의 북단에서 가람 중심축에 놓이는 講堂址 좌우측과 연결되는 북회랑지와도 연결된다. 그러므로 중원 북회랑지 북측에는 중원 남북중심축 선상에 거대한 강당지가 놓이게 된다. 건물들의 배치는 거의 平地상에 놓이게 하고 남쪽에 중문지 앞과 북쪽에 강당지 북쪽에서 석축段을 마련하였다. 그러므로 創建 가람은 남쪽에서

부터 중문·탑·금당을 횡축에 맞추어 3개소에 병렬해놓고 그 주위에 회랑을 둘러되 중원은 남회랑지에 붙여 완전히 둘러막고 동·서원은 이 중원의 동·서회랑을 이용하여 그 대응하는 위치에 남북으로 뻗는 회랑을 설치하여 그 남단에서는 중원 좌·우로 뻗은 남회랑과 인접되게 하였다. 또 이 회랑지 북단에서는 전술한 승방지와 연결시켜 이 승방지 북단에서 가람 중앙에 놓인 강당지와 연결되게 하였다. 그리고 동·서원과 강당구역과는 가람 내측으로 터져있어 통행이 자유롭게 하였다. 가람 남쪽 각 중문지 앞에는 석축으로 오르는 계단지가 1개소씩 놓였고 가람 외곽 경계에는 갑석을 한 장대석축렬로 구획을 지었다. 또 강당지 북쪽 중앙에는 정감다리와 같은 형태의 층높은 초석열이 있어 이것이 강당과 그 후측 석축단 위에 놓였던 건물지와 연결되는 覆道址로 추측된다. 이상의 기술을 종합하면 彌勒寺址의 伽藍은 三院 並列式의 가람으로 東·西 및 中院으로 구획되어 있는데 各院에서는 중문과 탑·금당을 1동씩 두어 소위 一塔式 가람을 동서 축선상에 나란히 배치하고 강당은 중원 북쪽에 하나만 두고 있다. 또 동·서원에는 석탑을 두고 중원에는 목탑을 두어 3塔, 3金堂을 이루고 승방지는 동·서원 북쪽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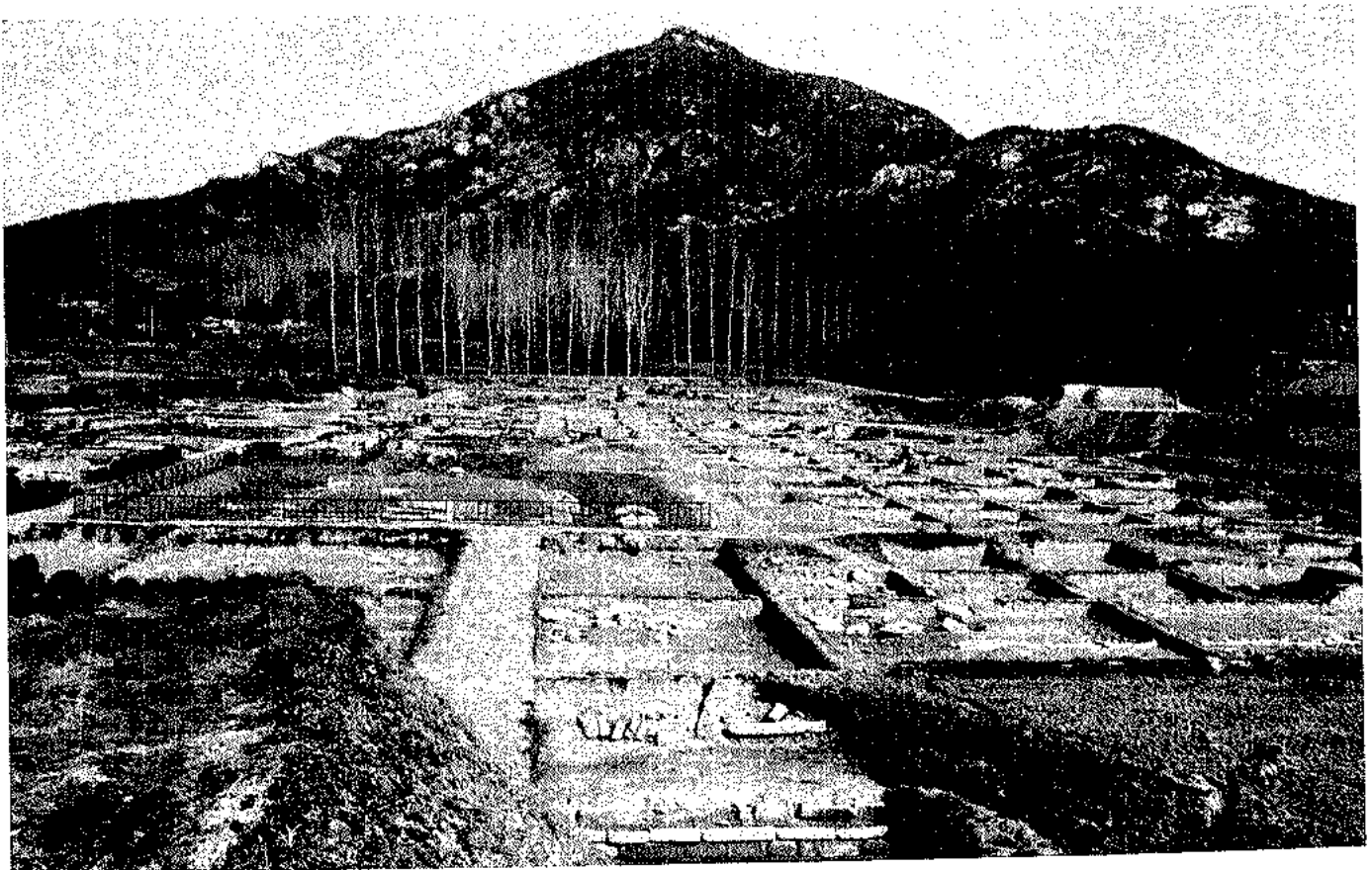
있어 남북으로 뻗게하여 그 兩退間을 列柱로 터서 강당지로 통하는 회랑의 연속으로도 이용하고 있다. 이와같이 3區의 가람을 나란히 배치한것은 《三國遺事》 創建記에 기술된 「三所創」이란 기록을 실제로 입증하는 것이다. 가람의 규모를 대강 밝힌다면 전체 가람의 동서幅이 (건물기단 외변間) 172.16m이고 남회랑지 남단에서 강당지 기단북변까지 148.2m이며 탑지에서 중문지까지의 건물 중심거리는 금당지까지의 중심 거리와 같이 각각 약 31.2m였다. 또 중원의 동서 회랑지간 중심거리는 66.36m, 兩夾院의 동·서회랑 중심선 간의 거리는 48~49m, 금당지에서 강당지 중심간 거리는 71.6m이며 동·서 승방지의 기단 외변간의 거리는 172m였다. 이렇게 하여 가람의 전체 동서폭과 남북 길이의 비는 $\sqrt{3}/2$ 이 되어 동서폭을 일변으로 하는 正三角形의 頂點 限界內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幾何學的인 配置특성에 대하여는 다시 논하겠다.

□ 註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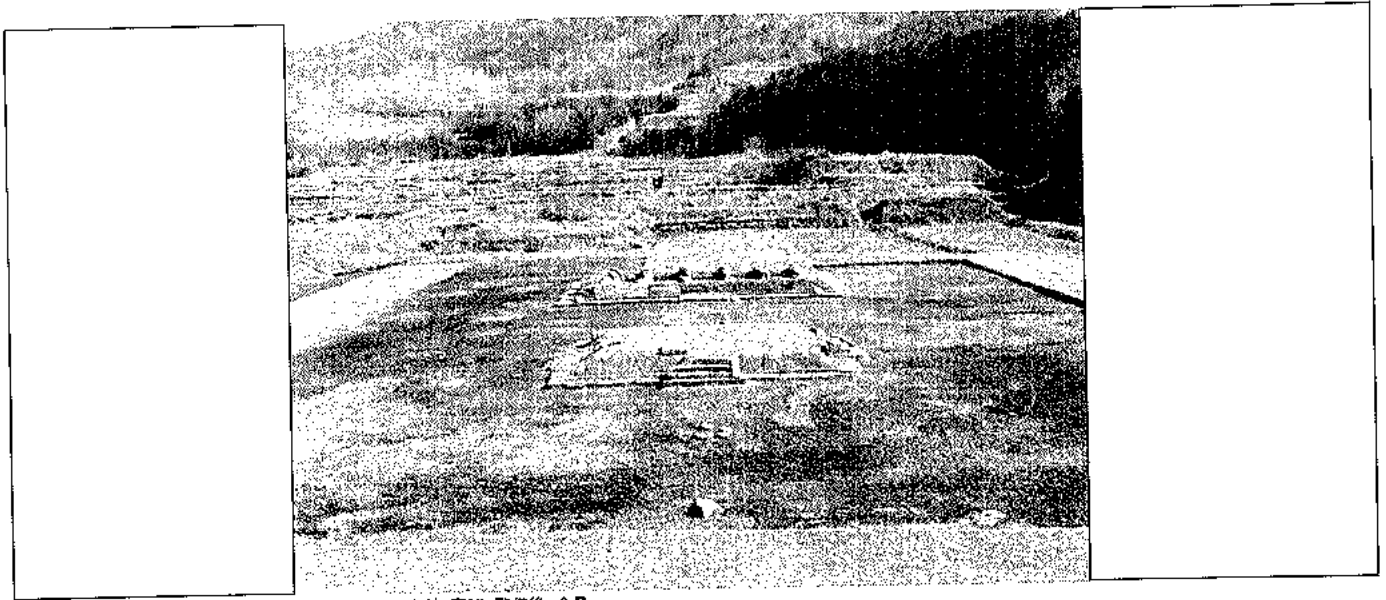
1. 三國遺事 卷第二 紀異第二 戒王條.
2. 三國遺事 卷第三 興法第三 法王禁殺條.
3. 李丙燾, 百濟 彌勒寺의 創建年代에 대하여, 馬韓·百濟文化, 1975.
4. 藤島亥治郎, 朝鮮建築史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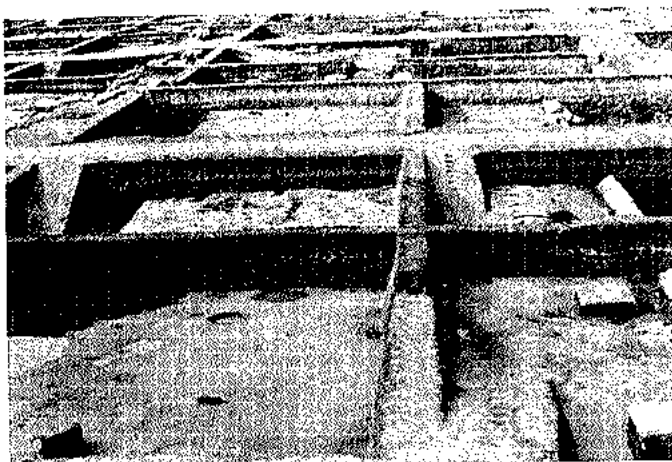
〈사진 6〉 東院 金堂地 廻廊 露出狀態



〈사진 2〉 彌勒寺址 東院 發掘全景



〈사진 3〉 彌勒寺址 東院 整備後 全景



〈사진 4〉 彌勒寺址 講堂址 遺構露出狀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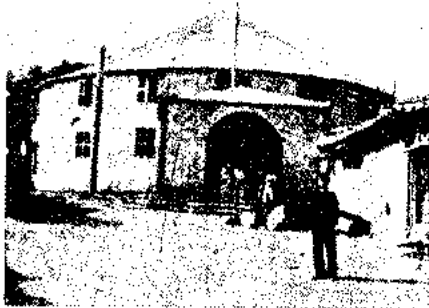
〈사진 5〉 西院 金堂地

傳統劇 公演場의 建築要素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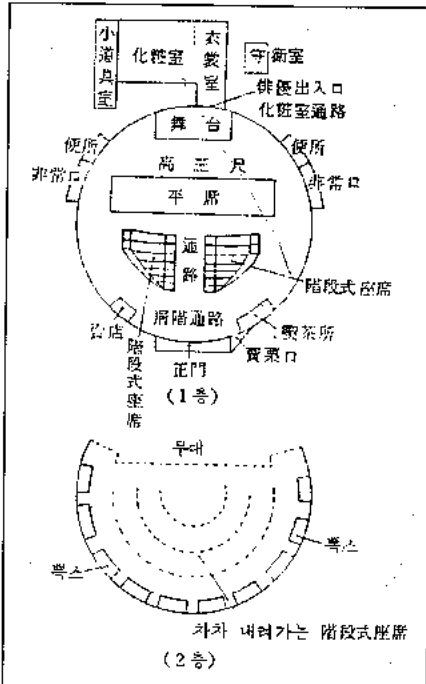
Architectural Elements of the Proper Theater for the Traditional Korean Dramas

金基哲 / 工學博上, 건축사사무소 東明建築

by Kim, Kee Chull



(그림 1) 圓覺社劇場 (1908) (李杜鉉, 韓國演劇史, P. 203)



(그림 2) 圓覺社 平面略圖

1. 韓國演劇 公演場의 形成과 變遷

우리나라에는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西歐의 개념의 演劇은 없었다. 다시말하면 원시종교로부터 싹튼 자연발생적 演劇이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舞台도 野外舞台이거나 임시假設舞台의 기록만 남아 있는데 신라시대 利見台를 최초의 舞台로 추정하기도 하며, 조선조의 輪台 및 山台 등의 기록이 있다. 西歐의 演劇의 舞台는 開化期에 겨우 생겨나게 되었다. 우리의 劇場史는 1902년 官内部所管의 協律可가 戲台를 관장하는 때부터 보고 있으나

阿峴洞舞童演戲場(皇城新聞 1899. 4. 3)이 기록상 최초인것 같고 용산무동연극장(황성신문 1900. 3. 3)이 대체로 초창기 극장들이다. 그리고 開館年代가 확실치 않으나 1900년 전후 동대문안 광무대가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극장의 開設는 19세기 이후 서울이 상업도시로 번창해 감에 따라 演戲場이 하나, 둘 생겨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물론 무대예술에 대한 인식위에 설립된 것이라기 보다는 사람이 모일수 있는 장소로서의, 建物概念으로서의 극장공간으로 거의가 기존건물의 演劇場化로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1900년대에 순수 演劇專用劇場으로는 圓覺社 정도 인데 그 규모 및 구조에 대해 여러사람들의 理論을 종합해 보면 客席規模는 500~600석 정도의 극장이었으며, 外形은 붉은벽돌로 등그렇게 생겼고 靑죽한 회색양철지붕이며 내부는 원형으로 전측에서 후측으로 차차 높아지게 좌석을 배치하는 층단식 三方觀覽席이었다 한다. 그의 극장들로는 光武台를 비롯해서 長安社(중부고동, 2층건물), 演興社(寺洞, 1908. 9월경 개장), 團興社(용산 1908, 9월경 개장) 團成社(종로3가) 音樂社 등이 1908년 전후해서 생겨났는데, 원각사와 단성사, 연흥사는 주로 판소리, 창극을 공연했고, 광무대와 장안사는 주로 재래의 가무를 공연했다. 광무대는 당초 창고와

같은 전기회사건물안에 간단히 演壇같은 것을 만들어 극장으로 1900년경부터 사용했고, 판소리나 놀랑패들의 잡기, 그리고 활동사진을 주로 상연하였다. 그러나 1908년 9월이후 본격 극장으로 재출발한 광무대는 1910년대에는 순전히 구극(판소리, 唱劇)을 위한 공연장으로 제공되었으며, 1920년대에는 新派劇에도 쓰도록 하였고, 1925. 6년에는 극단 토월회의 직영극장으로 사용되는 등 이어오다가 1931년 완전 폐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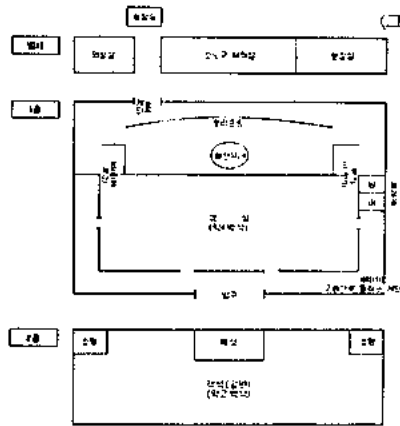
1908년경부터는 서울에 日人劇場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1910년경에는 御成座, 歌舞技座, 壽座, 京城座 등의 기록이 있다.

1922년 11월 조선극장은 영화, 연극 겸용극장으로 새로 생겨났고 극단들의 公演場所가 되었으나 여전히 영화관으로 존재하였고 1935년 11월 東洋劇場이 설립되면서 영화관쪽으로 기울어졌다. 東洋劇場은 서대문 충정로에 세워진 근대시설을 갖춘 최초의 본격적 연극전용극장이었다. 그 규모는 대지 488평, 건평 373평, 2층건물로 객석 648席의 1人座席 의자였으며, 회전무대, 호리존트도 국내처를 설치했고, 조명실과 무대밑 기계실 일부를 난방시설을 갖추고 대표실 2개소가 있었으나 사무실이 없어 뒷터의 고건물에서 분장실, 합숙실, 소도구실로 이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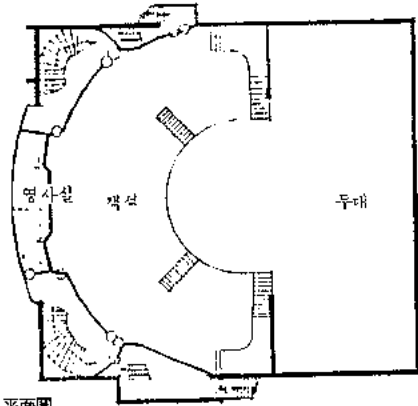
1935년 12월 10일 준공된 府民館은 대지 1,486평, 연건평 1,717평, 건평 584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물높이 63尺, 탑의높이 144尺이었다. 이 부민관은 多目的홀로써 건립되었고, 客席 1,800席의 大構堂과 座席 400席, 立席 1,000席의 中構堂, 座席 160席의 小構堂과 부속실로 되어 많은 단체들이 賃館使用해 오던중 민족해방과 더불어 폐쇄되었다. 민족해방이후 商業劇의 빈장은 純粹劇의 장소를 그나마 빼앗아가 버리고 서울에 있는 주요극장들인 중앙극장, 수도극장, 대륙극장, 동양극장, 단성사, 국제극장, 국도극장, 제일극장은 완전히 新派劇團들과 樂劇團, 아니면

◆ 金基哲

1944년 서울생으로 홍익대학교 건축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박사과정을 수료후 87년 博士學位 取得, 현재 弘益大, 建大에 출강하며 건축사사무소 東明建築을 자영하고 있다.



〈그림 3〉東洋劇場 正面略圖
(金美都, 東洋劇場의 設立과 運營,
한국연극, 1987, 3,
통권 130호에서 轉載)



〈그림 4〉드라마 센터 平面圖

美國映畫가 접거했던 것이다.
1957년 6월 1일 환도후 국립극장이
舊明治座에 자리하게 되었는데 대지500평,
건평749평의 3층건물로
客席1,180席이었으며 1973년 8월 장충동
현 국립극장으로 옮기기 전까지 연극무대로
사용되었다. 1958년 12월 22일 新劇史上
최초로 “圓覺社”라는 小劇場이 을지로2가
4번지에 개관되었다. 傳統舞廳 육성등
國樂進興을 위해 마련된 원각사는 아래층
217席과 윗층89席 총306席의
소극장이었지만 공연예술인들에게는 대단히
소중한 무대가 되었다. 대지502평,
연건평229평 무대의 넓이 33尺5才, 길이
21尺5才의 규모로서 시설을 제대로 갖춘
극장이었다.

1958년부터 추진되어 약4년만인 1962년 3월
드라마센터가 준공됐다. 건평220평
무대넓이 120평, 座席473席을 갖춘 본
무대와 양옆 사이드스테이지(Side-Stage)
이것이 계단으로 연결되어 백스테이지가
客席뒤에 마련된 현대극을 위한 무대와
조명및 음향장치등을 갖추었지만
재정적문제로 1963년 1월에 막을 내리게
되고 현재는 서울예술전문대학의 강당으로
쓰여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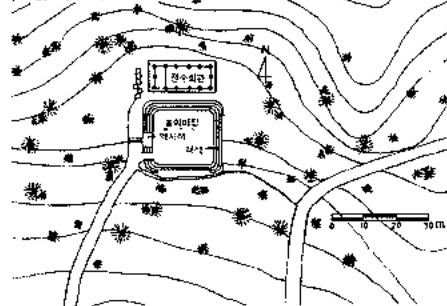
近代期初 協律社이하로 傳統劇을
공연하는 몇몇 극장이 있었으나,
민족해방이후 6.25등의 격동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는 동안 연극을 위한 극장은
극소수에 그쳤고 국립극장, 세종문화회관등
연극공연이 가능한 극장들도 다목적용도를
고려하여 건립되었다. 1970년대이후
소극장들이 생겨나고 실험극등이 시도되고
있으나 소규모에 그치고 있다.

2. 韓國傳統劇 公演場의 現況分析

가. 楊州別山台의 公演場

楊州別山台의 傳修會館은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유양리 불국사남측 기슭에
콘크리트건물과 관리인숙소 및 전용공연장을
갖추고 있다. 국도에서 북측으로 약
150m 지점에 농가들을 지나 傳修會館이

〈그림 5〉楊州別山台傳修會館 공연장



建物概要
層 數: 1 層
面 積: 165.29㎡ (50 Py)
무대면적: 323㎡ (97.2 Py)
객석면적: 263㎡ (79.56 P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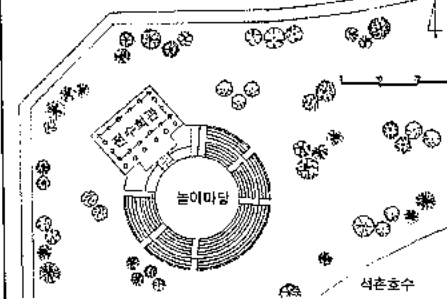


전수회관

객석 (폭800, 높이 300, 화강석)



〈그림 6〉松坡山台傳修會館 공연장 “서울 놀이마당”



建物概要
層 數: 地下 1 層, 地上 1 層
面 積: 268㎡ (81.07 Py)
무대면적: 459㎡ (138.85 Py)
객석면적: 744㎡ (225.05 P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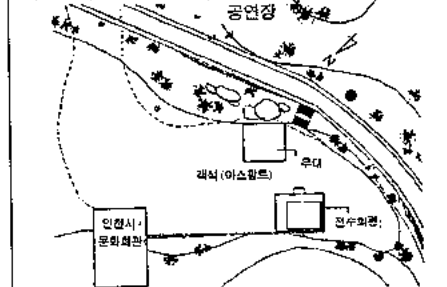


전수회관

객석 (폭800, 높이160, 콘크리트)



〈그림 7〉殷栗탈춤 傳修會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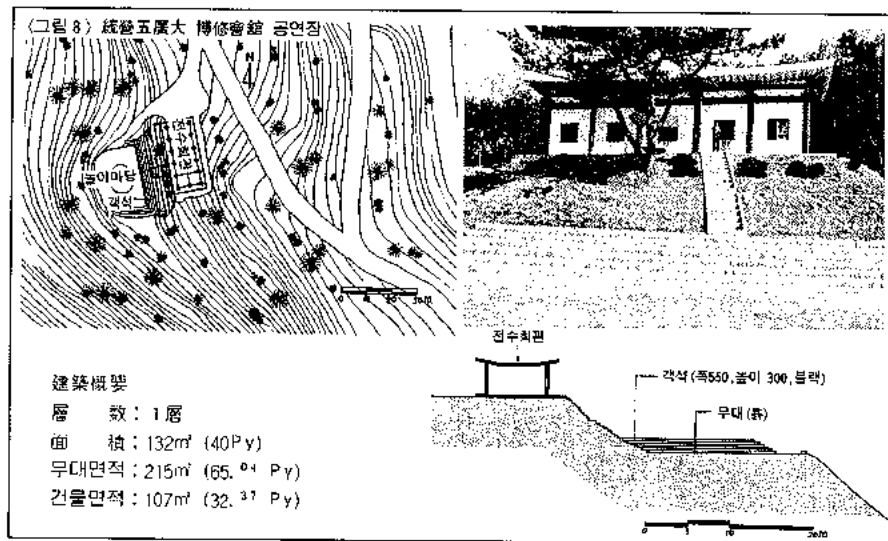
建物概要
層 數: 地下 1 層, 地上 2 層
面 積: 450㎡ (136.2 Py)
무대면적: 224㎡ (67.16 Py)
객석면적: 약 260㎡ (78.65 P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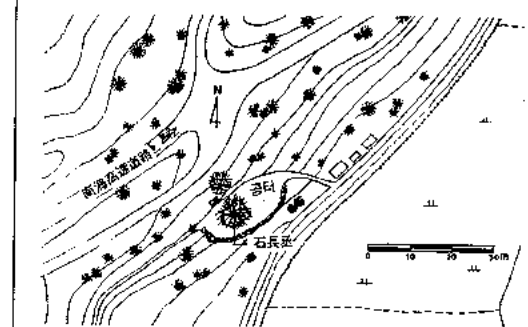
전수회관

객석 (아스팔트)





(그림 9) 駕山五廣大 놀이마당



있어 관중들의 접근은 용이하나 한적한 마을이 되어 많은 관중을 상대할 수 없다. 공연무대는 국도에 트여있어, 대형차의 소음에 영향을 받는다.

나. 松坡山台의 公演場

松坡山台놀이의 전수회관은 서울 강동구 잠실 石村湖水 西湖 北西側에 있는 서울놀이마당에 있다. 콘크리트조의 한식건물과 공연장이 있으며 전수회관 북측과 남측에 도로가 인접해 있고 북측도로 건너편에 대형상가, 서측도로 건너편에 아파트群이 있다. 東側과 南側은 石村湖水公園으로 시민들의 휴식처로 사용되고 있어 관중의 접근은 용이하다.

다. 殷栗탈춤의 公演場

殷栗탈춤 전수회관은 인천시 남구 송의4동 수봉산 西側便길을 약600m 정도 올라가 전수회관이 자리하고 있어 관중의 접근이 불편하다. 전수회관에는 사무실, 연습실과 숙식실이 있고 광장서측에 문화회관이 있다. 野外公演場은 광장 한편에 간이식 경계석으로 막고 흙을 다져놓았다. 광장북측 도로에서의 차량소음과 유원지시설에서의 소음때문에 환경이 좋지 않다.

라. 總營五廣大의 公演場

總營五廣大의 전수회관은 경남 창원시 南望山公園서측에 콘크리트건물과 전용 野外公演場을 갖추고 있다. 창원內 東測 公園입구에서 공원내 경사길을 따라 약300m 지점에 자리하고 있다. 전수회관과 야외공연장은 바닥이 약 6m 정도 되며 회관과 공연장 사이에 객석을 배치하고 있다. 공연장의 환경은 전수회관 동측에서의 소음 특히 객석이 충무항을 향하고 있어 入出港하는 선박들의 소음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改服廳으로 사용하는 회관과 야외공연장의 演戲者동선은 높이차이등으로 不便하게 되어있다.

마. 固城五廣大 現況

固城五廣大의 전수회관은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남측 동의동 남산공원입구에 연락사무소와 연습장을 두고 있다. 전용공연장은 없으며 남산공원위 보광사앞 넓은 공터를 이용 놀이판을 벌인다고 한다.

바. 駕山五廣大 現況

駕山五廣大의 전수회관은 경남 사천군 가산리 남해고속도로북측에 콘크리트건물만 서있고 공연장은 시설되어 있지않다. 옛날 놀던 곳에서 이따금씩 놀이판을 벌인다고 하는데 놀이판이 시작되었던 해안가 성황당터는 밭으로 변해 흔적도 찾을 수 없고 요즈음은 石長丞(경남 民俗資料第3號 兪公터에서 놀이판을 벌인다고 한다. 큰 고목나무 아래에 石長丞이 있고, 올라오는 兪公터는 훼손을 막기위해 석축을 쌓았다. 축대위 공터는 길이 10m 폭3.6m 정도이며 石長丞에는 韓紙로 금줄을 쳐놓았는데 마을의 福을 빌고 祭를 지낸다고 한다.

사. 水營野遊의 公演場

水營野遊의 전수회관은 부산시 남구 수영동 수영공원北西側에 위치한다. 대로변에 직선거리 약250m 정도이나 진입도로가 시장등을 지나 공원입구까지 450m 정도 되어 관중의 접근이 불편하다. 音환경은 양호한 편이나 공연장은 공사에정도로 완만한 경사지 그대로 쓰고있다.

아. 東萊野遊의 公演場

東萊野遊의 전수회관은 부산시 동래구 金井山 東側 溫泉場 金剛公園의 유원지안에 콘크리트 2층건물과 전용공연장을 갖추고 있다. 온천장공원입구에서 차량통행이 가능한 경사길을 따라 유원지입구를 지나 약700m 지점에 전수회관이 있어 유원지를 찾는 사람이외는 접근하기가 容易하지 않다. 큰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소음등의 영향은 적으나 유원지내 동물원들이 공연장주위에 산재해 있다. 전수회관이 산기슭에 있어 지형상때문에 공연장과는 높이차이가 약5.5m 정도되며, 객석이 전수회관을 향하여 배치되어 있다.

자. 國立劇場 野外民俗公演場

주요無形文化財의 전수회관은 아니나, 많은 民俗演戲가 公演되는 國立劇場 野外無台는 서울 중구 장충동 南山公園 北東側기슭, 장충공원南側에 위치하고 있는데 관중접근이 불편하고 東側도로등의 주위 音때문에 演戲環境이 좋지않다. 분장실은 國立劇場內를 사용하고 있어 演戲者動線이 좋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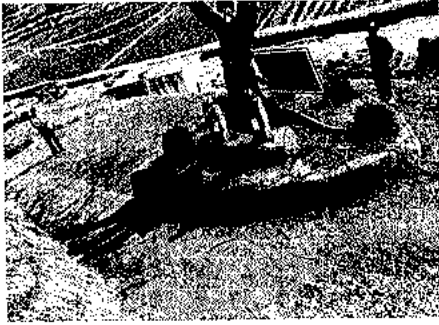
차. 韓國民俗村 野外公演場

관광단지인 한국민속촌에는 각종놀이가 演戲되는 野外公演場이 있다.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신갈리에 있는 한국민속촌내에 입구에서 약 500m 지점의 중앙에 야외공연장이 있다. 차량통행 도로나 주차장등에서 멀리 떨어져 위치하므로 소음등의 영향을 받지않아 演戲환경은 매우 좋다. 그러나 민속촌관광입장객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관중의 접근이 불리하고, 공연시간도 민속촌의 개장시간인 주간에만 한하고 있다. 공연장은 地表에서 아래로 파내려간 圓形形態이며 북측편에는 굴을 만들어 분장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客席部分은 北東側을 제외한 3/4정도에 파고라를 설치하고 있다. 주간공연이 위주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명시설은 없으며, 객석 뒷부분 東南側에 스피커 5개가 설치되어 있다.

카. 傳統劇 公演場的 現況分所

以上の 전수회관 야외공연장들과 국립극장 야외민속공연장, 한국민속촌 야외공연장을 종합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舞台주위 3면에 객석이 있는 형태가 많다.
- 舞台形態는 지형에 따라 圓型, 長方型과 否定型의 여러形態이다.
- 전수회관등의 건물을 舞台 背景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 舞台와 客席의 區分은 客席前의 材料(화강석, 콘크리트)와 排水路에 의하고 있으나 관객이 많을 경우 舞台內에 까지 관객이 앉게된다.
- 舞台面積이 큰곳은 전통극 이외의



四物놀이, 광대놀이등의 다수인원이
登場하는 놀이에 이용되고 있다.
○ 전체공연장에서 관객의 접근성과
공연환경이 모두 좋은 곳은 한곳도 없으며
공연장은 단순히 야외에 客席만 갖춘 형태가
대부분이다.

3. 東洋傳統劇 公演場의 特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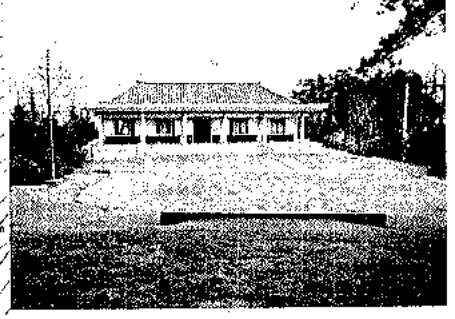
印度와 中國은 宗教, 政治, 社會, 文化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와 日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印度는 佛敎를 통해서 中國은
儒敎와 道敎, 오랜 정치적 유대관계와
漢文文化등을 통해서, 日本은 모든 文物이
그 유입과정으로 말미암은 우리와의 유사성
때문에 모두 多小를 막론하고
우리나라文化와 동질적인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연극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中國,
日本, 印度등 東洋의 대부분의 나라는
佛敎및 儒敎圈에 속해있는 국가들로
佛敎와 儒敎精神에 바탕을 두고 이를
정신적 토양으로 해서 演劇을 발전시켰으며,
東洋演劇의 내용및 특징을 살펴 보더라도
동질성을 엿볼 수 있는데 이러한 동질성은
그들의 연극및 무대특징이 우리 전통극
무대의 구성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들 演劇은 모두 기본적으로 화려한 의상을
걸치고 음악과 시 노래와 춤으로 엮여 나가는
상징적인 演劇인데, 印度演劇은 詩的인
아름다움이, 中國演劇은 唱이, 그리고
日本演劇은 춤이 그 演劇의 中心이 되어
있다. 특징을 요약해 보면

○ 노오(能)의 씨네(シテ)만 제외하고 모두
假面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얼굴에 분장을
진하게 하여 假面과 같은 효과를 낸다.
○ 素材는 모두 잘 알려진 敍事詩나 古事,
傳說등에서 따오며 佛敎및 儒敎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대개가 happy
ending 으로 끝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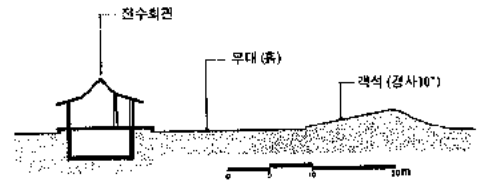
○ 公演初에 거행하는 宗教的인 儀式의
伴奏樂에 의해 主役俳優가 등장하게 된다.

(그림10) 水登野遊 博修會館 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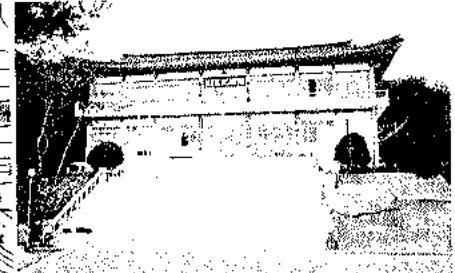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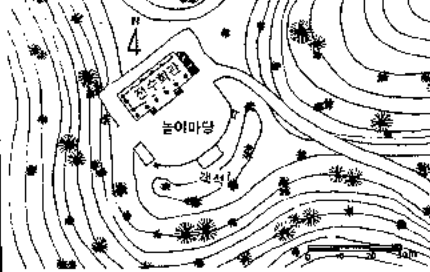


建物概要

層 數 : 1 層
面 積 : 214.5 m² (64.9⁸ Py)
무대면적 : 약 680m² (205.7⁷ Py)
건물면적 : 약 200m² (60.5⁵ P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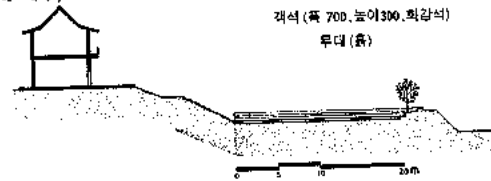


(그림11) 東英野遊 博修會館 公演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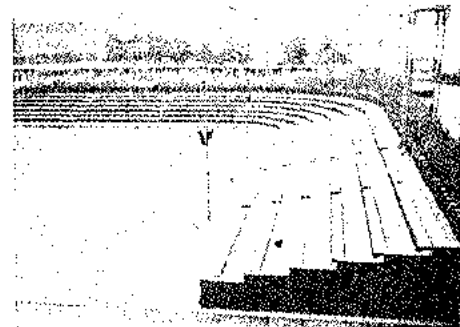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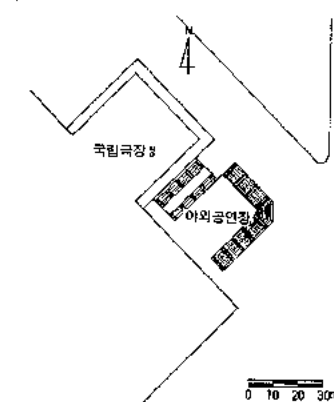


建物概要

層 數 : 2 層
面 積 : 724m² (219 Py)
무대면적 : 393m² (118.8⁸ Py)
건물면적 : 146m² (4.1⁷ P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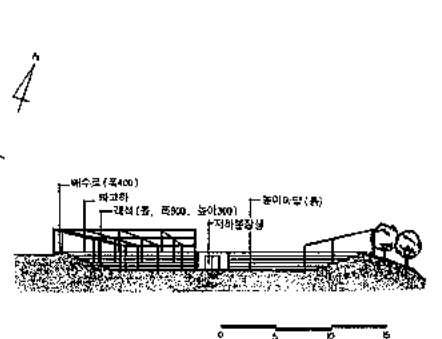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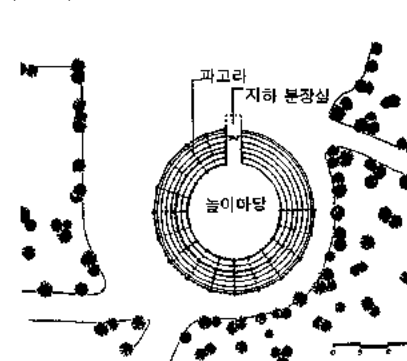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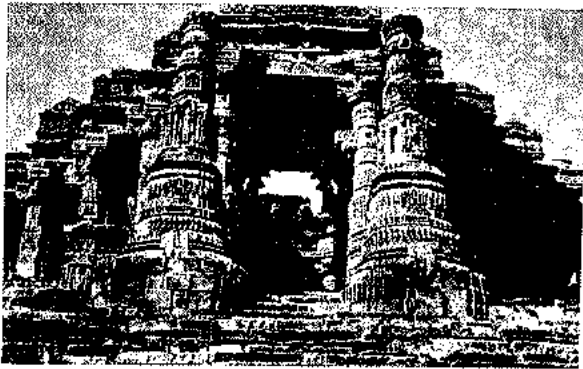
(그림12) 國立劇場 野外民俗公演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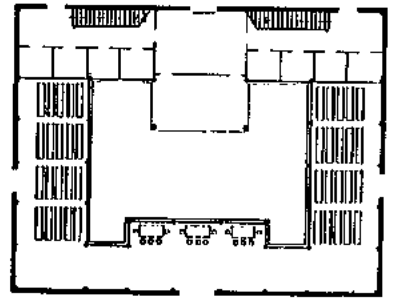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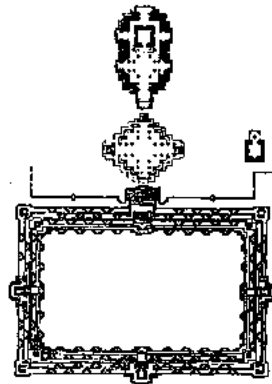
무대면적 : 424m² (128.2⁶ Py)
객석면적 : 564m² (170.6¹ Py)

(그림13) 韓國民俗村 野外公演場





(그림14) Sun Temple, modera (神廟앞에서 演劇이 行하여졌다)
(國寶建築 Vol 33, 1966, 10월호 P. 78에서 轉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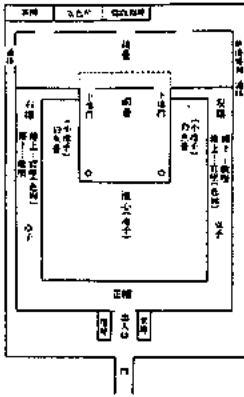
(그림15) 中國 王官 사설劇場 平面
(A. Nicolle; The development of the theatre P 2에서 轉載)

(표 1) 전통극 공연장 현황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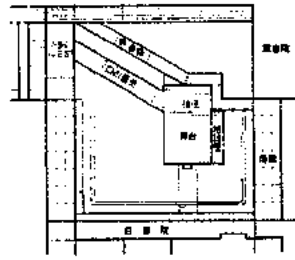
공연장		양주 별산대	송파 산대	통영 오광대	동래 야유	국립극장 놀이마당	민속촌 놀이마당	은 오	수영 야유
구 분									
무대면적 (㎡)		323	459	215	393	567	232	224	400
가시거리 (M) (H: 414기준)		3.89	16.93	2.1	2.76	4.15	3.63	•	20
유도무대 (㎡) 면적: 비율 (%)		104.4 (32)	•	148.5 (69.1)	277 (70.5)	290 (51.1)	77.6 (33.4)	•	•
가시선에 의해 제외되는 면적 (㎡)		219.6	459	66.5	116	277	154.4	•	•
객 석	폭 (mm)	800	800	550	700	850	900	•	•
	높이 (mm)	270	150	300	300	270	300	•	•
	면적 (㎡)	263	744	107	146	564	366.4	•	•
	재 료	화 강 석	콘크리트	블 러	화 강 석	콘크리트	돌	•	•
무 대 재 료		잔 디	흙	흙	흙	흙	흙	흙	흙
공연장 형태		장 방 형	원 형	장 방 형	반타원형	장 방 형	원 형	장방형	장방형
개 념 도									

(표 2) 전통극 공연장 현황분석(기준)

구 분	내 용	양 호	보 통	불 량	
관 객 의 접 근 성	동원능력	주변마을의 크기	시 이상	군·읍	리단위 이하
	교통상태	대중교통수단이용 및 도보 거리	250m 미만	250~500m	500m 이상
	인 식 도	유도표지 및 주변 인식물의 유무	유도표지	유도표지 없으나 주변 인식물 있음	유도표지 인식물 없음
공 연 환 경	집 중 력	주변상태	자연경관에 둘러싸여 있음	주위가 개방됨	건물등 주변이 산만함
	소 음	소음정도 및 돌발적 소음 유무	40dB 정도 조용함	50dB 미만, 조용하나 돌발 소음이 이따금 있음	50dB 이상, 소란한 환경
	바 람	바람의 빈도 및 속도	4m/sec 이하	10m/sec 이하, 이따금 분다.	10m/sec초과, 자주 분다.
연회자동선	분장실과 공 연 장	거리 및 높이차	거리 10m 이내 높이차 3.5m 이내	거리 10m초과 높이차 3.5m 정도	거리 20m초과 높이차 3.5m 이상
	연 회 자 동선차단	통로유무 및 유무 및 관객에 의한 동선차단	연회자 통로 있음	통로는 있으나 객석과 혼재	전용통로 없음
객 석 평 가	시 선	앞좌석 시선 방해정도 무대 면이 보이는 범위	80% 이상 보인다.	60%~80% 정도 보인다.	60% 미만이 보인다.
	객석상태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관객 통과 여부	통 과	약간 비켜나면 통과할 수 있다.	일어선 상태에서 통과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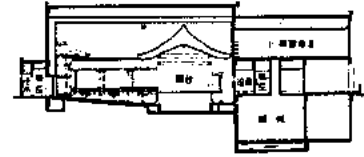
(그림16) 京成 神楽 平面
(青木正見, 支那近世 戯曲史, P.180에서 轉載)



(그림17) 西本願寺 北能舞臺, 京都市

(1582년에 건조된 것으로 현재 가장 오래된 能무대 이다. 寢臺는 舞臺와 別*에 있으며 回廊을 利用하고 있다. 이 형식은 江戸時代를 통해 다른 能舞臺에 踏襲되었고 관객은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能을 감상한다.)

(尹定榮 監修: 建築 設計 資料集成 7 권, P. 96에서 轉載)



(표 3) 전통극 공연장 현황분석

구 분		공 연 장	양 주 별산대	송 파 산 대	통 영 오광대	동 래 야 유	국립극장 놀이마당	민 속 촌 놀이마당	은 을	고 성 오광대	가 산 오광대	수 영 야 유
관 객 의 접 근 성	동 원 능 력	△	○	○	○	○	△	○	○	□	△	○
	교 통 여 건	□	○	□	△	○	△	□	□	□	△	□
	인 식 도	○	○	○	△	□	○	△	△	△	△	△
공 연 환 경	주 위 집 중 력	○	□	□	○	○	○	□	□	□	○	○
	소 음	□	△	△	○	□	○	□	○	○	•	○
	바람 및 태양광선	□	□	△	○	○	○	□	△	△	•	□
연 회 자 동 선	분장실과의 관계	○	○	△	△	□	○	□	△	△	•	○
	동 선 차 단	○	□	△	△	○	○	□	△	△	•	○
객 석 평 가	시 선	○	△	○	□	○	○	○	•	•	•	•
	객 석 상 태	○	○	△	□	○	○	○	•	•	•	•

○ 양호 △ 불량 □ 보통 • 해당없음

(표 4) 동양 3국의 무대특징 비교

구 분		인 도	중 국	일 본	
				能	歌 舞 伎
무 대	모 양	네모진 돌출무대	네모진 돌출무대	본무대: 장방형, 정사각형 Hashigakari: 복도무대	본무대: 장방형 Hanamichi: 복도무대
	면 수	2면	1면	2면	
	면 적	본무대+작은무대(12ft ²)	17~20척 ²	본무대: 18ft ² Hashigakari: 폭6ft 길이33ft	본무대: 폭 90ft Hanamichi: 길이 45ft
	높 이	•	90~120cm	90~120cm	
	바 닥	•	웅 단	마루바닥, 맨나무널판지 (음향효과)	
	기 등	4개 (객석의 신분구분)	2개	4개	기등흔적
	지 붓	없 음	있 음	있 음	
	출 입 구	주역: Yabanika 기타: 악사석 양편 2개의 문	무대위 좌문: 등장 우문: 퇴장	주역: Hashigakari 기타: 무대위 왼쪽	주역: Hanamichi 기타: 무대위 왼쪽
객 석		무대의 3면	무대의 3면	무대의 3면	무대의 1면(현대)
무대와 객석의 구분		없 음	없 음	경계선에 하얀자갈	Proscenium(현대)
배 경		Yabanika(그림막)	진홍빛 커튼	소나무 그림	
악 사 석		무대위 뒤쪽 출입구사이	무대위 오른쪽	무대 뒤쪽	
소 도 구		약 간	테이블, 나무의자2, 그외 약간	약간(실물암시)	
소 도 구 계		무대뒤(Off-stage)	무대위 뒤쪽(극중자유왕래)	무대 맨뒤 오른쪽 구석(자유왕래)	
분 장 실		막뒤(장치실 겸용)	무대뒤(분장실겸 휴게소)	(본무대와 떨어져 있음) 객의실겸 분장실	
조 명		백 광	백 광	백 광	

○印度劇이 祭儀와 오락을 적절하게 겸한 연극이라면 中國演劇은 오락만을 중시한 연극이라 하겠고, 일본연극은 祭儀나

儀式面이 짙은 연극이라 할 수 있다.
○무대에서도 유사한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이들 무대의 특징을 간추려

비교하면 위 <표4>와 같다.

올림픽현장을 통해 본 中繼放送設備

Broadcast facilities of Olympic

姜泰樞 /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건축전기설비기술사)

by Kang, Tae-Keun

1886년 근대올림픽이 부활된 이후, 올림픽은 스포츠제전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기술 등과 같은 여러 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중에서도 과학·기술적 측면의 올림픽 중계방송은 이러한 모든 분야를 종합한다는 의미에서 그 역할은 실로 지대하다고 하겠다. 올림픽 중계방송은 전 세계인의耳目이 집중되어 있는만큼, 올림픽경기 하나하나에 대하여 생생한 현장감을 재현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이의 취재가 정확해야 함은 물론 이를 위해 적절한取材施設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올림픽 전반의 취재는 국제 TV 신호(International television signal)를 통해 전 세계인에게 중계되어지므로 국제 TV 신호 제작은 이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올림픽현장을 통해 살펴본 국제 TV 신호 제작에 관계된 중계현장의 조건 및 카메라 위치, 해설자석 위치, 조명, 인터뷰시설, 情報서비스, 일반시설 및 中繼電源 現況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국제 TV 신호(International television signal)

국제 TV 신호(비디오 및 오디오)는 올림픽대회 개최국에 합당한 기술기준의 TV 생방송화면과 관련 배경음악 및 음성(국제음향)으로 구성되며, 이에는 슬로우모션 裝置, 時刻의 表示 및 電光스코어보드에 표시되는 것과 같은 출발순서표시, 기록표시등의 기본적인 정보가 포함된다. 이 국제 TV 신호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으로 방송하도록 함으로써 특정한 국가 또는 몇개 국가출신 선수들에게 放映이 집중되어서는 아니되며 각국의 관중들이 남들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취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 TV 신호에서는 직접 카메라를 통하여 선수를 소개하거나 광고할 수 없다. 이번 서울올림픽대회 중에는 개·폐회식을 포함한 총 31개 경기장에 국제 TV 신호 제작이 준비되며 주경기장에는 국제 TV 신호 제작을 위해 4개의 調整室이 설치된다. 국제 TV 신호 제작은 종목에 따라 생방송과 요약물(Summary)로 구분하여 제작하는데, 주요경기의 경우에는 생放送으로 제작되며, 생방송으로 제작될 수 없는 나머지 종목에 한해서 요약물로 제작하고, 또한 일일 요약물(Daily Summary)이라하여 당일 경기중 하이라이트를 편집하여 경기기간 중 매일 60분씩 제공한다. 모든 국제 TV 신호는 525/60 Hz NTSC 표준방식으로 제작되며, 국제 TV 신호 제작에 사용되는 製作裝備 일체는 다음과 같다.(개별방송사 제외)

- 중계차 61대(중계차 45대, Control room 16 개소)
- 헬리콥터 3대(MBC 1대 포함)
- 전기자동차 2대
- 이동차 2대
- 모터 싸이클 3대(화란 NOS 에서 임차)
- 보조설비(trailer) 7대
- ENG 18대

2. 중계방송의 조건

- 카메라가 경기내용을 완전히 포착할 수 있는 위치 확보
- 마이크로 송수신기가 상호 교신할 수 있는 장소
- 방송전파의 수신상태가 양호한 장소
- 방송석의 확보
- 중계차량의 전원확보가 용이한 장소와 주차장 확보
- 옥내 경기장의 경우는 방송조명에 적당한 조명확보 및 보조조명의 가능한 장소와 機器用 전원확보가 용이한 장소
- 연락용 회선(현장~방송국) 확보가 용이한 장소

3. 카메라 위치(Camera position)

각 경기장 및 경기장소에는 국제 TV 신호를 제공할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카메라의 위치는 경기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적당한 장소에 충분한 수의 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세계각국의 TV 시청자들이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아니하고 완벽한 화면으로 올림픽대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메인 카메라가 위치한 장소의 바로 옆과 경기장 안의 다른 장소에도 추가로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다른 방송인들도 그들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올림픽대회를 취재하고 국제 TV 신호의 화면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카메라의 위치 이용은 국제 TV 신호의 제작책임을 지고있는 IBC 통합예약사무소를 통해 사전에 예약되어진다.

이번 서울올림픽대회 중에 설치하게 될 카메라는 H-B 용이 651개소, 개별카메라가 335개소, ENG 가 223대이며, 이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전체 상황파악 카메라
- 부분적 상황 및 개별동작 포착 카메라
- 현장 분위기 포착 카메라

姜泰樞

56년 충남생, 한양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정립건축 기전부차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시설관리국에 근무중.

- 다목적 카메라
- RCC : Remote Control Camera
- RFC : RF Camera
- SC : Shutter Camera
- SSC : Supper SLO-MO Camera
- UWC : Under Water Camera

4. 해설자석 (Commentator position)

각 경기장에는 라디오 및 TV 조직의 요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수의 해설자석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 해설자석은 해설자가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각 해설자석에는 바로 옆에 3개의 좌석을 배치하고 각 해설자석은 방풍유리 또는 투명프라스틱 스크린으로 분리된다. 각 해설자석에는 해설자단위의 기자재와 2대의 컬러 모니터를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넓이의 테이블을 준비하여야 한다. 해설자석의 전구역은 일반관중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고 전용출입구를 가져야 하며, 가능하면 지방기자의 프레스룸, 인터뷰실과 선수 탈의실로부터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각 경기장에 설치한 해설자석은 과거 올림픽대회 때의 경험을 참작하여 국제 TV 신호를 제작할 방송관계자들과 협의하여 그 수를 결정한다. 이번 서울올림픽대회 때 설치하게 될 해설자석의 수는 총 1,173개로 해설자단위당 1개의 Desk 와 3개의 의자, 그리고 CATV 모니터를 설비해 두고 있다.

5. 照明

올림픽에 대비한 조명은 무엇보다도 스포츠조명의 조건과 중계방송에 적합한 조명의 채택일 것이다. 경기에 따라 보는 대상물의 형태, 크기 및 반사율이 틀리고 대상물을 보는 시야의 배경은 균일하지 않고 速變한다. 따라서, 경기자, 심판자, 관객 등 각각에게 만족될 수 있는 조명설비가 되기 위해서 광원의 위치와 수, 클레어, 조도,

광원, 투광기, 혼광조명, 균제도, 정색설비와 임시시설의 명확한 구분, 조사각, 건축적 의장, 미적효과 등 충분한 입체적 검토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각 경기장 및 경기구역에는 일급의 컬러사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조명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특히 스포츠중계 조명을 위해서는 옥내 경기장에서 창 및 외광에 의한 조명이 장내 조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검토대비, 시간에 따른 옥내조도와 색온도의 변화에 대한 대비 및 水平照度의 확보는 물론 TV 카메라에 필요한 垂直照度의 부족에 대한 대비와 최근의 효율, 그리고 색온도 演色性 개선의 조명용 광원의 교체 및 사용에 의한 색온도를 일치와 연색성 개선 및 TV 화면의 프리커현상을 대비하고 경기종목별 중계방송시의 보장조명, 인터뷰실·해설자석·참관자석 조명 등을 설비해 두고 있다.

조명의 강도는 사용하는 카메라의 감도에 달려있는 것이므로 국제 TV 신호의 제작책임을 지고있는 조직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하며, 통상적인 조명의 정도는 경기장 및 경기장소 어느 위치에서 측정하여도 1,400룩스를 하회하여서는 아니된다.

6. 인터뷰 施設

올림픽 선수촌과 주요경기(즉, 육상, 수영, 체조, 권투, 사이클링, 배구)가 거행될 경기장에는 TV 인터뷰 스튜디오와 라디오 인터뷰 스튜디오를 설치함으로써 각 방송조직이 선수, 트레이너 및 명사들과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기타의 경기장에는 카메라 옆에 1개의 인터뷰 구역을 설치함으로써 각 방송인들이 上記와 비슷한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7. 參觀者席

중계하지않는 해설자 또는 참관 방송인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경기장의 프레스석의 일부 또는 중계석에 인접한

구역에 설치한다. 이를 대비해 이번 서울올림픽 대회시에는 총 765석의 참관자석을 마련해두고 있다. 단, 개·폐회식 및 주요 결승경기 등 통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별입장권을 교부할 수도 있다.

8. 情報 서비스

경기장에서 활동하는 TV 및 라디오 보도요원은 신문, 잡지 등의 보도기관에 배포된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경기장에 설치된 모든 프레스 센터에 출입할 수 있다. 일부 주요 방송연합체와 일부 방송인들은 그들의 프로그램 제작소에 보다 신속한 정보를 보내기 위해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OCOG)의 정보 컴퓨터 시스템과 직접 연결된 터미널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생각된다.

9. 一般施設

각 경기장 및 경기장소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이 준비되어야 한다.

1) 주차장

공식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라디오 및 TV 조직의 차량을 위한 충분한 주차공간이 필요하며, 올림픽 기간 중 예상되는 중계차량은 106대로 이를 위해 7,420㎡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두고 있고, 보호시설(펜스설치등)을 마련해 놓고 있다.

2) 간이식당 시설

TV 및 라디오 보도요원들이 경기전 또는 경기중에 간단한 식사나 음료를 들 수 있는 스낵 바 또는 카페테리아.

3) 전화 및 텔레кс 시설

TV 및 라디오 보도요원은 프레스 센터 또는 경기장의 장거리통신센터에 설치된 전화 및 텔레кс실에 당연히 출입할 수 있다.

4. 기자재 보관소 (technical storage space)

각 경기장에는 특수장비를 보관할 보관소 또는 技術區域 (technical area) 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밖에도 전력소요에 차질이 없도록 적절한 전력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전력의 50%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비상용 발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ALTS(Automatic Line Transfer Switch) 로 비상전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서울올림픽대회를 위해 총 6,075kW의 전력용량을 설비해 두고 있다. (H.B 용 3,349kW, NBC 용 1,974kW, 개별 725kW)

10. 경기장별 올림픽 중계전원 검토 요약

* 상무 체육관

(1) 중계전원 요구현황

① 중계석

i) H.B: 20 kW, 110/220 V

ii) NBC: 2.2 kW×2, 110 V

② 중계차

i) H.B: 60 kW, 110/220 V

ii) NBC: 75 kW, 120/208 V

22 kW×2, 110/220 V

iii) Unilateral: 20 kW, 110/220 V

③ 인터뷰실: 10kW, 110/220 V

④ 인터뷰지역: NBC: 3.3 kW, 110 V

⑤ C.C.R: 5 kW, 110/220 V

(2) 현 시설현황

중계차용 60kW 1면

(3) 중설계획

① 변압기 신설 1대 1 φ 200 KVA

② 분전반 신설 2면-중계차

- C.C.R

③ 배전반 신설 1면-변전실

④ 간선 중계차 IV 325□×3

in 104 c 134 m

C.C.R IV 125□×3 in 70 c 115 m

* 한양대 체육관

(1) 중계전원 요구현황

① 중계석

i) H.B: 20kW, 110/220 V

ii) NBC: 2.2 kW×2, 110 V

3.3 kW×3, 110 V

② 중계차

i) H.B: 40kW, 110/220 V

ii) NBC: 75kW, 120/208 V

22 kW×2, 110/220 V

③ 인터뷰실: 10kW, 110/220 V

④ 인터뷰지역: NBC: 3.3 kW×2, 110 V

⑤ C.C.R: 3kW

(2) 현 시설현황

① 중계용 변압기 1대 1 φ 150 KVA

② 중계차용 2 P 400 A 2회로

③ 중계석 3 P 200 A 1회로

(3) 중설계획

① 변압기 신설 3대 1 φ 30 KVA

② 배전반 신설 1면-변전실

③ 배전반 보수 2면-중계차

- 중계석

신설 2면-변전실

- 중계차

④ 간선 중계차 TV 150□×3

in 70 c 131 m EV 200□×1

추가 131 m

* 잠실 학생 체육관

(1) 중계전원 요구현황

① 중계석

i) H.B: 70kW, 110/220 V

ii) NBC: 2.2 kW×2, 110 V

3.3 kW×2, 110 V

② 중계차

i) H.B: 55kW, 110/220 V

ii) NBC: 75kW, 120/208 V

22 kW×2, 110/220 V

iii) Unilateral: 20 kW×2, 110/220 V

③ 인터뷰실: 10kW, 110/220 V

④ 인터뷰지역: 3.3 kW×2, 110 V

⑤ C.C.R: 5(7.5) kW, 110/220 V

⑥ IS 제작실: 5kW, 110/220 V

(2) 현 시설현황

중계용 변압기 1대 1 φ 150 KVA

(3) 중설계획

① 변압기 신설 1 φ 30 KVA 3대

1 φ 50 KVA 1대

1 φ 75 KVA 1대

② 배전반 신설 1면-변전실

③ 분전반 신설 3면-중계석2 - 중계차

④ 간선 중계석 IV 200□×3

in 70 c 28 m

중계석 IV 60□×3 in 42 c 41 m

중계차 IV 150□×4

in 82 c 109 m

IV 250□×3

in 82 c 109 m

IV 200□×3

in 82 c 109 m IV 200□

42 m

EV 200□×1

추가 67 m

* 태능 국제 사격장

(1) 중계전원 요구사항

① 중계석- H.B: 10kW, 110/220 V

② 중계차

i) H.B: 30kW, 110/220 V

ii) Unilateral: 15kW, 110/220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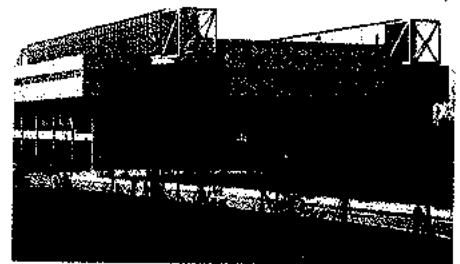
③ C.C.R: 5kW, 110/220 V

④ 서브센타: 10kW, 110/220 V

⑤ 인터뷰실: 0.5kW, 110 V

(2) 현 시설현황

예비용 변압기 1대 1 φ 30 KVA



상무체육관

(3) 중설계획

① 변압기 신설 1대 1 φ 50 KVA

② 분전반 신설 1면-중계차

* 서울 송마 공원

(1) 중계전원 요구현황

① 중계석

i) H.B: 10kW, 110/220 V

ii) NBC: 2.2 kW×2, 110 V

② 중계차

i) NBC: 22 kW×2, 110/220 V

ii) Unilateral: 20 kW×2, 110/220 V

③ 인터뷰실: 10kW, 110/220 V

④ 인터뷰지역: NBC: 3.3 kW, 110 V

⑤ TV 조정실: 50kW, 110/220 V

⑥ C.C.R: 5kW, 110/220 V

(2) 현 시설현황

없음.

(3) 중설계획

① 변압기 신설 1대 1 φ 200 KVA

② 배전반 신설 1면-변전실

③ 분전반 신설 3면-중계차

- TV 조정실

- C.C.R

④ 간선: TV 조정실 EV 150□×3

in 70 c

중계차 EV 250□×3

in 82 c

C.C.R EV 150□×3

in 70 c

* 원당 종합 미술경기장

(1) 중계전원 요구사항

① 중계석- H.B: 3kW, 110/220 V

② 중계차

i) H.B: 30kW, 110/220 V

10 kW×4, 110/220 V

ii) NBC: 22 kW×2, 110/220 V

③ C.C.R: 3kW, 110/220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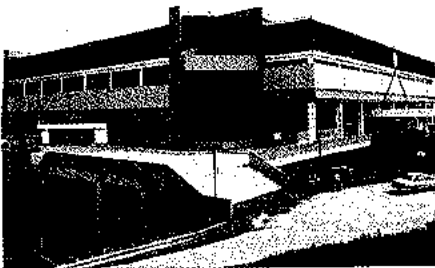
④ 인터뷰실: 0.5kW, 110 V

(2) 현 시설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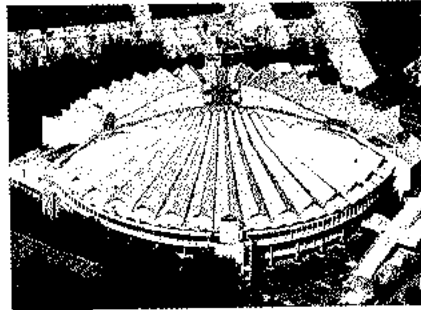
없음.

(3) 중설계획

① 발전기 임차 1 φ 145 KVA 2대



한양대체육관



잠실학성체육관



서울대체육관

- 1 ϕ 30 KVA 6대
 ② ATS 반 신설 145 KVA 1면
 30 KVA 3면
 ③ 분전반 신설 4면—중계차

*** 서울대 체육관**

- (1) 중계전원 요구현황
 ① 중계석
 i) H.B: 30kW, 110/220 V
 ii) NBC: 2.2kW $\times$ 2, 110 V
 ② 중계차
 i) H.B: 50kW, 110/220 V
 ii) NBC: 22kW $\times$ 2, 110/220 V
 iii) Unilateral: 20kW, 110/220 V
 ③ 인터뷰실: 10kW, 110/220 V
 ④ 인터뷰지역: NBC: 3.3kW, 110 V
 ⑤ C.C.R: 3kW, 110/220 V
 ⑥ IS 제작실: 5kW, 110/220 V
 (2) 현 시설현황
 중계용 변압기 1대 1 ϕ 40 KVA
 (3) 중설계획
 ① 변압기 교체 1대: 1 ϕ 40 KVA $\rightarrow$
 1 ϕ 200 KVA
 ② 배전반 신설 1면—변전실
 ③ 분전반 신설 2면—중계석
 중계차
 ④ 간선: 중계차 EV 325 ϕ 1 $\times$ 1
 추가 72m
 중계석 EV 200 ϕ 1 $\times$ 1
 추가 77m

*** 성남 공설 운동장**

- (1) 중계전원 요구현황
 ① 중계석 H.B: 10kW, 110/220 V
 ② 중계차
 i) NBC: 22kW, 110/220 V
 ii) Unilateral: 20kW, 110/220 V
 ③ 인터뷰실: 10kW, 110/220 V
 ④ 인터뷰지역: NBC: 3.3kW, 110 V
 ⑤ C.C.R: 3kW, 110/220 V
 ⑥ TV 조정실: 50kW, 110/220 V
 (2) 현 시설현황
 중계차용 전원 3 ϕ 4 W 120/208 V 125 A
 1회로

- (3) 중설계획
 ① 변압기 신설 1대 1 ϕ 150 KVA
 ② 배전반 신설 1면—변전실
 ③ 분전반 신설 3면—중계석
 —TV 조정실
 —인터뷰실
 ④ 간선 TV 조정실 EV 150 ϕ 1 $\times$ 3
 in 70 c
 중계차 EV 380 ϕ 1 $\times$ 3 in 36 c

*** 수원 실내 체육관**

- (1) 중계전원 요구현황
 ① 중계석: H.B: 12kW, 110/220 V
 ② 중계차
 i) NBC: 22kW, 110/220 V
 ii) Unilateral: 20kW, 110/220 V
 ③ 인터뷰실: 10kW, 110/220 V
 ④ 인터뷰지역: 3.3kW, 110 V
 ⑤ TV 조정실: 50kW, 110/220 V
 ⑥ C.C.R: 5kW, 110/220 V
 (2) 현 시설현황
 중계용 변압기 1대 1 ϕ 60 KVA
 (3) 중설계획
 ① 변압기 신설 1대 1 ϕ 100 KVA
 ② 배전반 신설 1면—변전실
 ③ 분전반 신설 2면—C.C.R
 —TV 조정실

*** 화랑 양궁장**

- (1) 중계전원 요구현황
 ① 중계석 H.B: 10kW, 110/220 V
 ② 중계차
 i) H.B: 30kW, 110/220 V
 ii) Unilateral: 15kW, 110/220 V
 ③ 인터뷰실: 0.5kW
 (2) 현 시설현황
 변압기 1대 1 ϕ 50 KVA
 (3) 중설계획
 ① 분전반 신설 1면—중계차
 ② 간선 IV 250 ϕ 1 $\times$ 3 in 82 c

*** 새마을 체육관**

- (1) 중계전원 요구현황
 ① 중계석: H.B: 10kW, 110/220 V

- ② 중계차
 i) H.B: 50kW, 110/220 V
 ii) Unilateral: 20kW $\times$ 2, 110/220 V
 ③ 인터뷰실: 10kW, 110/220 V
 ④ C.C.R: 3kW, 110/220 V
 ⑤ IS 제작실: 5kW, 110/220 V
 (2) 현 시설현황
 중계용 변압기 1대 3 ϕ 300 KVA
 (3) 중설계획
 ① 변압기 교체
 1대: 3 ϕ 300 KVA $\rightarrow$ 1 ϕ 50 KVA,
 1 ϕ 75 KVA
 ② 분전반 신설 2면—중계차 —C.C.R
 ③ 간선 C.C.R EV380 ϕ 1 $\times$ 3
 in 36 c 64m

結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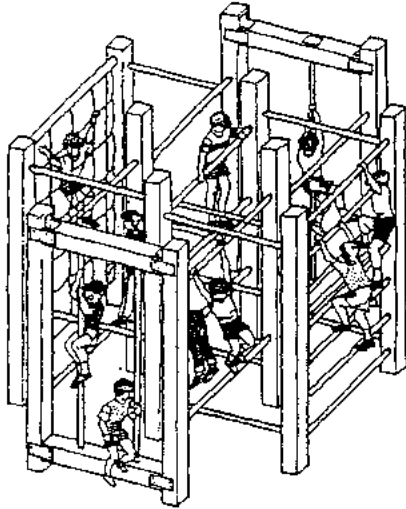
산업이 발달할수록 그 원동력을 제공해 주는 건축설비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빌딩, 산업시설, 주택 등 건축물 속에 사용되는 設備機器가 건축물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각종 플랜트설비의 출현과 고층건물, 고급건물의 등장으로 건축설비의 진보가 과거보다 신속하고 강렬한 것이 오늘날의 현상이다. 아울러 설비의 채택도 디자인 감각의 수준향상은 물론, 급속한 기술의 진전으로 건물의 설계 및 관리에 있어서 많은 비중을 점차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에너지 절약형 설비의 등장과 도난방지설비, 무대 照明과 음향 등의 첨단적 설비의 출현, 심지어 Home Bus system, Home Automation, Local Area Network system, Airphone total office and Home management system 등 주택, 빌딩 자동화 추세는 설계, 시공, 제조, 관리 등의 각각의 기술분야에 창조적 영역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급진적인 건축설비의 개발현상은 종합기술의 결정체인 건축술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충분한 사전조사와 협동작업 (Teamwork) 이 더없이 요구되는 실정이라 하겠다.

어린이 놀이터

Children Pleasure Resort

吳尚坪 / (주) 正東엔지니어링, 國土開發(造景)技術士
by Oh, Sang-Pyoe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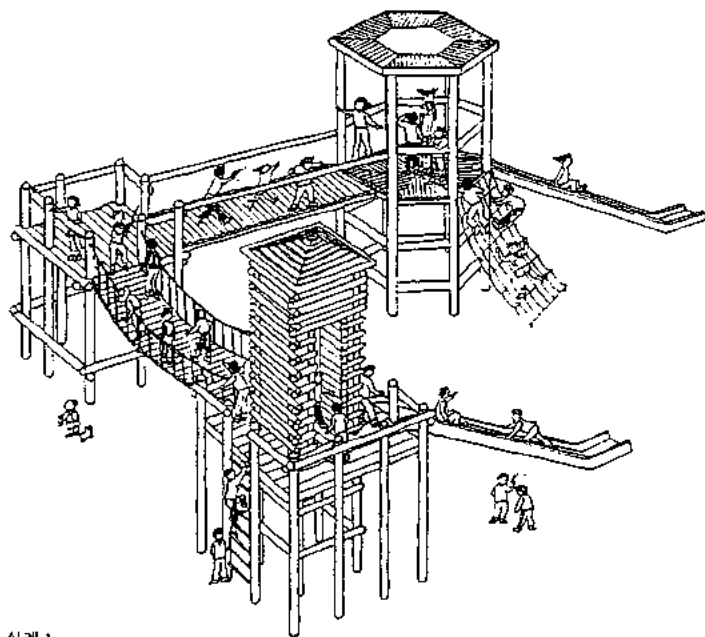
1. 住居團地에 있어서의 놀이터의 意味

사회 的 급속한 발전과 변화는 住居環境을 傳統 的인 생활양식으로부터, 편리하기는 하나 매우 이질적이며 이기적인 것으로 바꾸어놓았다. “어린이” 이 한마디 단어가 얼마나 우리를 즐겁게 하며 희망의 세계로 이끌어들이는 말인가? 다시한번 생각해보자. 한 세대전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어떠한 생활환경속에서 그들의 자식들인 그들의 어린이들을 길러왔던가를. 이는 오로지 그들의 모든 희망과 보람을 어린이들에게 걸고 허리띠를 졸라매었던 것이 아니었는가.

이러한 부모들이 길러준 오늘날 우리세대가 오늘의 우리나라를 이만큼 이라도 살게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아무도 의의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의 기성세대들이 그들의 後世 帶인 어린이들에 대하여 무엇을 해주었다고 할 수 있는가? 물론 오늘의 부모들은

그들의 부모들로 부터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물질적인 많은 것과 편리해진 환경에서 자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어린이” 그들이 복잡한 現代生活環境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올바르게 판단하여 그들의 허약한 곳을 한시바빠 고쳐주어야 할 것이다. 요즘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십대 청소년들의 자살소동을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과밀한 大都市의 學校教育環境, 말소적으로 자극적인 부분별한 매스컴에 의한 불필요한 정보의 범람, 압도적으로 콘크리트의 숲을 이루는 고층화 되어가는 주거환경, 상요당하는 심각한 人試競爭, 일부 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무관심, 등등 실로 수많은 문제점을 열거한다면 한이 없을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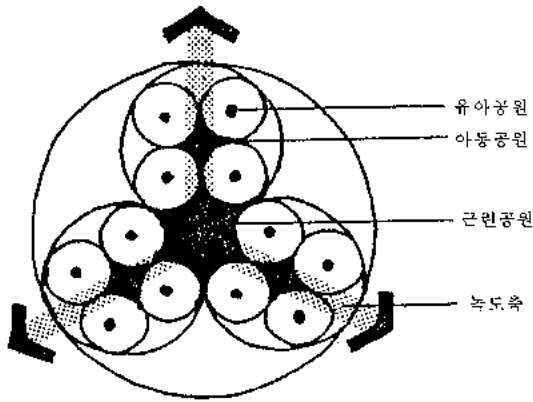
다음 항목에서도 설명이 될 것이지만 어린이들의 발달심리학적 입장에서 볼 때, 인간과 환경의 상호관계에서 발생하는 행동



모형놀이터 실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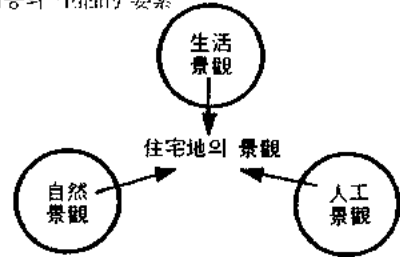
吳尚坪

필자는 41년 경남생으로 농학과 한양대
환경과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는 정동엔지니어링 자연



住宅団地の 景観

생활·육외위락활동·인간
관계 등의 生活的 要素



지형·풍토·토양·물·수
림·小動物·곤충류 등의
自然的 要素

住居棟·시설·도로·
놀이터 등의 人工的 要素

(Behavior)은 어린이의 성장단계에서
독특한 양식을 나타내는데 각각의
단계에서 경험, 내지는 체험으로
획득하여야 할 행동양식을 발달과업
(Developmental Task)이라 하여 이러한
段階의 經驗蓄積이 성장과정에서 適期에
이루어 지지 못한다면 다음 단계의
행동발달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이고
어른으로 성숙한다음 성격장애 현상으로
나타날수도 있다는 것이다.

R. S. Illingworth 박사에 의하면
동물실험에서 다람쥐에게 태어날 때 부터
썩어 으깬 수 있는 나무열매나 자연먹이를
주지않고 완전히 성숙시킨 뒤 나무열매와
자연먹이가 풍부한 곳에 풀어준 결과, 결국
먹이를 썩어 으깬 수 있는 성장과정의
단계적 경험획득 부족으로 굶어죽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와같은 推移를 고려해 본다면
명백한 결론에 쉽게 이를 수 있다. 즉
성숙기 어린이들이 충분한 단계적
Developmental Task를 충분히
획득치 못하고 자라났기 때문에 1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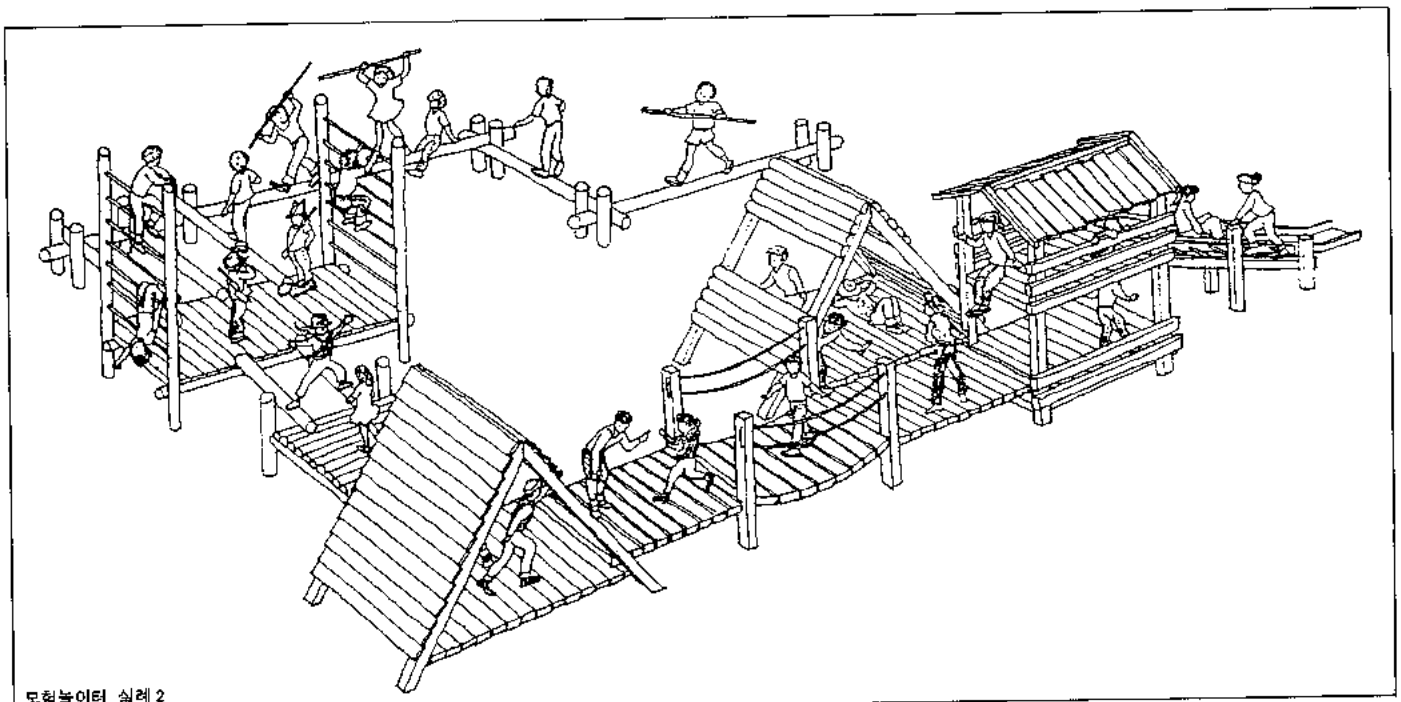
중고교생들의 정서와 인격형성의 미숙에서
연유한 자살소동의 사회현상으로 볼 수
있다.

어린이 놀이터가 어린이들의 정서함양,
인격형성, 건전한 신체발달에 있어서 이것
하나만으로 완벽한 구실을 다 하는
것이라고는 생각 할 수 없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어린이 성장과정애
있어서 어른들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값지고 필수적이며 아무리
훌륭한 시설을 해준다 하더라도 조금도
아까울 것이 없을 것이다. 어린이의 놀이는
어른들의 놀이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어른들의 놀이는 휴식과 휴양의 성격
위주로서 그야말로 놀고 즐기는 것이
본질이나, 어린이들의 놀이는 “놀이”그것이
곧 어린이들의 “일”(Work)인 것이다.
놀이는 어린이들의 배움의 한 방법이다
(Play is a children's children's
way of learning) 또한 잘 노는 것이 잘
배우는 것이다. 이와같이 어린이들은 그들의
놀이를 통하여 축적된 경험들이 어른이 된

후 어떤 상황 예컨대 위기나 위험에
순간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반사적으로 자신방어 할 수
있는 행동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어린이들의 놀이 행위는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연속 발생되며 이와 같은 연속되는
변화는 자연발생적인 것으로서 内部
질서에 따라 발생되고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형태가 이루어진다.

2. 놀이터 그 現況과 問題点

우리나라의 어린이 놀이터 현황을
一目瞭然하게 정리해 놓은 통계를 아직
보지 못하여 그 정확한 상황을 알 길은
없으나 서울시가 설치한 840개소
(1988년 현재) 비롯하여 시내각급학교 및
유치원, 주택공사와 민간아파트업체가
건설한것을 합한다면 상당한 숫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통상 근린주거단위에서
유치거리400M 당 1개소로 기준한다면 얼른



도원놀이터 실례 2

인간의 성장단계

연령계층	성 장 단 계	생 활 요 구	환 경 요 구
0 ~14세	발육기 심신의 발육이 왕성한 시기	태양·綠·공기·대지·양친의 자애·양육	자연적 생활환경의 혜택을 받는 곳
15~29세	자립기, 사회적으로 자립하는 시기	지식·정보 사회참여	지식·정보가 풍부한 곳 도시
30~44세	활동기, 사회적활동 및 육아의 시기	중핵적 사회활동·육아교육	사회적 활동이 편리하고 자연환경의 혜택을 받는 곳
45~59세	안정기, 사회적 지위가 안정되고 자식들의 독립으로 생활안정시기	관리직적 사회생활	부부의 공동사회활동을 충족·개인생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
60~74세	자유기, 자식들의 완전독립으로 인생을 즐김. 자유로운 생활	제 2의 사회활동, 유유자적한 생활을 즐김	자유·주거환경요구는 정립하기 어렵다.
75세 이상	보호기, 심신이 쇠약하고 사회적 보호가 요구되는 시기	사회적보호제 시설	사회보호시설이 충분한 곳 도시

짐작은 안되어도 우리들이 살고있는 동네 주변을 살펴 계산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양적인 것도 있겠으나, 질적인 것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사진(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 똑같은 모양을 수없이 반복설치하여, 자원의 낭비는 말할 필요도 없고 어린이들의 흥미도 완전히 잃어 오로지 아파트 공사준공을 위한 요식행위에 그친 사례를 노출하고 있다.

그간에 이러한 사례들을 고치기 위하여 이 분야에 관심있는 여러분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연구노력하고 방충을 위시한 각종메스컴의 홍보활동등이 주도하여 최근에 와서는 서울시를 비롯한 민간아파트 건설업체들이 솔선하여 나서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조짐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설공사의 가장 중요한 단계인 건축설계시에 일부 建築士들의 인식부족으로 시중에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즉보없는 시설물도면을 일말의 고려도 없이 마구잡이로 복사하여 사용되고 있는 사례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일이며 후세들에게 대하여 부끄러운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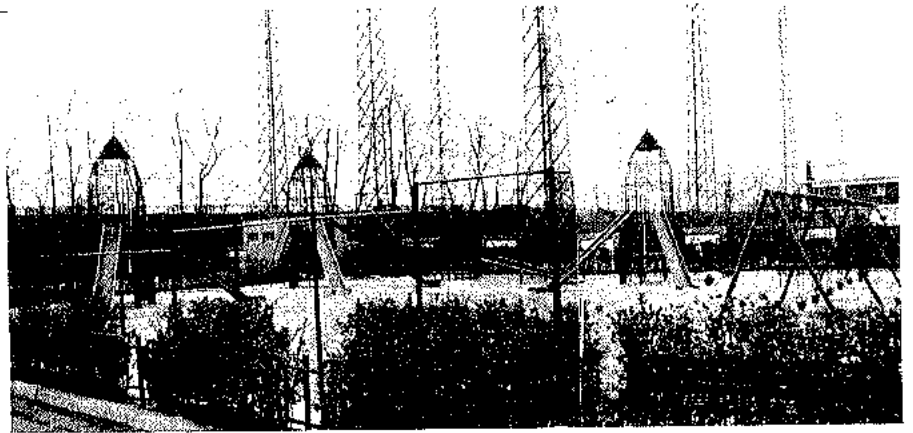
住居團地에서의 屋外空間構成이란 놀이터, 공원, 광장, 보행자전용로, 녹지대 등의 구성요소를 활용하여 어린이로 부터 어른에 이르는 다양한 옥외위락행위를 수용하는 Openspace 체제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작업이다. 이 경우 각각의 위락공간을 어떻게 기능적으로 계획하느냐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목표이기는 하지만 그 이상으로 공간상호간을 어떻게 연결시켜 단지설계에 有機的으로 결합시키느냐 양호한 주거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 그러므로 옥외생활공간의 중요 구성요소인 놀이터의 설계에 있어서 어떠한 접근방법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주거단지의 골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와 같이 제안된 놀이터와 여타의 관련분야 설계는 밀접한 相關關係를 갖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접근방법을 정리해보면 1) 환경계획적접근방법 2) 정관계획적접근방법 3) 위락계획적접근방법 4) 커뮤니티 계획적접근방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으나 이번엔 중점적으로 언급코자하는 문제는 놀이터 시설물 질적인 사항이 될 것이다.

3. 놀이터 施設物의 質的 문제

어린이들은 집안 혹은 그 주변에서 하루의 대부분시간을 보낸다. 성장에 따라 그들의 행동영역(Activity Boundary)은 점차 집안으로부터 학교, 지역사회로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가는데, 어린이 놀이공간 계획에 있어서도 어린이의 행동영역이 되고 있는 생활영역(Living Boundary)이 그 기초가 된다.

이러한 공간속에서 일어나는 어린이의 행동요구는 개인적행동요구와 집단적행동요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어린이의 놀이 기능특성과 관련지어 볼 때 어린이 놀이공간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첫째, 運動을 야기시킨다.” 둘째, 어린이의 감정을 자극시켜 情緒의 反應을 구하여야 한다. “셋째, 다양한 환경의 제공으로 지식탐구의 의욕을 높여준다.” “넷째, 人間關係를 쉽게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사회성을 길러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성격을 담기 위하여서는 놀이공간 그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적절한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겠다는 것이다. Tandy는 “어린이는 그들 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순환계의 (Circulatory System With Funny Equipment) 중심으로서 재미있는 기구를 반드시 갖춘 놀이터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라고 하였으며 어린이 놀이터는 어린이 놀이활동의 中心體이며 사회활동의 중심체이고 배움의 장소로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린이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게 기능적이어야 하며, 접근도를 높일 수 있게 매력적이어야 하고, 충분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적절하고 재미있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단지 전체환경의 일부로서 조화되어야 하고 또다른 공간인 학교, 공원 등과 체계화



〈사진 1〉 동일한 장소에 똑같은 모양을 수 없이 반복 설치한 어린이놀이터

되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 놀이터는 이용자의 연령에 따라 저연령, 중연령, 고연령 어린이놀이터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놀이기구의 기능과 형태를 달리 할 수도 있으며 유치거리도 달라질 수 있다. 목적에 따라 傳統놀이터 (Traditional playground), 冒險놀이터 (Adventure playground) 綜合놀이터 (Comprehensive playground),

창조놀이터 (Creative playground), 街路놀이터 (Vestpocket playground), 實物놀이터 (Activity or iented playground), 交通놀이터 (Traffic playground), 託兒놀이터 (Check a child playground),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어린이 놀이기구의 질적문제로서 첫째, 사용되는 소재인데 철재, 석재, 세멘트, 목재,

프라스틱, 스텐레스강, 알루미늄 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쓰인 소재는 강판, 철판 등으로서 위가면에서 저렴하고 작업성이 좋아 용이하게 사용되었으나 전문업체가 아닌 영세철공소들의 조잡한 시공으로 품질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된다. 꼭 필요한 구조체 부분에는 철자재의 사용이 불가피할 것이나 철자재의

연령에 따른 어린이놀이터의 類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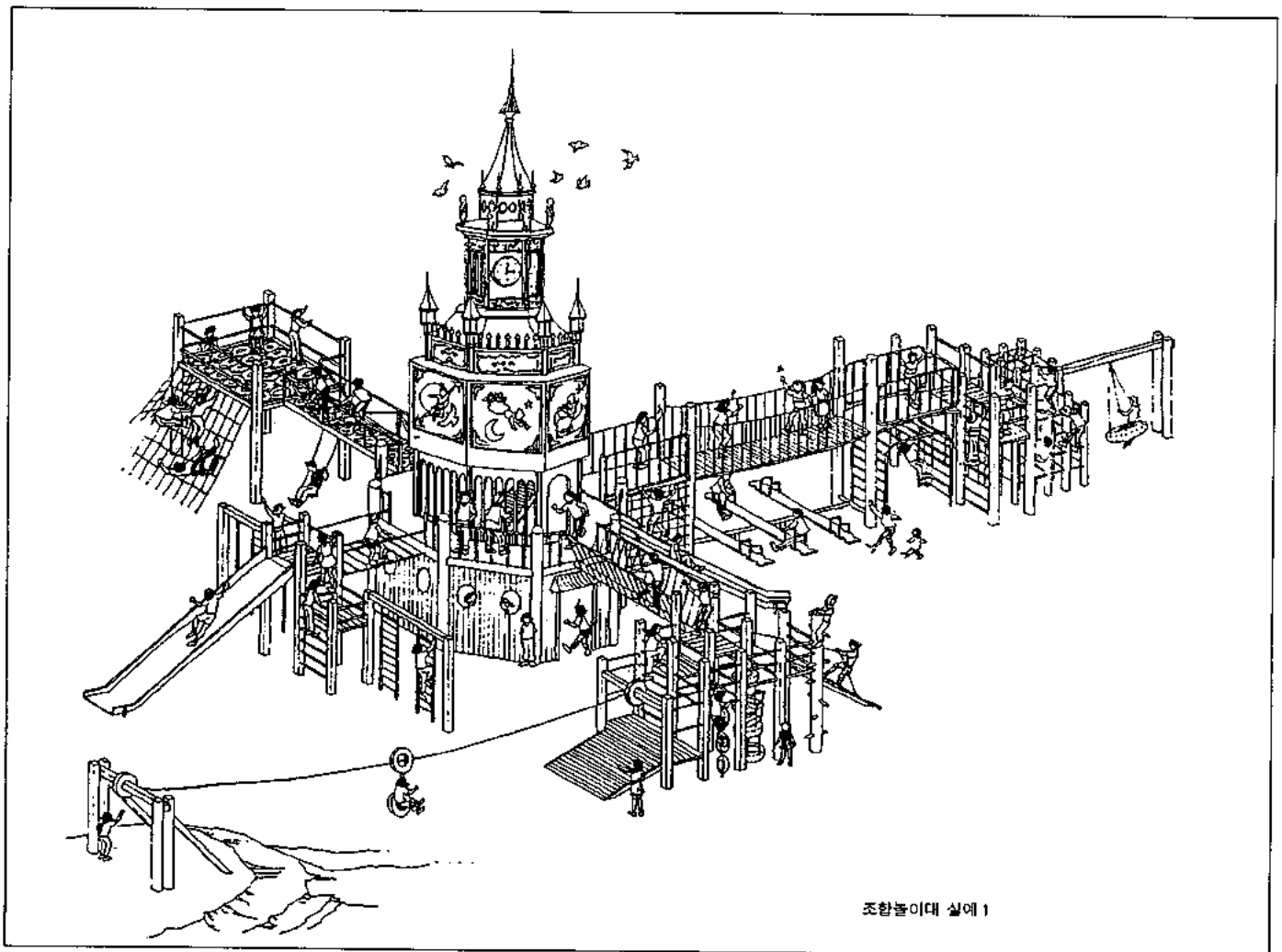
놀이터 유형	개 념	기 능	배 치	시설 및 기구	규 모	최 대 유 치 거 리	이용인원
低年齡의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 (3~5才) (Play lot)	어린이들을 쉽게 감시할 수 있고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 동반한 부모들의 휴식처도 제공	어린이들을 쉽게 감시할 수 있으며, 습관놀이와 상징적 놀이 및 어른을 모방하는 모방놀이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줌.	학령아동과 분리시켜 주며 주위가 가려지고 그늘이 필요한 곳, 남쪽을 향하게 한다.	• 감시가 필요없는 곳 : 풀밭, 모래밭, 장난감 놀이를 위한 포장된 곳, 어머니를 위한 의자가 있는 휴식처. • 감시하여야 할 곳 : 물놀이풀, 구조놀이, 놀이집, 놀이기구로서는 징검다리 기어가도록 된 굴 올라갈 수 있는 통나무 및 홀무덤 등.	15m × 25m 기구당 평균 2.1m ² 한 어린이 당 7m ² 정도 필요	차도를 가로지르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이 좋으며, 거주단위로부터 200m	10~20세대
中年齡의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 (5~8才) (Play ground)	적당한 놀이터를 제공 함으로써 놀이에 대한 어린이의 자연스러운 감흥을 줄 수 있도록 모험적·창조적놀이 제공.	자기나름대로의 객관에 의해 이론적인식을 시작하는 때이므로 지능 및 성격개발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하도록 해준다.	이웃의 중심지이며 국민학교 근처에 배치하는 것이 좋으며 Play Park의 일부로서서 혹은 독립 적으로 설치.	그네, 미끄럼대, 회전무대, 자기들이 지을 수 있도록 통나무, 연장 등 건축자재 그림 도구게임기구 및 운동기구, 의자시설된 휴식처.	Plak plak의 일부분 시 : 15,000m ²	400m	40~100세대
高年齡의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 (8~18才) (Play park)	비정형적인 비교적 새로운 공원의 형태로서 모든 연령의 어린이들이 놀 수 있도록 설계.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나이로 규칙에 따른 게임에 흥미를 갖게 하고 그룹 활동을 도와주며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도록 해준다.	학교근처에 있으며 건너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면 되고 세면장과 휴식처에 가까이 위치시키기 위하여 기존놀이터 옆에 설치하기도 한다.	모험놀이지역, 예술활동과 조용한 계엄을 할 수 있는 지역, 테니스 등의 공놀이를 위한 정형적놀이 지역, 놀이기구가 서로 분리된 지역 및 노인들을 위한 휴식지역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15,000m ² 가 적당하며 키질수록 잔디밭을 넓게 하며 적을수록 공간을 세분.	400~800m	8,000~10,000세대

금속성 촉감 자체가 어린이들의 정서유지와
인격형성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은
사실이다. 다음으로는 널리 사용되는 자재는
목재로서 욕의 사용시 부패로 인한
시설물수명에 문제가 되었으나 요즈음은
C. C. A # 공법에 의한 가압식
방부처리가 발달되어 있어 문제가 되지
않고있어 자재의 비용은 다소 많더라도
어린이들이 느끼는 촉감이 훨씬 부드러워
앞으로 많은 사용이 권장되는 소재이며,
독일,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대부분
목재를 사용하고 있다. 그의 스텐레스강, 석재,

시멘트 등은 부속자재로 쓰임새가긴 요하나
주재료로서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
한편으로 품질 좋은 부품을 생산하는
전문생산업체가 자체적으로 연구하여 이제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하여 목재제품
분야에서는 그 품질이 국제수준에 육박하고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자체규격에 알맞고
전통적기호에 부합하는 제품개발에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제까지 어린이놀이 시설물이 낙후되어
왔던 원인중 큰 이유는 주로 공사를

발주하는 방식이 건설공사 발주방식으로서
놀이시설물 발주에 적합하지 못한
방식이었던 것이다. 이 시설물은 제품을
생산키 위하여 공장시설이 필수적이며
품질향상과 신제품개발을 제조업체 자체가
하지 않고서는 안되며 결코 건설공사와 같이
공사설계에 의한 발주로서는 양질의
제품공급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수한 제품으로서 몇가지 모델을 소개 하
하는바 設計業務에 多少의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할 뿐이다.



조함놀이대 실예 1

광주건축사회관건립 현상설계

본 협회 광주직할시지부(支部長:朴永熹)가
광주지역 건축인의 요람인 광주 건축사회관
건립계획 아래 현상설계경기를 실시, 응모작품을
심사한 가운데 최우수작으로 朴華洙회원 작품이,
우수작으로 柳然旭, 申鉦彩회원의 작품이
선정되었기에 본지를 통해 공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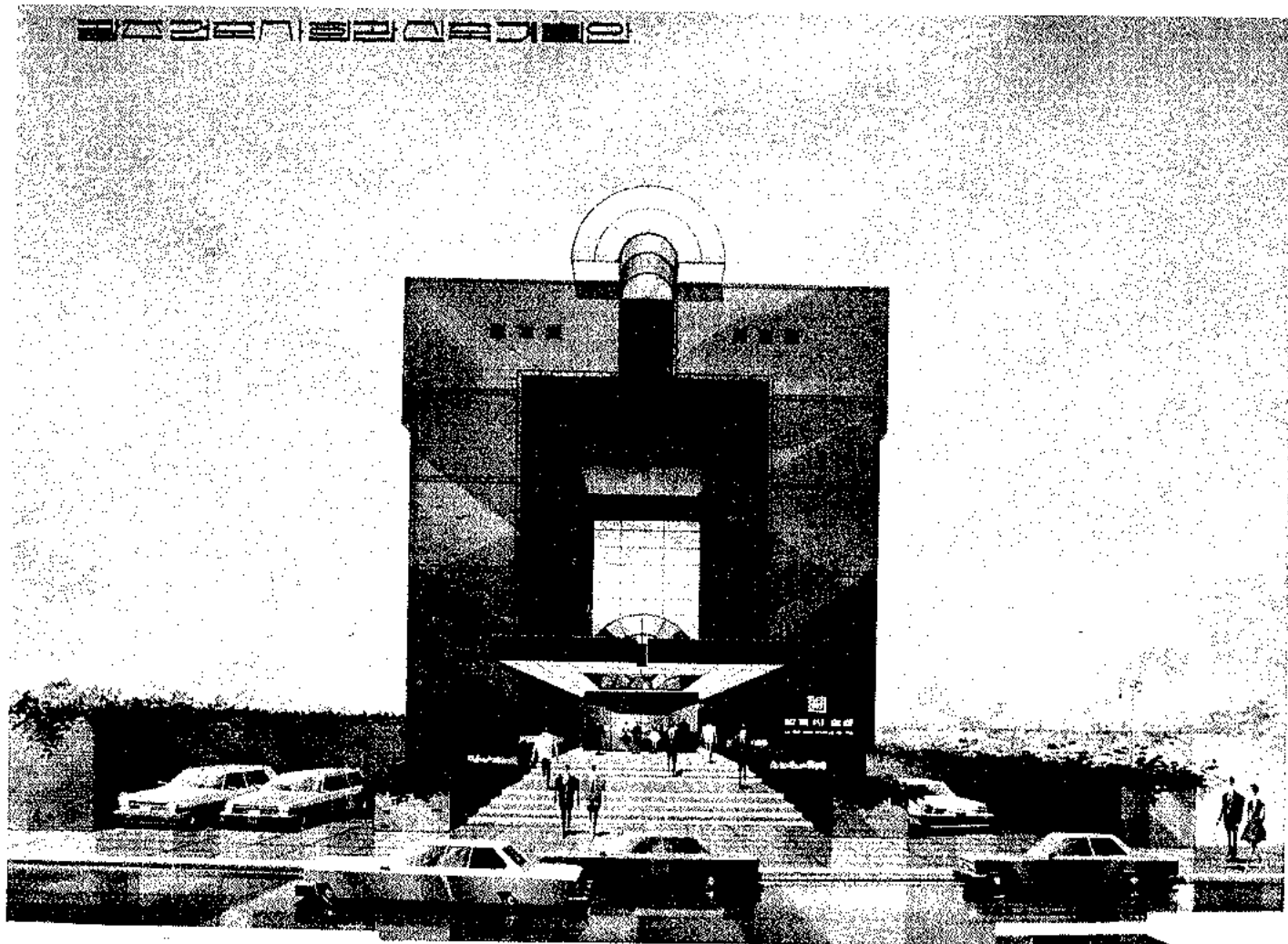
●현상설계지침

1. 설 계 명 : 광주건축사 회관 계획설계
2. 건립위치 : 광주직할시 북구 중흥동 694-10번지
3. 계획개요
 - 가. 계획대지면적 : 655.9㎡ (198.4평)
 - 나. 대지조건
 - 지역지구 : 상업지구·방화, 고도·1종 미관지구
 - 전면도로폭 : 30m
 - 다. 소요시설 개요
 - 건립규모 : 지하1층, 지상5층-6층, 옥탑 (창고, 물탱크)
 - 건축면적 : 임의
 - 연 면 적 : 임의
 - 추정공사금액 : 5억원 (단, 10%증 가능)
 - 부대설비 : 냉난방 엘리베이터 제외

朴華洙(案)

朴華洙 / 국보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직할시 동구 금남로 1가 19 / 222 - 9277

◆
대지위치 / 광주직할시 북구 장흥동 694-10
대지면적 / 655.90㎡
건축면적 / 427.12㎡
연면적 / 2,269.28㎡
건폐율 / 65.12%
용적률 / 290.26%
외부마감 / 적벽돌 치장생기
열선반사유리



●배치계획

- 전면도로면에서 최대한 Set Back함으로써 회관이 갖는 시각적 압박감을 해소토록 했다.
- 사람 진입로를 중앙에 배치하고 양측은 지상 주차공간 및 지하주차장 진입로로 설정하였다.
- 퇴근 시간후의 비상구로서 좌측에 보조 진입로를 두어 관리에 편리하도록 했다.

●평면계획

- 4면의 길이가 똑같은 정사각형의 형태이며 45°의 대각선 축 (AXIS)을 도입함으로써 딱딱하고 평범한 사각위주의 평면형을 지양했으며 특히 협회 용도인 신협지부와 회의실은 방사선 형태를 취하므로써 다이내믹한 공간이 되도록 했다.
- Core는 북서측에 배치하여 서울 북풍방이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각실의 에너지 절약에 유의했다.
- 수석통로인 계단은 45°의 대각선 축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양측의 실로 균등 배분되게 함으로써 동선처리가 깔끔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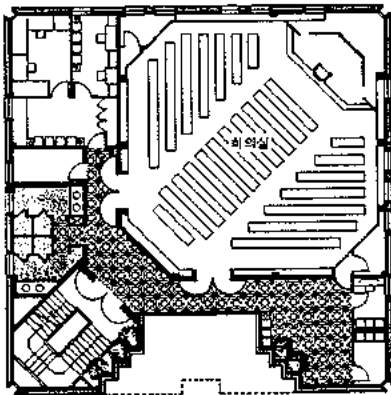
- 회의실은 대각선축을 이용 방사선형으로 배치, 강대석에 Focus를 줌으로써 시각적 집중력 및 음향조건에 유리토록 했다.
- 회의실 라운지는 다용도 공간으로 활용토록 했으며 대체로 직면·담화·소회의, 예식시 신랑, 신부의 대기 용도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 신협지부층의 탕비실은 약간 키워 직원 간 간이식당으로 전용해 했다.
- 옥상을 정원화하여 중사원의 휴게공간으로 이용토록 했다.

●외장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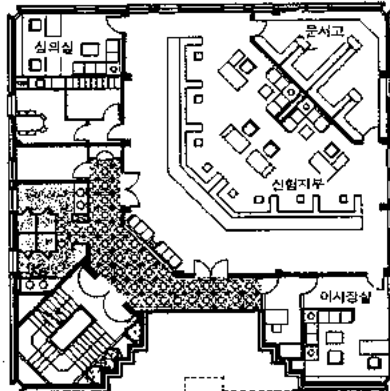
- 건물 외관은 전체적으로 문 (門)의 형태를 띠었으며 이것은 외계에서 건축물 내부로 진입하는 하나의 필수과정으로서 건축물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건축사 마크의 상부형태를 도입 건축사 회관이 갖는 상징성과 기념성을 Image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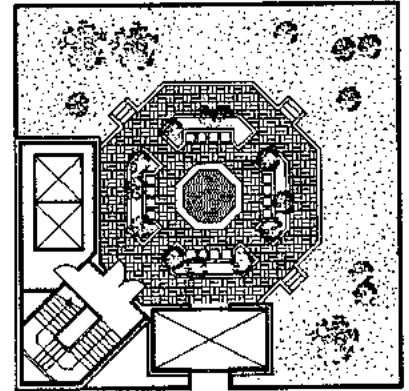
- 건축의 기본 디자인 원칙이라 할 수 있는 심플미를 추구하였고 재료도 인간에게 친밀감을 주며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적벽돌로 단일화 함으로서 외관을 단순화했다.
- 상부 유리독은 두개의 Mass를 묶어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건축사들의 결속을 의미한다.
- 점진 (Gradation)의 디자인 요소를 도입 상승감, 흡인력, 성취감을 표현함과 동시에 자연스런 진입을 유도한다.
- 건축사 회관으로서의 상징성을 갖기 위해 Mass를 크게 했으며 Land Mark적 역할을 하도록 했다.
- Symbol Tower는 우리 건축사가 상용해 온, 삼각 스케일자를 상징함과 동시에 Signboard 역할도 겸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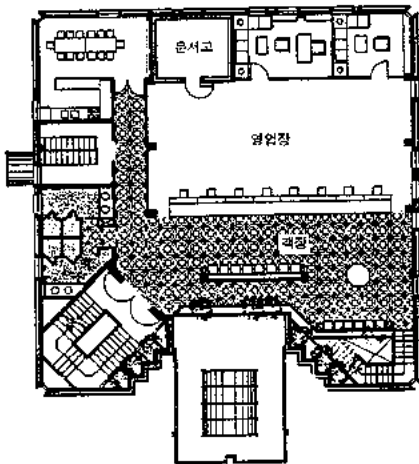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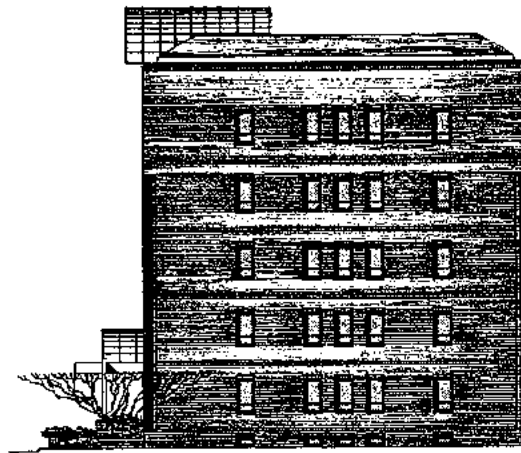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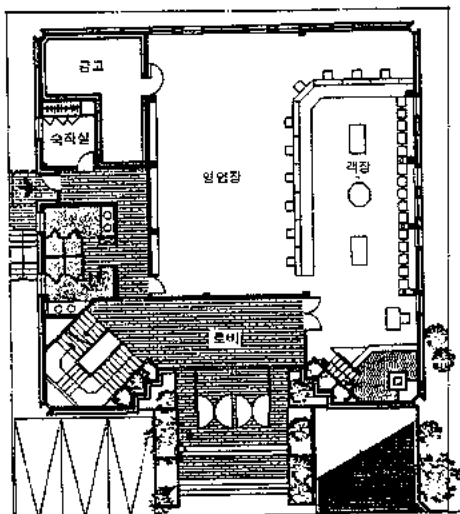
옥탑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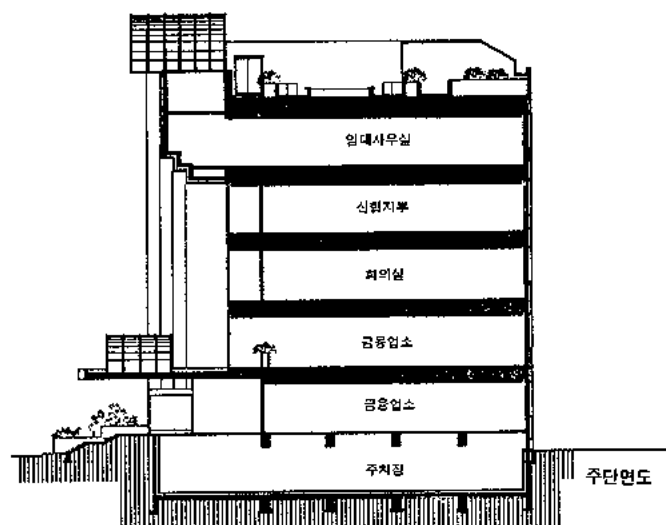
2층 평면도



우측면도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주단면도

柳然旭 (案)

柳然旭 / 종합건축사사무소 국제·유한·창조·나
광주직할시 동구 광산동 81-2 / 222-1493

◆
대지위치 / 광주직할시 북구 중흥동 694-10
대지면적 / 655.9m²
건축면적 / 370.05m²
연면적 / 2,324.66m² (703.2평)
건폐율 / 56.41%
용적률 / 277.2%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일체식)
외장재 / 본 타일 및 18단열 밀러 북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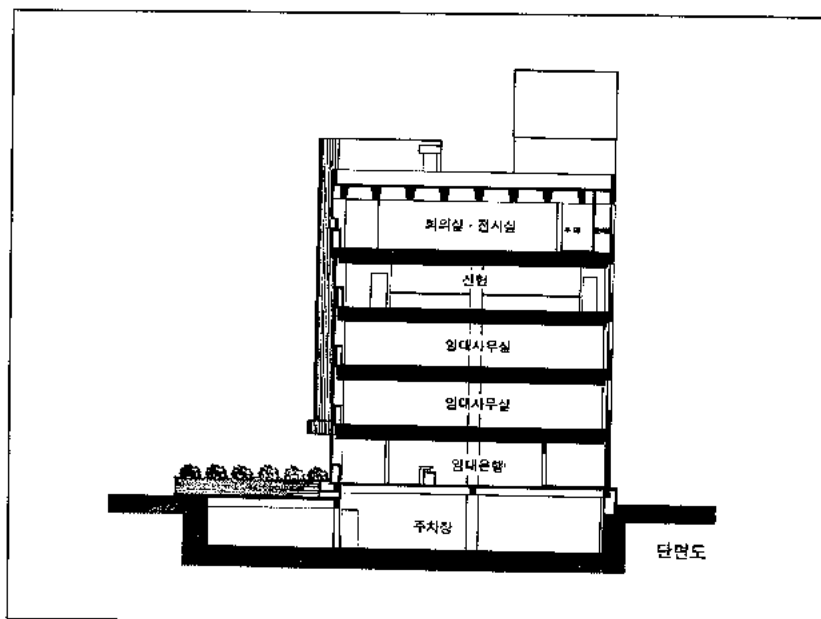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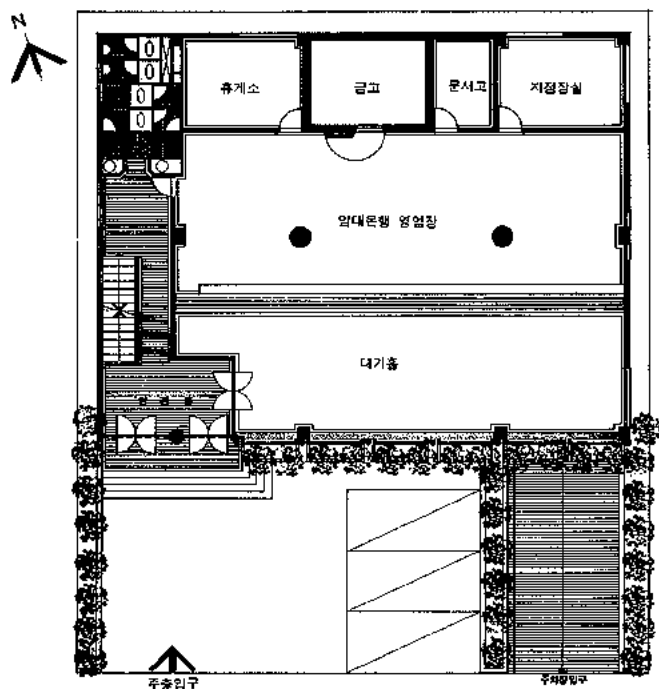
●배치 및 평면계획

- 전면도로폭 30m에 접한 대지에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약 10m 후퇴 개방된 공간을 확보 남향을 주향으로 하고, 건물 메스는 건축사회관의 상징성을 강조하여 강방형 5층 규모로 함.
- 기준층 100평 규모 평면에서 유효공간의 최대화를 기하였고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분할 사용할 수 있게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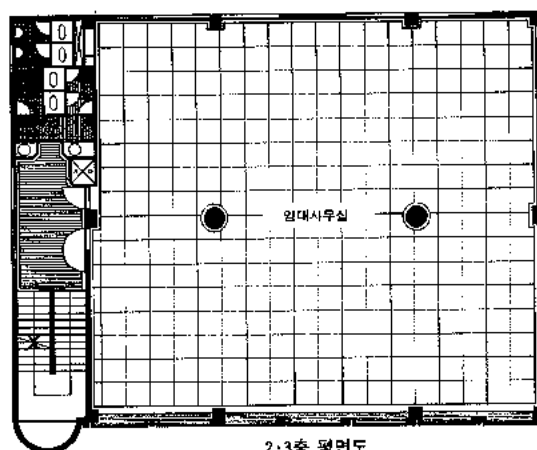
●형태와 외관

- 16m×22m의 장방형으로 건물외관은 계단실의 에폭시 본타일과 우수오손 등의 하자를 막기 위해 5층 부분은 돌출시키고 그릴에 전면 전부를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 전면 밀러유리를 끼운 커튼월을 채용하여 접근을 유도하는 상징성을 부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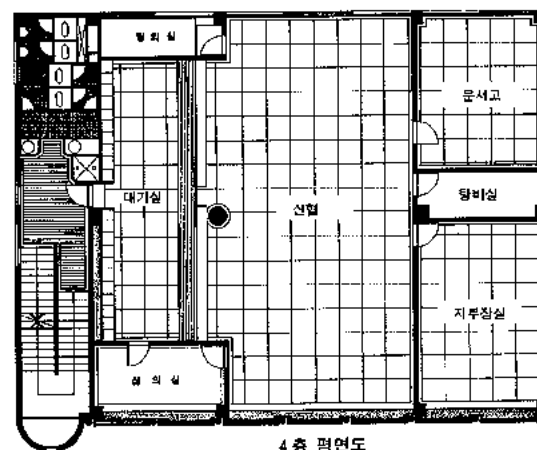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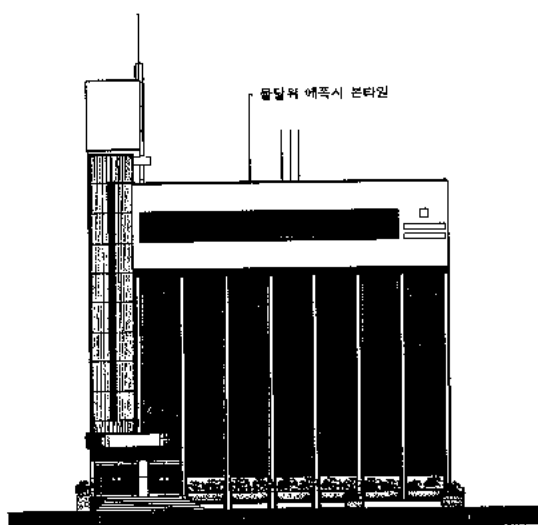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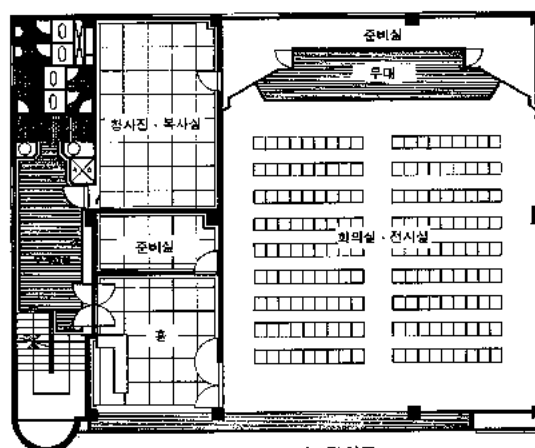
2·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정면도



5층 평면도

申鉦彩(案)

申鉦彩 / 한국·금성·금석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직할시 북구 누문동 138번지/526-24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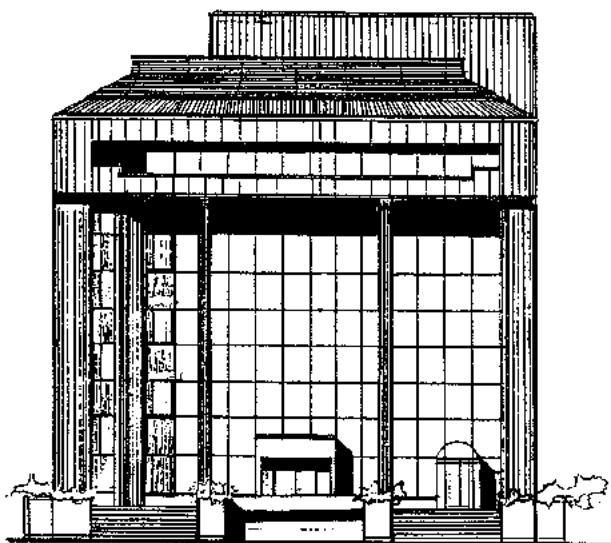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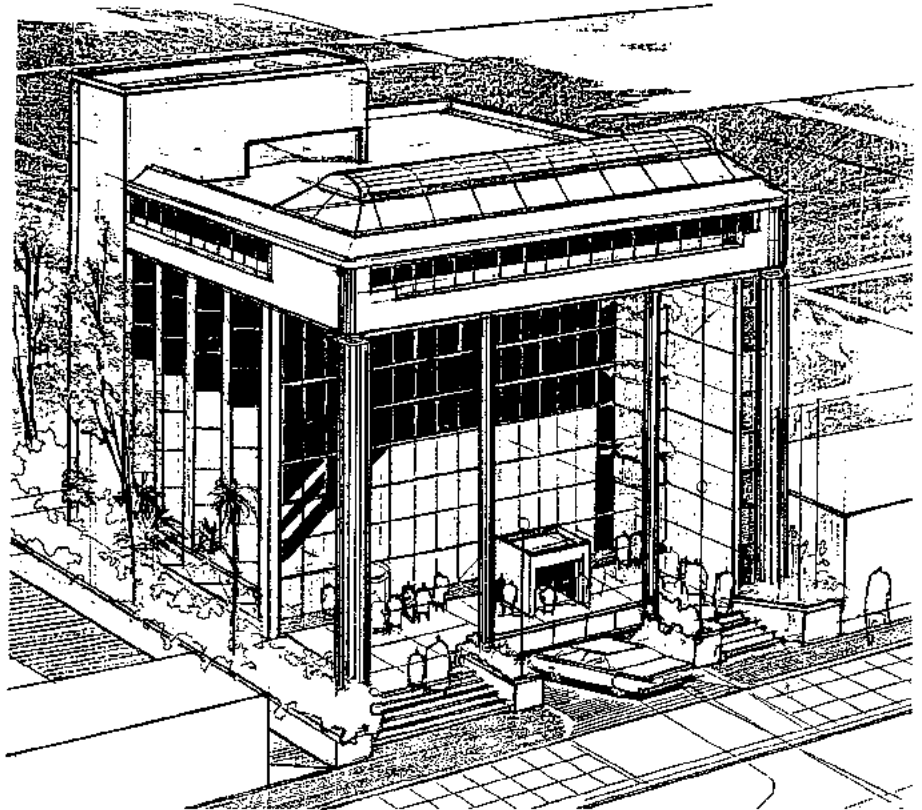
◆
대지위치 / 광주직할시 북구 중흥동 694-1번지
대지면적 / 655.9㎡ (198.4평)
연면적 / 2,326.25㎡ (703.7평)
건축면적 / 363㎡ (109.8평)
건폐율 / 55.34%
용적률 / 234.37%

●계획의 기본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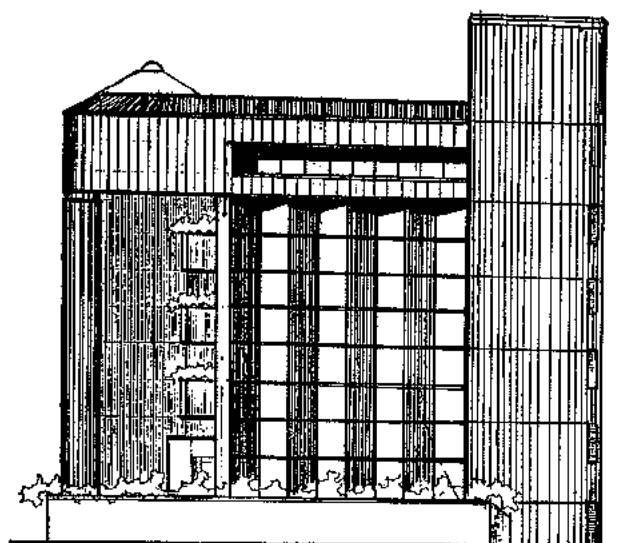
전체적 외관 Design은 도심속의 확연적이고 담당한 면을 탈피 박 트인 개방감과 건축사 회관으로서의 상징성과 독특한 개성미를 강조하고자 All Glass를 통한 Atrium과 연대된 OPEN공간을 부여하며 건물전체에 대한 예술적인 심미성을 강조하였고 인접건물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현대적인 감각과 Design요소를 부여함으로써 도시배관의 신도적인 주자로서의 사명과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하였다.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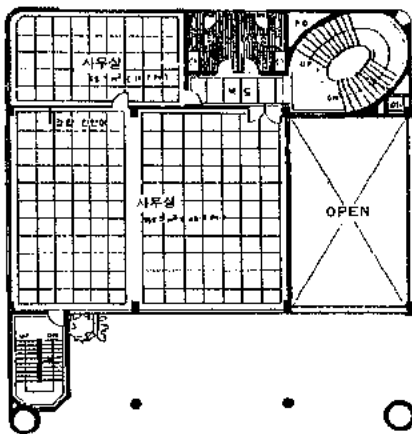
주현관 Hall에 Atrium의 휴내공간을 설정하여 좁고 협소한 대지에 대한 여유를 두었고 지하 및 1, 2, 3층의 임대공간과 4, 5층의 건축사 회관으로서의 업무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 1층 부분에 주차장을 두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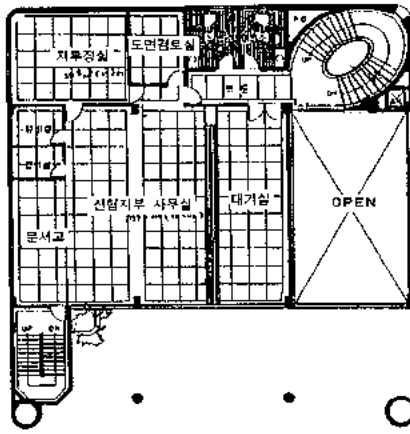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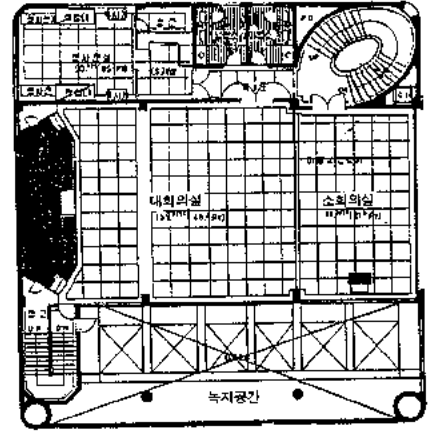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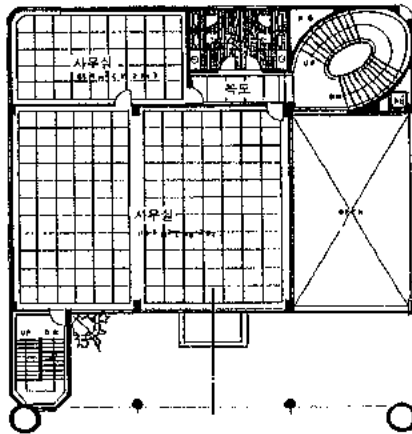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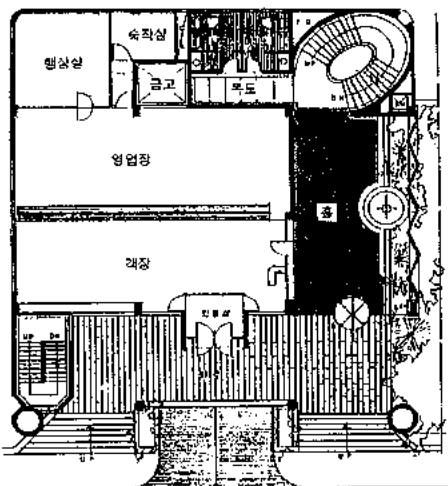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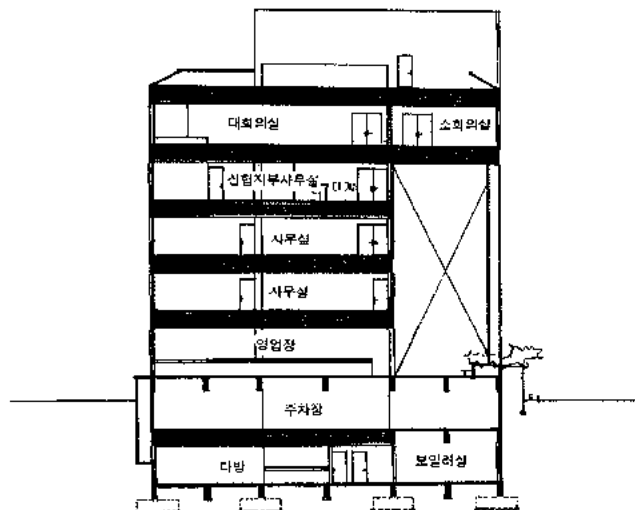
5층 평면도



2층 평면도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단면도

부산건축사회관 건립 현상설계

당선작 李鍾玟/종합건축사사무소 자유·동서

우수작 李龍欽/종합건축사사무소 일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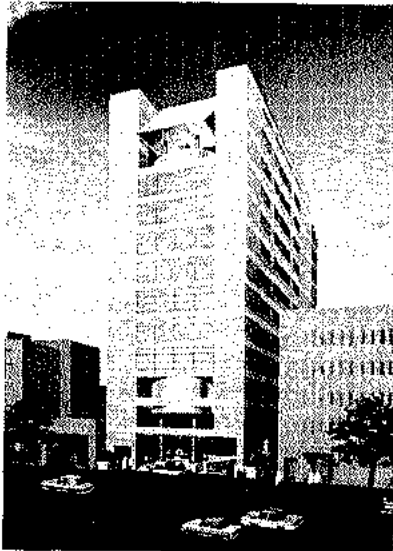
李杻權/삼희건축사사무소

李在洪/종합건축사사무소 증원

白椿根/부산종합건축사사무소

崔行雄/종합건축사사무소 삼정·도성 공간·세진

〈당선작〉李鍾玟 (案)



〈우수작〉李龍欽 (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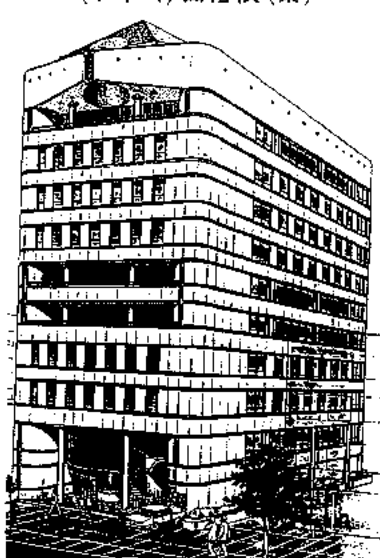
〈우수작〉李主權 (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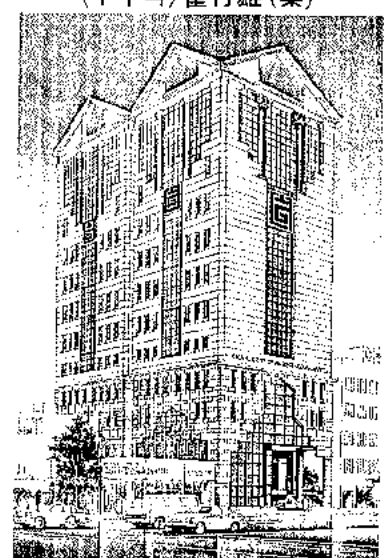
〈우수작〉李在洪 (案)



〈우수작〉白椿根 (案)



〈우수작〉崔行雄 (案)



〈당선작〉

자유·동서 종합건축(案)

Jayou Dongseo Architect's Project

종합건축사사무소 자유·동서·李鍾玟 / Designed by Lee, Jong · Min
부산직할시 동구 초량동 1163 - 10/463 - 6921

■ 설계개요

건축면적/ 431.35㎡
연면적/ 5,924.5㎡
건폐율/ 71.8%
용적율/ 802.7%
층수/ 지하2층, 지상12층
주용도/ 협회사무실, 건축재료전시실, 은행,
임대사무실, 다방 및 음식점
구조/ 골조-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기초-철근 콘크리트 온통기초(파일시공)
마감/ 외장-주벽: 자기타일+국산화강석 물갈기
유리-복층반사유리+열선반사유리
장틀: 알미늄+불소수지코팅알미늄
내장-바닥: 화강석물갈기+비닐타일
벽: 본타일
천정: 양면 텍스

■ 설계소모

이제 우리의 建築은 다이상 容器로 만족되어서는 안된다.
그곳에 머물고 싶어져야 하고 우리의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칼날같이 예리해야 하고 젓가슴처럼 포근하게 人間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人間을 직시한 建築言語를 보여주어야 한다.
여기에 오가는 사람들이 建築에 대해 무한한 상상을 펴고 建築人들이 건축의 끝없는 가능성에 대해 開眼 할 수만 있다면...

■ 계획의 배경과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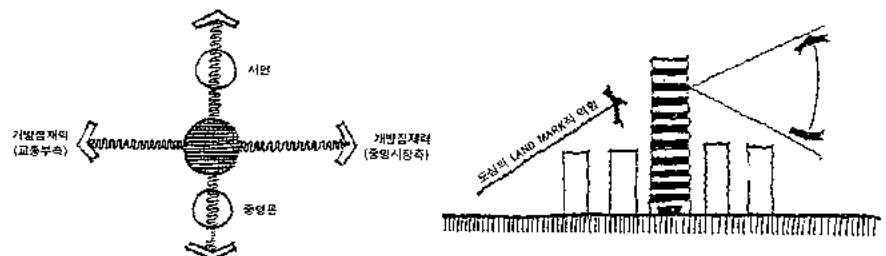
- 2000년대를 향한 도시팽창에 따른 도시 업무지역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 서면·중앙동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업무지역의 팽창으로 업무지구이동이 불가피하다.
- 지리적으로 각 지역회원 사무소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회원의 업무에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 많은 임대면적의 확보로 협회의 재원 확보 및 회원의 복지증진을 기할 수 있다.
- 건축사회관으로서의 강한 이미지의 건물을 건립함으로써 건축사의 권위향상 및 지역 건축발전을 제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입지 및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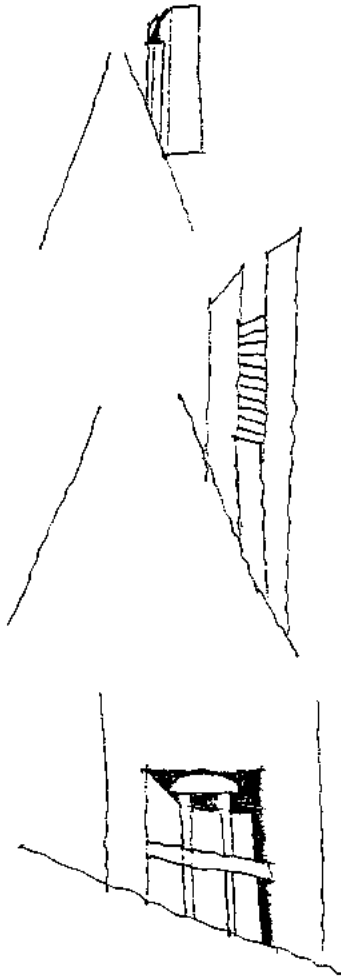
- 중간선도로를 끼고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고 대도시의 중추적인 기능분담이 적지 않다.
- 서면과 중앙동의 2대 도심에 있는 상업지역에 위치하며 주변의 개발잠재력이 있어 업무지구로는 적지 않다.
- 중간선도로에 위치하여 시계가 양호한 편이며 고층건물 계획시 도시의 Land mark 적인 역할이 가능하며 따라서 상징적이고 Dynamic한 계획이 요망된다.
- 주변에 낮고 조잡한 건물들이 군집해 있어 건축적으로 우수한 건물을 계획하여 인근의 도심구성에 제도적인 역할이 있어야 하겠다.
- 고층건물계획시 남측 및 동측의 시계가 양호하며 이를 충분히 살려 업무공간을 쾌적한 분위기로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 계획의 방침

- 도시의 Land · mark 적인 시각요소로서 도시경관에 기여하고 인근 환경의 개선을 유도해 나간다.
- 도시내의 원거리지점(Urban view point)과 도시시각요소(Urban visual element)를 분석하여 도시적측면에서 조형성을 추구한다.
- 요구조건 및 대지의 입지환경은 미래지향적으로 분석하여 업무기능을 충족시킨다.
- 합리적인 공간 계획으로 공간이용의 극대화와 최대의 Lovable space(안락공간)를 추구한다.
- 건축사회관이 가질 수 있는 상징성을 표현한다.



시각적인 TARGET로 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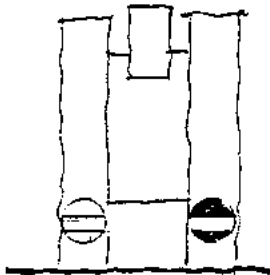


- 원거리-삼각형 유리 자봉의 인지로 건물의 존재확인 (건물은 인상적이어야 하며 TARGET이어야 한다)

- 중거리-서선이 건물의 본 Mass로 옮겨짐으로 건물의 윤곽 및 Mass의 인식 (건물은 현대적이어야 하며 두언가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하여 하고 행위자에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 깔끔한 DETAIL의 처리가 요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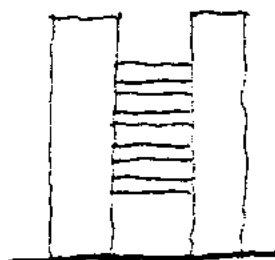
- 근거리-행위자가 건물에 근접하여 전체건물에 대한 인식보다는 건물의 일부에 부딪힌다.

삼각형과 원통의 대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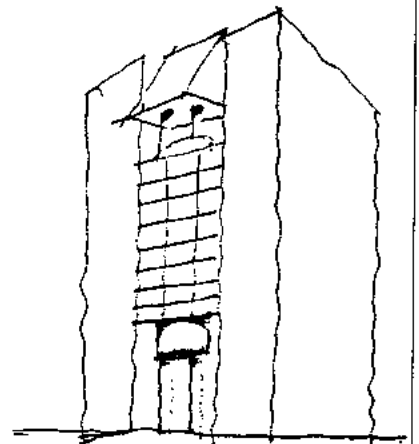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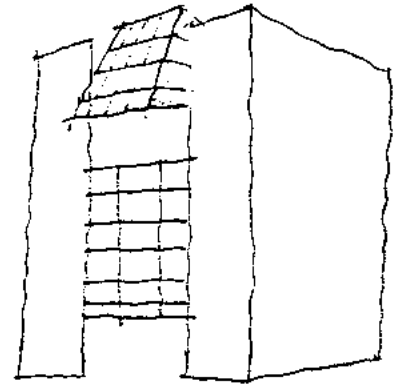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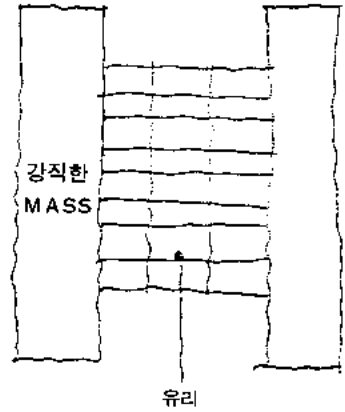
트윈원과 단원원

대비의 측면에서 본 입면



유리와 화강석의 대비

입면구성의 원리



- 가로와 건축사이의 완충공간 확보로 보행인 및 건물이용인에 대한 도시민의 휴식처로서의 기능을 충족시킨다.

계획의 문제점

- 대지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문제의 어려움이 있어 주차시설에 따르는 투자증대가 예상된다.
- 대지의 효율적인 사용이 없으면 건물과 가로사이의 완충적인 공간 및 도시민의 완충지대 공간 및 도시민의 휴식처로서의 소공원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
- 건축미를 무시한 인근 건물로 인해 오히려 부조화를 줄 우려도 있다.

배치계획

1) 접근(Access)

건물의 전면폭이 좁아서 Approach는 거의 결정적이다. 단, 건물의 중앙부에 건축사회관의

Mark와 환경 조각물을 배치시키고 양측으로 일반출입구와 장애인 출입구를 우회시킴으로 일반적인 Approach의 고정관념(중앙진입)을 탈피한다.

2) 배치

대지이용상 여타의 공지는 거의 기대할 수 없으며 다만 전면의 공간을 다소 할애함으로써 건물이 보행자의 시선이 미치는 압박감 배제 및 조경의 Space로 활용할 수 있다.

공간구성의 원리형태

건물의 주된성격(Office)의 의미보다는 건축사회관으로서의 이미지 부여가 더 강렬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건축인)의 욕심이며 이것은 현재의 Office들이 가지는 조형성 반론 및 상업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것이 될 것이다. 건축인의 장이 아니면 도저히 시도할 수 없는 강렬한 이미지 부여가 필요할 것이며 이는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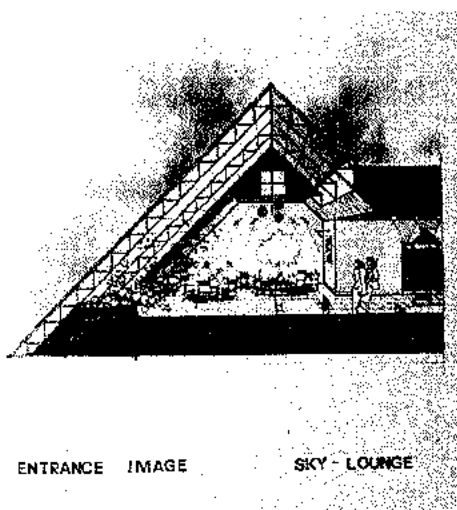
건축가들이 오랫동안 바래왔던 것이기도 하다.

입면 구성의 원리

정면의 양측에 강직한 2개의 Mass를 설정함으로써 건물에 안정감을 주며 힘있는 구성이 되게 한다. 이 2개의 Mass는 유리라는 Soft하고 차거운 재료로서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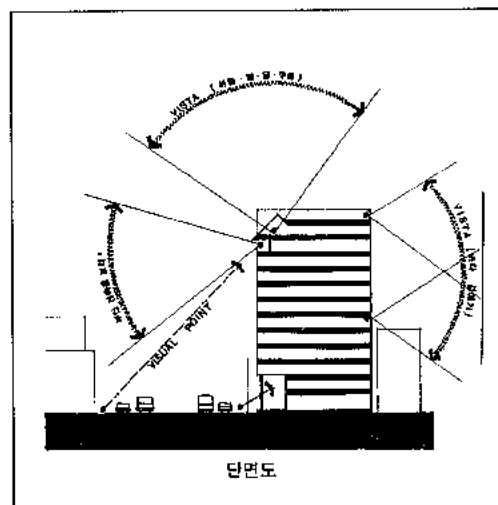
• 중앙의 상부에 삼각형의 지붕을 구성한다. 이는 평면적이 아닌 입체적인 것으로 구성하고 원거리에서의 Visual point의 제시를 위해 본 Mass에서 노출시킨다.

• 이 지붕은 거대한 원통이 지상을 연결시켜준다. 이 원통은 2개의 원형기둥에 의해 지지된다. 또한 이 원통은 4층부터 11층까지의 평면구성을 위해 Soft한 유리면뒤에 숨은 결과가 되나 이는 유리의 상하부에서 Mass는 시각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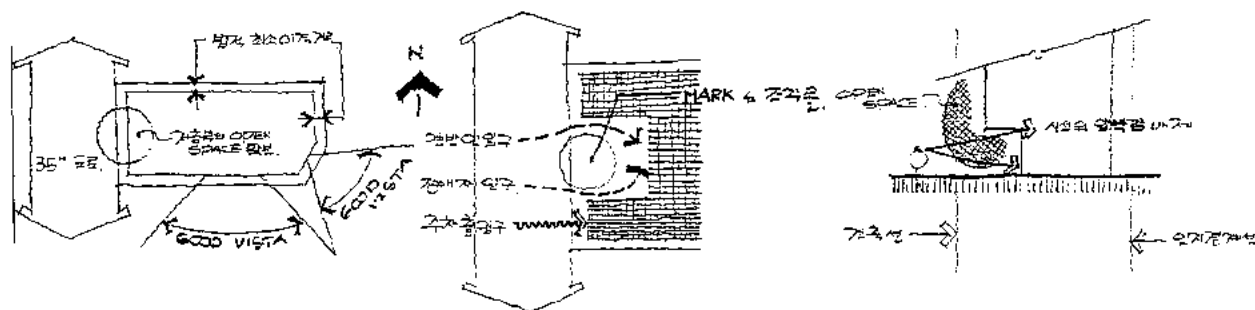
ENTRANCE IMAGE

SKY - LOU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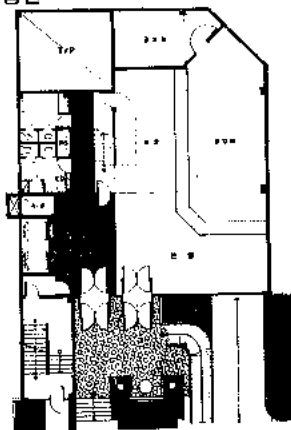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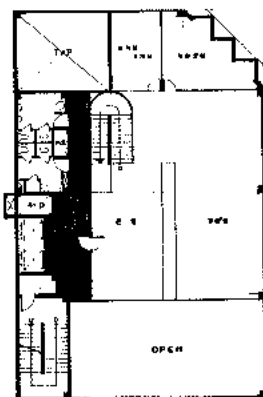
계획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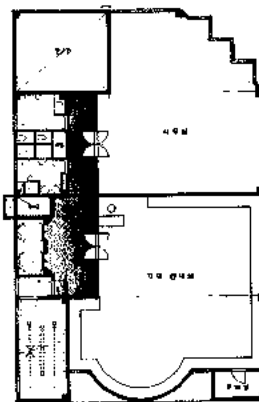
각층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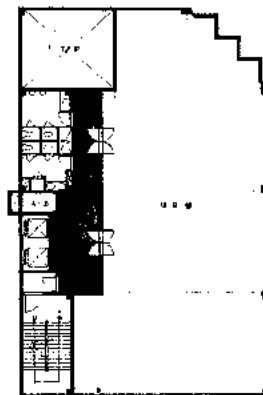
1 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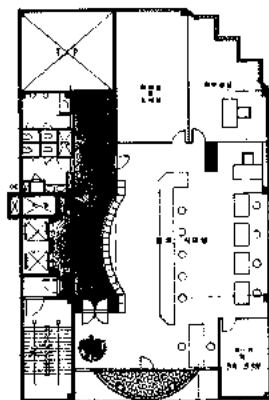
2 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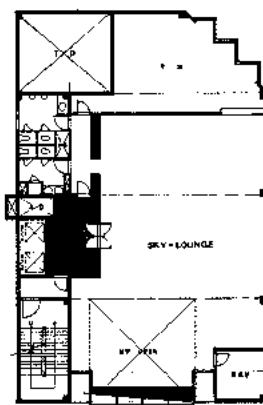
3 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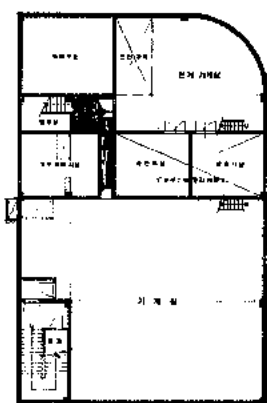
4 - 10출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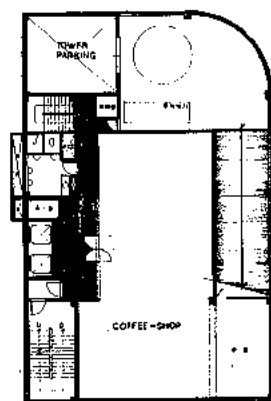
11층평도



12층평면도



지하 2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우수작》

일신 종합건축 (案)

IL SIN Architect's Project

종합건축사사무소 일신 · 李龍欽

부산직할시 동구 초량3동 1157- 1/462-4711

Designed by Lee, Yong - Heum

■ 설계개요

건축면적 / 441.9m²

연면적/6,094.1㎡

건폐율/70.4%

용적율 / 855.5%

총수/지하 2층, 지상 13층

코아비/기준층(4~7층) : 19.6%

기준층 (8~13층) : 17.6%

구조/철골 철근콘크리트

최고높이 / 52.6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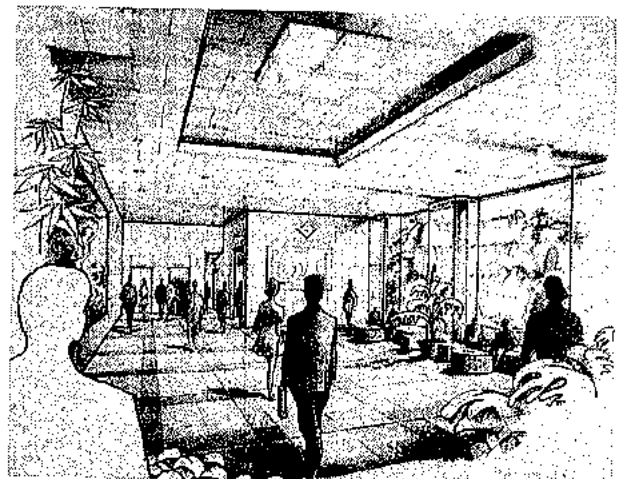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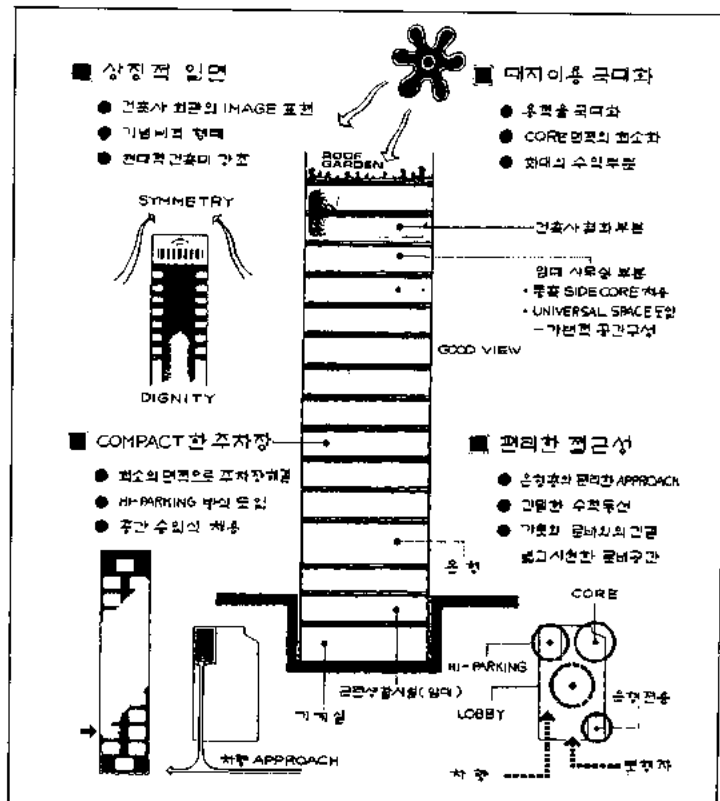
기준층고 / 3.6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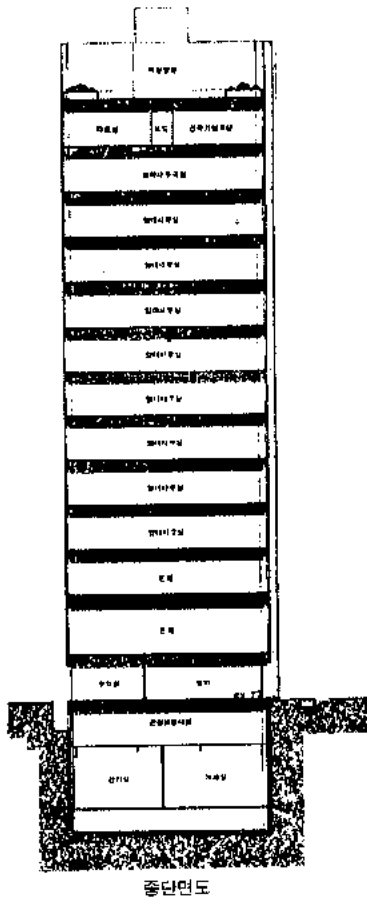
주차대수/40대(법정대수 38대)

조경면적/지상 96.95㎡ 옥상 80㎡

(범정 94.02m²)

외장/외장타일





■ 기 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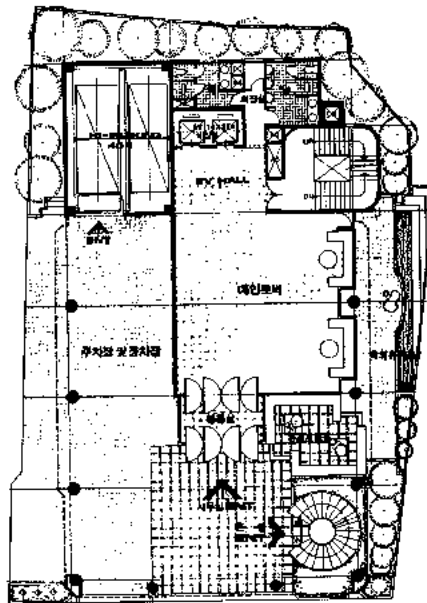
1. 합리적 동선체계
Office부분과 동선관리
로비 → 복도 → 사무실의 Sequence
2. 사무공간의 융통성
3. 기능의 Block화 독법화 추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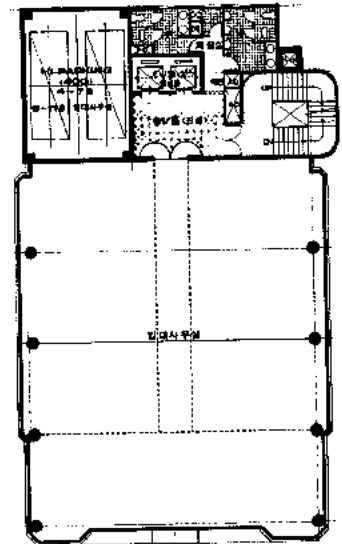
1. 수직적 요소의 긴박함을 수평적 요소로 안정감 부여
2. 현대적 외관 → 현대적 자료사용으로 이미지부각
3. 옥상정원등의 연결로 내부공간의 친밀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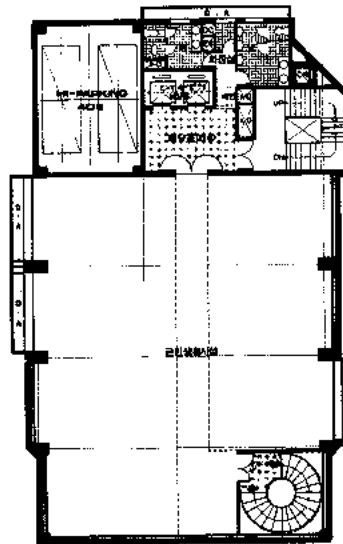
1. 강한 Image - 시대성 반영
2. 미래지향적 요소로 지역의 Land mark
3. 종합적 구성으로 합리적인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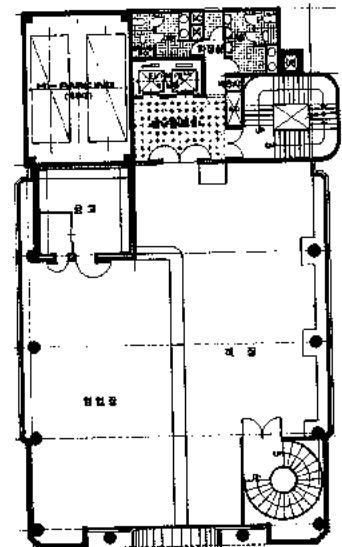
배치 및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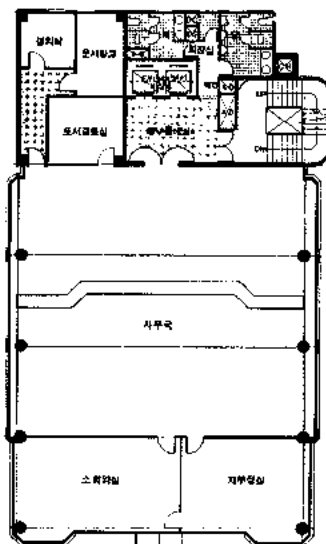
기준총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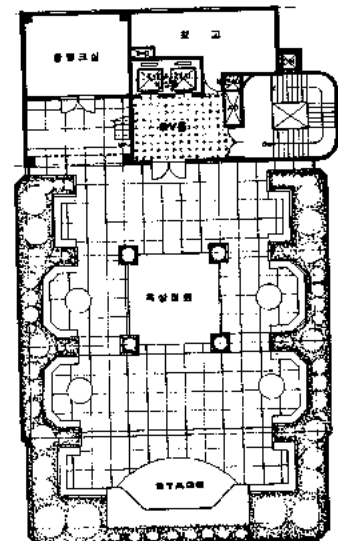
자하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2층평면도



출판등록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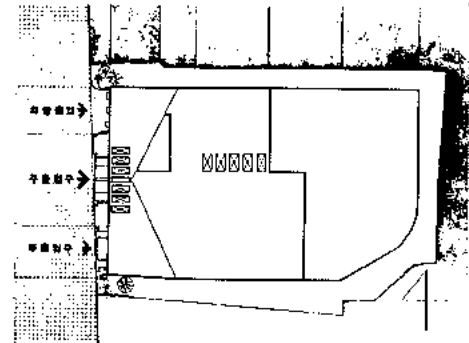
(우수작)

삼희건축 (案)

Samhee Architect's Project

삼희건축사사무소 · 李柱權 / Designed by Lee, Ju-Keon

부산직할시 진구 부전동 1가 351-14/807-0324



배치도

■ 설계개요

대지위치/부산직할시 부산진구 범천동

847-18, 28번지

지역지구/상업지역, 방화·주차장 정비지구

면적/626.80m² (189.60PY)

연면적/6710.91m² (2033.61PY)

건폐율/70.79%

용적율/903.80%

층수/지하2층, 지상12층, 옥상층

구조/S.R.C조

최고높이/53.7m

기준층고/3.9m

주차대수/43대

외장/화강석 버너구이+외장타일

■ 계획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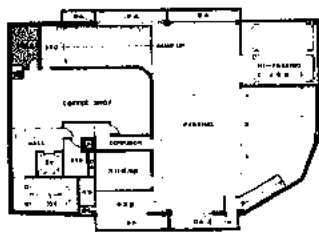
우선 作品에 임하면서 始終一貫한 테마는, 시민들은 建築士들의 자체 회관이던가 뭔가 독특한 建築 造型美를 기대할 것이고, 建築士들의 회관이던가 그 자체가 선도적 건축문화의 표상이어야 하고, 시민과 건축사 모두에게 사랑받는 만남의 場, 또한 즐거움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협화축의 설계 지침서에서는 연면적에 관한 사항과 주요 용도 및 개동의 언급외에는 구체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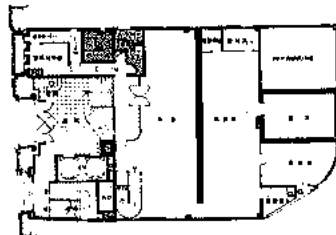
Program이 없었던 관계로 시민에게 당연히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사회적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만남의 장으로서 적잖은 고민이 따랐다. 그러나 다행히 협회축의 요구 연면적 및 주요용도, 대지면적 및 입지조건 등의 분석을 통해서 Core방식, Parking 방식, 냉난방 공급 시스템, 구조계획 및 입면계획 등을 명쾌하게 나날 수 있었다.

회관 이미지의 적극적 형태창출과 임대사무실의 보다 합리적인 분할, 대지 활용성의 극대화화 냉난방 부하 절약과 형태와 Hierarchy에 의한 계층간의 유기적이고 합리적인 동선연결 옥탑층은 용비·진취·상승감을 극적으로 강조한 삼각형 형태를 주면서 건물의 기능별로 형태를 구분하여 격렬한 비례를 고려 풍부한 형태의 조합으로 건물의 상승감과 역동성을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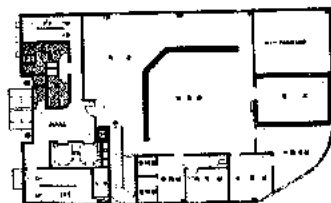




1 총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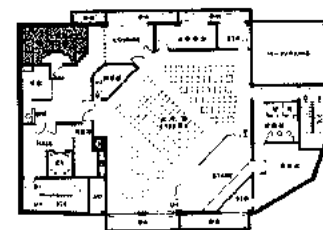
2 총평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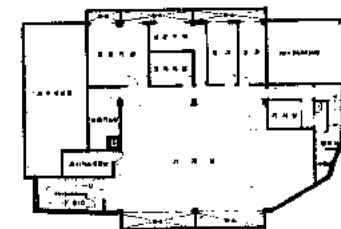
3. 실험평면도



4. 4. 2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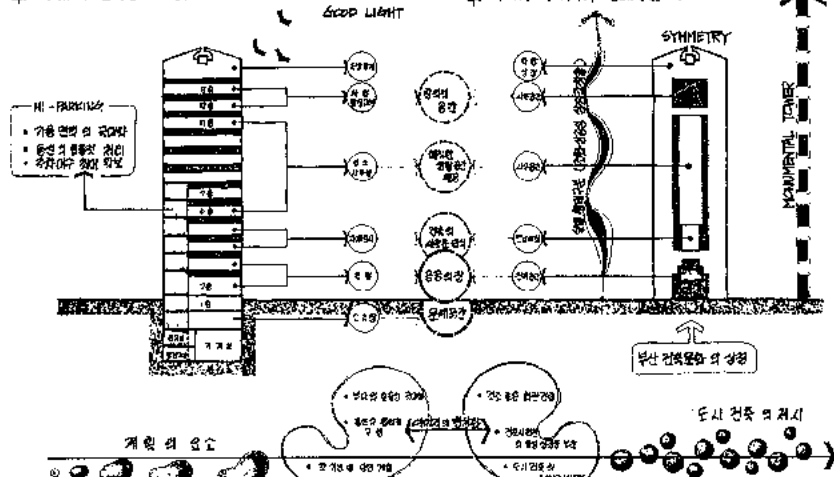
지하 2층 평면도

■ DESIGN CONCEPT

④ 부지의 효율성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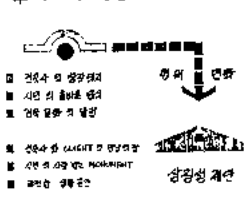
ଅକ୍ଷୟ-ଚନ୍ଦ୍ର

ଜି ଏମିସ ଓ ସ୍କୁଲର ପ୍ରଧାନ ଶିକ୍ଷ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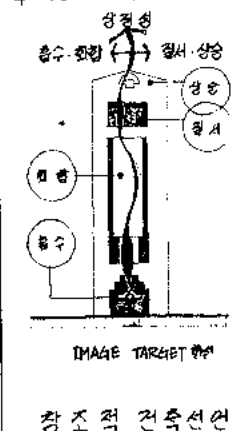


■ DESIGN FAC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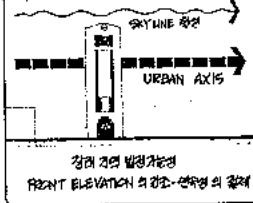
IMAGINE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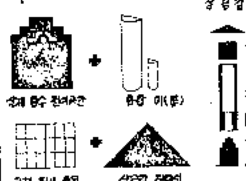
Ⓛ 사영 IMAGE 형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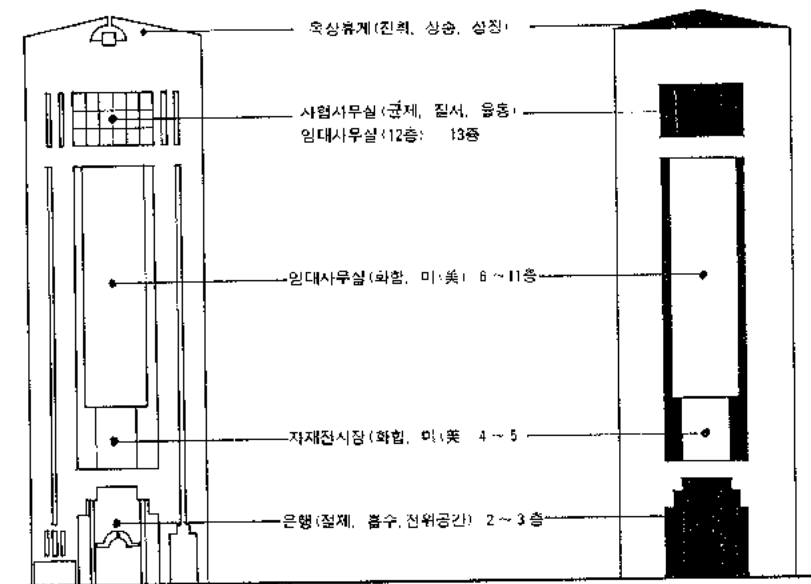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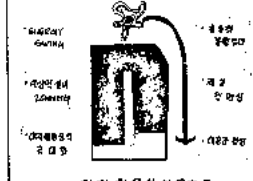
每季 SKY LINE 送禮



■ DESIGN 요소의 변화와 조화



◆ 전면 CORE 채택



지하 1층 · 소극당 (문예공간)

〈우수작〉

중원 종합건축 (案)

Jung-won Architect's Project

종합건축사사무소 중원 李在洪+俞佑植+李在峯

부산시 서구 부8동 1가 20-30/255-5008

Designed by Lee, Jae-hong & Ryu, Woo-sik & Lee, Jae-bong

■ 설계개요

위치/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847-18, 28(2필지)

지역/상업지역

지구/주차장정비, 방화, 최저 고도12m 지구(일부)

면적/628.8m²

건축면적/478.67m² (144.80PY)

연면적/5,441.18m² (1,645.96PY)

건폐율/76.37%

용적율/726.28%

층수/지하2층, 지상10층

구조/철근 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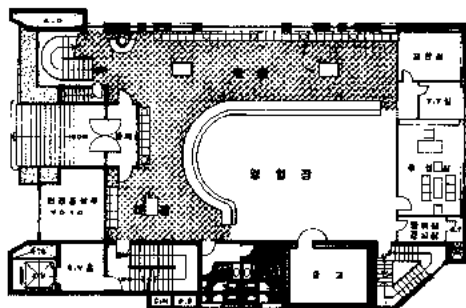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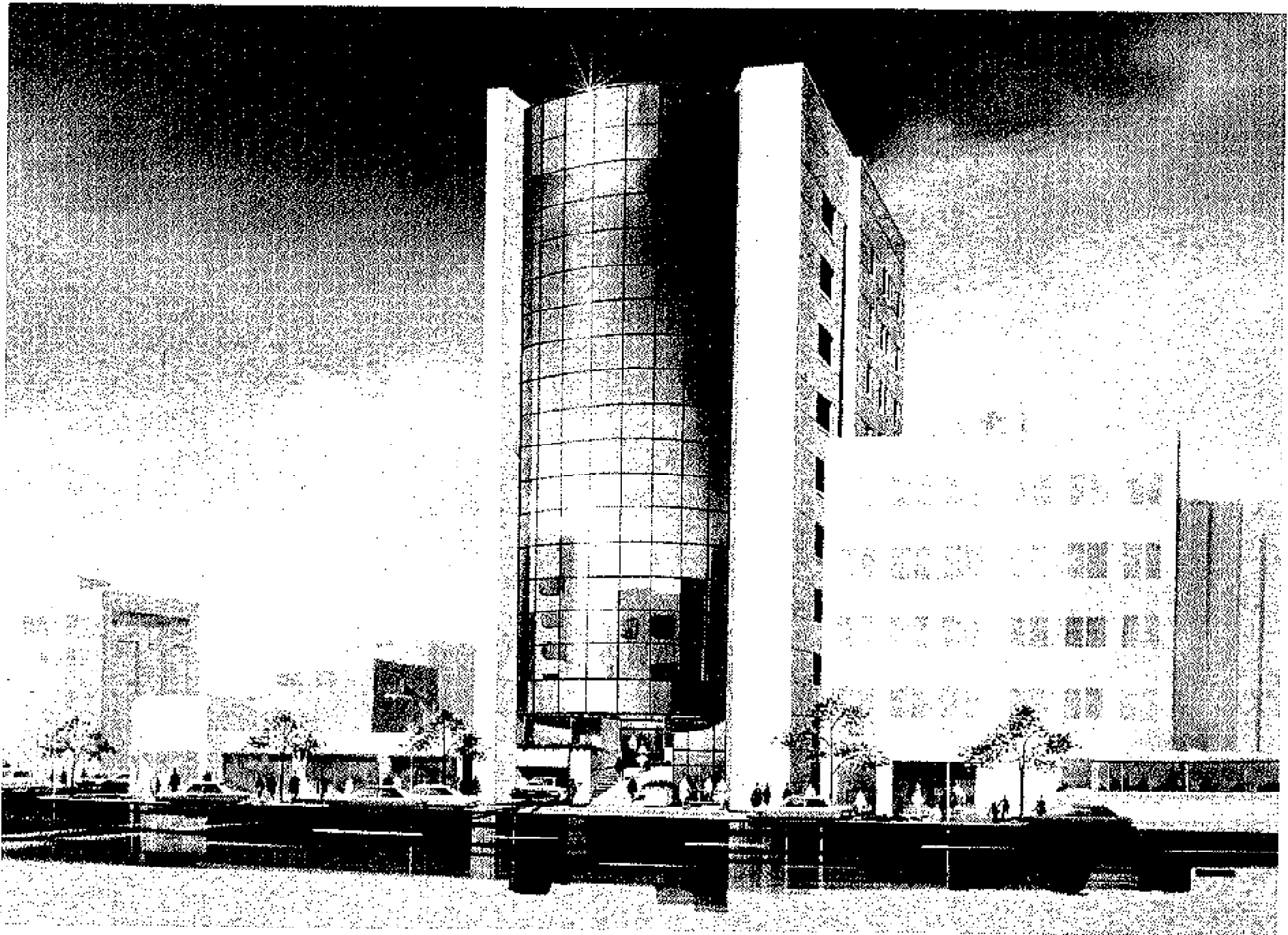
기준층고/3.6m

외부마감/P.C. 화강석, 외장나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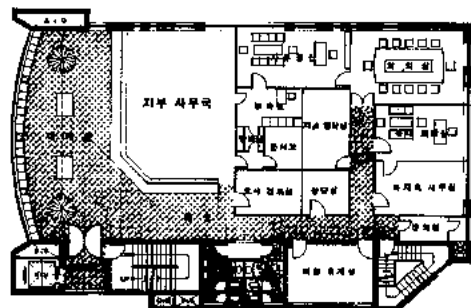
주차대수/계획-38대(2단기계식 주차)

법정-3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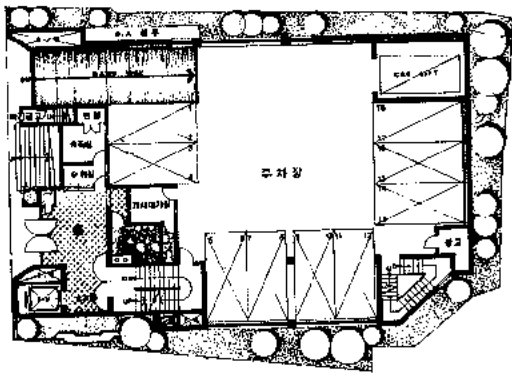
코어비/15.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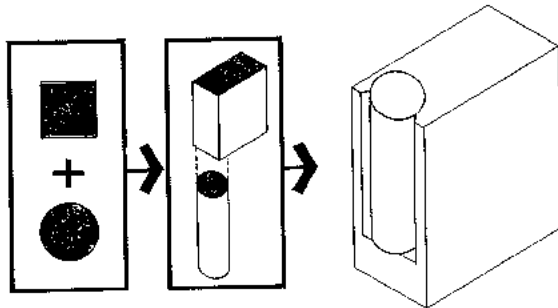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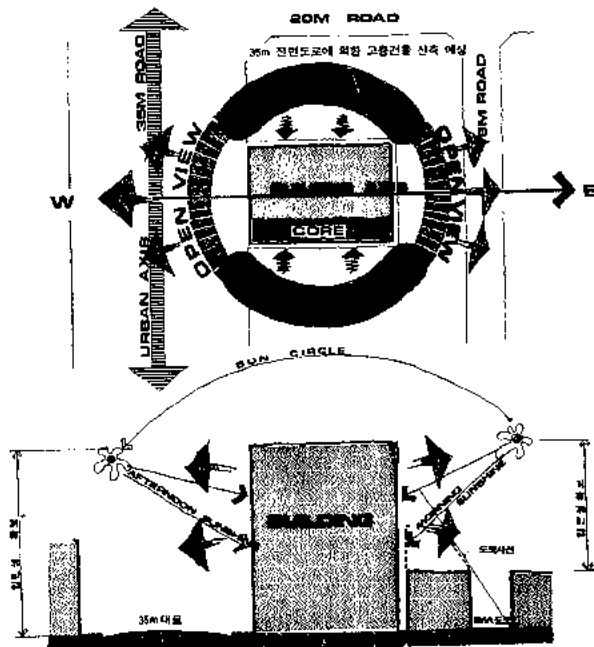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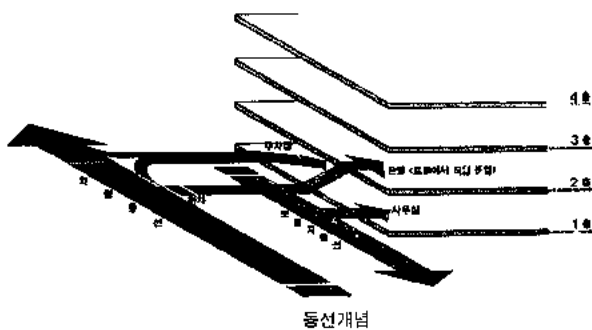
4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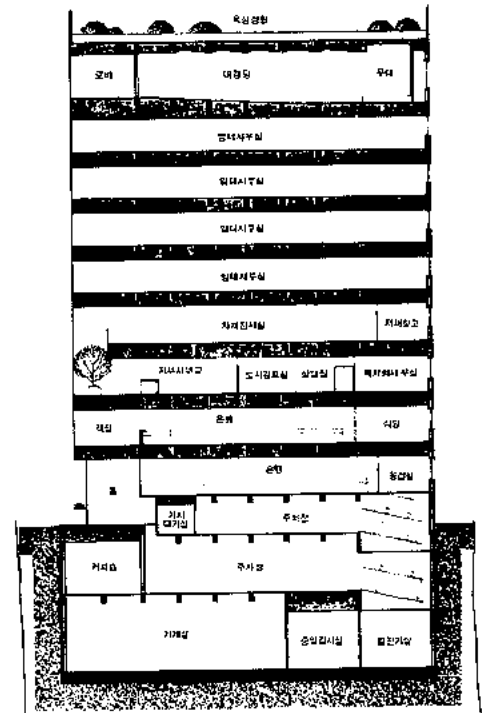
배치 및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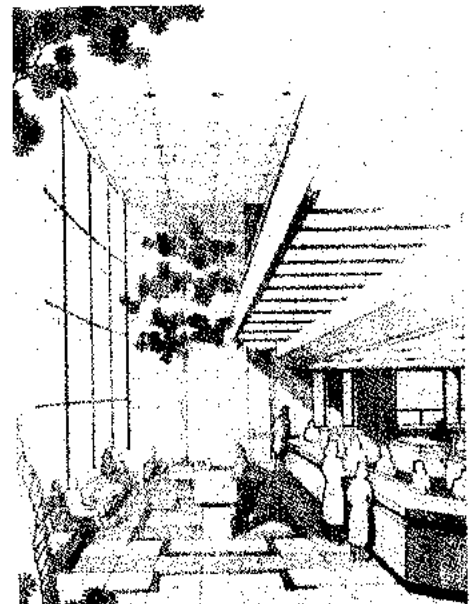
디자인개념



동선개념



절단면도



〈우수작〉

부산종합건축 (案)

Busan Architect's Project

부산종합건축사사무소 · 白椿根

부산직할시 진구 부전2동 50- 7 /807-2391

Designed by Back, Chun-Keun

〈설계소요〉

■ 계획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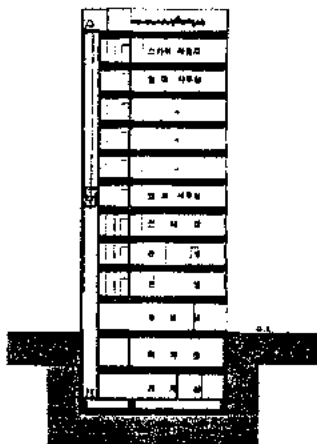
남동쪽을 향한 건물로 일사의 효율도를 높임.
복층 저층 건물의 장애 고층화에 대비 코아를
복층에 둠.
협회 주축구를 중앙에 두어 건축사 품위 향상 주차의
입출구를 차량 통행 방향 고려 설치 소극장 입구와
은행 입구를 분리하여 교차동선 방지.
건축의 시야를 고려한 창문 설치 서측의 강한 일사
및 소음에 대한 고려.

■ 외부 디자인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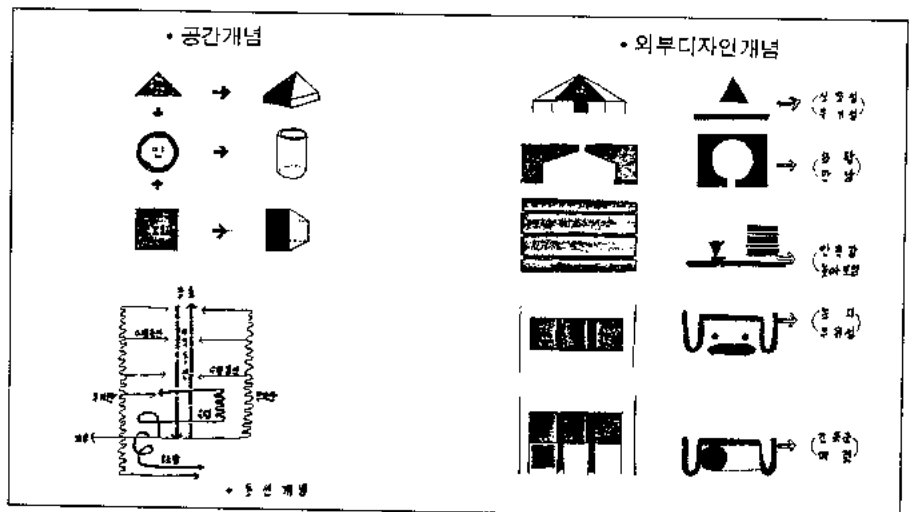
전면의 서향에 대한 고려-현장 불리
천·지·인의 음양오행에 의한 자연과 인간의
원연성에 입각한 유기체적 건물 구성.
부산의 자연 지리적 조건에 통합되는 산과 바다를
상징한 수평 형선의 연출과 섬을 연상한 우뚝 솟은
지붕의 형태를 강조 입구의 천장과 원형 기둥의
조화에 대한 건축적 매력으로 외부 사람을 건물내로
유도 건물의 고층으로 인한 단순성을 탈피하여
일부 매스의 변형을 두어 원형기둥을 두어 건물의
미적 향상.
옥상원구에 대한 일조·일사의 변화를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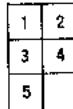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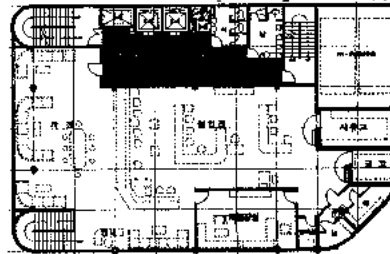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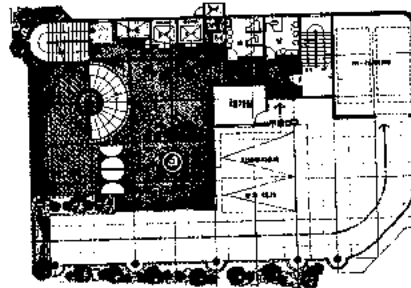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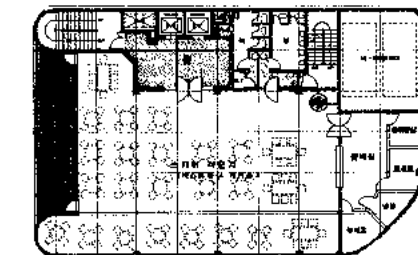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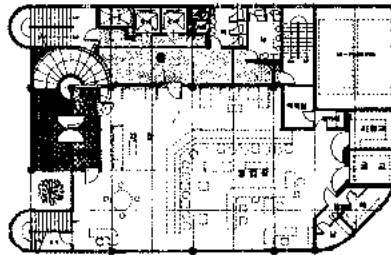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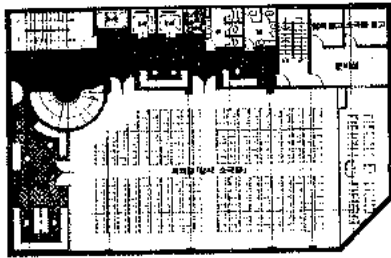
■ 기본계획방향설정

건물의 상징성 부여 지역 건축의 표상 외형상건물의
기능성 표현.
도로에서의 자연스러운 APPROACH 부산의
자연특성을 내적 요인으로 유도 건물의 형태가 주는
조형적 친근감 형성 주변의 고층화에 따른 배려
장애자를 위한 Ramp way 고려.
경제성과 효율성에 관한 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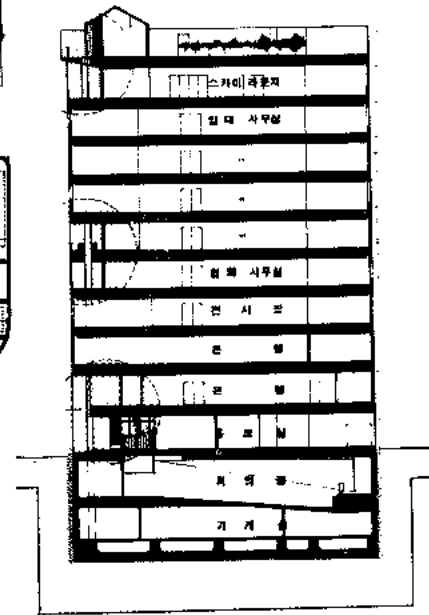


중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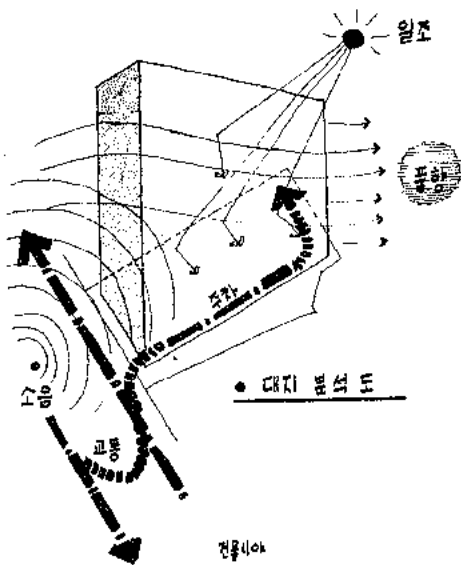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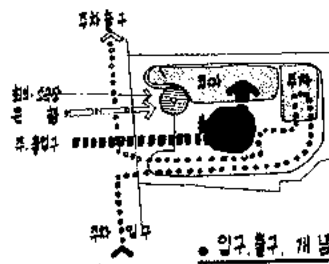
1. 지하 1층 평면도
2. 1층 평면도
3. 2층 평면도
4. 3층 평면도
5. 10층 평면도



횡단면도



대지 배치도



입구, 출구, 개념



주차장설의 선택

구분	입구면	출구면	시행비	승차	지원
MRH-F	○	○	×	×	1
CAS-F	×	×	△	×	3
RAMP-W	×	×	△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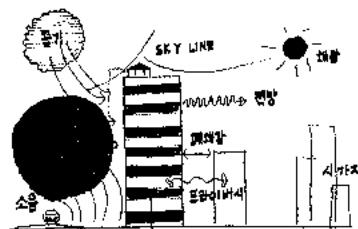
건물 해설

1. 동면면적 : 15% (지상 62㎡, 지하 32㎡)
2. 승차장 : 입구 면적의 약 4000㎡
(400 × 2,000) ÷ 2,000 × 1대 = 2대
3. 2개 이상 차량 주차 : 3층 이상의 면적 400㎡ 이상
(10㎡ 이상 미터)
4. 지하 주차장 : 2층으로 : 여객차와 승용차
5. 소화장 : 2층으로 : 2층의 면적 3㎡ 이상
6. 지하층 : 면적(지상) = 77
4728㎡ ÷ 15 = 316㎡ < 505.0K /
(N = 40.5㎡)
7. 주차장 : 2층으로 : 여객차와 승용차
입구면적 - 34.61㎡ ÷ 150 = 2.3대
출구면적 - 50.3 ÷ 200 = 3
기 타 - 1425 ÷ 300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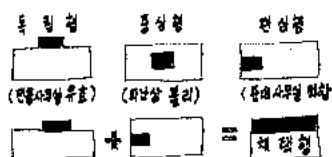
32대

주차대수 : 32대 + 2대 = 34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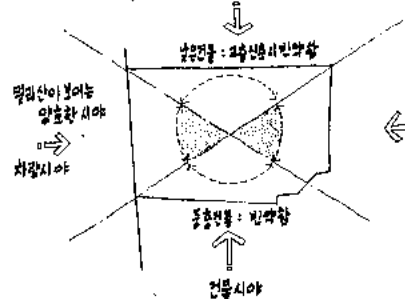
11대 주차 : 31㎡ × 38대



건물 분석



전야 (CO) 검토



표준 4017

〈우수작〉

공간 종합건축 (案)

Space Architect's Project

종합건축사사무소 공간·崔行雄

부산직할시 중구 동광동 1가5/22-9925

Designed by Choi, Hyang-Woog

■ 설계개요

대지위치/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847-18, 26번지

구조/철골 철근콘크리트조

규모/지하1층, 지상12층

건물면적

실사용(전용)

면적비 공유면적비

지하1층 : 544.33m² 76.7% 23.3%

지상1층 : 490.34m² 76.5 23.4

지상2층 : 447.64 84.3 15.7

3 층 : 466.75 84.5 15.5

4 층 : 456.75 84.5 15.5

5 층 : 450.66 83.5 16.5

6 층 : 450.66 83.5 16.5

7 층 : 450.66 83.5 16.5

8 층 : 450.66 83.5 16.5

9 층 : 450.66 83.5 16.5

10 층 : 449.76 83.5 16.5

11 층 : 82.3 82.3 17.7

12 층 : 436.52 82.3 17.7

계 : 8051.34m² 82.5 17.5

건축면적/499.34m²

연면적/6051.34m²

건폐율/79.66%

용적율/965.33%

법규/주차대수산정 : 520010÷150= 3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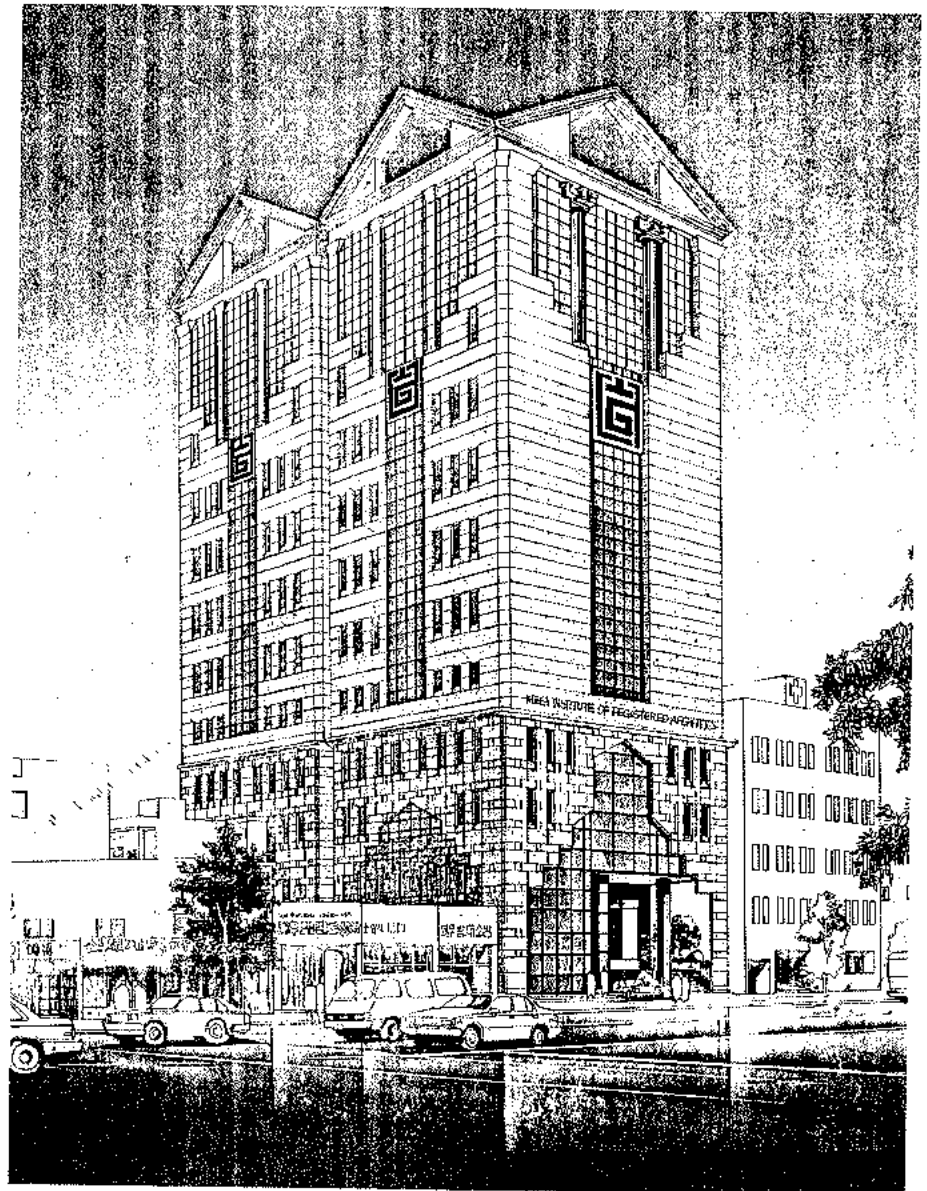
1층 : 12대

지하층 : 19대

조경면적산정 : 94.02

지상조경 : 53

육상조경 : 48



■ 설계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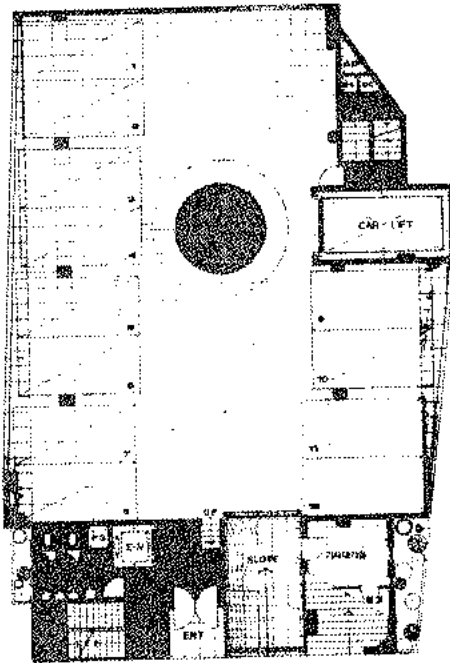
도시 문화발전의 핵심이 되는 건축문화 창달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의 회관을 갖게됨에 따라 건축을 지향하는 이들은 물론 많은 시민들의 관심의 표적이 될 것임을 상기하여 예시하는 바 다음과 같은 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수정처럼 솟아올라 탈처럼 아름답고 한곳도 감흥없이 드러나 자연스러우며 예와 기가 조화되어 그들의 상징과 공간을 잘 표현하고 활용하였기에 이 집이 과연 그들의 집이 되었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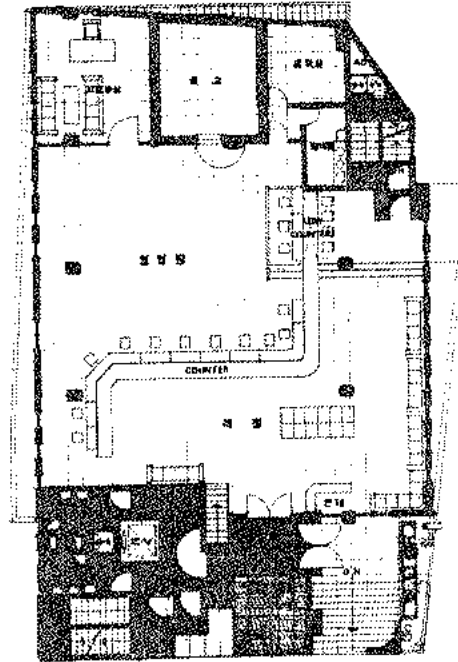
회관을 보고 지나는 모든 이들이 이러한 느낌을 새길 수 있도록함을 계획의 기본 방향으로 삼고 주위중 자연 경관을 스캔치하고 대지의 조건을 고려하여 작품을 구상하고 표출하고자 하였다.

■ 배치 및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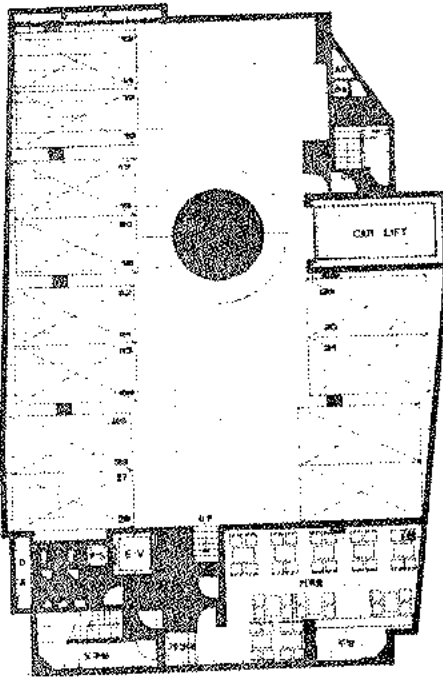
대지의 모양이 비정방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두 개의 정방형으로 나누어 연결지우고 가로 42등분 세로 24등분의 Grid로 타상을 형성하여 분절과 반복해서 얻어지는 조형미를 추구하였으며 3개의 (은행, 사무실, 차량) ENT는 각자가 갖는 기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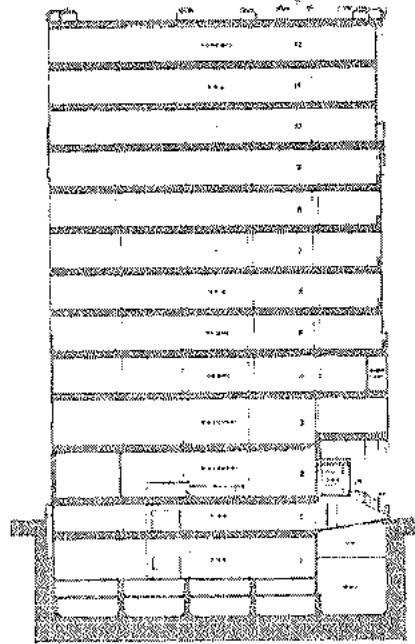
1층평면도



2층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단면도

최대로 만족시켜 독립성을 갖도록 하였다.
 특히 도로에서 은행의 진입이 쉽도록 하기위해
 G. L에서 F. L까지의 높이를 최소화 하기위한
 연구를 거듭하였으며, Car- Lift의 상단부를 은행의
 내부에서 Low Counter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높출부를 효과적으로 유효하게 사용토록 계획하였다
 〈입면 및 공간계획〉
 4층까지의 기단의 형태는 근대의 형식과 현대의
 피막구조를 접합시켜 조화의미를 추구하였으며
 자재전시장은 내외의 전시효과를 위해 Show- case를
 설치 하고 건축물의 중앙부에는 전래형태의 낙관모양을

전래형태의 낙관모양을 도입하여 회관의 마크를
 색인함으로써 건축물의 전체적 균형과 함께 중후한
 감을 갖도록 하였다.
 무엇보다도, 회관이 갖게 될 지명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어느 방향에서 이를 관망하여도 일별하여
 그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입면에서
 공통성, 즉 탑처럼 수정처럼 솟아오른 모습이 되고,
 건축을 사랑하고 동경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고, 건축을 사랑하고 동경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고 표상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을 부인하는 바이다.

政治와 行政의 差異는?

建築公務員들과의 問題를 中心으로 (2)

崔昌奎 / 건축사사무소신진

by Choi, Chang-Kyu

지금까지 든 예외에도 그들이 (건축관계 공무원) 우리 士協會 위에 군림했던 實例는 얼마든지 있다. 이런 자료를 협회는 수집하기를 바란다. 전국의 회원에게 요청해서라도 그들의 비리에서 부터 부당한 처분, 처벌등 많은(광범위의) 자료를 수집, 협회자문번호사로 하여금 법적으로 부당한 처벌에 대한 해결방법이나 보상(재정적, 양심적, 자존심적)을 연구하여 받아내도록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우린 왜, 무슨 죄를 지었기에 겁을 먹고 공무원 앞에 끌리고 무시 당하는가. 우리에게 自辱이 없는가? 우리 회원 중엔 직접 건축직 공무원의 경력을 가진 회원이 상당수 있음을 알고 있다. 공무원 사회의 생리를 그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로(단체적)하여금 그 옛날 직장의 후배적인 현 건축직 공무원들에게 사회에 나와서의 공무원일 때와 다른 사회체험을 타일러줄 의무도 있을 뿐더러 현재의 건축사들의 입장이나 건축사협회의 위치나 성격등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안다. 말단 공무원이란 국민과 가장 많은 접촉을 가지는 곳이므로 그들의 방만이나 불쾌한 언동은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나 불쾌감으로 확대하는 요인이 되게 한다. 국민과의 접촉점이라는 최일선이 이처럼 감각적으로 예민한 곳인데 정치가나 관리지도자들이 모르고 있는지, 알면서도 신경을 안쓰는지, 미안하지만 그렇다면 정치가도 관리지도자도 될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또는 건축사들이 국민의 住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접촉이 많고, 정부의 측면에서도 국민과 가장 접촉이 많은 말단 공무원과의 사이의 미묘한 사정을 모르고 있다면 정치가나 관리지도자라는 말을 하지 말아주기 바라며, <보편적인 보통사람>이라고 하라.

지난날 국가의 재산을 횡령해서 사유재산을 마련했다든지 어느 지방에 대농장을 가지고 마치 제 세상처럼 설치된 사람들이 오늘날 백주의 거리를 활보하는 현세이건만 양같이 착한 마음의 국민들이 용서해 준 아량도

모르고 잘보거나 으스스했다면 언제인가는 또한반 역사의 장막뒤로 묻히게 될지도 모를 것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관공리의 고하를 막론하고 국민 앞에 큰소리 칠 수 있는 이가 몇명이나 되는가. J모씨가 국방부 장관사절에 고관과 재벌들 자제의 병역기피 외국유학자 명단을 발표한다고 하다가 퇴임당했다는 소문이 과거에 있었는데 이 소문은 무엇일 의미하는 것인가. 최근에는 서울시장을 지낸 모씨가 쇠고랑차고 수감되는 모습이 TV로 보도되어 만천하의 눈이 다보지 않았단가. 얼마전에는 ○○구청 건축과장 등 수명의 건축직들이 연루된 무더기 비리사건이 신문과 TV에 보도되었는데 옛날 같으면 어물쩍 묻혀 버렸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밝아진 세상인데 아직도 우직하게 큰소리치면서 관료주의적 체취를 풍기거나 감정적 공무원치리로 비리를 저지르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어리석은 자일 것이다. 곧 地自制가 실시되면 공무원 인사권을 地自制議會에다 맡겨야 한다는 소리가 높은 것은 무엇을 말함일까를 생각이나 해보기 바란다.

士協은 또 士協대로 호호하고 있는 것인가? 당하고만 있는 것이 士協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때까지 수많은 곡절과 파란이 많았던 사협도 이제 움직여야하고 발언해야하고 제안해야 하고 성토할 것은 성토해야 할 것이다. 과거 사협 총회에 축사를 위해 건설부장관의 대리로 나온 모 局長이 단상에 너댓번이나 멋대로 등단하면서 協會定款대로 추진하고 의결된 사항을 건설부 의견대로 안고치면 승인을 해주지 않겠다고 해서, 그 총회를 해산시킨 형식을 취하고 즉석에서 새 총회를 소집한 것으로 함으로써 건설부의 모 局長이 하라는대로 하여 새로이 의결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 회원이 몇명이 있을까? 그 분은 공교롭게도 그 일 이후 그 전후의 비리가 발각되어 파직 당했는데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때 대개의 경우 설치고

아는채하고 큰소리로 으시대는 공무원들 중 상당수가 혹시 비리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게 된다.

건축사들이 양심적으로 자기를 분야에서 성실히 묵묵히 일했다면(전문가로서 또 예술가로서) 이거야말로 애국자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국가나 사회가 이런 건축사를 애국자로 대우나 인정을 해준 일이 있었던가. 죽으면 국립묘지에 묻어 주었던가를 묻고 싶다.

바라건대 우리 회원 여러분은 욕심내지 말고 위법하지 말고 성실히 자기 분에 맞는 일을 하면서 부당한 것은 모조리 협회 한 창구로 모아 신중공평하게 검토한 다음 그 결과 여하에 따라 항의, 상도 제소를 해서 우리의 권익을 지켜야 할 것이며 조속히 전회원의 억울함과 부당했던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창설되어 그런 사안들이 냉엄롭게 회복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우린 이제 民主化란 최 戰線에 선 병사로 어떤 인이나 어떤 기관이건 비민주적일 때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물론 우리 회원이 다 성인군자이거나 道人은 아니다. 많은 회원들중엔 여러가지로 다른 여건에 있는 이가 있지만 우린 건축적 의식으로 이런 일을 추진 시켜야 할 줄 안다.

이제 미구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것이 확실하다. 이때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다. 몇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각 支部가 지방 특성에 맞추어서 獨立豫算으로 운영해 나가던 것을 統合豫算編成으로 하라고 강력한 지시가 그 옛날에 내렸던 일——. 그 이유는 통합예산으로 해야 절약이 된다는 것이고 건설부가 統轄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왜 우리들이 오손도손 잘 해나가는데도 도도히 관여하려고 하고 무엇인가 풍파를 일으키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잘되고 있는 것을 건드리고 바꾸고 이래라 저래라 해야 직성이 풀리는 모양이다. 土協은 업무침해라고 아우성을 쳤지만 대형건설회사들의 로비 활동에 의한 탓인지 건축사법을 어기면서 “턴키 베이스”방법으로 설계하라고 한 때가 언제이고, 몇번인가

실행해 보니 건설업자들은 어떤 공사에서 낙찰되지 못하면 그것으로 그만이지만 턴키 베이스로 하면 낙찰도 안되고 설계비용만 지출되니 자기네들에게 불리하니 그만두자고 해서 그런 법인가 규정인가를 호지보지해 버리고 원상대로 현존하게 되었고 그런 일이 언제 있었더냐 式이 되고 말았다.

이런일 저런일 아무리 생각해 봐도 만만한 것이 건축사협회인 모양이다. 그러나 이젠 그렇게는 안될 것이고 地自制에 우린 기대를 걸고 각지부는 각지방별로 운영될 것이며 서울은 서울지부장에게 강력한 권의를 할 것이다. 도대체 연서제니 뭐니해서 감리단이니 지역감리점점반이니 하더니 그것도 몇개월 되지 않아서 없어졌다. 행정을 연구하고 하는 것인지 즉흥적으로 하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우린 행정의 실험용 모르모트가 아닌 것이 확실한데 책상 위에서 문득 생각난 것을 제안하면 검토나 시험적으로 일부 시도도 안해보고 즉석에서 결정해서 지시니 조례로 만들어서 하달해버려 그 피해자가 되는 예가 허다 했다. (이 하달한다는 단어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관료적인 단어이다)

법이나 규정은 그 입법의 정신과 취지가 반드시 있고 실시함에 있어 더욱 세밀하게 하기 위해 細則이니 令이니 條例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것들이 母法의 정신이나 취지에 위배되거나 초월해서 統制되거나 행정의 편리나 효율에 유리하게만 만들었다면 그 규정이나 세칙이니 조례는 확실한 위법인 것이다. 이것은 법이론상에서도 입법의 의미나 필요가 상실되고 독재나 독선으로 가는 길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違憲이 되는 것이다. 우린 이때까지 정부나 행정에서 이러한 사례를 얼마든지 체험했고 보아 왔고 현재도 얼마든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조문의 유권적 해석에서 문학적 뒤안스가 아니더라도 가장 상식적인 면에서 보아도 그런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면서도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을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유권적 해석을 내린것이 해당 관리행정직들이 아니었던가?

◆ 崔 昌 奎

필자는 1917년 함경남도에서 출생, 동경 공하고동공업학교 건축과를 졸업하였다. 1972년에 한국건축가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건축사사무소 신진을 자영하고 있다.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의 지정기준

건설부 고시 제310호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의 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 목적

이 고시는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이하 방화재료라 한다)의 지정기준을 정함으로서 그 성능을 확보하고 방화재료의 생산 및 유통을 합리화하여 사용자에게 편리를 도모하고 건축물에 대한 재해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2. 방화재료의 시험방법 및 기준

가. 시험기관이 방화재료의 시험을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공업표준화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KS A 3151(랜덤 샘플링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시료를 제작할 때에는 시험기관의 지시·감독에 따라야 한다.
나. 방화재료의 시험방법과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 방화재료지정의 신청과 심사

가. 신청
건축재료를 제조하는 자 또는 그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해당 건축재료를 사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나 건축공사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재료의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방화재료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건설시험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나. 심사
1) 심사내용은 방화재료 자체의 방화성능에 관한 사항과 동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제품의 제조·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2) 심사시에는 관계인이 출석하여 보고·설명할 수 있다.
3) 국립건설시험소장은 필요할 경우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제조,

시공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인은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현장을 공개하여야 한다.

4. 지정의 공고와 효력

가. 국립건설시험소장은 3.나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방화재료를 심사하여 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표준시방서(규격, 시공방법)를 포함한 그 지정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나. 효력

1) 방화재료로 지정된 재료(이하 지정방화재료라 한다)의 효력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지정방화재료가 한국공업규격표시품 이외의 경우에는 그 효력기간을 1년으로 하며, 건축재료의 제조 또는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정방화재료의 효력은 1회에 한한다.
2) 방화재료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당해 지정방화재료의 효력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이전에 실시한 방화성능시험성적서를 국립건설시험소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3에

신청서류의 종류	기 재 사 항
① 방화재료 설명서	○ 재료설명서 (재료의 형상, 구성재료명, 재질, 성능등) 표준시방서, 시공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신청인의 영업개요	가. 제조업자 및 공급업자의 경우 - 영업의 연혁 및 실적 - 자본금액 - 종업원수 - 조 직 - 제조시설 (공급업자의 경우에는 불필요) - 공장등록증 (공급업자의 경우에는 불필요) 나. 한국공업규격표시품 제조업자의 경우 - 한국공업규격표시허가증 사본 다. 건축주나 공사시공자의 경우 - 건축주 - 건축물의 위치 - 건축물의 연면적 - 건축물의 구조 - 공사기간
③ 품질관리 설명서	가. 방화재료의 품질기준 - 사용재료의 품질기준, 제조방법, 방화재료의 물리적 성능 및 화학적 성능, 시험방법 및 기타 나. 방화재료의 공장검사 기준 (제조업자의 경우에 한함) - 제품검사 관계내용 - 시험설비 및 기타 다. 현장시공 검사기준 - 현장시공 시방관계 검사내용 및 기준
④ 방화성능 시험성적서	○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국립건설시험소장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행한 방화성능 시험성적서 (별지 제 2 호서식에 의함)

의한 방화재료의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3) 지정방화재료가 지정내용과 다른 표면도장이나 화장재료의 침부 또는 바탕재료에 따라 방화성능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정방화재료로 보지 아니한다.

4) 지정방화재료는 당해 재료를 신청하여 이를 지정받은 자가 아니더라도 그 지정내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5. 지정의 표시

가. 방화재료로 지정된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국립건설시험소장지정 (지정번호)
(방화재료 구분)
(회 사 명)
(유효기간)

- 1) 글자체는 고딕체로 명료하게 관독될 수 있어야 한다.
- 2) (방화재료 구분)은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 3) 표시방법은 제품 또는 그 포장에 상기 증표의 침부 또는 날인증으로 하여야 한다.

6. 품질관리 및 검사기능

가. 품질관리

방화재료의 지정을 받은자가 지정방화재료를 제조할 때에는 다음의 자체검사 및 공정관리를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 및 공정관리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1) 재료의 검사
- 2)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 3) 제품검사

나. 실적보고

방화재료의 지정을 받은자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실적보고서에 매년도 생산 및 판매실적과 품질관리 상태에 대하여 당해년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립건설시험장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검사

국립건설시험소장은 가.에 정하는 품질관리 실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자체검사의 실시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라. 현장검사

건축재료의 특성 및 시공방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검사의 종류 및 시험방법과 판정기준은 국립건설시험소장이 정하여야 한다.

7. 지정의 취소

국립건설시험소장은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고시하고, 그 사유를 붙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지정방화재료의 생산(또는 판매)이 중지된 경우
- 2) 지정방화재료의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 3) 신청인이 지정신청을 반납하는 경우
- 4) 기타 지정방화재료의 성능이 확보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칙

① (시행일)이 고시는 89. 2. 24부터 시행한다. 다만, 2 및 3의 규정은 고시일의 다음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등)건설부 고시 제242호(82. 7. 2) 건축물내장 재료의 연소가스유행성 시험방법은 89. 2. 24자로 폐지하고, 건설부 고시 제94호(80. 4. 8)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및 안연재료의 기준준불연재료 및 안연재료에 관한 사항은 89. 2. 24자로 이를 삭제한다.

지하 3층 이상의 고수압에는 무란새 방수로 !!!

침투성 방수제 / MURANSE

무란새

포루마

수용성아스팔트방수제

(주)동방포루마 276-0123-4

協會消息

제 6 회 理事會 開催

7월15일(금) 본협회 회의실에서 제 6 회 理事會를 개최하였다.
安箕泰 회장 주재로 常勤副會長, 理事, 監事, 서울支部長 職務代任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본 理事會에서 결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의사항〉

• 건축사연금 연구용역의뢰 및 용역비 지출 :
건축사연금제도의 개선 및 연금규정의 합리적인 개정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연구 용역을 의뢰키로 제 2 회 연금 8 인 소위원회(88. 6. 10) 및 제 2 회 연금운영위원회(88. 6. 28)에서 협의 결정한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연구용역비의 재원 충당을 승인받고자 상정한 案이며 협의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고 세부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박성규 이사에게 위임하기로 함.

• 실적회비 환불여부 : 경기도 지부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우 도서신고시 납부한 회비의 환불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어 부의한 案으로서 즉,

- ① 경기도지부 소속회원 L 건축사는 87년11월 경기도지부 K 분소에 실적회비 및 연금회비를 납부하고 도서신고를 필하였으나 N 郡에 허가출원을 하였으나,
- ② 허가청으로부터 단지내 진입로 미개설 및 재반허가사항이 적법하지 않다는 사유로 반려통보 되었음.
- ③ 해당회원 L은 재반 허가조건 준비로 계류중 88년 4월30일자로 원에 따라 자진 폐업하면서 동설계건을 다른 건축사에게 위임하였으며
- ④ 위임받은 건축사는 再 도서신고시 실적회비와 연금회비를 다시 납부하였음. 이러한 경우 당초 L 건축사가 납부한 실적회비 및 연금회비를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협의한 결과 환불하지 않기로 결정

• 직원임용 승인 : 광주직할시 지부장으로부터 현재 공석중인 사무국장의 임용제청이 있어 부의,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

[참고 : 임용제청사항]

성명 : 정명호

생년월일 : 1942년 2월 10일(만46세)

학력 : 대졸 (전남대학교 상과대학)

• 자문세무사 선임 : 본협회 자문세무사 선임을 협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선임키로 함.

성명 : 홍현국

생년월일 : 1935년 10월 10일(만53세)

사무소 : 대영회계법인 대표

자격 : 세무사, 공인회계사

• 89년도 예산편성위원회 구성 : 1989년도 예산편성지침 및 예산편성을 위하여 89년도 예산편성위원회를 구성코자 위원 선임을 부의한 결과 회장에게 위임키로 결의

〈협의사항〉

• 우수건축자재 전시회 개최 : 아시아 건축사대회와 관련하여 본협회에서 업계 대표로 우수건축자재전시회 추진위원회를 구성, 우수건축자재전시회 개최를 위한 제반업무를 추진중인 바 향후 본협회 연례행사로 매년 지속 개최할 것인지 협의한 결과 매년 개최키로 협의.

• 공사감리비 선납제도 개선 : 현상태대로 계속 시행해 나가되 그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건설부에 제출키로 협의.

• 건축사 보수기준의 해석 : 설계비는 보수요율표를 활용하여 받되 실적회비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면적 증가분만 받는 것으로 협의.

• ACA-3대회 찬조금 모금 :

찬조금을 모금해도 좋다는 것과 모금방법에 따른 세부사항은 ACA-3대회 집행본부에 위임키로 협의

• 건축사보조원의 연합노조결성 및 집단행동에 대한 협의 :

가. 건축사 보조원의 연합노조 결성 및 집단 행동에 대한 문제를 전담할 위원회를 구성함.

- 위원회명 : 위원들이 추후 결정토록 위임함

- 위 원 : 박성규, 이종엽, 우남용,

이세훈

나. 보조원들의 노조활동으로 인하여 부득이 자진폐업하였다가 재입회할 경우에는 입회비는 전액 면제키로 함 (잠정 폐업시 연금에는 하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함)

다. 일련의 사태 발생으로 지부 또는 분소업무가 마비되었을 경우에는 본부 또는 인접지부에서 도서신고 업무를 처리키로 함. 보조원들의 과격한 노조활동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자진 잠정 폐업할 경우에는 기 수주된 업무는 타 건축사에게 위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마. 건축사 보조원의 연합노조 결성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예비비 예산 한도내에서 사용을 승인함.

• 인천지부 도서신고 부정사건에 대한

협의 : 인천지부 자체조사에 대한 확인 조사를 감사가 실시하여 총회에 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종결짓기로 하되 인천지부에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고 조치키로 협의

建築士 特別銓衡試驗대비 研修





▲ 제 6 회 理事會

본협회는 6월27일~8월27일 기간중 건축시특별전형시험(2급건축사) 대비를 위한 연수를 실시키로 하고 1차 연수를

인천 반수동소새 건설기술교육원에서 7월18일~7월30일의 2주간 실시하였다. 연수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수내용 및 시간표 (1 주)

일정 시간	7. 18(월)	7. 19(화)	7. 20(수)	7. 21(목)	7. 22(금)	7. 23(토)	비고
09:10~10:00	입 교 식	계 획 각 론(3) {이명호}	계획원론(3) {손장열}	교육원행사	일반구조(8) {이갑조}	계획원론(10) {손장열}	
10:10~11:00	계획각론(1) {이명호}	" (4)	" (4)		" (9)	" (11)	
11:10~12:00	" (2)	" (5)	" (5)		" (10)	" (12)	
12:00~13:00	중 식						
13:10~14:00	구조역학(1) {장동찬}	계 획 원 론(1) {손장열}	구조역학(4) {장동찬}	계획원론(6) {손장열}	계획각론(6) {이명호}		
14:10~15:00	" (2)	" (2)	" (5)	" (7)	" (7)		
15:10~16:00	" (3)	철근콘크리트(1) {장동찬}	" (6)	일반구조(5) {이갑조}	" (8)		
16:10~17:00	일반구조(1) {이갑조}	" (2)	일반구조(3) {이갑조}	" (6)	계획원론(8) {손장열}		
17:10~18:00	" (2)	" (3)	" (4)	" (7)	" (9)		
18:00~							

연수내용 및 시간표 (2 주)

일정 시간	7. 25(월)	7. 26(화)	7. 27(수)	7. 28(목)	7. 29(금)	7. 30(토)	비고
09:10~10:00	구조역학(7) (장동찬)	계 획 각 론(9) (이명호)	일반구조(4) (이갑조)	구조역학(2) (장동찬)	계획각론(7) (이명호)	구조역학(5) (장동찬)	
10:10~11:00	" (8)	" (10)	" (5)	" (3)	" (8)	" (10)	
11:10~12:00	" (9)	" (11)	" (6)	" (4)	" (9)	" (11)	
12:00~13:00	중 식						
13:10~14:00	철근콘크리트(4) (장동찬)	철근콘크리트(6) (장동찬)	계획각론(2) (이명호)	일반구조(7) (이갑조)	일반구조(10) (이갑조)		
14:10~15:00	" (5)	" (7)	" (3)	" (8)	" (11)		
15:10~16:00	일반구조(1) (이갑조)	" (8)	" (4)	" (9)	" (12)		
16:10~17:00	" (12)	구 조 역 학(4) (장동찬)	철근콘크리트(9) (장동찬)	계획각론(5) (이명호)	철근콘크리트(11) (장동찬)		
17:10~18:00	" (13)	" (11)	" (10)	" (16)	" (12)		
18:00~							

「建技法」의견제출

본협회는 6월29일 建設技術管理法 (법률 제3934호 87. 10. 24) 이 제정 공포됨에 따른 시행령(안)의 입법예고 (88. 6. 1) 에 대한 본협회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在所者 돕는 建築士

서울地檢東部支廳 관내(성동, 강동, 강남, 송파, 서초) 건축사 6백여명이 城東拘置所教化協議會(회장 李鍾寬)가 운영하고 있는 「만남의 날」 지정사업 후원에 자진 참여하고 있다. 일시의 잘못으로 청소년들이 구치소에서 교정, 교화되어 새롭게 社會에 나오고 있으나 또 다시 재범을 저질러 재수감된 이들의 교화를 위해 구치소내에서의 강연예망 등 선도사업 일환으로 자유롭게 구치소식당에서 이들과 함께 오찬을 나누면서 호뜻한 대화와 선물 및 의견청취등을 통해 재범예망을 위해 많은 교화위원들이 남의 눈을 피해 운영해 오고 있음을 알게 된 건축사들이 이들의 사업을 후원할 것을 결심, 5월15일 현재까지 재소자들에게 유익한 정서도서 및 방송교육용 기자재 등의 구입에 보태 써날라고 각건축사들이 성금을 모아 2백50여만원을 전달한 것. 또한 관내 各分所長(성동, 강동, 강남 등)들이 슬선 앞장서서 이 사업의 목적을 弘報하여 서울지부의 남은 17개 分所會員들도 교화사업을 전개하도록 이끌것을 다짐하고 있어 全國의으로 시행하고 있는 성동구치소교화위원회의회의의 「만남의 날」 지정사업이 「교화」의 훌륭한 표본으로 가꾸어지고 있다.

協會消息

釜山 建築士福祉會館 設計公募

부산직할시지부(지부장 鄭煥鎬)는 부산건축사복지회 회원 건축설계 현상공모를 하여 다음과 같이 입선작을 결정하였다.

- 총응모작: 19작품
- 당선작: 이중민회원(종합건축사사무소 자유 동서)
- 우수작: 최행희회원(종합건축사사무소 공간 삼정 도성) 유우식 이재홍 이재봉회원(종합건축사사무소 중원) 이용흥회원(종합건축사사무소 일신) 백춘근회원(부산종합건축사사무소) 이주권회원(삼희 건축사사무소)

全南 建築士補교육 실시

전라남도지부(지부장 金仁模)는 7월 8일 추선회관 5층 회의실에서 趙向元道住宅課長과 관계공무원을 비롯 지부장 및 사무직원, 건축사보 등 1백8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사보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내용과 강사는 다음과 같다.

- 건축사보 실무요령...김인모(지부장)
- 건축행정 건실화대책...김봉규(주택행정계장)
- 이상 도시안과 주택단지설계...김대성(농촌주택계장)

바로 잡습니다.

1988년도 회원명부 내용중 제주지부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바로 잡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건물에너지분과위원회 사업계획(안)

No.	사업명	대상	방법	구분	단기	장기	비고
1	설계공모전	일반 및 학생	현상공모	에너지절약형		○	
2	설계지침서 작성	주거와 비주거		부위별 성능 및 설계기준	○	○	시리즈 공급
3	건축사교육	전국 건축사	건축사 교육시	분과위원중 강의		○	
4	자문기구설치및 교류관련부서및 기관)	책임부서장 및 부	추대	민·관·연 및 메이커		○	
5	세미나개최	태양에너지학회 및 공조학회		건축사교육기간중 학술발표회		○	
6	E 신단관리기구	전 건축물	준공시카드제출	주거용 비주거용		○	건축물단열제 사용 카드제 안전진단기기 설치
7	자재메이커와의 협조체제 구축						



◀ 전라남도지부는 건축사보 교육 실시의 동시에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건축사보 5명을 표창하였다.

- 건축법 해설 및 질의...이병이(도시주택계장)
- 또한 이날 5년이상 장기 근속을 한 건축사보중 근면 성실한 건축사보 5명을 선정하여 지부장의 표창패를 수여하였는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이호성(삼익건축사사무소 7년근무)
 - 윤순하(신광건축사사무소 11년근무)
 - 정태열(강민섭건축사사무소 9년근무)
 - 강형수(새원건축사사무소 13년근무)
 - 백상열(이광성건축사사무소 15년근무)

建物에너지 事業計劃 確定

建築委員會

건물에너지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李鍾寬)는 7월22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계획을 협의하였다. 협의된 사업계획 내용은 위의 표와 같다.

쪽	내 용	틀 립	바로잡음
18	제주지부 우편번호	690-022	690-021
35	서귀포분소 전화번호	63-3920	62-3920
247	상단 우편번호	690-022	690-021

新入會員



尹善基
1925. 2. 3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사사무소 대아
경기도 수원시 인제동 538-9
33-1913



尹鎔宇
1934. 1. 18
일본 와세다대학 건축공학과
(주) 김중업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59-11
583-9998



白景欽
1957. 4. 16
경북개발대학 건축공학과
해동건축사사무소
경북 포항시 죽노동 48-10
78-2001



安星南
1942. 2. 15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신우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539
486-3001



趙桂煥
1946. 12. 17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조이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512-7
693-5043



辛濟興
1952. 11. 13
진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사사무소 신흥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232-20
924-5668



康景模
1936. 9. 22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719-5891



金鏡明
1954. 2. 5
경원공업전문대학 건축공학과
진양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34-2
585-1185



金鍾台
1931. 1. 16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삼정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01-15
553-4610



金 縉
1954. 11. 13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조형건축사사무소
인천시 남구 만수동 385
423-8623



李東鎭
1918. 6. 15
남민공업전문학교 건축과
한민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 2동 867-28
593-9541



鄭愚鎭
1918. 6. 4
목포공업고등학교 건축과
평화건축사사무소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창전리 165
33-9104



李明振
1955. 7. 16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주) 아키프랜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0-8
553-5307



朴禮敬
1949. 1. 20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사사무소 공간
경남 울산시 남구 달동 875-19
71-7512

6월분 도서신고현황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87년도 6월분 4백49만5천4백81㎡ 보다
62% 2백79만7천9백35㎡ 가 증가한
7백29만3천9백35㎡ 의 실적을 보였다.

나. 전년동기비

87년도 1월~6월분 합계한 전년누계
2천5백33만3천7백23㎡ 보다 47%
1천1백98만5천8백56㎡ 가 증가한
3천7백31만9천5백79㎡ 의 실적을 보였다.

다. 전월비

지난 5월분7백44만1천1백59㎡ 보다 2.0%
14만7천7백43㎡ 가 감소한 7백29만3천4백
16㎡ 의 실적을 보였다.

全國圖書申告概況(地域別 増減狀況)

(연면적 기준)

(단위㎡)

지부별	구 분	87년도	88년도	비율(%)
증가지역	서울지부	847,575	1,583,649	87
	인천지부	241,161	770,905	220
	경기지부	780,935	1,209,087	55
	강원지부	125,787	156,839	25
	충북지부	162,266	170,295	5
	충남지부	291,724	717,704	146
	전북지부	107,383	224,053	109
	전남지부	155,223	432,303	179
	경북지부	271,631	536,410	97
	경남지부	469,643	533,542	14
감소지역	부산지부	548,819	524,593	- 4
	대구지부	205,443	202,450	- 1
	광주지부	198,800	176,667	- 11
	제주지부	89,091	54,919	- 38

全國圖書申告概況(種別前月對比 狀況)

(연면적 기준)

(단위㎡)

종 별	5 월분	6 월분	증·감	비율(%)
단 독 주 택	1,325,393	944,158	- 381,235	- 28.8
다 세 대 주 택	287,395	297,733	10,338	3.6
연 립 주 택	198,436	184,383	- 14,053	- 7.1
아 파 트	1,592,012	2,369,050	777,038	48.8
근린생활시설	1,422,816	1,282,907	- 139,909	- 9.8
종 교 시 설	114,462	58,935	- 55,527	- 48.5
의 료 시 설	21,782	18,025	- 3,757	- 17.3
교육연구시설	137,885	129,345	- 8,540	- 6.2
업 무 시 설	262,238	274,269	12,031	4.6
숙 박 시 설	245,352	170,126	- 75,226	- 30.7
공 장	1,287,681	1,053,580	- 234,101	- 18.2
기 타	545,707	510,905	- 34,802	- 6.4
계	7,441,159	7,293,416	- 47,743	- 0.64

支部別 全國圖書申告現況(6月分)

구분	신축·개축·재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서울지부	1,890	2,032	1,524,774	178	192	58,875	0	0	0	2,068	2,224	1,583,649
부산지부	1,454	1,700	461,017	384	418	48,155	61	62	15,421	1,899	2,180	524,593
대구지부	612	648	177,082	619	651	18,692	29	29	6,676	1,260	1,328	202,450
인천지부	473	523	752,783	25	27	15,340	15	15	2,782	513	565	770,905
광주지부	412	418	159,125	94	95	15,314	11	11	2,228	517	524	176,667
경기지부	1,908	2,078	1,053,269	251	273	113,183	54	54	42,635	2,213	2,405	1,209,087
강원지부	416	482	128,310	107	108	23,106	16	16	5,423	539	606	156,839
충북지부	530	592	131,541	157	165	35,716	18	19	3,038	705	776	170,295
충남지부	824	824	530,229	203	203	171,528	149	149	15,947	1,176	1,176	717,704
전북지부	253	290	187,821	82	85	32,419	18	18	3,813	353	393	224,053
전남지부	458	556	381,561	141	182	50,015	5	5	727	604	743	432,303
경북지부	591	693	292,095	165	228	232,329	19	19	11,986	775	940	536,410
경남지부	1,301	1,493	425,576	507	609	100,744	22	22	7,222	1,830	2,124	533,542
제주지부	205	228	44,920	28	28	9,935	1	1	64	234	257	54,919
합 계	11,327	12,557	6,250,103	2,941	3,264	925,351	418	420	117,962	14,686	16,241	7,293,416

用途別 全國圖書申告現況(6月分)

구분 용도별	신축·개축·제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단독주택	5,723	5,965	865,771	1,159	1,228	73,647	74	74	4,740	6,956	7,267	944,158
다세대주택	1,448	1,538	284,903	327	333	11,818	11	11	1,012	1,786	1,882	297,733
연립주택	90	165	183,999	1	1	152	1	1	232	92	167	184,383
아파트	120	493	2,352,535	11	14	16,401	1	1	114	132	508	2,369,050
근린생활시설	2,571	2,618	1,030,497	641	646	211,844	212	214	40,566	3,424	3,478	1,282,907
종교시설	76	83	49,157	42	46	9,577	2	2	201	120	131	58,935
의료시설	7	8	8,639	10	10	9,222	1	1	164	18	19	18,025
교육연구시설	44	52	78,845	66	69	47,729	17	17	2,771	127	138	129,345
업무시설	135	140	231,203	55	57	38,042	6	6	5,024	196	203	274,269
숙박시설	135	164	143,288	50	50	18,590	7	7	8,248	192	221	170,126
공장	359	581	657,391	248	412	355,056	39	39	41,133	646	1,032	1,053,580
기타	619	750	363,875	331	398	133,273	47	47	13,757	997	1,195	510,905
합계	11,327	12,557	6,250,103	2,941	3,264	925,351	418	420	117,962	14,686	16,241	7,293,416

支部別 全國圖書申告現況(1月~6月 合計分)

구분 지부별	신축·개축·제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서울지부	16,214	16,768	7,798,476	1,284	1,343	545,242	0	0	0	17,498	18,111	8,343,718
부산지부	7,191	8,332	2,786,854	2,052	2,282	378,429	306	319	93,254	9,549	10,933	3,258,537
대구지부	4,385	4,798	1,555,234	2,818	2,972	198,968	178	178	55,319	7,381	7,948	1,809,521
인천지부	3,147	3,288	2,236,370	250	283	149,454	99	100	36,767	3,496	3,671	2,422,591
광주지부	2,287	2,367	979,311	423	454	175,349	40	43	11,086	2,750	2,864	1,165,746
경기지부	12,707	13,621	5,782,178	1,565	1,712	846,781	325	325	225,665	14,597	15,658	6,854,624
강원지부	2,220	2,501	783,325	497	619	146,034	75	75	23,712	2,792	3,195	953,071
충북지부	2,678	3,017	1,037,320	722	779	270,000	73	74	14,891	3,473	3,870	1,322,211
충남지부	4,116	4,218	1,961,112	712	712	346,870	417	417	116,939	5,245	5,347	2,424,921
전북지부	1,850	2,004	1,028,427	495	512	160,242	125	125	29,577	2,470	2,641	1,218,246
전남지부	2,424	2,787	1,015,892	690	868	321,137	40	40	15,562	3,154	3,695	1,352,591
경북지부	3,874	4,355	1,667,126	1,040	1,235	717,053	113	114	50,012	5,027	5,704	2,434,191
경남지부	7,435	8,631	2,598,907	2,489	3,036	785,325	140	144	47,669	10,064	11,811	3,431,901
세주지부	1,155	1,290	291,237	138	138	36,409	1	1	64	1,294	1,429	327,710
누계	71,683	77,977	20,833,407	15,175	16,945	5,077,293	1,932	1,955	720,517	88,790	96,877	37,319,579

用途別 全國圖書申告現況(1月~6月 合計分)

구분 용도별	신축·개축·제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단독주택	39,363	40,653	6,178,797	6,530	6,902	440,703	303	303	20,419	46,196	47,858	6,639,919
다세대주택	7,033	7,372	1,527,827	1,314	1,333	62,735	35	36	3,750	8,382	8,741	1,594,312
연립주택	330	664	817,601	17	23	16,237	1	1	232	348	688	834,070
아파트	584	2,449	7,928,713	68	156	277,663	3	3	1,755	655	2,608	8,208,131
근린생활시설	17,036	17,288	6,806,187	2,967	3,016	689,593	871	876	250,911	20,874	21,180	7,746,691
종교시설	401	456	282,386	275	304	102,137	14	14	4,125	690	774	388,648
의료시설	47	51	145,384	63	65	37,177	12	12	4,106	122	128	186,667
교육연구시설	214	295	490,008	293	324	430,423	79	81	95,072	586	700	1,015,503
업무시설	629	672	1,310,894	328	351	215,140	28	28	17,976	985	1,051	1,544,010
숙박시설	940	990	942,521	282	293	197,039	68	69	43,451	1,290	1,352	1,183,011
공장	1,976	3,352	3,561,111	1,312	2,142	1,793,309	201	212	159,261	3,489	5,706	5,513,681
기타	3,130	3,735	1,530,340	1,726	2,036	815,137	317	320	119,459	5,173	6,091	2,464,936
누계	71,683	77,977	31,521,769	15,175	16,945	5,077,293	1,932	1,955	720,517	88,790	96,877	37,319,579

건축사자격 특별전형추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2급건축사에 한하여 건축사자격 특별전형 추가시험 시행계획을 건축사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부장관

다 음

1. 시험일시: 1988년 9월 4일(일요일)
2. 시험장소: 건설기술교육원(인천시 소재)
3. 시험과목

구 분	시험과목	출 제 범 위
필기시험 (객관식)	○건축구조	일반구조, 구조역학, 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계획	건축환경원론, 건축계획각론, 건축설비
실기시험	건축설계	설계설명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건축설계 과제명은 추후 정부 제 2 청사 및 각시·도 게시판에 공고		

4. 시험방법
 - 필기시험: 10:00 - 11:40(100분)
 - 실기시험: 13:00 - 18:00(300분)
5. 응시자격: 종전규정에 의하여 2급건축사 면허를 취득한 자.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기간: 1988. 8. 8~8. 12까지(5일간)
 - 교부 및 접수처: 각시·도 민원실
7. 제출서류
 - 건축사자격 특별전형 응시원서 및 면허신청서(소정양식) 1 통.
 - 사진 2 매: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3cm×4cm)으로서 동일원판이어야 함.
 - 응시수수료: 2,000원(정부수입인지)
 - 첨부서류: • 2 급건축사면허 취득후 경력증명 및 건축사사무소 개설 경력증명 1통
• 학력증명서, 신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각 1 통
8. 합격자 발표
1988. 10월중 관보게재 및 각시·도 게시판에 공고.
9.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시험당일 09:30분까지 수험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시험장 지정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 감시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응시원서는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출서류중 건축사사무소 개설 경력증명서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0. 응시자 준수사항
 - 객관식 답안작성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이외의 필기구로 작성하여 컴퓨터가 판독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점이 불가함.
 - 객관식 문제지 책형이 A 형인 경우에는 답안지 책형표시란에 A 형으로, 객관식 문제지 책형이 B 형인 경우에는 답안지 책형표시란에 B 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만약, 답안지 책형표시란에 A 또는 B 형으로 책형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책형을 잘못 표시하였을 때에는 컴퓨터 채점이 불가함.
 - 건축설계도면(설기)은 흑색연필등 필기구를 사용하되 설계용지 해당란에 상명 및 수험번호는 흑색 또는 청색볼펜이나 만년필 등 필기구로 기재하여야 한다.
 - 실기시험에 필요한 제도용기구 등은 추후 설계과제명 공고안에 포함한다.
11. 기타사항: 기타 시험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건설부 건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503-7365~6, 500-2874